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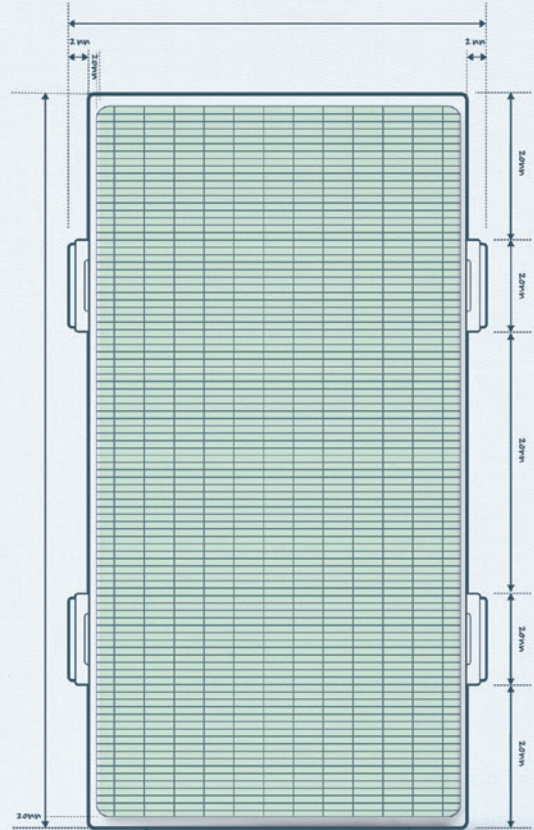
# ACHIEVE<sup>ment</sup>

AMWAY SUCCESS BUSINESS PARTNER

DECEMBER 2016 / VOL.19



# 엠티모스피어의 눈에 보이는 기술, 공기에 대한 불안한 마음까지 없애줍니다



[성능이 보인다]

- 고성능 헤파필터  
0.009 $\mu$ m 입자까지 99.99%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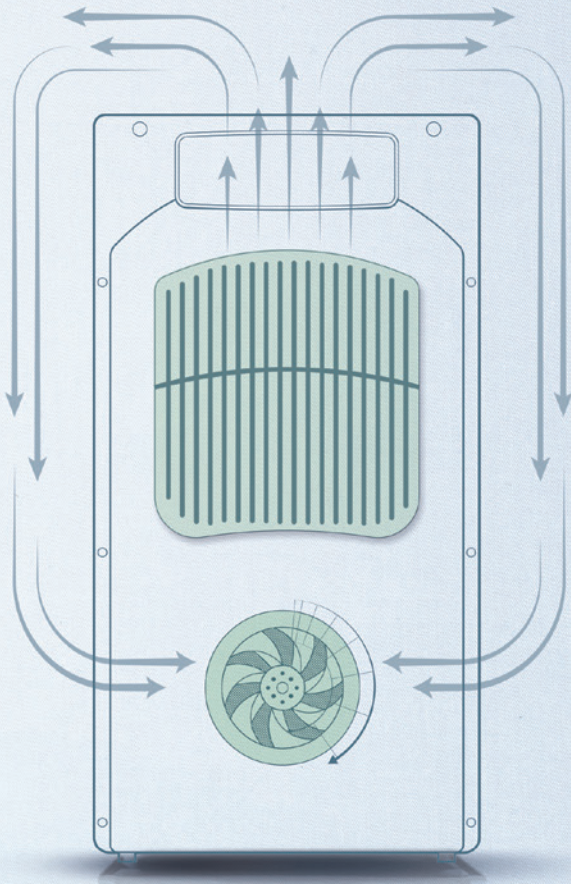
우리는 공기에 민감해졌습니다. 미세먼지, 황사, 스모그...  
 눈에 쉽게 보이는 [바깥] 공기에만

더 민감해져야 하는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실내] 공기

바깥공기보다 최대 5배 오염된 실내공기 (미국환경보호국 U.S. EPA 1987년\*\* (미국 내 조사 기준))  
 실내 공기 오염에 의한 사망자, 연간 4백30만 명 (세계보건기구 WHO / 201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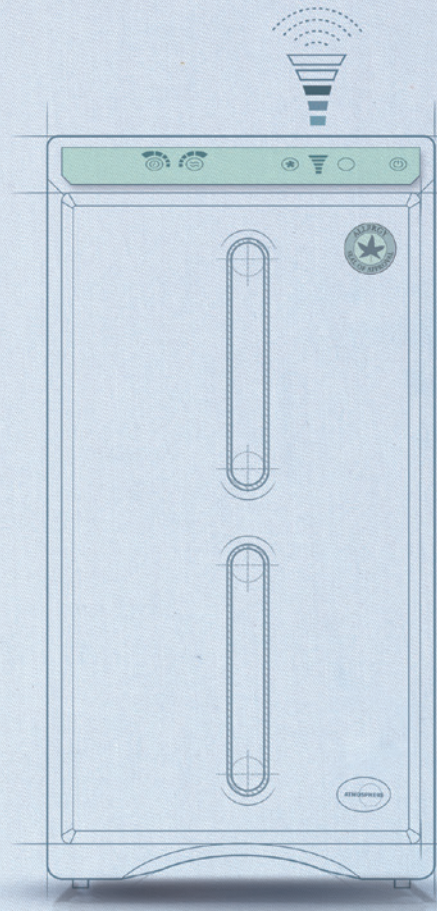
눈에 보이지 않아 소홀해지기 쉬운 실내공기

엠포스피어의 눈에 보이는 기술로, 공기 속 오염 뿐만 아니라 불안한 마음까지 없애줍니다



[디테일이 보인다]

▪ 팬 + 배출구



- Bacteria
- Cat Allergen
- Cigarette Smoke
- Cockroach
- Dog Allergen
- Formaldehyde
- Fungi
- Latex
- Mould
- House Dust Mite
- House Dust Mite Debris
- Pet Dander
- Pollen
- Silkworm Allergen
- VOCs
- Virus

[안심이 보인다]

▪ 적외선 먼지감지센서 +  
 영국 알레르기 재단 인증

좋은 공기, 그 이상  
 Beyond Air



## INTRO

### Leader's View

The Importance of Partnership / Values  
파트너십 · 가치의 중요성

03

### Global Amway

글로벌 암웨이 본사와 지구촌 곳곳의 암웨이 소식

04

### Amway Plaza good News

암웨이 플라자의 새로운 소식

08

## STORY ON

### Amway Cartoon

암웨이는 어떻게 세상을 건강하게 만들까?

10

### Amway Family

김춘덕&엄익봉 리더 가족에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14

### Amway Topic

New Diamond Conference Busan 2016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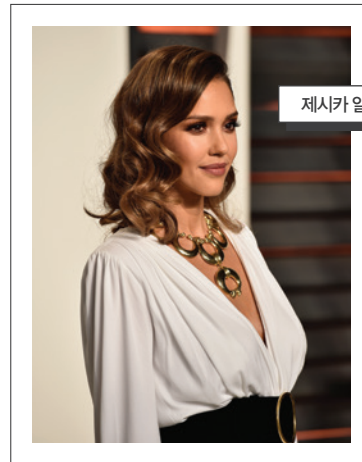


부산 컨퍼런스

### Global Young Leader

Honesty Life 건강한 아이, 건강한 세상을 위해

26



제시카 알바

## RECOGNITION

Founders Crown

32

New Diamond

44

New Achievement

132

## OUTRO

Rules of Conduct

적법한 제품 및 사업 전달 관련 안내

186

## COVER STORY

인생에서 도약을 위한 기회가 몇 번은 찾아온다고 합니다. 암웨이 비즈니스의 길은 성공과 도약으로 향하는 기회지만, 변화의 길을 넘어서야만 도착할 수 있는 길입니다. 미래의 성공이라는 열매를 얻기 위해 망설임 없이 변화의 길을 건너는 우리들, 바로 암웨이 비즈니스 오너입니다.

©Cover Illustration by Zora



ACHIEVE DECEMBER 2016 Vol. 19

등록 번호 강남, 바 00116 발행처 한국암웨이(주)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27층 발행인 박세준 편집 책임 박혜영 편집인 이민선, 장정은 제작 TNS MEDIA 02-548-0722  
디자인 디자인나무 02-3143-6720 포토그래퍼 귀도, 유재철 카툰 홍윤표 사진 Alamy, Corbis, EuroCreon, Shutterstock, Getty Images 인쇄 미래엔

# THE IMPORTANCE OF PARTNERSHIP / VALUES

## 파트너십·가치의 중요성



암웨이 회장 \_ 스티브 밴 앤델

암웨이 사장 \_ 덕 디보스

이 사업에서 성공이란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탄탄한 비즈니스를 구축해 더 높은 편에 도달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성공의 정의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는 일과 그 방식 자체도 성공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성과를 쫓는 길이 아닌, 옳은 길을 택하는 것이 암웨이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업자들이 암웨이의 목표와 가치 그리고 운영 방식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각자가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자유, 가족, 희망 그리고 보상에 대한 창업 이념을 반영한 옳은 방식으로 각자의 그룹을 키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아래 암웨이의 가치들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파트너십: 우리를 가족과 같이 이어주는 특별한 유대 관계  
진실성: 외면과 내면이 항상 일치하는 진실한 사람이 되는 것  
개인 가치: 타인에 대한 믿음  
개인 책임: 본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  
성취: 본인의 목표 달성을 기뻐하고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  
자유 기업: 다른 이들이 각자 원하는 성공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돕는 것

매일 함께 일하는 파트너들이 위 가치들을 항상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하려면 엄청난 파트너십이 필요합니다. 아주 큰 책임이라는 것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노력으로 일궈낸 탄탄한 파트너십 덕분에 리치(Rich)와 제이(Jay)의 설립 이념을 토대로 지금까지 굳건히 사업을 이끌어가고 있음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암웨이 사업의 기반인 위 가치들을 지켜온 것은 바로 우리 모두입니다. 여러분이 없었다면 이뤄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사업 번창을 위한 모든 노력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 암웨이 그리고 세계는

## 다른 나라 암웨이에는 어떤 소식들이 있을까?

대한민국 말고도 암웨이 세상은 넓고도 넓다.  
많은 ABO가 궁금해하는  
다른 나라의 암웨이 소식을 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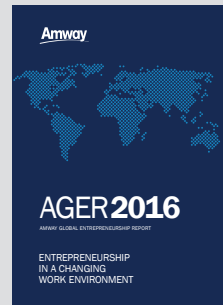
### 글로벌 암웨이의 2016년 세계 식량의 날 지원

암웨이는 2014년부터 영양 불균형에 시달리는 기아를 돕기 위해 '파워 오브 파이브 밀리언 뉴트리라이트 리틀 비츠(Power of 5 Million Nutrilite™ Little Bits™)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이 캠페인은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임에도 아이들의 다섯 번째 생일을 건강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지원이 필요한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봉사 기관들과 협력해 기아로 극심한 영양 불균형 상태에 이른 아이들에게 15가지 필수 비타민이 함유된 제품을 제작해 지원하고 있다. 암웨이는 올해의 캠페인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



### 암웨이 글로벌 기업가 정신 리포트(AGER) 발행

글로벌 암웨이에서 매년 정리해 발행하는 <암웨이 글로벌 기업가 정신 리포트(AGER)>가 지난 11월 14일 발행되었다. 올해로 7회를 맞이한 <AGER>는 암웨이 비즈니스를 넘어 세계적인 업무 환경 변화에 초점을 맞춰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 공유 경제, P2P 경제, 주문형 경제, 탈국경화 등으로 대변할 수 있는 시장경제의 변화로 인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기업가 정신에 동조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학력층일수록 이런 현상은 강해지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AGER>의 리포트 전문은 글로벌 암웨이 뉴스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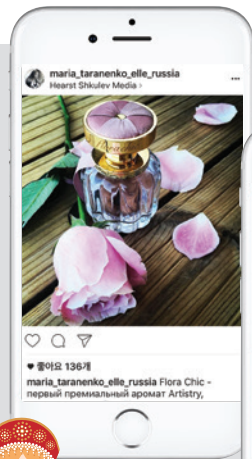
QR코드를 실행하시면 <AGER> 리포트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암웨이 러시아, 프레스 투어

## Russia

암웨이 러시아는 <코스모폴리탄>, <하퍼스 바자>, <엘르>, <마리끌레르>, <뷰티인사이드> 등의 미디어 담당자들과 함께 포르투갈의 리스본과 포르투갈령의 아름다운 휴양지이자 화산 제도인 아조레스제도로 프레스 투어를 떠났다. 특히 아조레스제도는 세계적인 여행서 <론리플래닛>에서 선정한 2017년 세계 최고의 여행지 3위로 뽑힌 바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아티스트리 이노베이션 책임자인 수미타 부타니 박사가 2016년 가을과 2017년 봄 컬렉션의 신제품인 플로라 시크 향수, 립글로스 제품을 소개했으며, 아티스트리 글로벌 수석 메이크업 아티스트인 릭 디세카의 인터뷰 등도 진행되어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중국 뉴트리라이트 투어 개최

## China

지난 10월 25일, 중국 베이징에서는 중국의 건강 교육 센터, 중국 질병 예방 및 통제 센터, 중국 뉴트리션 소사이어티와 암웨이가 함께 '제4회 중국 영양 커뮤니케이션 콘퍼런스'와 '2016 암웨이 뉴트리라이트 투어'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2012년 시작한 이후 올해로 4회를 맞고 있는데, 중국인의 균형 잡힌 영양과 질병 예방 등을 위해 열리는 전국 행사다. 암웨이는 지금까지 25개 이상의 도시에서 100회 이상의 건강 관련 강연을 진행하며 중국인의 영양과 보건 상황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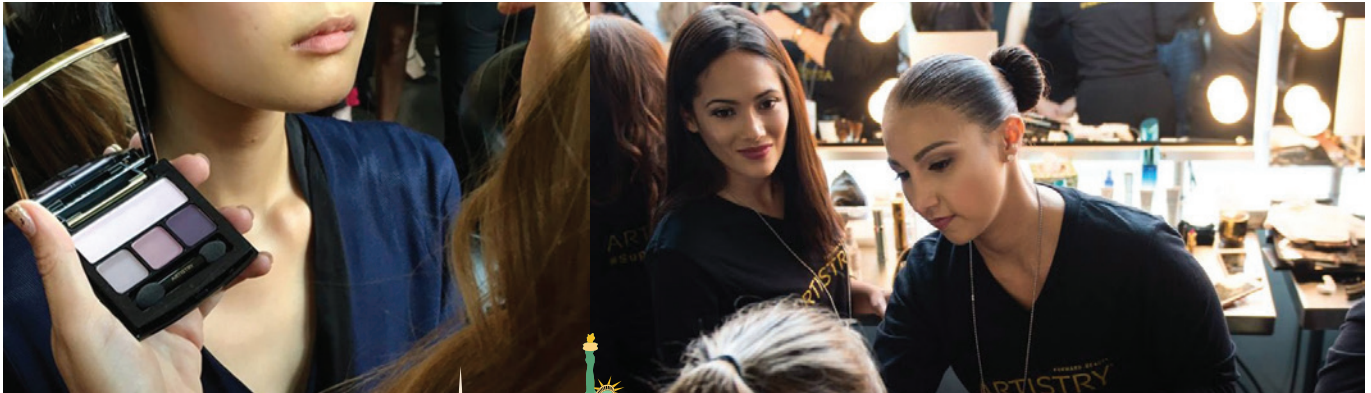


암웨이 말레이시아, 플래그십 매장 론칭

## Malaysia

지난 2016년 9월 20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페달링 거리의 파빌리온에서 암웨이 플래그십 매장 오픈 행사가 열렸다. 1,450m<sup>2</sup>가 넘는 규모의 암웨이 매장은 암웨이 리더들이 사업을 보다 편하고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세련되고 효율적으로 단장한 것이 특징이다. 또 편의성 면에서도 비즈니스 효율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뉴욕 패션위크에서  
각광받은 아티스트리

## United States of America



지난 9월 7일부터 뉴욕 패션위크가 성황리에 열렸다. 암웨이의 뷰티 브랜드 아티스트리는 품격 있고 우아한 드레스로 유명한 디자이너 파멜라롤랜드와의 콜라베이션으로 2017년 봄·여름 의상의 런웨이를 화려하게 수놓았다. 아티스트리는 패션위크 기간뿐 아니라 최근 트렌드를 중시하는 뷰티 분야의 여러 전문가에게 최고의 찬사를 받기도 했다. <마리끌레르>의 에디터들은 아티스트리의 CC크림을 최고의 파운데이션으로 선정했다. 페이스북만 해도 148만 명의 유저가 아티스트리를 방문했을 정도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 미디어의 관심 역시 매우 뜨거웠다.



암웨이 스웨덴, 자선 사업을  
위한 달리기 대회 참여



## Sweden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에서는 매년 '벨만스타페텐(Bellmansstafetten)'이라는 이름의 달리기 대회가 열려 많은 사람의 인기를 얻고 있다. 이 대회의 룰은 이렇다. 다섯 명이 릴레이로 5km씩, 모두 25km 구간을 주파한다. 많은 참가자가 가족이나 직장, 소모임 등 다양한 팀을 구성해 여러 가지 이유로 대회에 참가한다. 암웨이 스웨덴에서는 36개 팀이 자선 목적으로 경기에 참석해 대회를 즐겼다. 암웨이 스웨덴에서는 탐마다 60달러를 지원했으며, 각종 부대 행사나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비용을 추가 지원했다. 이 행사로 조성한 6,000달러의 기금은 NGO에 기부되었다.



## ABN 서비스 개편 오픈

한국암웨이의 암웨이 비즈니스 네트워크 웹사이트인 ABN이 새롭게 개편되어 10월 12일 오픈했다. ABN의 아카데미, 교육비, 예약 서비스를 제외한 전면적인 개편인 셈이다.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암웨이 사업자들을 위한 사업 지원이 더욱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모바일 서비스가 보강되어 PC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 모든 서비스를 모바일에서도 동일한 서비스로 제공하며, 유튜브와 한국암웨이의 다양한 비즈니스 관련 콘텐츠 추가로 메인 화면이 더욱더 풍성해져 암웨이 사업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를 통해 암웨이 사업자들의 개인 스마트폰을 이용한 사업 강화에 큰 도움이 되리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 한국암웨이, '한중 국제 파이토뉴트리언트 심포지엄'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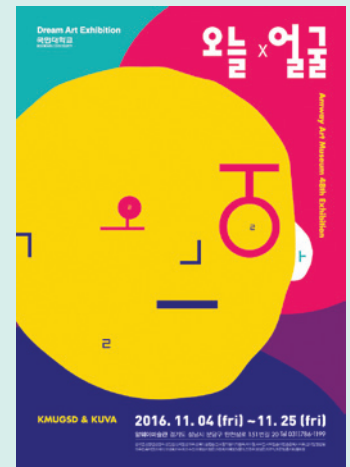
영양학 분야 전문가들의 최신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식물 영양소의 중요성을 알리는 '2016 한중 국제 파이토뉴트리언트 심포지엄(Korea & China Joint International Phytonutrient Symposium)'이 한국암웨이의 개최로 지난 10월 27일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렸다. 심포지엄은 한국식품과학회와 중국영양학회가 주관하고 한국암웨이가 후원하며, 매년 한국과 중국에서 번갈아 개최되고 있다. 올해의 주제는 '파이토뉴트리언트: 원료 연구부터 관리 정책까지'로 심포지엄 기간 동안 연구자들은 '웰 에이징(Well-Aging)과 파이토뉴트리언트(Phytonutrient: 식물 영양소)의 영양학적 효능에 대한 최신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건강기능식품 원료 관리 가이드라인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심포지엄에 참가한 아마타브 찬드라 암웨이 연구원은 뉴트리라이트가 보유한 식물 영양소 고유 패턴 분석 기법인 '파이토 뉴트리언트 핑거프린팅'을 소개해 주목받기도 했다.



## South Korea

### 국민대학교 <오늘×얼굴>展 암웨이 미술관에서 열려

분당ABC(암웨이브랜드센터) 내 암웨이 미술관에서는 '누구에게나 새로운 기회'라는 암웨이 사업의 키워드를 대외적으로 자연스럽게 홍보하는 취지로 대학생들과 'DREAM ART EXHIBITION PROJECT'를 진행했다. 지난 11월 4일부터 25일까지 이어진 프로젝트는 국민대학교 학생들과의 협업으로 진행된 <오늘×얼굴>展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순간의 소중함을 기억하고, 예술을 통해 현재를 사랑하고 삶의 아름다움을 생각해볼 수 있도록 '초상'이라는 공통된 주제로 학생들만의 다양하고 새로운 표현 방식으로 작품을 선보여 많은 호응을 얻었다.



## 새롭게 문을 연 암웨이 브랜드 센터 해운대점과 암웨이플라자 대구점

한국암웨이 25주년을 맞아 매장 두 곳이 새롭게 문을 열었다. 부산에는 암웨이플라자 부산점에 이은 두 번째 지점으로 암웨이 브랜드 센터 해운대점이 오픈했고, 암웨이플라자 대구점은 오랜 세월의 흔적을 벗고 레노베이션을 진행했다. 일주일에 몇 번씩 마켓에서 필요하거나 주문받은 제품을 구입하기도 하고, 미팅 혹은 중요한 교육, 요리와 뷰티 클래스가 열리는 곳. 경제적 부분과 일상의 휴식과 충전, 라이프스타일까지 모두 공유하고 완성해나가는 곳. ABO 리더에게 암웨이플라자란 그런 곳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로 가는, 내가 사는 지역의 암웨이플라자에 관심이 많이 가는 것은 당연할 터. 최근 대구·경북과 부산·경남 지역의 ABO 사이에 화제가 된 이야기는 암웨이플라자 대구점의 리뉴얼과 새롭게 해운대에 모습을 드러낸 암웨이 브랜드 센터 해운대점의 오픈 소식이었다. 이 두 곳이 어떻게 변했고, 또 어떤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했는지 소개한다.

01  
GRAND  
OPEN

바닷바람을 가르며 나가는 배처럼  
암웨이 브랜드 센터 해운대점



지난 9월 29일 신규 오픈한 암웨이 브랜드 센터 해운대점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 해운대구 좌동에 자리 잡고 있다. 대한민국 대표 항구도시 부산의 특성을 반영해 '포트 웨이'라는 테마를 도입한 곳이다. ABO들에게 비즈니스의 향해를 함께하는 선착장이자 지역 주민들에게는 휴식을 위한 항구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러한 콘셉트에 맞춰 실내 인테리어 역시 백사장을 연상시키는 화이트 컬러의 내부 인테리어를 기본으로 원목을 섞어 시원한 느낌을 더했으며, 시계탑 조형물 등으로 항구도시 분위기를 잘 살려냈다. 암웨이 브랜드 센터인 만큼 고객 맞춤형 브랜드 체험 공간인 '브랜드 익스피리언스 룸'을 별도로 마련해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 면모도 갖췄다. 이곳에서는 사업자가 소비자가 원하는 방향에 맞춰 직접 강연이나 교육 등의 문화·브랜드 연계 체험 프로그램을 설계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 하나 주목할 것. 바로 전 세계 암웨이 지사 중 한국에서 최초로 도입하는 'R&D 사이언스 존'에서 뉴트리라이트 농장, 연구 시설, 제조 현장 등을 영상으로 구성해 글로벌 웰니스 기업으로서 암웨이가 그간 축적해온 R&D 역량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암웨이의 자량인 사회 공헌 활동을 가상현실(VR) 장비로 체험할 수도 있다. 물론 한국암웨이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마켓, 뉴트리라이트 제품을 활용한 웰빙 식음료를 판매하는 파이토 카페, 브랜드 체험 부스, 쿠킹 클래스를 진행하는 킨 룸 등은 기본이다.



ADDRESS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793 2층  
TEL 051-703-9366

02

RENEWAL  
OPEN

성공과 안정이 어우러져 여유롭게 되살아난 비즈니스 공간  
암웨이플라자 대구점



암웨이 브랜드 센터 해운대점이 지역적 특성을 살려 바다와 항구를 담아냈다면,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온 암웨이플라자 대구점은 말 그대로 위치 빼고는 모든 게 달라졌다. 지난 9월 28일 새 단장한 암웨이플라자 대구점은 일단 슬로건부터 흥미롭다. '컬러풀 대구'. 다양한 산업과 문화 콘텐츠를 채워가는 대구라는 도시의 특성을 반영해 만남과 대화의 장소를 뜻하는 '소셜 에비뉴', 즉 Social Amway Venue와 Social Avenue라는 중의적 표현을 담아낸 것이다. 그래서 크게 중점을 둔 것이 열린 공간, 열린 변화다. 카페도 기존에 실내에만 갇혀 있던 것을 탁 트인 테라스를 갖춘 오픈 스페이스 형태로 꾸며 개방감을 보장했다. 부산 해운대 지점과 마찬가지로 이곳에서도 고객 맞춤형 브랜드 체험 공간인 '브랜드 익스피리언스 룸'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이곳이 문화와 브랜드를 접목함으로써 ABO들의 비즈니스 지원뿐 아니라 지역 문화 교류 공간으로서 역할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것도 그래서다. 암웨이플라자 대구점에는 200석의 교육장, 4개의 비즈니스 룸과 쿠킹 클래스를 진행하는 쿨 룸이 있다. 역시 파이토 카페를 운영하는데, 색다른 점은 셀프 파이토 카페, 즉 ABO가 직접 간단하게 만들어서 먹는다는 것이다.

ADDRESS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단지로 91  
TEL 053-655-2383



# Amw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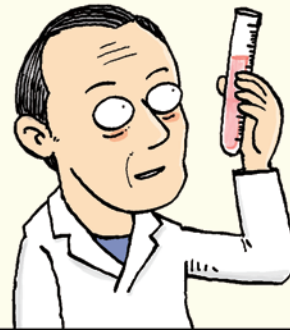
암웨이는 어떻게 세상을 건강하게 만들까?



암웨이의 철학을 대표하는 여러 제품 중 먼저 소개할 제품은 뉴트리라이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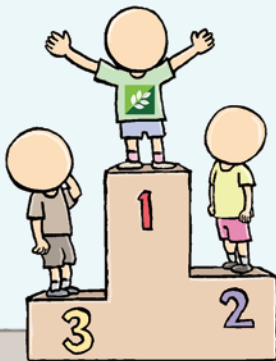


1920년대 칼 렌보그 박사의 식물영양소연구를 기반으로 개발된 북미 최초의 종합 비타민미네랄 식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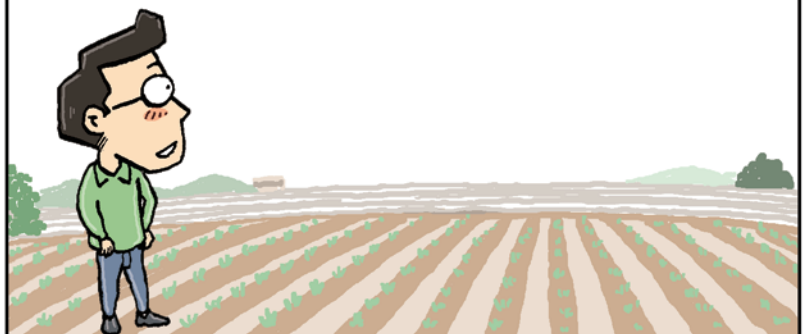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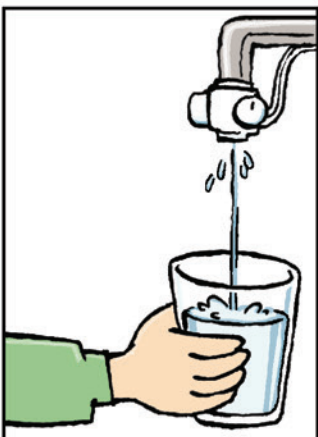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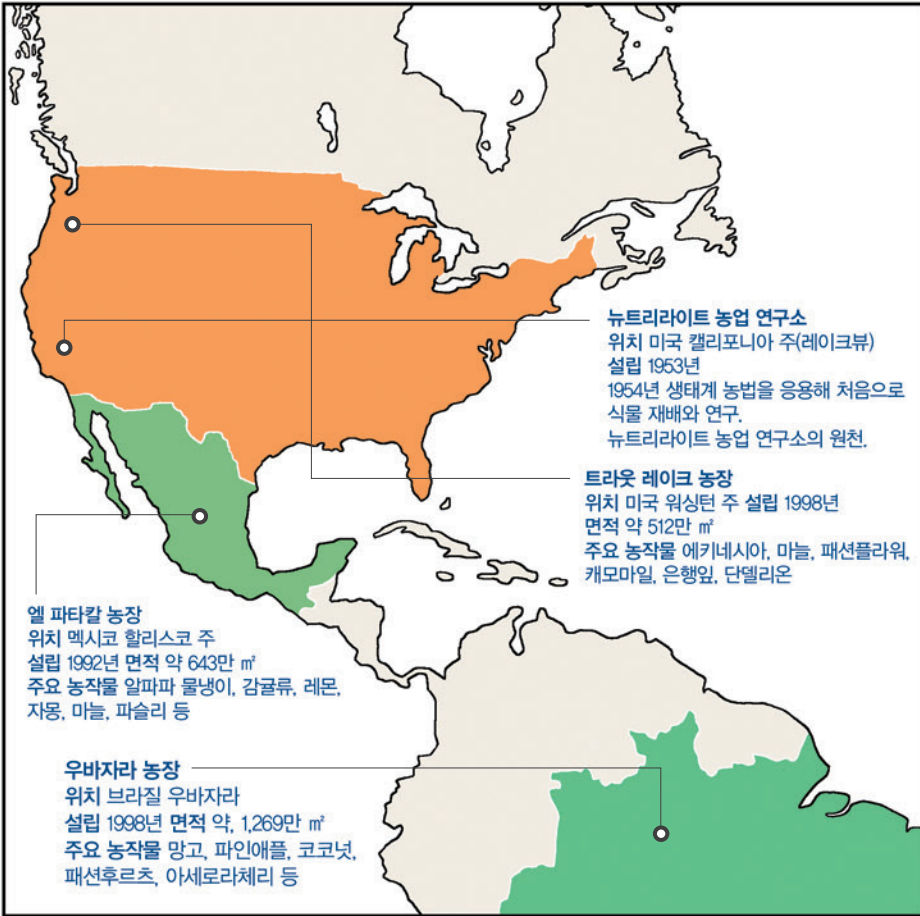
1934년에 처음으로 발매되었습니다.

세계 판매 1위의 건강기능식품 브랜드답게



뉴트리라이트는 자사농장에서 원료인 식물을 직접 경작, 수확 가공합니다.





출처 세계판매 1위(Verify Markets Study of 2014 global sales, 가정용 정수기 판매 금액(렌탈 제외) 기준)

이스프링 정수기는 더 적은 플라스틱, 더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 왔습니다.

'스마트칩' 기술을  
이용한 정밀 모니터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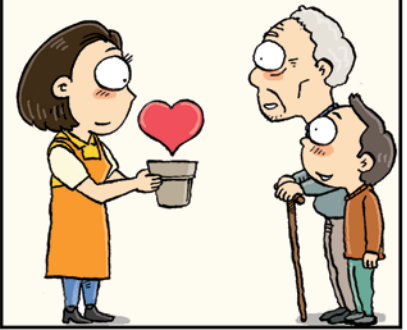
1년 동안 5,000리터 처리의  
필터 카트리지가

자외선 램프로  
박테리아와 바이러스  
99.9% 제거

0.2마이크론 이상  
미립자 제거  
(침전물, 흙, 석회)



암웨이의 제품들이 사람들을 건강하게 하는 것처럼



암웨이는 사회활동과 나눔활동을 통하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기업만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회장 스티브 밴 앤델

예술, 교육, 의료, 어린이 복지 등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분야를  
결정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장 덕 디보스

암웨이는 제품과 시설이 자연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개개인이 더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작업장을 만드는데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암웨이 역시 '가족'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사회공헌사업을 시작하였고, 매년 더욱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사회공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3년 한국암웨이  
아동센터 설립

2011년 ABO희망비타민  
자원봉사단 발족

2012년 창의인재육성 사업  
'생각하는 청개구리' 시행

2007년 뉴트리라이트  
건강지킴이 활동



암웨이는 더 나아가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자연재해에 대한 지원을 준비하고



2003년 시작된 원바이원 프로그램을 통해 전 세계(58개국) 암웨이와 직원, ABO들이 어려움에 처한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배움** - '생각하는 청개구리' 사업,  
창의 인재 육성 사업(2만4,690명)



**성취** - ABO와 임직원의 ABO 희망  
비타민 자원봉사 8만9,881시간,  
10만441명 어린이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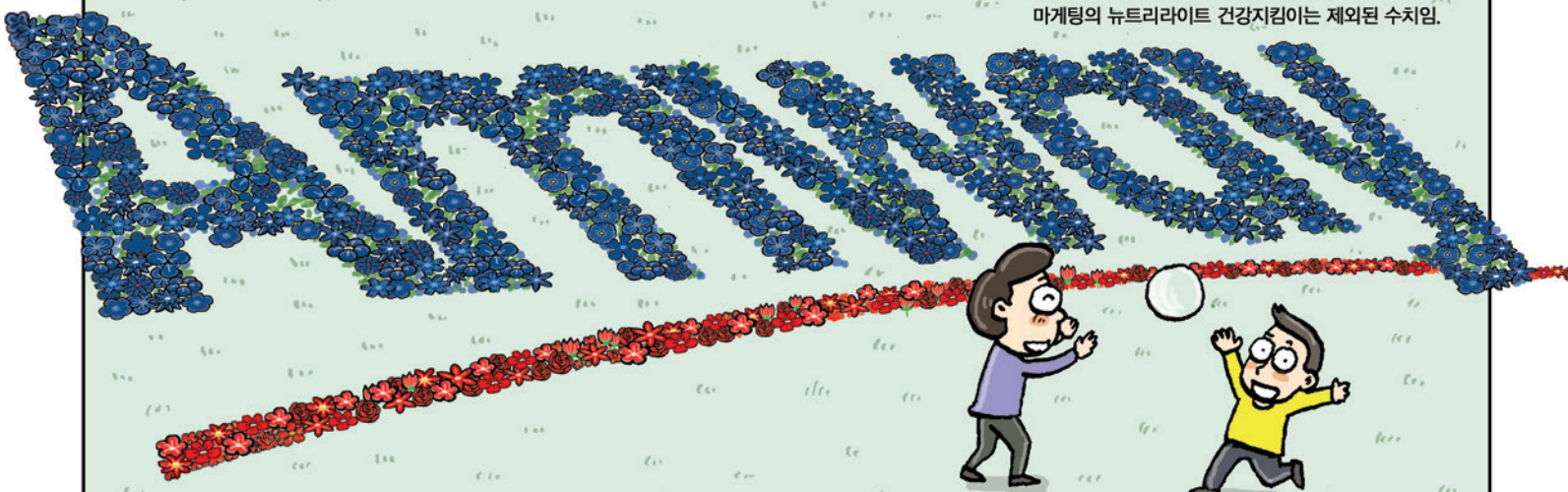


**삶** - 쉼터 지원 사업(8,926명)  
결식 아동 지원 사업(3,976명)  
건강 지킴이 사업(3,462명)



\*참고 건강 지킴이는 CSR 통계 자료이며,  
마케팅의 뉴트리라이트 건강지킴이는 제외된 수치임.

**놀이** - 13개의 사랑의 놀이터(산간 오지, 농촌 초등학교 지원),  
뉴트리라이트 축구 교실 3,291명



amway family

〈어취브〉개편을 맞아 암웨이 패밀리 비즈니스를 단단하게 완성해가는 암웨이 가족들을 매 호마다 소개하는 기획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소개하는 가족은 다이아몬드 이상의 편을 다섯 조나 배출한 부산의 김춘덕·엄익봉 트리플 다이아몬드 리더 가족입니다.

# Amway Family

김춘덕&엄익봉 리더 가족에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김춘덕·엄익봉 리더는 '패밀리 비즈니스'의 표본으로 유명하다. 부부 자신이 트리플 다이아몬드인 동시에 자녀 셋과 동생 부부까지, 다이아몬드 이상의 편을 다섯 조나 배출한 암웨이 명문가기 때문이다. 이들 가족이 암웨이와 인연을 맺기 시작해서 오늘에 오기까지의 시간을 되짚어보며, 이들과 함께 시종일관 유쾌하고 즐거웠던 만남을 소개한다.





김춘덕 · 엄익봉 리더 부부

### 김춘덕·엄익봉 트리플 다이아몬드의 사연

이제 다이아몬드 이상의 편이 다섯 조나 배출되었지만 1997년까지 김춘덕·엄익봉 리더는 암웨이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 그해 김춘덕 리더의 사촌 동생은 암웨이 사업을 시작했다며 소비자가 되어달라고 부탁했다. 사촌 동생은 이 사업으로 돈을 많이 벌며 경비행기를 살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김춘덕 리더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콧방귀를 끼었지만 건네받은 로션의 품질은 상상 이상이었다. 전업주부이던 김춘덕 리더는 유통업을 하던 남편에게 여차여차한 사정을 설명했고, 엄익봉 리더는 암웨이를 사업으로 알아보자고 대답했다. 김춘덕·엄익봉 부부는 서울로 올라와 암웨이 사업 설명회에 참석했다. 두 가지 이야기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이곳에서는 노력하는 만큼 돈을 벌고, 소비자의 만족을 100% 보장한다는 것이었다. 가입을 언제 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꾸준히 매달려서 최선을 다하느냐에 따라 수입이 달라진다는 사실은 개인 사업을 해온 엄익봉 리더의 마음을 끄는 매력적인 조건이었다. 또 소비자가 원하면 얼마든지 반품을 받아주겠다는 이야기 역시 품질에 어지간히 자신 있지 않고서는 내세울 수 없는 조건이었다. 돌다리도 두드려라는 말처럼 암웨이를 알기 위한 공부는 계속 이어졌다. 처음에는 부부끼리만 알아봤지만 암웨이의 진실을 깨달을수록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김춘덕·엄익봉 부부는 동생인 김춘애 리더에게, 딸인 엄파란 리더에게, 아들인

엄대현 리더에게 사업을 전했다. 그리고 이들의 가정에는 전쟁이 찾아왔다.

“암웨이만 아니면 화목했지.”

엄익봉 리더는 가족들에게 사업을 전하려던 당시 상황을 이렇게 회고한다. 김춘덕·엄익봉 리더는 암웨이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으리라고 확신했다. 그렇기에 가족들에게 사업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마음이 앞선 만큼 구체적으로 사업을 설명하지 못했다.

### 김춘애·변우현 수석 다이아몬드의 사연

김춘덕 리더는 동생인 김춘애 리더를 끔찍하게 아꼈고, 동생 부부 역시 언니네 내외를 늘 믿고 따랐다. 그래서 김춘덕·엄익봉 부부가 울산으로 찾아오면 두 손 들고 환영해왔다. 하지만 그들의 방문에 ‘암웨이’라는 불청객이 덧붙으면서 그렇게 화목하던 자매 사이에는 어색한 냉기가 흘렀다. 김춘애 리더의 남편인 변우현 리더는 거절하고 싶어도 거절할 수 없던 당시 상황을 기억한다. “두 분이 오시면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암웨이를 들고 오시기 시작한 거예요. 막내 동서가 싫은 내색을 대놓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힘들었습니다.”

1998년, 김춘애·변우현 부부는 사업을 거부하려고 안간힘을 썼다. 무엇보다 싫은 건 ‘꿈과 성공’이라는 이야기였다. 보통 사람들은

하루하루의 생계를 위해 살아간다. 꿈을 들먹이면서 성공을 목표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런 허황된 이야기로 헛꿈을 꾸었다가 상처 받을 순 없었다. 게다가 꿈을 이루는 수단이 기껏 외제 물건 판매라니, 그게 가당키나 한 일일까? 언니 부부에게서 암웨이 이야기가 나오면 두통이나 복통을 핑계로 댔고, 은근슬쩍 자리에서 일어나기도 했다. 그래도 언니 부부는 막무가내로 사업 설명회에 다섯 번만 참석하라고 했다. 그래, 어찌면 그곳에서 '우리가 왜 암웨이 사업에 어울리지 않는지' 설명할 수 있는 진짜 이유를 찾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김춘애·변우현 부부는 당시 사업 설명회가 열리던 양산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들 부부는 비전을 봤다. 변우현 리더를 깜짝 놀라게 만든 단어는 '상속'이었다. 공무원으로만 살아온 그에게 상속은 기상천외한 개념이었다. 직장에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퇴직'은 모든 걸 무효로 만든다. 그런데 여기에선 자신이 갈고닦은 노력을 자산으로 만들고, 그 네트워크를 상속할 수도 있다고 한다. 호기심이 생긴 부부는 암웨이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좋겠다고 생각했다. 6년 후 김춘애 리더의 파트너가 엄대현 리더에게 평생의 파트너를 소개했다. 유미정 리더도 처음에는 막연한 고정관념이 있었지만, 3개월간 미팅에 참석한 후 마음을 바꿨다. 시부모님의 라이프스타일을 지켜보며 저렇게 노후를 보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다. 엄익봉 일가 가운데 암웨이를 가장 먼저 접한 이는 딸인 엄파란 리더다. 1995년, 대학생 시절, 처음 암웨이 사업을 사람들에게서 전해들었다. 아버지께 아주 잘 맞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머니인 김춘덕 리더의 반대로 없던 일이 되었다. 그런데 불과 2년 후에 부모님이 암웨이 사업을 시작한 것이다. 대학 졸업 후 그녀는 암웨이 사업에 합류했다. 2년 후에는 직장 생활 중인 김은희 리더와 연인이 되었다. 하지만 세미나에 참석해야 하기 때문에 주말에는 데이트를 할 수 없었다. 자신이 암웨이의 전업 사업가가 되리라고 눈곱만큼도 상상하지 못한 채, 김은희 리더는 여자 친구와 주말을 함께하기 위해 1998년 3월 처음으로 암웨이 사업장을 찾았다. 하지만 암웨이 사업을 잘 알지도 못했고, 사업을 할 이유도 없었기에 김은희 리더는 한 달 내내 세미나에서 잠만 잤다. 뒷자리에 앉은

*가업을 언제 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꾸준히 매달려서 최선을 다하느냐에 따라 수입이 달라진다는 사실은 개인 사업을 해온 엄익봉 리더의 마음을 끄는 매력적인 조건이었다. 또 소비자가 원하면 얼마든지 반품을 받아주겠다는 이야기 역시 품질에 어지간히 자신 있지 않고서는 내세울 수 없는 조건이었다.*

김춘애 리더는 10대 시절부터 꿈같은 꿈을 꾸어왔다. 자라서 고아원 원장이 되겠다는 것이었다. 암웨이를 시작한 40대에는 장애인 복지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약간의 수정이 생겼지만 세상의 그늘에 작은 빛줄기가 되겠다는 마음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암웨이라는 수단을 통해 그녀는 아주 오래된, 그리고 가장 궁극적인 꿈을 실현하려고 오늘도 노력 중이다.

### 삼 남매가 만들어간 다이아몬드의 사연

1998년, 김춘애·변우현리더가 사업에 합류한 2~3주 후 엄익봉 리더의 장남인 엄대현 리더도 사업에 뛰어들었다. 사실 토목을 전공한 엄대현 리더에게 암웨이 사업은 완전히 다른 세상 이야기였다. 아버지인 엄익봉 리더가 사업을 시작한 지 1년 즈음인 1998년, 암웨이 사업을 제안했지만 엄대현 리더는 거절했다. “누군가 부모님의 직업을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겠느냐”고 엄익봉 리더가 물었다. “암웨이 한다고 해야겠지요.” 엄대현 리더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엄익봉 리더가 다시 질문했다. “암웨이가 뭐 하는 일이나고 물으면 뭐라 하겠노?” 대답할 길이 없었다. 사업을 하진 않더라도 부모가 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는 알아야 할 것 같았기에 암웨이 사업 설명회를 찾았다. 너무나 낮은 사업장을 처음 찾은 그날, 귓가에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니도 왔나?” 이모인 김춘애 리더였다. 덕분에 불안한 마음이 어느 정도 가라앉았다. 부모님께서 잘못된 길을 권하신 않으시리라고 확신했기 때문인지, 사업 설명도 처음부터 마음에 들었다. 저 플랜대로만 진행된다면



변우현 · 김춘애 리더 부부

이모님 눈총을 눈치채지도 못한 채로 말이다.  
 “그래도 사업을 이해하고 해야 할 이유가 생기니 더욱더 분발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직장을 그만두고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엄익봉 리더도 부족했던 자신의 과거를 고백한다. “그때는 우리  
 불찰이 컸죠. 가까울수록 함께 하자고만 했지, 사업 설명을 안  
 했으니까요. 사실 지금 돌아보니까 사업 설명이 필요했겠구나 하는  
 거지, 스스로 느끼기 전에는 알아듣기 힘든 게 이 일이기도 합니다.”  
 막내아들인 엄규현 리더는 형이나 누나와 달리 암웨이 사업이 패밀리  
 비즈니스로 자리 잡은 후 사회생활을 했다. 군에서 휴가를 나왔을  
 때도 입으로는 누나가 만들어준 볶음밥을 삼켰지만 귀로는 암웨이  
 사업 설명을 들어야 했을 정도다. 엄규현 리더의 초등학교 동창이던  
 박은영 리더는 학원 강사였다. 하지만 꿈을 이루기에 강사는  
 한계가 명확했다. 그래서 그녀는 엄규현 리더에게 암웨이 사업을  
 알려달라고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리고 둘은 부부의 인연을 맺었다.  
 엄규현·박은영 리더는 암웨이 환경 속에서 일가족이 성공하는  
 걸 눈으로 지켜봤다. 그렇기에 성공할 수 있을지 두려워하는 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다. 앞만 보고 나아갔다. 하지만 다이아몬드 필  
 앞에서는 번번이 좌절했다. 2016년에는 더 이상 물러나지 않겠다는  
 배수진을 치고 둘은 달려들었다. 그런데 너무 무리한 것일까? 박은영  
 리더에게 A형 급성간염이 찾아왔다. 설상가상으로 동네 작은 병원이  
 신중 플루라고 오진하면서 치료 시기까지 놓쳤다. 대학병원을

찾아 정확한 병명은 알았지만 이미 치사율이 50%를 웃도는 데다  
 살아나더라도 간 이식은 해야 할 것 같다는 진단을 받았다. 2월 말의  
 일이었다. 하지만 편입을 위해 가장 중요한 3월을 병원 침대에서  
 무력하게 보낼 수 없었다. 온몸에 식은땀을 흘려가면서도 박은영  
 리더는 최선을 다했다.

### 패밀리 비즈니스의 완성

엄익봉 리더와 세 자녀는 부산의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생활한다.  
 8월 31일 저녁부터 이들은 각자의 집 전화가 울렸다. 2월 말의  
 일이었다. 하지만 편입을 위해 가장 중요한 3월을 병원 침대에서  
 무력하게 보낼 수 없었다. 온몸에 식은땀을 흘려가면서도 박은영  
 리더는 최선을 다했다.

엄대현 리더는 세미나에서 자신이 걸어온 길을 강의했다. 그때  
 청중 가운데 한 명이 “리더님도 노력해서 그 자리에 가셨군요”라고  
 이야기했다. 트리플 다이아몬드의 자녀라면 별다른 노력 없이도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으리라고 여긴 한마디였다.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부모님께 많은 걸 배웠고, 이루 말할 수 없이 감사합니다.  
 하지만 성공한 부모님을 뵈었다고 해도 저 역시 다른 사람들이  
 겪는 과정을 다 겪었습니다. 제 네트워크의 리더는 저 자신에게





*끝이 없는 비즈니스지만 가족에서의 사업은 완성한 것 같습니다. 암웨이를 제대로 본 사람은 자녀들이 모두 이 일을 했으면 하고 바랍니다. 우리 부부는 복이 많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부모가 시킨다고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처음 몇 개월간 반대는 했을지언정 가족이 모두 이곳에서 꿈을 이루어가고 있으니, 정말 복을 많이 받았습니니다.*

스스로의 사업이라는 걸 분명히 인식합니다.” 엄대현 리더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한다. 엄규현 리더의 성취도 마찬가지다. 그는 실패한 다른 리더들처럼 좌절하기도 했고, 성공한 다른 리더들 이상의 노력 끝에 핀업을 이루어냈다. 산소 호흡기를 끼고도 불굴의 의지로 사업을 이어간 박은영 리더의 건강은 2주 만에 기적처럼 회복되었다. 감사하게 간이식도 하지 않아도 됐다. 엄익봉 리더는 20년 가까운 암웨이 사업에서 올 9월 1일에 가장 큰 보람을 느꼈다고 한다. “끝이 없는 비즈니스지만 가족에서의 사업은 완성한 것 같습니다. 암웨이를 제대로 본 사람은 자녀들이 모두 이 일을 했으면 하고 바랍니다. 우리 부부는 복이 많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부모가 시킨다고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처음 몇 개월간 반대는 했을지언정 가족이 모두 이곳에서 꿈을 이루어가고 있으니, 정말 복을 많이 받았습니니다.”

### 자유, 가족, 희망, 보상

일가족이 한 단계에서 생활하고, 사업 때문이라도 매주 두어 번 이상은 얼굴을 마주한다. 그 속에서 그들 나름대로의 갈등도 있지 않을까?

“물론 신경 쓰이긴 하죠. 제가 모르는 분도 저를 김춘덕 · 엄익봉 리더의 며느리라고 알아보실 정도니까요. 그러니 늘 주변에 더욱더 잘하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유미정 다이아몬드는 잠시 뜬을 들였다가 말을 잇는다.

“하지만 시부모님을 자주 뵙는다고 해서 힘들거나 하진 않아요. 오히려 제가 파트너라서 봐주시는 부분이 많거든요.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사업하느라 그러겠지 하고 먼저 이해해주세요.”

엄규현 리더가 잠시 끼어든다. “부모님이 보너스와 스케줄을 모두 꿰뚫고 있으니까 늘 긴장해야 해요. 작은 일탈도 불가능하죠.”

모두 웃음을 터뜨린다. 엄파란 리더도 말을 보탠다.

“사업이 마음대로 안 될 때 전화가 오면 지레 부담스러워요. 놓고 있을 때 ‘어데고?’ 하는 안부 전화에 지레 찢리는 경우도 있고요.” 박은영 리더는 깜짝 놀라며 “언니도요?”라고 묻는다(그녀는 학교

선배인 엄파란 리더를 ‘형님’ 대신 ‘언니’라고 부르며 따른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성공자의 자녀라는 선입견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고정관념을 넘어서면 한때의 장애물도 즐거운 스트레스가 되곤 한다. 엄대현 · 유미정 리더의 5학년 아들은 “엄마 아빠는 언제 수석 가고 트리플이 되는 거예요?”라고 재촉한다. 부모님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빨리 쫓아가지 못한다는 조급함 때문인지 요즘은 아예 자신에게 사업 설명을 해달라고 요구한다. 엄규현 · 박은영 리더의 자녀도 다르지 않다. 초등학교 2학년 아이는 구구단보다 암웨이 핀을 먼저 외웠고, 최근 다이아몬드로 핀업한 삼촌 부부를 보면 “다이아몬드가 둘이네”라며 너스레를 떤다.

엄익봉 리더의 일가족 초상에는 암웨이가 추구하는 가치가 모두 담겨 있다. 암웨이만 빼면 화목했다던 그 옛날, 암웨이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과연 이들 앞에 자유, 가족, 희망, 보상의 오늘이 놓여 있을까? 요즘은 막내며느리인 박은영 리더가 종종 시아버지에게 “아버님, 맥주 한잔 하러 가요”라고 전화를 건다. 엄익봉 리더는 “바가지는 내가 쓴다”며 며느리의 요구에 기꺼이 응한다. 경제적 안정을 누리는 것도 그렇지만 가족이 함께 가치를 공유하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일이 과연 또 있을까?





# NEW DIAMOND CONFERENCE BUSAN 2016

최초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통합 행사인 뉴 다이아몬드 컨퍼런스 부산 2016이  
나들간의 화려한 일정을 마무리했다. 그 감동의 순간들을 되짚어본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뉴다이아몬드 리더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뉴 다이아몬드 컨퍼런스가 10월 5일부터 부산에서 열렸다. 나홀간의 일정동안 각국의 리더들은 서로의 핀업을 축하하며, 각국의 암웨이 사업 활동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지난 10월 5일부터 8일까지 부산에서 아시아 태평양의 뉴 다이아몬드 리더들이 나홀 일정을 함께하는 뉴 다이아몬드 컨퍼런스 부산 2016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행사의 공식 일정은 10월 5일 오후 2시의 지사별 비즈니스 세션으로 시작되었다. 그런데 새벽부터 부산은 태풍 차바의 영향권 아래 놓였다.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가 설 정도로 강한 비바람이 부산을 강타했고, 해운대 해변에 설치한 아티스트리 부스가 태풍에 피해를 입을 정도로 기상 상황이 몹시 나빴다. 다행히 10월 5일 아침부터 날이 개기 시작했고, 본 행사를 개최할 무렵에는 오히려 맑은 공기 덕분에 시야가 더욱 넓어질 정도로 기상이 좋아졌다.





공식 일정은 오후 2시부터 시작했지만, 훨씬 전부터 올해 다이아몬드 핀을 성취한 암웨이 리더들이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 2층 그랜드볼룸 앞에 모여들었다. 이들을 가장 먼저 맞이한 건 본사에서 마련한 ‘New Diamond Story’ 프로그램이었다. 뉴 다이아몬드 리더들의 오늘과 각자의 지나온 스토리를 사진에 담아 성취를 축하하고, 동기부여를 통해 더 많은 다이아몬드가 배출되도록 독려하려는 취지로 만든 것이다. 프로그램을 담당한 본사 크리에이티브 솔루션 팀(Creative Solution Team)의 저스틴 두임스트라(Justin Duimstra)는 뉴 다이아몬드 컨퍼런스 부산 2016의 의미를 이렇게 말했다.

“아시아 태평양의 첫 지역 통합 행사이므로 본사에서도 흥미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행사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더 많은 신규 다이아몬드가 나오도록 독려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라스베이거스의 암웨이 60주년 행사에 아주 많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리더들께서 참석하면 좋겠습니다.” 사진 촬영을 마친 뉴 다이아몬드 리더들은 한국, 일본 그리고 동남아시아(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총 세 그룹으로 나뉘어 비즈니스 세션에 참석했다. 가장 큰 그룹은 우리나라의 뉴 다이아몬드 83조(153명)였다. 일본에서는 13조의 뉴 다이아몬드 19명이 현해탄을 넘어왔다. 말레이시아는 우리나라 다음으로 많은 26명(14조)의 다이아몬드가 행사에 참석했다. 태국에선 18명(10조), 싱가포르에선 2명(1조)이 부산에 왔다.

행사가 끝난 후에는 지사별로 환영 만찬을 즐겼다. ‘회’라는 문화가 익숙하지 않은 동남아시아 멤버들은 회를 든 셰프 옆에서 기념 촬영을 하기도 했다. 낯선 환경과 외국에서 온 뉴 다이아몬드들을 마주하면서 리더들은 기분 좋은 긴장감에 휩싸였다. 태국에서 온 위룬 토가숨(Wirun Togasum)과 빼놓으면 로하순폰(Panomporn Lohasoonporn) 뉴 다이아몬드 리더는 컨퍼런스 참여만으로도 벅찬 감동을 느낀다고 고백했다. “저희는 2001년 시작해서 2년 반 만에 에메랄드가 되었지만 이후 한동안 정체기를 겪었습니다. 다시 새롭게 결심하고 2년 만인 올 8월, 다이아몬드 핀을 성취하면서 부산을 밟았습니다. 아시아의 여러 동료 리더를 만나며 우리가 특정 지역을 넘어선 글로벌 리더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돌아가서 더욱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설레기는 울산에서 온 최지용 뉴 다이아몬드 리더도 마찬가지였다. “계속 봐온 분도 있지만 처음 보는 분도 많네요. 그래도 앞으로 함께 갈 사람들이겠죠. 아시아 각국에서 온 글로벌 리더들과 함께하는 자리에 제가 속했다는 사실에 무척 고무됩니다.” 폭풍과 거친 빗줄기가 만들어낸 긴장감은 설렘으로 변해가면서 행사 첫날 밤은 그렇게 깊어갔다.



크리에이티브 솔루션 팀의 멤버들. (순서대로) 카라 밴더몰렌(Kara Vandermolten), 크리스 베인(Chris Bain), 저스틴 두임스트라(Justin Duimstra), 미건 미도스(Meagen Meadows)







둘째 날은 '부산국제영화제'의 하루였다. 올해로 21회를 맞이한 부산국제영화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최고의 영화제로 부상한 지 오래다. 2014년에는 애플이치아나의 리더 2,200여 명이 영화제 개최 장소인 부산 영화의전당 야외극장과 두레마을 광장을 찾아 페스티벌을 개최하기도 했을 정도다. 올해는 아티스트리가 부산국제영화제의 메인 스폰서를 맡으면서, 아시아 태평양의 새로운 다이아몬드 리더들을 초대해 아시아 태평양 최고의 영화제 현장을 밟을 수 있도록 했다. 10월 6일 오전에는 파라다이스 호텔에 포토 월과 레드 카펫을 설치했다. 당연히 규모나 형태 모두 부산국제영화제 현장과 똑같았다. 턱시도와 드레스로 한껏 꾸민 뉴 다이아몬드 리더들은 포토 월 앞에서 한껏 포즈를 취했고, 레드 카펫 위를 우아하게 걸었다. 전문 포토그래퍼들은 반짝이는 시간을 카메라 프레임 안에 아로새겼다. 이브닝드레스의 치맛단을 잡고 한 발자국씩 내딛는 스태프가 조금도 어색하지 않다. "모든 여자는 누구와도 같지 않는 개개인이고, 스스로 만들어낸 하나의 예술 작품이다(Each Woman Is an Individual Like No Other. A Self-Made Work of Art)." 1958년 에디트 워렌의 말을 떠올리게 하는 순간이었다. 또 짧은 시간이었지만 레드 카펫을 체험하면서 아시아 리더들은 함께 어울릴 수 있었다. 그래서일까? 일본에서 온 뉴 다이아몬드 오니시 겐스케(大西健介)는 전체 일정 가운데 레드 카펫 체험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답했다. 오후 4시 30분,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을 앞둔 영화의전당 현장은 매우 혼잡했다. 입장하기 위해 대기 중인 관객과 행사의 자원봉사단, 그리고 지원 나온 경찰들이 뒤섞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뉴 다이아몬드 리더들은 전용 버스편으로 편안하게 영화의전당에 진입했다. 경남 진주에서 온 강소영 뉴 다이아몬드 리더는 이때의 감동을 이렇게 회상했다. "부산국제영화제에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약석을 지정받았어요. 모든 게 저희를 위해 준비해놓은 상태였어요. 국제영화제에 참석하면서 글로벌 사업이라는 사실을 몸으로 느꼈습니다. 해외의 동료 다이아몬드를 만난 것도 그래요. 영상으로만 보던 분들과 함께 사진을 찍고 비즈니스 세션을 진행하면서 아주 많은 걸

공유할 수 있었어요." 경기도 수원시의 서성민 뉴 다이아몬드 역시 "귀빈이 된 것 같았다"고 당시의 느낌을 전했다. 뉴 다이아몬드 리더들은 개막식과 개막 작품을 관람했고, 밤 11시가 넘어서야 호텔로 돌아왔다. 객실에서 늦은 도시락으로 저녁을 해결해야 했지만 피로감을 잊을 만큼 벽간 감동과 행복으로 가득 찬 하루였다.

**ND**  
New Diamond Conference  
**day 2**  
2016. 10. 6.



행사 둘째 날, 파라다이스 호텔 거든에 설치한 부산국제영화제의 메인스폰서 아티스트리 레드카펫 행사는 리더들에게 더없는 자긍심을 줄 수 있는 시간이었다. 리더들은 턱시도와 드레스를 차려입고 포토세션과 칵테일 파티를 즐겼다.





셋째 날, 리더들은 암웨이 비즈니스 세션에 참석해 비즈니스의 가치와 성장 전략에 대해 공유한 후 지역별 토론을 벌이며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NDC**  
New Diamond Conference  
**day 3**  
2016. 10. 7.

전날 늦게까지 일정이 있었지만 뉴 다이아몬드 리더들은 여유있게 호텔 조식을 즐겼다. 그리고 새롭게 문을 연 해운대ABC 투어를 마친 후 호텔로 복귀해 그랜드볼룸에서 진행된 '워킹 런치와 지사별 비즈니스 세션'에 참가했다. 아시아 태평양의 뉴 다이아몬드 리더들은 모두 함께 그랜드볼룸의 비즈니스 세션에 참석했다. 먼저마크 랜달 바이더비텐 아태 지역 총괄 사장이 세션을 열었다. 그는 새로운 뉴 다이아몬드 리더로서의 의미를 강조하고, 암웨이 비즈니스의 가치와 지속 성장 전략에 대해 이야기했다. 다음으로 아태 지역 ABO Experience 부사장인 스콧 카버, 한국암웨이의 김장환 부사장이 세션을 이끌었다. 서성민 뉴 다이아몬드 리더는 스콧 카버 부사장의 이야기가 특히 인상적이었다고 말한다. "이벤트를 총괄하는 분이 아시아 다이아몬드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려고 노력하는 게 느껴졌어요. 이번 컨퍼런스 일정 중에도 아시아 리더들의 목소리를 무척 듣고 싶어하시더군요. 전에는 암웨이가 좋은 회사라고 막연하게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컨퍼런스에서 암웨이가 우리의 진짜 파트너고, 우리를 정말 귀하게 여긴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암웨이가 컨퍼런스를 통해 우리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체를 위해 어떻게 활용하는지 봤습니다."

뉴 다이아몬드 리더들은 토론 주제를 받고 한국, 일본, 동남아시아 등 지역별로 흩어져 토론을 벌였다. 그리고 비즈니스 세션 마지막에 뉴 다이아몬드 리더들은 다시 모여 나라별로 내린 토론의 결론을 전체가 공유했다. 놀랍게도 각국의 고민은 하나로 모였다. 서울의 고희주, 최승일 뉴 다이아몬드 리더는 암웨이를 통해 국적을 뛰어넘는 경험을 했다고 말한다. "일본에 대한 선입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컨퍼런스에서 그런 고정관념을 넘어 교감하는 걸 느꼈습니다. 나라는 달라도 다이아몬드 핀을 달성하기 위해서로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피드백 공유와 클로징 이후 아시아 태평양의 뉴 다이아몬드 리더들은 합동 갈라 디너에 참석하기 위해 누리마루 APEC하우스로 이동했다. APEC하우스 1층 야외에선 서예와 캐리커처를 활용한 한국 체험전이 열렸다. 서예 코너에선 전통 부채에 한글로 참석자의 이름을 적어줬고, 캐리커처 코너에선 한복을 입은 뉴 다이아몬드 리더들의 그림을 직접 그려 휴대폰으로 전송해줬다. APEC하우스의 2층과 3층에선 야외 스탠딩 방식으로 뷔페를 즐길 수 있었다. 부산 바다의 야경이 그림처럼 펼쳐진 1층 야외 스피커에선 국악연주그룹 ‘하나연’의 ‘오버 더 레인보우’가 흘러나왔다. 이번 컨퍼런스의 뉴 다이아몬드 리더들은 모두 각자의 도전을 통해 주어진 환경을 넘어섰고, 뉴 다이아몬드 컨퍼런스 부산 2016의 주인공이 되었다. 뉴 다이아몬드 리더들은 암웨이 리더라는 공통점 아래 국적을 뛰어넘어 하나가 되었다.

말레이시아의 뉴 다이아몬드인 샤룰 파미(Shahrul Fahmee)와 마즈리아틀 목타르(Maziatul BT Moktar)도 이번 컨퍼런스의 감동을 전한다. “한국과 일본, 여러 아시아의 리더들과 함께 어울리는 건 처음 겪는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더 나은 리더로 거듭나야겠다는 동기부여가 됩니다.”

컨퍼런스는 많은 사람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이다. 울산의 김건해 뉴 다이아몬드 리더는 말한다. “감동을 잘 받는 스타일이라 어쩔 줄 모르겠어요. 저는 2년 반 만에 다이아몬드가 되어 이 자리에 초대받았는데, 정말 잠을 참고 이룬 성과긴 하지만 이 이상의 보상은 없을 것 같아요. 이 감동과 가치, 비전을 많은 사람에게 알려야겠어요. 돌아가면 다시 편입할 수 있겠는데요?”



day 4  
2016. 10. 8.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었다. 어떤 이는 비행기를 이용해, 어떤 이는 버스에 올라, 어떤 이는 운전석에 앉아 자신의 자리로 떠났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뉴 다이아몬드 리더들은 아시아 태평양의 최고라고 꼽히는 영화제에 참석했다. 이들은 지정된 관객석에 앉았다. 하지만 이들은 관객이 아니라 주인공이었다. 뉴 다이아몬드 리더들은 각자의 인생이라는 영화 속에서 주인공을 완벽하게 소화했고, 그 보상으로 이 자리에 앉았다. 말레이시아에서, 싱가포르에서, 태국에서, 일본에서, 부산에서, 포항에서, 울산에서, 김해에서, 창원에서, 아산에서, 안양에서, 제주에서, 안산에서, 대구에서, 광주에서, 대전에서, 인천에서, 광양에서, 순천에서, 진주에서, 광명에서, 나주에서, 전주에서, 남양주에서, 파주에서, 화성에서, 천안에서, 시흥에서, 사천에서, 서울에서 온 인생 최고의 주인공들이 모였다. 그리고 서로의 노고를 찬사하고, 자신의 어려움과 극복 노하우를 나눴다. 이들은 이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지만, 언제 어느 곳에서든 저마다 느끼는 어려움이 자신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안다. 그리고 난관을 넘어선 뒤에 다시 만나 박수를 나누리란 사실도 안다. 그렇기에 지금의 헤어짐이 끝이 아니고, 더 기쁜 만남을 준비하는 여정의 시작이라고 확신한다. 그렇게 뉴 다이아몬드 컨퍼런스 부산 2016은 끝났다.

셋째 날 저녁, APEC하우스에 마련한 합동 갈라 디너에 참석한 각국의 뉴다이아몬드 리더들. 한국, 일본, 여러 아시아 리더들은 국적에 상관없이 즐겁게 어울리며 마지막 저녁을 보냈다.





# JESSICA ALBA

---

제시카 알바

---

Honesty Life 건강한 아이, 건강한 세상을 위해

---

제시카 알바는 더 이상 할리우드 여배우로만 불리지 않는다. 그녀는 이제 미국에서 자수성가한 성공한 여성 리더 중 한 명이자, 기업 가치 17억 달러 이상 규모의 회사 경영자다. 자신의 아이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을 선물하고 싶던 엄마가, 경제계 '거물'이 되기까지, 그녀의 성공 스토리는 무엇일까?

**마돈나를 사랑했던 걸 크리스 소녀가 배우가 되기까지**

제시가 알바는 캘리포니아 주 포모나에 태어났다. 멕시코계 미국인 아버지 마크 알바와, 덴마크계 미국인과 프랑스계 캐나다인이라는 복잡한 혈통의 어머니 캐서린 알바 사이의 첫딸이었다. 그녀의 가족은 군인이던 아버지를 따라 미시시피 주 빌록시, 텍사스주 델 리오 등 여러 도시를 거친 뒤, 로스앤젤레스에 정착했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자신의 가족에 대해 “매우 전통적인 보수적 가정이고, 가톨릭과 라틴계 미국인 가족”이라고 소개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인지 자신은 또래보다 일찍 진보적인 것들에 관심을 가졌고, 다섯 살 때 이미 자신 안에 있는 ‘페미니스트’를 발견했다”라고도 말했다. 그도 그럴 것이 어린 시절의 제시가 알바는 핑키 브루스터와 마돈나를 흉내 내며 짝짝이 루스삭스에 LA 기어 농구화를 신고 다니던 여자아이였다. 엄마의 옷장에서 하이힐을 꺼내 신고 거실까지 걸어 나와서는 신발을 벗어 던지며 댄스 공연을 펼치기도 했다. 그런 그녀가 연기에 관심을 갖고 배우가 되기 위해 오디션에 도전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더구나 그녀 주변에는 이미 예술가가 된 혹은 그런 자질을 갖춘 가족과 친척들이 넘쳐났다.

제시가 알바가 배우로 처음 이름을 알린 것은 1994년 영화 <비밀 캠프>에서였다. 그녀의 나이 열두 살, 약 1,500대 1의 경쟁을 뚫고 우승한 결과였다. 애초에는 조연으로 출연할 예정이었지만, 주연배우가 갑자기 하차하면서 주연을 맡게 되었다. 영화로 얼굴을 알린 그녀가 대중에게 각인된 계기는 2000년부터 2002년까지 방영한 텔레비전 드라마 <다크 엔젤> 시리즈를 통해서다. 이 드라마로 그녀는 연기상도 받았으며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강인하고 섹시한 여전사 이미지를 갖게 된 것도 이 작품을 통해서다. 이후 영화 <허니>, <썬 시티>, <판타스틱 5>, <블루 스톰>, <굿 럭 척>, <굿바이 초콜릿>, <미트 페어런츠 3> 등 흥행 작품에 출연한 그녀는 사랑스럽고 여성스러운 로맨틱 코미디의 여주인공도 맡았지만 이와 동시에 카리스마 넘치는 여전사 이미지도 놓치지 않았다. 미국의 각종 남성지에서 ‘세계에서 가장 섹시한 여성’으로 선정되기도 한 그녀는 <판타스틱 4> 촬영 당시 만난 제작자 캐시 워런과 만나 2008년 로스앤젤레스 시내에서 결혼식을 올리며 제2의 인생을 시작한다.

**내 아이를 위한 안전한 제품을 찾는 엄마의 분투기**

일찍 스타덤에 올라 할리우드 여배우로 살아가던 제시가 알바가 친환경 제품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첫아이 ‘아너’를

임신하고 나서다. 사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온갖 알레르기에 시달렸다. 라텍스 알레르기가 있어 일회용 밴드를 붙이면 그 자리가 부풀어올랐고 인공 향료를 첨가한 샴푸나 컨디셔너, 보디 클렌저, 로션이나 바셀린처럼 석유화학계 성분이 많이 들어간 제품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 일쑤였다. 어쨌든 그녀는 임신 축하 선물로 받은 아이 옷을 어떤 세제로 세탁하면 좋을지 자신의 어머니에게 추천해달라고 부탁했고, 두 아이와 많은 조카를 키워내 육아와 살림에 능한 어머니는 친환경이라는 세 글자가 딱히 박힌 비싼 유아용 세제를 알려주었다. 하지만 불행히도 이 비싼 세제는 세탁기 앞에서 한 스푼 뜨는 순간부터 재채기를 유발시켰고, 빨래를 걸 때쯤엔 재채기와 함께 손가락까지 빨갛게 부풀어오르게 만들었다. 제시가 알바는 당장 인터넷을 검색했다. 처음에는 그저 좀 더 좋은 다른 세제를 찾아야겠다며 시작한 검색이



**암웨이 젊은 리더에게 제시가 알바가 주는 교훈 1**

**세상의 편견에 당당히 응대하라:** 할리우드 여배우가 기업을 설립해 경영한다는 것에 대해 사람들은 비웃음을 던졌다. 하지만 선입견은 나를 더욱 단련시키는 동기가 되었다. 나는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고, 열정적으로 참여했으며, 여배우로서의 안목과 경험도 버리지 않고 활용했다.

이내 엄마 세대에는 괜찮았던 세제가 지금에 와서 왜 문제가 생겼는지, 또 어떤 화학물질로 범벅이 되었는지에 대한 조사로 이어졌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생활용품, 심지어 유아용품에조차 ‘친환경’이라는 수식을 붙여 있음에도 수많은 화학 성분으로 넘쳐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단지 좀 더 좋은 유아용 세제를 찾기 위해 시작한 그녀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아니, 끝은커녕 그녀의 인생은 새로운 서막이 열리고 있었으며, 기업의 CEO라는 또 다른 배역이 찾아오고 있었다.

### 어니스트 컴퍼니의 탄생

제시카 알바는 금강한 것이 있으면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도 끊임없이 스스로 해답을 구하는 기질이 있었다. 채식주의자를 선언하며 부엌 한편에서 자신만의 채식 메뉴를 요리하던 사춘기 때도 그랬고, 온갖 알레르기에 시달리다 못해 자신만의 개인 위생용품을 직접 만들어 가지고 다닐 때도 그랬다. 호기심은 언제나 열렬한 조사와 공부로 이어졌고,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스스로 답을 찾아나가는 여정에서 지지는 일은 결코 없었다. 결국 안전한 유아용품을 찾아 나서던 그녀는 의심스러운 화학물질로부터 자신의 아이와 가정을 지키기 위해 정부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절감했고, 품질이 뛰어나면서도 인체에 무해한 제품을 구하는 것조차 벽에 부딪히자 직접 답을 찾기로 결심했다. 질문의 여정에서 그녀가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크리스토퍼 개비건. 그녀는 환경운동가이자 사회적 기업가인 크리스토퍼 개비건을 그의 책 <건강한 아이 건강한 세상> 출판 기념회에서 만났다. 당시 그녀는 그에게 많은 질문을 퍼부었고, '건강하면서도 정직한 제품'을 위한 그들의 대화는 훗날 변호사 출신인 한국계 미국인이자 전자 상거래 전문가인 브라이언 리와 경영 관리의 달인 손 케인이 합류하면서 '어니스트 컴퍼니'라는 회사의 탄생을 이어졌다.

건강을 챙기려면 기능과 맛을 희생해야 하는 상황은 반드시 생긴다. 예쁘고 기능은 뛰어나지만 화학물질이 많이 함유된 제품과 그다지 예쁘지도 않고 비싼 데다 기능까지 떨어지는 친환경 제품 중에서 갈등해야 하는 게 엄마들의 현주소다. 친환경적이고 기능과 맛에도 충실한 제품을 찾는 것은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다. 무독성이면서 기능도 뛰어나고 몇까지 쟁길 수 있는 생활용품! 제시카 알바는 정보는 많지만 뾰족한 대안이 없는, 더구나 굉장히 바쁜 이 시대 엄마들을 위해 어니스트 컴퍼니를 설립했다. 크리스토퍼 개비건을 비롯한 드림 팀을 만나고 그녀가 바로 회사 설립에 착수한 것은 아니다. 그녀는 새벽까지 인터넷과 책을 찾아가며 화학물질에 관해 연구했고, 제조 과정을 공부하고 생활용품업계를 이해하는 데 무려 3년의 시간을 쏟았다. 주변에선 미쳤다고도 했지만 그녀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2011년 둘째 딸 헤이븐까지 태어나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브랜드에 대한 결심은 더욱 확고해졌다. 드디어 2012년 제시카 알바와 크리스토퍼 개비건이 공동 창업한 어니스트 컴퍼니는 베이비 로션과 수건, 손 세정제 등 17개 제품을 출시하며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 어니스트 컴퍼니의 성공과 어니스트 라이프

사실 할리우드 여배우가 기업을 설립해 경영한다는 것에 대해 사람들은 비웃음과 함께 곱지 않은 시선을 던졌다. 제시카 알바 자신도 "사람들은 단지 나를 영화 속 비키니 입은 소녀로밖에 보지 않았다"라고 고백한 바 있다. 그녀는 그런 편견을 이겨내고 싶었다. 매일 사무실에 출근해 사업 전반을 꼼꼼히 챙겼으며 제품 개발에서 디자인과 포장, 마케팅과 디자인까지 모두 신경 썼다. 엄마들을 위한 회사라는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다른 기업처럼 매장을 먼저 차리는 대신 온라인 쇼핑몰을 고집했다. 이제 막 엄마가 된 젊은 여자들은 바깥 쇼핑이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필요한 제품을 묶어 한 달에 한 번 직접 배송하는 방식을 택해 단가도 낮추었다. 아기를 위해 무엇이 최고인지, 무엇이 필요한지 알기 위해 440만 블로거 엄마들과도 끊임없이 소통했다. 실제로 그들의 의견을 반영해 모든 제품 용기를 투명하게 제작함으로써 내용물을 바로 볼



#### 암웨이 젊은 리더에게 제시카 알바가 주는 교훈 2

**가족과 함께하는 삶을 놓치지 마라:** 내 삶의 무게중심은 언제나 가족이다. 함께 먹고, 놀고, 여행하며 나누는 모든 시간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가족은 내 삶을 온전히 사랑하게 하는 힘이다. 그리고 이 힘이 세상을 위한 일을 꿈꾸게 만드는 동력이다.

**꿈꾸지 말고 행동하라:** 아이에게 무해한 제품을 찾아 나선 여정이 여기까지 왔다. 포기하고 싶고 타협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다. 내가 유별난 것인가 되묻기도 했다. 하지만 나 자신을 배신하고 싶지 않았다. 꿈은 언제나 현실이 되어야 했다. 그것이 비록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암웨이 젊은 리더에게  
제시카 알바가 주는 교훈 3**

**원칙은 단순하되 변하지 않아야 한다:** 어니스트 컴퍼니의 슬로건은 '건강한 아이 그리고 건강한 세상'이다. 이를 위해 회사는 정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제품을 개발하는 어느 한 순간도 이 원칙을 잊어서는 안 된다. 원칙을 버리는 순간 회사는 목적을 잃고 방황하며 소비자 와 결별하는 것이다.



수 있게 만들기도 했다. 정직한 성분으로 승부하는 것은 물론! 어니스트 컴퍼니의 모든 제품은 사회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구현하는 글로벌 사회적 기업이라는 인증인 '비콕(B-corp)'을 획득했으며, 환경을 생각하는 여러 비영리 단체는 물론 많은 아동 보호 기금을 위해 적극적인 후원도 아끼지 않는다. 반응은 열광적이었다. 어니스트 컴퍼니는 정직하고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찾던 엄마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며 온라인 시장을 뜨겁게 달구었고, 설립 당시 17개에 불과하던 제품은 현재 120개로 늘어났으며, 지금은 북미를 넘어 유럽 호주 아시아 시장에까지 진출해 있다. 어니스트 컴퍼니의 매출은 2012년 창업 당시 1000만 달러에서 4년 만에 2억 2000만 달러(약 2천500억원)로 약 20배 이상 올랐다. 기억 가치는 4년 만에 17억 달러, 약 2조 원으로 치솟았다. 제시카 알바는 2012년 <패스트 컴퍼니>가 선정한 가장 창의적 비즈니스인 100인에, <포춘>지에서는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가 10인에 이름을 올렸다. 자수성가한 여성 부호 1위로 <포브스>의 커버도 장식했는데, <포브스>는 그녀의 개인적 가치를 대략 3억 4천 달러로 추정하기까지 했다. <판타스틱 4>의 영웅이던 제시카 알바는 어느덧 경제계의 '거물'이 된 것이다. 할리우드의 유명 여배우이자 유능한 경영인 그리고 아이와 가정을 사랑하는 엄마. 제시카 알바의 삶은 특별하다. 하지만 모든 것의 시작은 그저 아이에게 안전한 제품을 찾아주고 싶다는 '평범한 엄마'의 바람에서 시작되었을 뿐이다. 자신을

둘러싼 세상과 일을 사랑하며 그 사랑을 밑거름 삼아 조금은 특별한 삶의 여정을 떠난 것이다. 그녀는 여전히 회사에 출퇴근하고, 유기농 재료로 차려낸 홈 파티를 즐기며, 영화를 찍고, 두 아이를 기른다. 건강을 생각하면서도 제품의 품질은 놓치지 않고, 일을 사랑하지만 여유로운 '저녁의 삶'도 챙기고 싶은 오늘날의 엄마들, 그녀의 삶은 이 새로운 세대의 일상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남다른 호기심과 그 호기심을 현실의 내 것으로 만드는 열정과 노력이 그녀의 삶을 조금 더 특별하게 만들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열정은 정직한 세상을 위한 작은 발걸음이 되었으며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그녀는 말한다.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을지 정말 생각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이젠 시작에 불과합니다."

**미국의 엄마들은 왜 어니스트 컴퍼니를 좋아하나?**

아이에게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친환경 제품이란 점 외에 어니스트 컴퍼니의 가장 큰 강점은 정기 배송 시스템인 '서브스크립션'을 초창기부터 도입했다는 점이다. 고객이 자기 아이의 정보를 가입 시 입력하면 매달 약정한 금액에 맞춰 아이에게 필요한 물품을 배송하는 시스템으로 어니스트 컴퍼니의 매출 중 80% 이상이 정기배송에서 나오고 있다. 고객 입장에서는 그만큼 편리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이다.



# CONGRATULATIONS











recognition

# SUCCESS THROUGH PASSION

---

## 2016 New Diamond Above Leaders

	Founders Crown _____	32
	Crown _____	36
	Triple Diamond _____	44
	Founders Double Diamond _____	48
	Double Diamond _____	52
	Founders Executive Diamond _____	56
	Executive Diamond _____	60
	Founders Diamond _____	74



Founders Crown  
Crown

조성봉  
성영주  
2016년 9월 1일부





## 확신과 순복, 겸손으로 이룬 성취

2016년 2월 11일, 광주에는 비가 내렸다. 하지만 광주 암웨이플라자 앞마당은 인파로 북적였고, 기분 좋은 밥 냄새가 가득했다. 겨울비를 막아주는 간이 천막 아래에선 암웨이 리더들이 찬반을 배식하며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다. 행인들은 쌀 익는 냄새에 이끌려 막사 안으로 들어왔다. 밥을 먹기 위한 자격 요건은 따로 없었다. 배가 고프면, 또는 배가 불러도 한술 더하고 싶다면 누구라도 식사에 동참할 수 있었다. 옆쪽에 준비된 차량에서 현혈을 할 수 있다는 안내가 따랐지만 권장 사항일 뿐 강권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이날 암웨이플라자에선 500인분의 식사가 동났고, 현혈에는 152명이 동참했다. 조성봉·성영주 리더의 나눔이 만들어낸 작은 기적이었다.

### 스폰서와 시스템에 대한 절대 순복

암웨이와 인연을 맺기 전 조성봉 리더는 건설 회사를 운영했는데, 건설업이 사양 일로를 걸으면서 상황은 점점 좋지 않은 쪽으로 흐르고 있었다. 직원이 50명이나 되는 회사의 사장이 자녀 학원비를 구하지 못할 정도였다. 아들의 학원비. 조성봉·성영주 리더는 어쩌면 가장 평범한 이유로 암웨이 사업을 시작했다. 두 달간 암웨이를 경험해본 성영주 리더는 남편에게 적극적으로 사업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조성봉 리더는 바로 건설 회사를 정리했다. 암웨이가 한국에 상륙한 지 불과 2년, 상품이라곤 일곱 가지가 전부이던 1992년에, 이들이

### PROFILE

1993 SILVER PRODUCER  
GOLD PRODUCER  
PLATINUM  
1994 EMERALD  
1995 DIAMOND

1997 EXECUTIVE DIAMOND  
2000 DOUBLE DIAMOND  
2001 TRIPLE DIAMOND  
2002 CROWN  
2016 FOUNDERS CROWN

이렇게 과감한 결단을 내릴 수 있던 건 스폰서를 절대적으로 존경하고 신뢰했기 때문이다. 사업 설명을 듣고 확신이 굳어진 이들은 스폰서 곁에서 믿고 따르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3개월 만에 SP, 1년 만에 에메랄드 핀이라는 성취를 맛보았다. 조성봉 리더는 빠른 성장의 비결을 이렇게 설명한다. “돌아갈 길을 모두 잘랐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평범하고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라 이게 아니면 먹고살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폰서님을 믿고 그간의 삶을 싹 비웠습니다. 스폰서님이 제시한 시스템에 따라 호흡했기에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마이웨이를 고집한 사람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도태되고, 결국 시스템에 충실한 사람이 남게 되더군요.” 이들은 2년 6개월 만에 다이아몬드 핀을, 5년 만에 수석 다이아몬드 핀을 달성했다.

“시스템이 잘 갖춰져도 겪어야 하는 과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힘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은 시스템이라고 자연스레 자신의 것이 되진 않습니다. 자신을 비우고 순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먼저 아플 수 있어서 행복하다

다이아몬드 핀을 달성하고, 이들은 신안파크 갤러리에서 1,000명의 관중 앞에 섰다. 지나온 어려움과 기쁨이 영화 필름처럼 스쳐갔고, 벅찬 마음에 이들은 한마디 말도 못하고 울기만 하다 연단을 내려왔다. 사업 초반 차도 없이 제품을

### QUESTIONS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조성봉 리더는 건설업을 했고, 성영주 리더는 가정주부였다.

**암웨이를 하는 이유**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사업이니까.

**반드시 지켜야 할 가지**  
의리와 인간관계.

들고 다니던 순간들은 이제 아련한 향수로 정겨운 기억으로 남아 있다. 하지만 이기적인 파트너들의 말 한마디, 약속 거절은 고통스러웠다.

“상처의 흔적, 잔재는 지금도 남아 있죠. 카운실 멤버가 된 후에도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마음을 다스릴 줄 알게 된 것 같아요. 먼저 상처받았기에, 누군가를 도울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성영주 리더의 고백이다. 파트너를 향한 애뜻함은 밥상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 전부터 성영주 리더는 뛰어난 요리 실력을 주변에 베푸는 걸 좋아했다. 그래서 조성봉 리더의 집은 사업 초기부터 사람들로 북적였다. 부엌에선 맛있는 음식 냄새가 그치지 않았고, 거실에서 식사를 나누는 얼굴들에 웃음꽃이 가지지 않았다. 얼마나 퍼 주기를 좋아했으면, 주변 사람들은 조성봉·성영주 리더를 두고 이런 농담이 오갔다. “편업이 빨라도 번 돈이 음식으로 다 나가서 실속은 없을 것”이라고 말이다. 사업이 궤도에 오른 후에는 성영주 리더의 음식 나눔이 아예 정규 교과과로 자리 잡았다. 월요일 아침 10시 반부터 광주 암웨이플라자에서 성영주 리더의 요리 수업이 벌어지는 것이다. 사람들은 그에게 책을 내라고 중용했고, 마침내 <성영주의 쿨 쿨 레시피>가 출간되었다. 이 책은 5만 부 이상 판매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성영주 리더는 전국을 돌며 킨 시연회를 열었고, 지역을 뛰어넘는 호응은 요리 명장이라는 제도 개설로 이어졌다.

### 152명의 동시 헌혈, 겸손함이 일군 기적

이들은 암웨이 안에서 이룬 성공과 그 감동을 더욱 많은 사람과 나누기 위해 언제나 노력해왔다. 정치경제적 소외감이 지역

정서로 자리 잡은 호남에서 가장 높은 편이란 사실도 이들에게겐 부담이고 책임감이 된다.

“살기 어렵다 보니 사람들이 많이 위축되거나 마음을 닫았습니다. 저는 암웨이를 통해 호남이 거듭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지역 경제에 빛이 나면 사람들의 닫힌 마음도 활짝 열릴 테니까요.”

파운더스 크라운 핀을 달았지만 다이아몬드 핀에서와 같은 성취감은 없다. 이미 삶이 여유롭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마음속은 아직 안정에 목마른 다른 리더들로 가득하다. 조성봉·성영주 리더가 사명감으로 지금도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사명감이 주는 행복은 성취의 만족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저희처럼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을 선택해주신 스폰서님에게 보답하기 위해, 파트너들에게 희망을 보여주기 위해, 저희는 사명감을 가지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겁니다.”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조성봉·성영주 리더는 평범한 사람일지 모른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밥 한 그릇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전부일 수도 있다. 이들은 하룻밤 새 산을 옮기는 기적을 행하지 못한다. 하지만 수십 명의 동료와 손잡고 500명의 식사를 준비하고, 100여 명이 넘는 이가 팔을 걷어붙이고 헌혈에 동참하는 식의 작은 기적을 수도 없이 만들어내고 있다. 이들은 사단법인 ‘사랑의 본부’의 호남지부장으로, ‘스쿨 포 아시아’의 일원으로 50여 아동의 대학 진학을 후원하고 있다. 조성봉·성영주 리더는 스스로를 낮추고 또 낮추다 보니 가장 존경 받는 자리에까지 올랐다. 겸손과 나눔의 끝에 어떤 결과가 기다리는지 이들은 몸소 보여주고 있다.





# Founders Crown

조성봉&성영주

“사명감이 주는 행복은 성취의 만족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저희처럼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을 선택해주신 스폰서님에게 보답하기 위해, 파트너들에게 희망을 보여주기 위해, 저희는 사명감을 가지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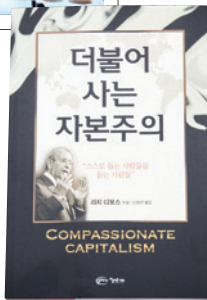
조성봉 *2020/6*

암웨이는 의의다. 그런 관계까지 해내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점수이다

조성봉



조성봉·성영주 리더 인생의 책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암웨이 리더들의 필독서. 조성봉, 성영주 리더는 힘이 들 때면 이 책을 읽는다. 창업자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다지게 해주기 때문이다.



노임을 두려워 마라

업종을 두려워 마라 F. Crown

성영주

Leadership Keyword

#1.

## 생산적인 삶

암웨이는 매일 PV를 모아가는 사업이다. 마감에 몰아치려고 하면 나중에 몇 배 힘들어진다. 월초부터 하루하루 노력을 쌓는 마음으로 사업에 임해야 한다.

Leadership Keyword

#2.

## 목적이 분명한 삶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취지를 매일 되새겨야 한다. 목적없는 노력은 표류할 수 있다.

Leadership Keyword

#3.

## 결과를 만들어내는 삶

계획을 세워도 상황에 맞춰 포기하거나 유보하면 의미가 퇴색된다. 언제나 미리 준비하면 결과는 분명히 나온다.

Founders Crown



Crown

박현열  
정은숙

2016년 3월 1일부



## 승고한 목표가 일궈낸 위대한 성취

“똑같이 출발해도 세월이 흐르면 어떤 이는 앞서가고, 어떤 이는 낙오된다. 두 사람의 거리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그건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을 얼마나 잘 활용했는지가 다르기 때문이다.”

미국 최고액권인 100달러 화폐의 모델 벤저민 프랭클린은 성공과 실패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건국 대통령인 워싱턴이나 미합중국의 분열을 막은 링컨보다 고액권에 얼굴이 들어갈 정도로 그는 정치인으로, 외교관으로 그리고 과학자로 뛰어난 업적을 남겼다. 그 비결은 스스로 이야기했듯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활용한 데 있었다. 프랭클린은 언제나 품속에 수첩을 지니고 다녔다. 이곳에 자신의 꿈과 아이디어를 늘 기록했고, 언제나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으며, 항상 해야 할 일을 완수했다. 2016년 3월 1일부터 크라운이 된 정은숙&박현열 리더의 삶은 프랭클린을 연상시킨다. 꿈 수첩을 늘 가방에 품고 다니면서 하루하루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온 점이 그렇다. 그리고 남다른 하루하루를 모아 이뤄낸 성취에서도 프랭클린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 가정의 행복, 세상 밖으로

인터뷰를 위해 정은숙&박현열 리더 자택을 방문했다. 58층 주상 복합 아파트의 펜트하우스. 엄청나게 넓은 거실과 정원이라고 해도 될 만큼 널찍한 테라스가 이어져 있었다. 눈앞으로는 초고층답게 부산 전경이 펼쳐져 있었다. 흐린



### PROFILE

2004 SILVER PRODUCER  
GOLD PRODUCER  
2005 PLATINUM  
2006 RUBY  
2007 SAPPHIRE  
EMERALD

2009 DIAMOND  
2012 EXECUTIVE DIAMOND  
2013 DOUBLE DIAMOND  
2014 TRIPLE DIAMOND  
2016 CROWN

날씨 때문에 풍경은 오히려 더 그림 같았다. 정은숙&박현열 리더의 말투는 경상도 특유의 억양에 자신감이 넘쳤지만, 목소리는 조용한 편이었다. 확신에 가득 차 있지만 듣는 이로 하여금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그들의 집과 너무나 잘 어울리는 목소리였다. 두 사람은 26년 전, 꽤 젊은 나이인 28세와 20세에 부부의 연을 맺었다. 지금의 금슬에서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듯 신혼 생활은 달콤했고, 그 이후로도 삶은 화목했다. 차고 넘칠 정도로 풍요롭진 않았어도 경제적 여유도 있는 편이었다. 호기심을 가질 만한 취미 생활은 대부분 즐겨봤고, 다양한 봉사 활동도 해왔다. 그럼에도 삶은 완벽하지 않았다. 마음 한구석에 불편함이 남아 있었다. 여유로운 삶은 쉽게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었다. 주변에는 부족함에 버거워하는 사람이 많았다. 안정적인 삶을 지인 모두와 나누지 못한다는 사실이 늘 안타깝기만 했다. 여기에 더해, 믿음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두 사람은 교회와 집만 오가며 살아왔다. 최선을 다해 선하게 살아왔지만 거기까지였다. 정은숙 리더는 어려서부터 ‘빛과소금’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할 만큼 믿음이 깊었다. 하지만 가정의 행복에만 안주하는 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마음 한편에 짐처럼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던 2004년, 정은숙 리더는 피아노 학원에서 암웨이 소개 책자를 발견했다. 책장을 펼칠 때는 막연한 호기심뿐이었지만 책장을 덮을 때는 벽찬 감동이 밀려왔다. 세상으로 나갈 최고의 수단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 QUESTIONS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박현열 리더는 개인사업을 했으며, 정은숙 리더는 전업주부였다.

**암웨이를 하는 이유**  
세상에 ‘빛과소금’으로 살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한 가지**  
겸손히 모든 사람을 사랑, 존경, 감사, 섬김.

## 하늘은 스스로 찾는 자를 찾는다

세상을 비출 방법을 찾지 못했던 그녀에게 암웨이는 문을 열어줄 열쇠였다. 암웨이 비즈니스를 통해 착한 행실로 세상에 모범을 보이고, 그 모습에 많은 사람이 감화되어 믿음의 길로 돌아설 수 있다면? 박현열 리더도 아내의 확신에 믿음을 얻기로 결심했다. 그 누구의 소개도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암웨이에 발을 들인 이들의 행보는 시작부터 남들과 달랐다. 애초부터 이들은 스스로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돕고 말씀을 전한다는 믿음으로 비즈니스를 시작했다. 암웨이 비즈니스 리더들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건 무엇일까? 어쩌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절'의 릴레이일지도 모른다. 계속된 거절의 행렬 앞에서 어떤 이는 분노하고, 어떤 이는 수치스러워한다. 거절은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자괴감을 일으키기까지 한다. 하지만 정은숙 리더는 거절이란 그렇게 무서운 게 아니라고 단언한다. "처음에도 거절이 두렵진 않았어요. 암웨이 사업의 가치가 눈에 들어왔고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상대를 돕겠다는 마음이었고, 스스로 당당했죠. 그러니까 거절을 늘어놓는 이에게 말할 수 있었어요. 이걸 내가 아니라 네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이죠." 당당했기에 목표도 분명히 세울 수 있었다. 암웨이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려는 우리가 '누구나와 마찬가지로' 움직일 수 없다. 우리는 언제나 타인의 모범이 되기 위해 가장 앞으로 나설 것이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최고의 편이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한다는 믿음은 자신감을 심어주었고, 이들은 시작부터 대한민국 암웨이 최고의 편이 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 가치를 담아, 지혜롭게 앞으로

지식은 복잡할 수 있어도 지혜는 언제나 단순 명료한 법이다.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겠다는 단순 명료한 사명감 앞에서 이들은 늘, 지혜롭게, 최선을 다했다. 이들은 삶의 잔가지에 신경을 분산하기보다 본질에, 핵심에, 목표에 집중했다. "박현열 리더는 복잡한 문제를 단순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어요. 고민이 많은 파트너도 그와 이야기하다 보면 길을 찾게 되죠." "정은숙 리더는 꿈을 꾸면 반드시 이루어냅니다. 디테일까지 섬세하게요." 서로에 대한 칭찬 안에 이들이 이루어낸 성취의 비결, 단순 명료함이 엿보였다. 이들의 믿음은 암웨이를 만나 세상으로 풍요로운 가치를 뽐기 시작했다. 그들만 누리던 가정의 행복이 세상으로 확대된 듯하다. 어떤 파트너는 이혼이 소원일 정도로 남편을 지긋지긋해했지만 이들의 후원으로 가정에 평화가 깃들었다. 사업도 번창했다. 꿈과 목표 없이 살던 이들이 행복을 찾아가도록 이정표를 세우고 다리를 놓아주면서 박현열 리더와 정은숙 리더는 흐뭇함을 느낀다. 어쩌면 희열이란 표현이 더 적합할지도 모르겠다. 처음 바랐던 것처럼 이들의 모범적인 삶을 따라 믿음을 받아들이는 이도 하나 둘 생겨났다. 아들은 하루하루 '멋있어지는' 부모의 모습을 존경하며 닮으려고 노력했다. 올해 결혼한 아들은 부모의 그림자를 따라 현재 파운더스 플래티늄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암웨이 안에서의 삶은 즐거움으로 가득하다. 이들은 재미나게 살라고 말한다. 하지만 아주 중요한 조건 하나를 덧붙였다. 재미에 가치를 담아야 한다는 것. 가치가 제대로 정립되어야 큰 성공이 가능하다고, 그들은 인생과 성취로 증명하고 있다.







Crow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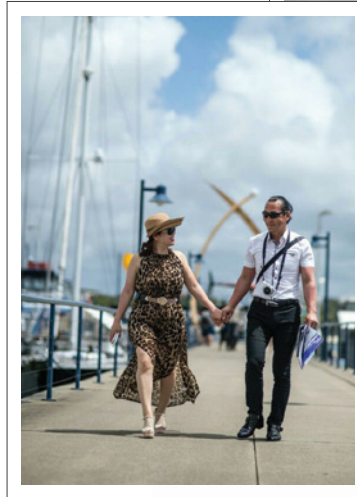
정은숙&박현열

“처음에도 거절이 두렵진 않았어요. 암웨이 사업의 가치가 눈에 들어왔고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상대를 돕겠다는 마음이었고, 스스로 당당했어요. 그러니까 거절을 늘어놓는 이에게 말할 수 있었어요. 이건 내가 아니라 네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이죠.”

도전하는 삶!  
무엇이든 있는 4달만이  
도전할 수 있다.

2019~  
GO! LAS VEGAS!!!  
내과소과 박현열

*Signature*  
2016. 4. 11 박현열



만능! 2 위대한 책~  
만능! 인생책  
You can do it, too!  
I love you  
Drea Hye 2016. 4. 17  
정은숙

정은숙·박현열 리더의 꿈수첩  
목표와 꿈, 아이디어를 적은 수첩. 2005년부터 정은숙 리더의 가방에 늘 담겨 있었다. <야베스의 기도> 브루스 윌킨슨 저 성경의 등장인물인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 나타난 축복과 진리를 소개한 책. 이 책을 통해 큰 도전과 꿈을 발견했고 많은 파트너에게 선물한다고 했다.

Leadership Keyword

#1.

믿음

믿음은 사람이 기적을 일으키게 만든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굳게 믿으면 이루어진다. 그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른다.

Leadership Keyword

#2.

소망

믿음이 있어도 소망이 없으면 사람은 지친다. 분명한 비전이 있으면 보이지 않는 영역 앞에서도 성취를 확신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게 가능해진다.

Leadership Keyword

#3.

사랑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사랑으로 덮을 수만 있다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Founders Crown



Crown

곡덕영  
성세재

2016년 9월 1일부



## 큰 성취를 향한 첫걸음

성세재·곡덕영 리더는 화교 출신이다. 1940년, 중국 산둥 출신인 성세재 리더의 아버지는 배편으로 한반도에 이주했고, 1945년 10월 시청 앞에 중식당을 열었다. 1980년대 후반 가업을 승계한 성세재 리더는 파주에 대량생산 시스템을 갖춘 공장까지 내면서 공격적인 경영에 나섰다. 당시 식당과 공장을 합해 총 직원수만 350명을 넘을 정도로 회사를 키워나갔지만 한순간에 사업은 무너져버렸다. 35세의 나이에 성세재 리더는 건설한 기업가에서 수십억 빚까지 떠안은 채무자로 전락했다. 일주일쯤 눈물이 수돗물처럼 흘렀다. 그래도 그는 실패의 원인을 남 탓으로 돌리거나 당장의 처지를 한탄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자신을 믿고 따르는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 딸이 남았으니 모든 걸 다 잃진 않았다며 재기해야 할 이유를 스스로에게 주시켰다. 문제는 '자본금 없이 어떻게 재기하는가'였다. 그 답이 암웨이였다. 1998년, 암웨이 사업을 하기로 결심한 성세재 리더는 어떻게 해야 진정한 리더로 자리할 수 있을지 심사숙고했다.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선 그제 전제조건이기 때문이었다.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묻은 결과 '타인이 자발적으로 따라오도록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넓게 보고 거대한 스케일로 움직일 때만 타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하지만 크고 넓은 시야만으론 부족하다. 흔들리지 않는 확신, 타인을 포용하는 넓은 마음이 없다면 진짜 리더로 설 수 없다.



### PROFILE

1999 SILVER PRODUCER  
2000 GOLD PRODUCER  
PLATINUM  
2001 SAPPHIRE  
EMERALD

2005 DIAMOND  
2007 EXECUTIVE DIAMOND  
2015 DOUBLE DIAMOND  
TRIPLE DIAMOND  
2016 CROWN

### 성공의 세 가지 조건: 환경, 신의, 노력

1998년, 암웨이 사업을 소개받은 성세재 리더는 속고하고 연구했다. 엇보이는 가능성을 확신으로 바꾸기 위해서였다. 미국의 암웨이 본사를 방문해서 창업자의 정신을 확인했고, 제품을 직접 사용하고 반품도 해봤으며, 6개월 동안 암웨이 보상 체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노트에 적어가며 분석했다. 확신이 생기자 그는 무작정 타이완행 비행기에 올랐다. 암웨이 사업의 세계 1인자가 그곳에 있기 때문이었다. 밀도 끝도 없이 암웨이 타이완을 찾은 그는 5시간 만에 홀리첸 여사를 만나는데 성공했다. 그녀는 성세재 리더의 이야기를 듣기보다 행동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그때부터 2년 반 동안 성세재 리더는 타이완을 60회 이상 방문했다. 믿음이 생긴 홀리첸 여사는 2001년에 한국을 방문했다. 파트너가 얼마 되지 않았던 성세재·곡덕영 리더는 한국 암웨이의 다른 그룹들을 초대해서 미팅 일정을 잡아야 했다. 100여 명의 참석자 가운데 그날의 호스트인 성세재·곡덕영 리더의 파트너들은 10명 남짓이 전부였다. 성세재 리더는 성공을 위한 세 가지 조건으로 환경, 신의, 노력을 꼽는다. 스스로 즐기며 최선을 다해 사업하기 위해선 편안한 환경이, 리더를 믿고 따르고 파트너와 마음을 나누기 위해선 신의가, 이러한 조건들을 배합하기 위해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인생의 스승 앞에 10여 명의 파트너밖에 데려가지 못했지만 그는 노력으로 큰 그룹을 이루어내겠다고 그날 다짐했다.

### QUESTIONS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곡덕영 리더와 성세재 리더는 함께 사업체를 운영했다.

**암웨이를 하는 이유**  
자유를 주는 사업이니까 (돈과 시간, 하고 싶은 일 하고, 하기 싫은 일은 하지 않는 자유).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  
신뢰.

## 사람이 가장 큰 재산

성세재 리더는 국산 중형차를 본다. 자동차 같이 작은 문제에 관심을 나누기 때문이다. 그의 진짜 재산은 사람이다. 화교 출신인 그는 국제사업과 국제후원을 위해 한 달에도 몇 번씩 중국을 찾는다. 그래서 눈을 감고 중국 지도의 어느 곳을 짚어도 그곳에 친구가 있다고 자신한다. 비자기간이 만료된 걸 잊을 정도로 중국에서의 미팅에 열중하고, 기온이 50도 이상 차이나는 도시를 일주일 사이로 오가면서 노력한 결과다. 암웨이 사업을 하는 17년간 그가 넘나든 중국의 도시만해도 120개가 넘는다. 그렇다면 성세재 리더가 사람을 대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사람 때문에 힘든 적이 있다면 그건 자신의 평가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람을 일하는 정도에 따라 다섯 단계로 평가합니다. 함께 목숨을 걸고 사업할 수 있는 사람, 열심히 일하는 사람, 일을 적당히 하는 사람, 할까 말까 망설이는 사람,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그것입니다. 누군가를 평가했으면, 저는 상대가 미안해 할 정도로 대우합니다. 지금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함께할 수도 있으니까 평가 이상의 최선을 다하지만 누구나 똑같이 대할 순 없으니까요.”

## 성공적인 삶의 다섯 조건

파트너에게 성세재 리더는 때로는 부드럽고 때로는 엄격하다. 하지만 그 마음은 한결같다. 믿기 전엔 움직이지 않고, 믿었으면 흔들리지 않는 일관성이 대인관계에서도 똑같이 적용된 것이다. 그가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이유는 ‘잘살고 싶은’ 욕구 때문이다. 잘사는 삶이란 어떤 것일까? 성세재 리더는 다섯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첫째, 한결같이서 안정적인 수입을 내는 사업이 필요합니다. 둘째, 하나의 화제와 목표 아래 공감대를 지닌 가정이 필요합니다. 셋째, 억만금을 얻어도 건강을 잃으면 끝납니다. 자산의 첫째가 건강입니다. 넷째, 뜻이 맞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내적인 성장을 지속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어려움과 좌절을 겪지 않으면 성장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아픔까지 품을 수 있을 때 진짜 행복한 삶이 완성됩니다.”

성세재·곡덕영 리더는 시련 속에서 암웨이를 만났다. 하지만 그들은 암웨이 사업을 통해 ‘잘사는 삶’의 모든 조건들을 채워나가고 있다. 암웨이에서 인생의 스승과 평생의 지기를 만났고, 아들은 2세 사업가로 성장 중이다. 필부라면 이들이 이미 성공했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이미 잘사는 삶을 이루었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성세재·곡덕영 리더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마음의 크기가 다르고 바라보는 지점 역시 훨씬 저 멀리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의 크라운 핀 성취는 큰 출발의 작은 첫걸음에 지나지 않는다.





Crown

곡덕영&성세재

“성세재 리더는 성공을 위한 세 가지 조건으로 환경, 신의, 노력을 꼽는다. 스스로 즐기며 최선을 다해 사업하기 위해선 편안한 환경이, 리더를 믿고 따르고 파트너와 마음을 나누기 위해선 신의가, 이러한 조건들을 배합하기 위해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천 번의 노력보다  
한 번의 정확한 선택이 중요하다!  
盛世才 & 曲德榮



### 중국 지도

성세재 · 곡덕영 리더는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 사업에도 열심이다. 성세재 리더는 2000년부터 중국을 찾을 때마다 늘 이 지도를 가슴에 품었다. 테이프를 붙여가면서까지 이 지도를 아끼는 이유는 간단하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성공하지 못하면 이 지도는 폐물에 불과하지만, 꿈을 이룬다면 역사 그 자체가 되리라는 확신 때문이다.



암웨이 사업 공부 노트  
1998년 ABO로 등록된  
성세재 리더는 1년간 암웨이  
사업에 대해 관련 자료를  
모으고 정리하면서 사업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Leadership Keyword

#1.

##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리더

다운 파트너 앞에서도 잘못된 일은 분명히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잘못을 분명히 사과하고 고칠 때에만 더 나은 미래는 만들어진다.

Leadership Keyword

#2.

## 변화하길 원하는 리더

잘못을 인정하는 것만으론 변화를 이룰 수 없다. 습관처럼 사과를 해도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근본적인 변화는 불가능하다.

Leadership Keyword

#3.

## 감당할 수 있는 리더

행동은 결과를 만든다. 자신이 맡은 일의 결과가 좋건 나쁘건 확실히 책임지고 감당해야 타인의 모범이 될 수 있다.



## Triple Diamond

Founders Double Diamond  
Double Diamond  
Founders Executive Diamond  
Executive Diamond  
Founders Diamond  
Diamond

## 김미정 강영환

2016년 9월 1일부



## 꿈을 찾고, 꿈을 이루어주고, 꿈을 키워주는 암웨이

진주는 작은 도시입니다. 더군다나 제가 태어난 곳은 진주의 중심부가 아니라 외곽이어서 삶을 향상시킬 기회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여자는 시집가서 남편을 잘 보필하는 것 이상의 미래를 찾기 힘든, 매우 가부장적인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어린 시절 성적도 괜찮고 낙살도 좋았던 저는 좀 특이한 꿈을 꾸면서 자랐습니다. 그때 제 꿈은 개그우먼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3차 면접에서 미역국을 먹었지만 SBS 3기 개그맨 공채 시험의 수험표를 지금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시험에 떨어진 저는 고향에 돌아와 고등학교 국어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까불까불한 에너지를 강하게 풍긴 탓일까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신혼생활 중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암웨이 사업을 전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게 내민 카탈로그에는 남편의 약국에서 파는 것과 별다를 바 없어 보이는 제품만 가득했습니다. 고향에 돌아온 이후 현모양처 이상의 꿈을 꾸지 않는 제게, 자꾸 꿈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12년 내내 반장을 놓치지 않았고 응원단장에 심지어 씨름까지 잘했던 제자의 '끼'를 못내 아쉬워하며 선생님은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1년 뒤, 의약 분업으로 고민에 빠진 남편을 보면서 저도 심란해졌습니다. 앞으로의 미래를 고민하다 선생님께 안부 전화를 드렸더니, 당장 미팅장에 와서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임신 8개월이던 저는 만삭의 몸을 이끌고 눈보라를 헤치고 울산으로 갔습니다. 남편인 강영환 리더는 “이 눈보라를 뚫고 나가는 건 예수쟁이와 암웨이 하는 인간들밖에 없을 것”이라며 격렬히 반대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나갔고, 20년이 지난 지금은 강영환 리더도 저와 함께 종교와 암웨이 안에서 은총이 충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2001년, 저는 그렇게 암웨이 사업에 합류했습니다.

### 행복한 아시아와 세계평화를 꿈꾸며

저는 임신한 상태에서 첫 사업 설명회를 들었고, SP를 달성할 즈음 둘째를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암웨이에 결사반대하던 강영환 리더도 다이아몬드 핀에 도전할 때부터 사업에 동참했습니다. 약사였던 그는 의약 분업 후 병원의 처방전을 받아 약을 짓길 거부하고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앞에 약국을 열었습니다. 손님이 오지 않을 곳에 자리 잡은 약국은 라디오에

소개될 정도로 화제를 모았지만 경영상의 문제로 2년 만에 폐업했습니다. 그전에는 ‘맹정신’라는 이름의 숙취 해소제를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갈근과 칩뿌리, 헛개수 등으로 만든 맹정신의 효과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방부제가 싫어서 꿀을 넣고, 충북 금산에서 인삼을 수급하고, 녹차까지 고급품만 고집하니까 생산 단가가 급상승했습니다. 결국 사업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 후 강영환 리더는 암웨이 안에서 자신의 꿈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는 오염되지 않은 물과 음식을 통해 깨끗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고, 그 정신적 건강을 가정의 평화, 나아가서 세계의 안녕으로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그 첫걸음으로 저희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에 연락해서 전국 소년원에 오메가 3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실적인 경제력의 한계 때문에 1개월분의 도움밖에 주지 못하지만, 11명의 협조를 구하면 그만입니다. 예전의 저는 남편의 이런 생각을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점점 더 큰 꿈을 꾸면서 남편을 이해하게 됩니다. 국어 교사였던 저는 고전문학을 전공했습니다. 앞으로는 한국어 교육을 추가로 공부하고 싶습니다. 박사과정까지 밟고, 다문화 가정의 문제에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저는 10년쯤 전에 제가 꿈꾸는 미래를 한 권의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조금씩 모양이 달라졌을지 몰라도 그때의 꿈은 대부분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더 큰 꿈이 저희를 행복하게 합니다. 누구나 꿈을 이루면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과뿐 아니라 과정에서도 행복하길 바랍니다. 저희가 깨달은 비밀 한 가지를 조언했으면 합니다. ‘남에게 플러스 되는 일이 아니라면 절대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 QUESTIONS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김미정 리더는 국어 선생님이었고, 강영환 리더는 약사였다.

**암웨이를 하는 이유**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니깐.

**반드시 지켜야 할 한 가지 윤리 강령.**



## Triple Diamond

Founders Double Diamond  
Double Diamond  
Founders Executive Diamond  
Executive Diamond  
Founders Diamond  
Diamond

## 전영민 방성정

2016년 9월 1일부



## 깨어있는 마음으로 항상 한 발자국 앞에서

1998년, 저는 아동복 매장을 나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까지 이 일을 지속하긴 어려워 보였습니다. 밤새워 납대문 시장을 찾아가 물건을 펴 체력도 문제였고, 할머니가 되어서도 예쁜 아동복을 선별할 수 있을지 능력도 걱정이었습니다. 직업 외의 또 다른 고민거리는 아들 교육이었습니다. 아들을 좋은 학교에 진학시켜서 더 나은 미래를 살아가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그때 암웨이가 왔습니다. 나이나 유행에 구애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사업인데다, 아들에게도 일류대에 들어가는 것 이상의 비전을 열어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암웨이에 모든 열정을 쏟았습니다.





그 결과 다섯 달 만에 SP가, 2년 8개월 만에 다이아몬드 핀을 성취했습니다. 5년 만에 수석 다이아몬드가 된 후 저는 꿈 보드에 적어두었던 일들을 해보기 위해 잠시 사업을 쉬었습니다. 라이온스 회장이 되어 지역 사회에 봉사했고, 신앙생활도 함께 겸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날 여건이 허락하지 않았던 공부도 했습니다. 그렇게 5년간 외부 활동을 하다 보니 멈춰선 파트너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더 나아가게 하기 위해선 출선수범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트리플 다이아몬드를 도전했는데, 성취하고 보니 알았습니다. 성공자들이 자신의 성취보다 파트너들을 얼마나 신경 쓰셨는지 깨닫게 됩니다. 핀을 성취하면 할수록 과거에는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경제적인 동기에서 도전했던 다이아몬드, 파트너들에게도 보상을 나눠주고 싶어서 도전했던 수석 다이아몬드, 몇 년째 교육장에 오시는 분들을 성공시키는 한편 한국암웨이에 기여하고 싶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마음이 커지는 걸 느낍니다. 저희는 암웨이의 여러 보상 가운데 여행에 특히 큰 의미를 둡니다. 많은 분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을 다녀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함께 가야 높이 설 수 있다

성취는 암웨이 사업자들의 삶을 나아지게 합니다. 그들의 아이들은 부모 노력의 보상을 상속 받습니다. 하지만 플랜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서 자녀에 대한 애뜻함만으로 집안을 챙겨주고 뒷바라지하시는 부모님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찡찡합니다. 여행은 리더들의 부모님들께 더 없는 보상이 됩니다. 지금은 많은 암웨이의 남자 리더들이 집안 일에 도움을

주지만 저희가 사업을 시작했을 때에는 남자의 가사 노동은 금기나 다름없었습니다. 루비 핀을 달성했을 때 방성정 리더는 처음 주방에 들어왔습니다. 장보기를 돕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당연하게 보이는 이 일이 당시에는 세미나의 스피치 주제였습니다. 2,000여 명의 청중들이 가사를 돕는 남편 이야기에 놀라고 부러워했습니다. 그만큼 저희는 앞서가고 있던 것입니다. 바뀌는 세상의 모습을 감지하지 못하고 지나간 과거의 시간만 고수한다면 발전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장을 꿈꾼다면 한시도 책을 손에서 놓아선 안 됩니다. 끝없는 학습으로 언제나 깨어 있고, 세상의 변화보다 한 발 앞서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혼자만 앞으로 나아가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혼자만의 사업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의 최고봉은 8,848미터입니다. 그런데 그 산만 오벨리스크처럼 우뚝 솟아있는 건 불가능합니다. 홀로 선다고 해도 얼마 지나지 않아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사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만의 성취는 어리석은 꿈입니다. 옆의 형제 레그와 늘 함께 갈 때 무너지지 않고 단단하게 최고의 위치까지 갈 수 있습니다. 암웨이는 저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저희 아들도 암웨이 안에서 성장해서 다이아몬드 핀을 단 리더가 되었습니다. 저희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아들이 경제적인 안정과 그 이상의 검증된 사람들 사이에 있는 모습을 보면, 항상 행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저희의 행복을 나누어 줄 때까지, 100조의 다이아몬드를 만들고 500인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꿈을 꾸면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 QUESTIONS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전영민 리더는 이동복 매장을 운영했고, 방성정 리더는 은행에서 근무했다.

**암웨이를 하는 이유**  
가문을 바꾸는 일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  
창업자의 가치관을 롤 모델로 삼았던 마음을 끝까지 지켜나갈 것.

Triple Diamond



## Founders Double Diamond

Double Diamond

Founders Executive Diamond

Executive Diamond

Founders Diamond

Diamond

## 김정훈 조미영

2016년 9월 1일부



## 신념의 결실: 파트너를 성장시키는 리더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곤 합니다. 출신이나 학벌, 재산 같은 배경의 한계가 벽이 되어 성장을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암웨이에선 출발선의 한계를 뛰어넘어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암웨이에 매료되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사업을 시작하면 일이 생각처럼 쉽게 풀리지 않아서 당황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성공하려면 삼박자를 갖추어야 합니다. 암웨이라는 회사가 자전거의 앞바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사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바퀴는 구르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암웨이는 전 세계 80개 이상의 나라에서, 60년 이상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앞바퀴가



움직이는지 고민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먼저 성공한 경험자들은 따라오는 분들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자전거의 뒷바퀴가 바로 시스템입니다. 암웨이라는 세계를 완전히 이해한 다음에 사업을 시작하려면 시간이 너무 지체됩니다. 시스템은 아직 이해하지 못한 이들을 끌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자전거가 아무리 완벽해도 본인이 페달을 돌리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개인의 노력이 삼박자의 마지막 하나입니다. 저희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넘어 더 나은 미래를 만들려고 최선을 다해서 페달을 밟았습니다. 가파른 언덕을 넘으면서 숨을 헐떡이기도 했지만 갈수록 경사는 완만해집니다. 산등성이를 하나씩 넘을 때마다 새로운 풍경이 나타납니다. 더 넓은 세계를 보게 되면서 사람 자체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암웨이는 변화하는 삶,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세 번의 결단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해 볼만 한 사업이라고 하니까 일을 시작했지만 처음부터 올인 하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열심히 하기보다 모든 걸 걸어보라’는 업라인 스폰서님의 조언을 듣고 전력질주를 결심했습니다.

### 삶의 가치는 파트너의 행복에서 나온다

첫 결심으로 사파이어 핀까지 성취했지만 삶을 송두리째 바꾸진 못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이어지면서 며칠간 심사숙고했습니다. 40대, 50대의 미래를 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암웨이 사업가로 늙어가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저희 삶을 결정지는 두 번째 결단이었습니다. 노력하면 언젠가 다이아몬드 핀이 되겠지. 그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지만 목표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파트너들의 모습이 훨씬 구체적으로 마음에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저들이 좋은 스폰서를 만났다면 지금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지 않을까? 우리가 부족해서 저들이 고생하고 있는 게 아닐까? 사무치게 미안했습니다. 노력하다 보면 다이아몬드도 될 수 있다는 마음론 안 된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무조건 다이아몬드가 되겠다고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세 번째 결단 이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스스로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넘어서겠다는 목표는, 파트너들의 성공을 비는 간절함으로 바뀌었습니다. 봉고차의 유리창을 교체할 여력이 없어서 깨진 유리를 테이프로 고정시키던 파트너가, 4번에 걸쳐 더 나은 집으로 옮겼습니다. 연속되는 고난의 굴레를 벗고 다이아몬드로 거듭난 파트너도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저희를 행복하게 합니다. 몽골 봉사활동에서 만난 유니세프 직원은, 자신들과 우리들이 참 비슷하다고 말했습니다. 나눔과 봉사를 위해 노력하는 점도 그렇고, 자립 기반을 만들어주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았다는 점도 그렇습니다. 다이아몬드 핀을 성취했다는 건 최소한 주변 몇 명의 삶을 변화시켰다는 뜻입니다. 올바른 문화를 만들고, 서로에게 더 나은 인생을 선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파트너를 떠올리면 가슴이 벅칩니다.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저희는 이번 보상 여행으로 시드니에 다녀왔습니다. 다이아몬드 2년 차에는 둘이 다녀왔지만 이번에는 세 조의 파트너들과 함께했습니다. 같은 장소지만 사진 속의 사람이 계속 늘어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건네주는, 나눔과 봉사의 행복을 계속 키워가고 싶습니다.

### QUESTIONS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김정훈 리더는 플랜트 엔지니어였고, 조미영 리더는 자영업을 했다.

**암웨이를 하는 이유**  
원하는 모든 삶이 여기 다 있으니.

**반드시 지켜야 할 한 가지 점도.**

Triple Diamond



## Founders Double Diamond

Double Diamond

Founders Executive Diamond

Executive Diamond

Founders Diamond

Diamond

## 안을현 전속

2016년 9월 1일부



## 평범한 사람들이 만드는 기적

감사합니다. 내일이 기대되는 삶이 되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안정적인 대기업에 입사했기에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내아이들을 키우면서 편히 살고 있는 저희 부부에게 처음 다가온 암웨이는 기회로 보이지도 않았고 지금의 모습 역시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제조업계 최초로 20년 이상 젊음과 정열을 직장에 바쳤던 선배들이 명예퇴직 당하는 모습을 보며, 저희는 미래에 대한 준비로 언니부부가 하고 있는 암웨이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흐름을 알게 되면서 암웨이 사업으로 막연히 자유를 꿈꾸기 시작하였습니다. 꾸준하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사업을



진행하며 빠르지는 않지만 조금씩 성장하면서 꿈의 크기도 함께 성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이유 때문에 성장이 잠시 멈추기도 하면서 함께해온 파트너들이 꿈과 희망을 버리고 떠나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좌절보다는 우리의 선택과 판단은 올바른 것이고 반드시 되는 사업임을 믿었고, 위기를 기회라고 생각하고 더욱더 열심히 하게 된 결과 사업이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미팅속에서 배우고, 느끼고, 변화하고 그동안 잊고 살았던 꿈을 꾸면서 소중하고 간절한 그 꿈을 하나씩 이루어 가면서 함께 해내는 멋지고 아름다운 사업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신기한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생각한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존재 할 뿐입니다. 우리가 넘지 못할 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무한한 잠재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계를 정하는 것은 바로 자신 스스로입니다. 회사를 믿고, 제품을 믿고, 스폰서를 믿고, 자신을 믿고 꾸준히 진행하신다면 멋진 자유인이 될까라 믿습니다.

### 받기보다 나누면서 커지는 진짜 행복

나 혼자만의 사업이 아니라 함께 하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항상 인간적인 관계를 중시했으며, 스폰서님과 시스템에 순복하고 존중 하였으며, 함께하는 사업파트너들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인정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오늘의 Founders Double Diamond 라는 멋진 핀을 성취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혼자만의 성공이 아닌 많은 파트너들과 함께 성장하는 것에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많은 파트너분들의 의욕이 넘치고, 더욱이

많은 20대 젊은 리더들이 함께 하기에 현재보다도 미래가 더욱 기대됩니다. 암웨이는 남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줄 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WIN-WIN 비즈니스입니다. 개인의 자유뿐만 아니라 정말 암웨이 사업의 본질인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를 실천하기 위해 선한 부자, 나눔의 부자가 되는 것이 소망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경제적인 자유의 기회를 전달하고, 한분 한분 파트너리더님들이 경제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과 감사함을 느꼈고, 올바른 환경 제공과 리더로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아빠가 사업을 해서 형제 둘이서 시간을 많이 보냈던 아이들, 스스로 모든일을 해결하는 자립심과 목표의식이 뚜렷해서 정말 멋지게 잘 자라준 아이들에게 전속·안울현 리더는 고맙고 자랑스럽고 사랑한다는 말을 전합니다. 20대 젊은 파트너들을 보면서 가족이 평생 할수 있는 멋진 사업이기에 머지않아 사랑하는 아들들과 함께 할날을 기대하며 행복해 합니다. 이 멋진 기회를 알려 주시고 사랑과 격려로 이끌어 주신 스폰서님께 감사드리고, 멋진 팀워크로 함께하는 파트너리더님들이 계심시기에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사람들이 암웨이를 수단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는 그 수단을 넘어 삶 자체입니다. 저희는 인생에서 필요하고 원하는 모든것들이 이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바쁘게만 정신없이 살다가 한 평생 보내는 삶이 아니라 명명한 목적의식과 올바른 방향으로 참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서 감사하고 많은 파트너들을 인도 할 수 있기에 더 행복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한 마음으로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그때까지 함께 갑시다.

### QUESTIONS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안울현 리더는 대기업 직원이었고, 전속 리더는 전업주부였다.

**암웨이를 하는 이유**  
내가 내인생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가지**  
시스템 안에서 상대를 존중할 것.

Triple Diamond  
Founders Double Diamond



## Double Diamond

Founders Executive Diamond  
Executive Diamond  
Founders Diamond  
Diamond

## 이원영 이병성

2016년 5월 1일부



## 더 넓은 울타리, 더 큰 행복의 세계로

지난 5월에 언니가 다이아몬드 핀 입성식을 치렀습니다. 저희의 더블 다이아몬드 핀업과 더불어 뭔가 새로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암웨이를 통해 가족 사업의 꿈에 한 발 더 나아갔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2007년에 암웨이를 처음 만났습니다. 남편은 안정적인 대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저는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교수 임용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사회 기준을 따르자면 성공적인 삶을 향해 별 문제 없이 다가가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저희도 그렇게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속내는 달랐습니다. 남편은 은퇴 시기를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일이었고, 제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을



듯했습니다. 미래도 불안했지만 현재 역시 문제였습니다. 남편의 꿈은 좋은 가장이 되는 것이었고, 저희의 바람은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추구하는 가치 체계의 맨 앞줄에는 언제나 '가족'이 놓여 있습니다. 일을 하는 이유 역시 가족이 함께 단란하게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회사 일로 바빠서 식구들 얼굴도 보기 힘들다면, 목적과 수단이 전도된 것이죠. 저희 상황이 그랬습니다. 남편은 타의에 의해 회사를 떠나야 하는 상사들을 보면서 5년 후, 10년 후 우리 가족의 미래를 떠올리며 고민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암웨이를 접하고 과연 해답이 될 수 있을지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도 사람이 없는 걸 골라 탈 정도로 폐쇄적인 성격이었습니다. 연구실에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온종일 말 한마디 나누지 않는 날이 많을 정도였습니다. 사람과 인연을 맺는 건 상처가 될 수 있다고 여겼고, 인간관계를 피곤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암웨이를 시작한 후 많은 사람을 만나야 했습니다. 암웨이를 만나기 전까지 평생 받아본 것보다 많은 거절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지지 않았고, 오히려 사람들을 제 생활의 한 부분으로 가까이 받아들였습니다. 이렇듯 변화하는 저를 보며 남편은 깜짝깜짝 놀라곤 했습니다.

**가족의 행복을 만드는 사업, 가족을 넓혀주는 암웨이**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다는 건 자신의 울타리를 넓히는 일입니다. 울타리가 넓어지면 신경 써야 하는 일도 많고 스트레스도 늘어납니다. 어찌면 스트레스는 울타리 규모의

제공 정도로 커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울타리가 커지면 행복도 자라납니다. 가족이란 가치를 지키기 위해 암웨이를 시작했는데, 울타리가 넓어지면서 가족도 더욱 커졌습니다. 지난해에는 9조의 파트너 가족들과 발리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저희 가족끼리 여행할 때와는 비슷하면서도 다르고, 다르지만 비슷했습니다. 아이들끼리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것이 가족이라고 느꼈습니다. 이제 사람이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사람의 기본적인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면서 사람들의 문제가 뭔지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건강이고, 저 사람에게 필요한 건 돈입니다. 각자에게 필요한 가치는 다르지만, 저는 암웨이가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절당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상대방에게 다가갈 필요한 가치를 회복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경제적 안정이건 건강이건, 대부분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선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하니까요. 많은 사람이 암웨이를 오해하곤 합니다. 저는 과거에 사람들의 시선과 생각을 많이 의식해서 남들이 좋아하는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로는 기회가 생기지 않습니다. 처음 제 주변에서는 암웨이 사업에 찬성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렇기에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건 암웨이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하는 저희 모습을 싫어하고 두려워한 겁니다. 자신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럼 모든 게 달라집니다. 앞으로 파트너들도 모두 다이아몬드가 되길 바라며, 2018년까지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후원하겠습니다.

#### QUESTIONS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이원영 리더는 유전공학 박사학위를 받은 후 교수 임용을 준비 중이었고, 이병성 리더는 안정적이지만 잦은 야근을 받아들여야 하는 대기업에 재직하고 있었다.

**암웨이를 하는 이유**  
평생 필요한 생필품을 안전하게 골라 쓰면서, 노후 준비까지 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지켜야 할 한 가지 절대 금장.**

Triple Diamond  
Founders Double Diamond



## Double Diamond

Founders Executive Diamond  
Executive Diamond  
Founders Diamond  
Diamond

## 최정희 김용식

2016년 9월 1일부



## 파트너들과 함께 이룬 성장

암웨이를 하기 전에도 저희는 참 재미나게 살았습니다. 개인사업의 매출도 가족의 생계를 꾸리기 부족하진 않았고, 김용식 리더의 주변은 늘 사람들로 들썩였습니다. 온 가족이 운동을 좋아했기 때문에 겨울이면 스키장을, 여름에는 한 달씩 바닷가의 텐트 생활을 했습니다. 매일이 즐거웠지만 마음 한 구석의 불안감을 완전히 떨칠 순 없었습니다. 노후에 대한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당장의 삶에도 문제가 없진 않았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매장은 설날과 추석 당일, 연간 이틀만 휴무였습니다. 매일의 폐점 시간도 밤 10시였으니, 스스로를 돈 버는 기계가 아닌지 자조한 게 어찌면 당연한 일이겠죠.





스키장도 야간에만, 바닷가의 텐트에서도 폐점 후 밤에만 보낼 수 있었습니다.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어도 시간이 너무 빠듯했던 겁니다. 그 전의 삶은 반대였습니다. 개인사업을 하기 전 남편은 15년간 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그때는 시간의 여유가 있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시간과 재정적 여유의 균형을 이루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미래에 균형 잡힌 노후의 삶을 살기란 더욱 어려울 게 분명했습니다. 게다가 김용식 리더는 아이들 자전거까지 보육원에 가져다 줄 정도로 나누는 삶을 살고 싶어했습니다. 그런데 삶의 여건이 나눔과 봉사에 한계선을 그려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뒤로 불안의 씨앗이 늘 숨어서 짝을 튀울 준비를 하고 있던 셈입니다. 그때 암웨이가 다가왔습니다. 균형을 이룬 시간과 경제적 여유, 나눔과 봉사, 여행의 보상. 남을 위하는 삶을 살면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면 그 이상 바랄 게 있을까요? 20년 전, 저희는 그렇게 총체적인 이유로 암웨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동해안 시골에서의 사업이지만 즐거웠습니다. 지역에 다이아몬드 리더가 한 분도 없어서, 1박2일 세미나가 있다면 그곳이 어디든 달려갔습니다.

**설 때도 시스템 안에서,  
나아갈 때는 파트너들을 위해서**

예전의 상황은 지금과 달랐습니다. 인터넷으로 회원 가입을

할 수도 없고, 가입 신청서에 서명을 해서 보내도 처리에 일주일 이상이 소요됐고 주문한 물건을 택배로 받는 데 며칠씩 걸렸습니다. 2차선이었던 영동고속도의 정체구간을 오가며 다른 지역 세미나에 동양하듯 참석해서 다이아몬드 리더의 이야기를 들던 게 잊그제 같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각자의 상황에서 사업을 합니다. 그렇지만 스스로를 이겨내지 못해서 무너져버리는 분들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사업은 해보는 게 아니라 해내는 겁니다. 중간 점검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박차를 가하는 대신 포기해버려선 안 됩니다. 저희에게 이번 핀업은 14년 만의 일입니다. 그건 저희가 지난 성취에 만족한 탓입니다. 40대에 꿈꾸던 여유로운 50대를 보냈고, 아들-딸은 잘 자라주었습니다. 삶의 향기를 즐기면서 보낸 14년 동안에도 저희는 시스템 밖으로 물러나진 않았습니다. 원칙을 지키고, 언제나 시스템 안에 머물면서, 사업 설명과 제품 전달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저 긴장감을 늦추고 마음을 편하게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희와 파트너들에게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바로 암웨이 60주년 기념을 위한 행사지인 라스베가스에 함께 초대받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도전했고 성장했습니다. 이번 도전은 꼭 함께 성공해야 할 파트너들과 함께 이뤄내야만 하는 도약의 발판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사랑하는 파트너들과 암웨이 60주년을 향한 우리의 도전은 계속 될 것입니다.

## QUESTIONS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최정희 리더와 김용식 리더는 함께 개인 사업체를 운영했다.

**암웨이를 하는 이유**  
꿈을 실현해주는 사업이니까.

**반드시 지켜야 할 한 가지 원칙.**



## Founders Executive Diamond

Executive Diamond  
Founders Diamond  
Diamond

## 김미지

2016년 9월 1일부



## 가치가 우선이 되는 자연스러운 삶

### QUESTIONS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김미지 리더는  
전업주부였다.

**암웨이를 하는 이유**  
미래를 준비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  
기본을 지키면서 정직하게.

여고 동창이 권한 암웨이 제품이 아이의 아토피 피부염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되었고, '제품이 참 좋구나...'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 친구의 권유로 들어보게 된 강의에서 가정의 현실점검을 해보았습니다. 소심하고 걱정 많은 성격을 타고 났기에 저는 늘 미래가 걱정이었고 현재가 행복해야 되는데 좋은 일이 생겨도 늘 불안했습니다. 강의를 듣게 되면서 미래 대비를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정말 제대로 한 번 알아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 후 제 삶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대 변화의 중심에 선 정보를 계속 듣게 되고 바른 먹거리,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언제나 긍정이 마음에 담기도록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고... 제 주위에는 점점 긍정 에너지 가득한 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면서 저도 활기찬 성격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이 너무도 마음에 듭니다. 마음 속 깊은 곳에서부터의 평온한 행복을 느낍니다.

### 충만한 마음, 아름다운 세상

든든한 미래를 준비해가고 있고 좋은 분들과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고, 늘 성장하면서 나이 들어가는 충만함으로 가슴 그득합니다. 마음이 채워지면 모든 게 제대로 보입니다. 하늘의 구름은 아름답다 느껴지고 길가 풀꽃 하나하나 정겹습니다. 아침에 상쾌한 마음으로 눈뜨고, 기쁜 하루를 시작하는 인생이 됐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큰 부자가 아니라 맘의 평화를 누리는 행복한 자유인입니다. 세계이 사업을 알려주신 스폰서님과 제가 알려드린 파트너분이다 함께 여행을 다닐 때면 정말 '처음 들었던 그 플랜대로 되는 일구나...' 감동합니다. 경제적 안정을 뛰어넘는 가치들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 나타납니다. 더 잘 살고 싶어 시작했던 이 사업을 어떻게 가치 있게 살고 싶은지 알려줬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도록 이 사업을 알려주시고 손잡아 주신 스폰서님은 제 인생의 귀인이시구요, 늘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옳은 길 걸으면서 행복함으로 충만한 이 삶을 파트너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길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 Founders Executive Diamond

Executive Diamond  
Founders Diamond  
Diamond

## 반주완 김동욱

2016년 9월 1일부



## 1%발전을 지속하는 좋은 습관이 재능을 능가한다

저희는 현재의 삶에서 누리는 모든 것을 암웨이에서 얻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는 17평 월세 아파트에서 생활할 정도로 여유가 없었습니다. 말도 잘 못하고,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자신감도 부족하고... 할 수 없는 이유가 많은 평범한 저희였지만 경제적 안정, 노후, 든든한 부모, 꿈꾸던 세계여행 등 해야 할 이유가 더 많았기에 오롯이 해야만 될 이유에만 집중했습니다. 이제는 경제적, 시간적 제약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면서 세계 50여개의 수많은 지역을 자녀와 함께 여행하면서 돈으로도 줄 수 없는 최고의 가르침인 "경험"을 선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질 수 있다는 믿음으로 노력을 지속해서, 하루에 1%씩만 발전해 나간다면 1년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365%가 아니라 3,778% 발전한 자신과 조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1%를 지속하는 좋은 습관'이 타고난 재능을 능가한다고 확신합니다. 성공은 가치 있는 꿈의 점진적인 실현이라는 말처럼 성공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한 단계씩 변화하고 숨겨진 자신의 잠재능력을 개발해간다면 누구나 이 사업을 통해 성공할 수 있습니다.

### 믿음을 증명하는 도전 그리고 성취

어느 고속도로 화장실에 적혀있었던 "큰 것부터 해결하라 작은 것은 저절로 해결되리니"라는 문구처럼 저희가 하나에만 집중하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일인이 사업에만 집중해 왔기 때문에 믿음을 증명하는 도전, 그리고 성취 저희는 그렇게 삶을 바꾸고 많은 보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여유로워진 저희 삶보다 함께하는 파트너님들의 성장에서 보람을 느낍니다. 그분들 가족과의 여행이, 함께 나누는 성장과 성취가, 내가 느낀 가치의 공유가 훨씬 더 기쁩니다. 올 한 해는 다이아몬드 때의 열정으로 끝없는 도전하고 증명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십여 년 만의 편업이니 증명의 기간이 짧진 않았지만, 지난 시간은 정체가 아니라 작은 그릇을 키워가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탄탄한 결과가 나오니 마음의 여유가 커집니다. 저희가 누린 걸 나누며 더 큰 에너지로 파트너들을 돕고 싶습니다. 어느 누군가의 삶이 좀 더 나아지고 행복해지는 모습에 마음이 커져가는 만큼 발걸음을 재촉하며 더욱 성장하겠습니다.

### QUESTIONS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반주완 리더는  
메이크업 아티스트였고,  
김동욱 리더는 대기업  
연구원이었다.

**암웨이를 하는 이유**  
재정적 안정에서 내면의  
자유까지 얻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지켜야 할 한 가지**  
자신의 성공에 대한 믿음과  
시스템의 원칙.

Triple Diamond  
Founders Double Diamond  
Double Diamond



## Founders Executive Diamond

Executive Diamond  
Founders Diamond  
Diamond

## 한미경 황희연

2016년 9월 1일부



## 인내의 끝에 열린 달콤한 열매

### QUESTIONS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한미경 리더는 웨딩 스텝을 운영했고, 황희연 리더는 자영업을 했다.

**암웨이를 하는 이유**  
인생을 바꾸고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니까.

**반드시 지켜야 할 한 가지 믿음과 신념.**

저희는 처녀 총각일 때 각각 암웨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잘살고 싶은 꿈이 가득하던 저는 웨딩 사업을 시작했지만 뜻대로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암웨이를 알게 되었고, 다이아몬드의 라이프스타일을 보면서 제 삶도 어떻게 바꾸고 싶다는 욕구가 생겼습니다. 온통 암웨이 사업만 생각하던 2000년 2월, 황희연 리더를 만났습니다. 남편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라고 여기고 29세부터 암웨이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암웨이를 너무나 사랑하던 저희는 상대가 같은 미래를 바라본다는 사실 하나만 믿고 그해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9월 1일 다이아몬드를 성취하고 다음 날인 2일에는 결혼식을 올렸으니, 암웨이에 대한 저희 마음이 어땠는지는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이아몬드 핀을 성취한 후 저희 삶은 오히려 척박해졌습니다. 빛도 있는데 사업까지 무너지면서 저희는 모든 여유를 잃었습니다. 핀업까지 저희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고, 너무 힘든 나머지 상대를 격려하기는커녕 서로에게 상처만 입었습니다.

### 나누는 삶으로의 변화

다행인 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다른 사업을 알아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또 저희끼리 아무리 싸워도 파트너 앞에서는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인드 컨트롤을 해가며 미팅에 100% 참석하며 버텼습니다. 그러자 서서히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이어도 암웨이를 1순위로 고려하지 않으면 성공은 다가오지 않습니다. 저희에겐 암웨이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어떤 보상이 기다리는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 암웨이 사업을 우선 해결했습니다. 2011년, 11년 만에 파운더스 다이아몬드로 핀업을 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이 해소되었고, 끝까지 버텨준 서로가 눈물 나게 고마워졌습니다. 2013년에는 수석, 그리고 이번에는 파운더스 수석 핀을 달았습니다. 이 안에서 저희는 배우자를 얻고, 두 아이의 부모가 되었으며, 가난의 고리를 끊었고, 사람의 소중함을 배웠습니다. 성취까지 험난한 길을 걸었지만 그 덕에 인격적으로도 성숙하고, 돈을 좇기보다 어떻게 나눌지 고민하는 사람이 되어 행복합니다.



Triple Diamond  
Founders Double Diamond  
Double Diamond



## Founders Executive Diamond

Executive Diamond  
Founders Diamond  
Diamond

## 허명순

2016년 9월 1일부

## 내가 미래를 대비하는 법

누구에게나 인생에 삼재는 옵니다. 어려움은 전혀 예상치 못했을 때 찾아옵니다. 저는 17년 전 암웨이를 처음 만났습니다. 아버지의 별세 그리고 오빠의 갑작스러운 죽음. 황망하게 가버린 오빠를 대신해 취업 전선에 뛰어들든 올케언니를 보며 저는 더 이상 여자라고 집에만 있어선 안 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누구나 미래를 준비해야만 한다.” 그런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 시기 암웨이는 제게 손을 내밀었고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무엇보다 암웨이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인세 수익 때문이었습니다. 직장에 매여 있을 필요 없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판단에, 그렇게 되기까지 저는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그리고 3년 만에 에메랄드 핀을 달면서 제가 목표했던 수익의 4배를 달성했습니다. 내성적이고 평범한 제가 파운더스 수석 다이아몬드 핀을 달 수 있었던 건 오로지 이 사업을 믿고 버텨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만의 원칙에 따라 행동하고 끝까지 버틴다면 누구나 이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 가족보다 더욱 끈끈한 정

핀의 무게감은 그 위치에 오른 사람만이 느낄 것입니다. 핀이 하나하나 오를수록 스폰서님과 파트너 모두에게 감사함을 느끼면서도 또 그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처음 암웨이를 시작했을 때 저는 이 사업이 저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후 애를 키우면서 친구나 직장 동료와도 연락이 끊기고, 그 혼한 계모임 하나 안 했던 탓에 이렇다 할 지인이 없었기 때문이죠. 동네 아주머니부터 아들의 담임선생님, 옛 직장 동료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주변에 작은 인연의 끈이라도 있으면 절대로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파트너를 비롯해 암웨이에서 만난 모든 이들이 누구보다 무척 소중하고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이 사업을 하고 나서 가장 뿌듯했던 기억은 바로 파트너의 아버지 임종을 제가 함께 지켜준 때입니다. 단지 사업적 관계가 아니라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누며 가족보다 더 끈끈한 정을 느낀다는 점에서 암웨이는 사업 그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 QUESTIONS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허명순 리더는  
직장인이었다.

**암웨이를 하는 이유**  
인생에 삼재가 닥쳤을 때,  
든든한 버팀목이 된다.

**반드시 지켜야 할 가지**  
원칙을 지키지 않고 편법을  
쓰면 결국 무너진다.

Triple Diamond  
 Founders Double Diamond  
 Double Diamond  
 Founders Executive Diamond



**Executive Diamond**

Founders Diamond  
 Diamond

**이도연  
 김한석**

2016년 6월 1일부



**암웨이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리라**

**QUESTIONS**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이도연 리더는  
 전업주부였고, 김한석  
 리더는 건축사 겸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사무실을  
 운영했다.

**암웨이를 하는 이유**  
 선택할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선택이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든다).

**반드시 지켜야 할 한 가지  
 믿음.**

30대 중반의 나이에 겁 없이 시작한 사업을 통해 세상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던 어느 날, 믿을 만한 후배의 소개로 암웨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안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만약 그 때 암웨이를 알아듣지 못했다면 지금쯤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 정말 아찔합니다. 사업초기 저는 암웨이 사업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디자인사무실을 운영하며 잦은 야근에 시달리고 있었고 20여명 직원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녁시간 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저의 아내가 저의 빈자리를 지켜주었지만 그녀 역시 암웨이 사업의 크기를 제대로 깨닫기까지 꽤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 안에 머물려고 노력했고 시간이 날 때마다 사업을 전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빠르진 않았지만 꾸준히 성장하였습니다. 특히 너무나 평범했던 아내가 사람들 앞에서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스피치 하는 모습을 볼 때면 가끔 깜짝 놀라곤 합니다. 같은 꿈과 목표를 공유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인생의 동반자로 변화한 아내의 모습은 암웨이의 또 다른 보상입니다. 암웨이는 이렇게 사람들의 잠재된 가능성을 끄집어내는 멋진 사업입니다.

**경제적인 여유, 그 이상의 여유를 위하여**

예전에 저는 충분히 자유롭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주어진 환경 안에서만 자유롭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암웨이는 그 환경의 범위와 함께 생각의 프레임도 넓혀줍니다. 플래티넘이 되어 처음 리더쉽 여행을 갔을 때 생각이 나네요. 전용기에 오르기 전 스폰서님이 들어가시는 비즈니스석 출구 앞에서 흥분하며 사진을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곳에서 사진을 찍지 않습니다. 이미 그 삶이 우리 삶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선택의 자유가 있는 삶이 무엇일까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도전을 계속 이어가는 이유도, 글로벌 비즈니스에 열정을 쏟는 이유도 어쩌면 더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자유로워지고 싶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고 충고했던 친구에게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기에 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게 된 이 진정한 여유로움이 있는 삶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기 위하여...



**Executive Diamond**

Founders Diamond  
 Diamond

**고현숙  
 최영옥**

2016년 7월 1일부



**꿈꾸던 나에게로  
 또다시**

조용한 곳에서 자연을 벗삼아 살기를 좋아하던 남편은 캐나다 이민을 생각했습니다. 최영옥 리더의 컴퓨터 연구원이라는 직업은 당시 해외에서 수요가 컸기 때문에 더욱 유리했지요. 연구원 동료 여덟 가정의 같이 이민을 준비했고, 그 가운데 여섯은 계획대로 떠났습니다. 사정이 생긴 저희 가정의 이민은 지연되었고, 그사이 여동생으로부터 암웨이를 소개 받았습니다. 남편이 10년 넘게 근무하던 직장에서 자리를 옮겼기 때문에 대덕연구단지엔 있을 이유도 없었고, 또 암웨이 사업을 제대로 알아보고자 2002년 분당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저는 비즈니스 미팅에 꾸준히 나갔고 그곳에서 과거와 현재의 제 자신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어릴 때부터 허약 체질이었던 제 건강은 출산 이후 더욱 안 좋아졌고, 따라서 생활 거의 모든 부분을 남편에게 의존하게 된 저 자신을 보았습니다. 20대 시절, 더불어 사는 세상을 꿈꾸던 제 모습은 시간이 흐르며 희미해져 갔습니다. 암웨이 미팅에 꾸준히 참석하면서 암웨이 사업이 예전의 나로 돌아가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 사업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모든 미팅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면서 점점 확신이 들었습니다.

**균형 잡힌 성장, 나누는 삶**

대전에서 살다가 이사를 왔기에 아는 사람이 없던 터라 책을 읽고 오디오를 들을 시간이 많았습니다. 돌아보면 그 시간이 암웨이 사업을 뿌리내리게 했습니다. 벤처기업에서 일하던 남편은 상대 회사와 협력을 위해서 그들 앞에서는 원-원이라고 외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전략을 내놓는 현실이 불편하다고 말해 왔습니다. 그러던 차에 다른 사람이 성공시켜야만 자신이 성공할 수 있다는 암웨이 사업의 윈-윈 시스템을 알게 되었고, 그 역시 사업에 적극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희 부부는 극적인 사건 없이 묵묵히 사업을 이어왔습니다. 물론 결과는 보이지 않고, 다들 성장하는데 나는 그대로 있는 것 같은 시간을 보낸 기간이 꽤 있었어요. 에메랄드까지 오래 걸렸거든요. 암웨이를 소개한 동생이 같이 함께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동생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암웨이 사업 덕분에 건강과 재정, 교육 그리고 신앙에 이르기까지 균형 있는 삶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허약하던 자신을 벗고, 남편을 바라보기만 해도 감사하고 행복해할 수 있게 되어, 그리고 다시 나누는 삶을 꿈꾸는 주체가 되어 너무나 기쁩니다.

**QUESTIONS**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고현숙 리더는 전업주부였고, 최영옥 리더는 한국과학기술원의 연구원이었다.

**암웨이를 하는 이유**  
 내가 아는 어떠한 사업보다 가치 있고 균형 잡힌 일이다 (가족과 함께 끝까지 할 수 있다).

**반드시 지켜야 할 한 가지**  
 이건 내 사업이다. 자부심을 갖되 고개 들지 말고 초심을 유지한다(비즈니스는 잘될 때도, 안 될 때도 있다 하지만 끝은 꼭 잘된다).

Triple Diamond  
 Founders Double Diamond  
 Double Diamond  
 Founders Executive Diamond



## Executive Diamond

Founders Diamond  
 Diamond

# 김득환 김용진

2016년 7월 1일부



## 믿음 + 꿈 = 현실

### QUESTIONS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김득환 리더는 유통업 관련  
 대형 매장을 운영했다.  
 김용진 리더는 지금까지  
 간호사로 근무 중이다.

**암웨이를 하는 이유**  
 노력에 대한 보상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고  
 상속까지 가능하니까.

**반드시 지켜야 할 가지**  
 파트너와의 신뢰. 신뢰받는  
 것보다 우리가 파트너를  
 신뢰하는 게 더 중요하다.

21년 전인 1995년에 사촌 매형에게서 암웨이를 소개받았습니다. 하고 있는 사업도 바쁜데 도대체 무슨 사업이냐고 물으니 매형은 미제 치약을 판매하는 일이라고 하더군요. 사실 좀 우스웠습니다. 대형 생필품 매장을 운영하던 제게 치약 하나를 더하라는 건 무의미한 소리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리고 책 한 권을 건네받았는데, 그 내용도 처음엔 우습기만 했습니다. 3~5년간 노력하면 월수입 1,000만 원을 벌 수 있는 데다 그 돈은 일을 그만뒀도 계속 지급된다, 상속도 가능하다, 심지어 당시로서는 엄청난 일이던 해외여행도 시켜준다는 겁니다. 종합해보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21년이 지나니 그때의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모두 현실이 되었습니다.

책 속의 이야기가 더 허황되게 들렸지만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글자 하나하나를 깊게, 차근차근 다시 읽어나갔습니다. 그러자 암웨이의 비전이 왜 가능한지 이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5년간 최선을 다했고, 2000년에는 다이아몬드 핀을 성취했습니다.

### 리더는 먼저 일어나는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여섯 그룹을 만드는 데 5년이 걸렸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충분한 경험을 갖추고도 세 그룹을 더하는 데 16년이 흘렀습니다. 그 이유는 다이아몬드 핀을 성취한 후 꿈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야 할 좌표를 잃고 재정적으로도 어느 정도 안정되자 새로운 목표를 세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주변을 돌아보니 정제된 파트너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바로 제게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전에는 막연하게 편업을 바랐지만, 힘들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힘든 건 결단을 내리기까지입니다. 굳게 결심하면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은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새로운 핀을 성취하는 건 가보지 못한 세계로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믿는다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상상은 현실이 됩니다. 자신에 대한 믿음, 파트너를 향한 믿음만 굳건하면 우리 안에선 무한한 에너지가 솟아납니다. 더 많이 노력할수록 더 많은 활력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꿈은 현실이 됩니다.





Triple Diamond  
Founders Double Diamond  
Double Diamond  
Founders Executive Diamond



**Executive Diamond**

Founders Diamond  
Diamond

신소영  
서용국

2016년 8월 1일부

## 가족적인 삶으로 가는 최고의 수단

대기업 건설 회사에서 근무하던 남편은 IMF 당시 직장 생활의 한계를 체감했습니다.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들조차 퇴출되는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선뜻 자영업에 도전할 수도 없었습니다. 뒷받침해줄 자본과 경험이 없었으니까요.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도 직장 생활로 비전을 찾을 순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제 건강도 안 좋아져서 유치원도 그만뒀어야 했지요. 그래도 저희는 더 나은 길이 있다고 확신했고, 2001년 미국 시카고로 이민을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곳에서의 삶이 만만하진 않았습다. 남편이 현지에서 들었던 직장이 문을 닫기도 했고, 저도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노력했습니다. 인뿃 떠올려도 베이비시터, 김치 담그는 일, 치기공 제품을 운송하는 차량 운전 등 다양한 경험이 눈앞을 스쳐갑니다. 다행히 노력한 만큼 수입은 들어왔습니다. 저녁이면 가족과 식탁 앞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가족적인 삶'도 국내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는 꿈도 꾸지 못하던 것입니다. 그래도 불안감은 이어졌습니다. 경제적 안정이 지속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민에서도 얻지 못한 답을 암웨이에서 찾다  
그렇게 해외 생활을 하던 도중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미국의 지인과 한국에 있던 오빠 부부의 추천을 받아 뉴트리라이트를 써보고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화장품 등도 모두 만족스러웠습니다. 너무 좋아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소개하다 보니 플랜을 듣기 전에 이미 수입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4시간 거리에 있는 미시건 주 암웨이 본사를 방문하고,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면서 제대로 사업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2001년 대안을 찾아 미국으로 떠난 저희 가족은 2004년 암웨이라는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희는 언제나 삶을 긍정해왔습니다. 힘든 시기에도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믿었기에 과감히 미국행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암웨이가 없었더라도 저희는 최선을 다해 더 나은 삶을 추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내면과 외면이 고루 안정된 건강한 삶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암웨이는 경제적 안정, 그 이상의 삶을 선사하는 최고의 수단입니다. 저희 삶이 그렇게 변했으니까요.

### QUESTIONS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아동학을 전공한 신소영 리더는 유치원 교사로, 서용국 리더는 대기업 관리직으로 근무했다. 현재는 둘 다 암웨이 전업 사업가다.

**암웨이를 하는 이유**  
지속적인 인세 수입은 총체적 성장의 밑거름이 된다(인세 수입은 경제적인 것 이상의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게 한다).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  
겸손하고 꾸준히 배우는 자세를 유지하자.

Triple Diamond  
 Founders Double Diamond  
 Double Diamond  
 Founders Executive Diamond



**Executive Diamond**

Founders Diamond  
 Diamond

**신영주  
 김진용**

2016년 8월 1일부



**나눌수록 커지는  
 성장의 열매**

**QUESTIONS**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신영주 리더는  
 전업주부였고, 김진용  
 리더는 회사원이었다.

**암웨이를 하는 이유**  
 소중한 것들을 지킬 수  
 있으니까.

**반드시 지켜야 할 한 가지**  
 좋은 평판(좋은 평판은  
 은행의 이자와 같다. 평판을  
 만들어놓으면 사업이  
 저절로 영근다).

과거 우울증을 겪은 시기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다이아몬드 핀에 도전하면서 마음의 병을 이겨낼 수 있었고,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핀에 다가가면서 힘들었던 과거로부터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렇게 저를 둘러싸고 있던 장벽을 허물고 완전히 자유로워지고 나니, 이제 저 자신이 아니라 남들을 더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스스로의 한계를 완전히 극복한 것입니다. 암웨이 역시 나를 위한 사업이 아니라 누군가를 돕고 섬기는 수단으로 바뀌어갔습니다. 과거의 저는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사업을 전하고 싶은 분이 있었지만 용기가 부족해 말을 건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른 경로로 암웨이를 전달받더니 10개월 만에 PT가 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2년 반 걸려 간신히 이루어낸 PT를 말입니다. 사람이 모두 저와 같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일은 누군가에게 큰 기회일 수 있습니다. 제가 쓸데없이 망설이면 누군가가 기회를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저는 적극적으로 사업을 알릴 수 있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이는 바로 옆의 누군가**  
 다이아몬드 핀을 달성한 이후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내가 성공했으니 누구라도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많은 사람이 괜찮은 리더, 능력 있는 사람을 원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이는 바로 옆에 있는 분입니다. 한 사람의 중요성에 대해 더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함부로 타인의 능력을 가늠하는 대신 포기하지 않고 옆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 네트워크는 굳어지고, 사업은 확장됩니다. 때로는 쉬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면 파트너가 아른거립니다. 내가 쉴 생각을 하면 저들은 어떻게 될지 걱정됩니다. 차라리 내가 더 열심히, 더 많은 일을 하자고 결심하면 오히려 피로가 사라집니다. 이제 김진용 리더가 전업으로 합류했습니다. 온전히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부부 사업이 된 만큼 저희는 오로지 성장만을 향해 나아가려고 합니다. 저희 사업에 유지 플랜은 없습니다. 계속 전진해서 파트너들도 제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도울 겁니다.

Triple Diamond  
 Founders Double Diamond  
 Double Diamond  
 Founders Executive Diamond



**Executive Diamond**

Founders Diamond  
 Diamond

## 하재숙 최재완

2016년 8월 1일부



## 간절함으로 이루어낸 성취

저는 고등학교 교사를 그만두고 학원을 5년째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소득은 아주 높은 편이었지만 다람쥐 쳇바퀴처럼 똑같이 반복되는 삶에 지쳐가는 중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창살 없는 감옥에서 보내는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학원을 잘 운영하려면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무척 많은데, 체력도 고갈되고 열정도 사라지기 시작한 탓이었습니다. 남편인 최재완 리더의 친구는 3년 동안 꾸준히 암웨이의 가능성을 이야기했지만 관심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돈 이상의 자유’라는 말에 마음이 움직이면서 저희는 경주 세미나장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의 분위기는 밝고 희망에 차 있었습니다. 6시간 동안 강의를 들으면서 저희 가슴은 희망으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꿈을 가져야 한다는, 꿈을 외쳐야 한다는 이야기는 너무 낯설면서도 저희를 설레게 했습니다. 3년간 귀를 닫았던 건 올바르게 전달되지 않은 탓이었습니다. 포항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희 부부는 해보지 않겠느냐고 서로에게 물었고,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 현재의 집중으로 미래에 여유를

부업으로 시작했지만 열정적으로 도전했습니다. 2년 2개월 만에 에메랄드 핀을 달았고, 다시 2년 후에는 다이아몬드 핀을 성취했습니다. 하지만 비즈니스에서 성장만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정체되기도 합니다. 저희 암웨이 사업 역시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다른 젊은 리더와 달리 나이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좋았던 일에 집중하기로 결심하고 과거를 돌아봤습니다. 우리 생애 최고의 기회는 암웨이였습니다. 최재완 리더는 아침마다 영일만 일대를 걸으면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반드시 수석이 된다”고 외치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저 역시 잠들기 전에는 올해의 목표를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어쩌면 저희 성취는 약점일 수도 있는 나이 덕분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절실함으로 사업에 전념했고, 성과를 올리니 파트너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3년만 집중하면 이후의 삶이 여유로워진다고, 그러니 간절한 마음으로 집중하자고 말입니다.

### QUESTIONS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하재숙 리더는 학원을 운영했고, 최재완 리더는 대기업 재직 중이었다.

**암웨이를 하는 이유**  
 암웨이를 만나면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세상이 보인다.

**반드시 지켜야 할 한 가지**  
 배움에 대한 감사함과 겸손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

Triple Diamond  
 Founders Double Diamond  
 Double Diamond  
 Founders Executive Diamond



## Executive Diamond

Founders Diamond  
 Diamond

## 남시범 김희

2016년 9월 1일부



### QUESTIONS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남시범 리더는 초등학교  
 교사였고, 김희 리더는  
 전업주부였다.

**암웨이를 하는 이유**  
 그럼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반드시 지켜야 할 한 가지**  
 하기로 한 것을 하고,  
 하지 않기로 한 것은 하지  
 않는다.

저희 집에는 항상 암웨이 강연이 오디오를 통해 울립니다.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한 번도 이 일을 게을리한 적이 없죠. 저는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교사 월급으로는 아이 키우기에도 벅찼죠. 남편으로서, 남자로서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암웨이는 신뢰를 바탕으로 사업한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는 20~30대 청춘을 암웨이에 바친 사람입니다. 아내 김희 리더는 제가 다이아몬드가 되고 나서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제가 그토록 사랑하는 사업이라서 더욱 함께하고 싶었다고 하더군요. 우리는 태교를 암웨이 강연 CD로 했습니다. 암웨이 강연 CD를 들으며 잠을 청하고, 홈 미팅에서 데모할 때 집중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업을 참 잘 시작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삶의 1순위가 암웨이인 것처럼, 언젠가 아이도 이 사업을 하면서 삶의 원동력을 찾길 바라고 있습니다.

## 내 삶의 1순위, 암웨이

### 멈추지 않는 리더를 향해

열정이란,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리더 중에 다이아몬드 핀을 달고 나서 안주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는 초심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달고 나서 다음 목표를 빠르게 재설정하고 거기에 올인했습니다. 지금의 핀은 2년 만에 달았습니다. 텍스트 예거의 <끝없는 추구>에 이런 말이 있죠. “당신의 꿈이 충분히 크다면 현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파트너들 중에는 돈이나 인간관계, 가정 문제 등 다양한 환경 탓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돌이켜 보면 이 사업 처음 시작할 땐 돈도 없고 친구도 별로 없던 어린 청년에 불과했죠. 그러나 계속 목표를 향해 달려오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제 꿈은 파운더스 크라운 엠버서더가 되는 것입니다. 파트너들의 성공을 위해선 한 발 더 먼저 뛰고 앞서서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멈추지 않는 리더가 될 것입니다.

Triple Diamond  
 Founders Double Diamond  
 Double Diamond  
 Founders Executive Diamond



**Executive Diamond**

Founders Diamond  
 Diamond

**문소정  
 맹정호**

2016년 9월 1일부



**가치 있는 내일을  
 기대하는 삶**

인생에 있어 노력을 통해 성장하고 성취를 얻고 다가올 시간이 기대되는 삶을 산다는 건 큰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삶을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비즈니스를 선택하고 집중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겠지요. 암웨이 사업을 시작하고 8년간은 ‘열정과 노력은 그에 상응하는 성취를 반드시 가져다 준다’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사업초기에는 수석다이아몬드는 이름조차 생소한 편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부럽기만 한 편이었어요. 어떤 분야에서나 성공자는 있고, 저희도 언젠가는 이 멋진 성취를 하겠노라고 꿈꾸어 왔지만 현실로 이런 날이 온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의 도움이 저의 주변의 곳곳에서 물어옵니다. 돌이켜보면 지금까지 저희가 해왔던 일들은 특별하고 어려운 일들이 아니라 소소하지만 중요한 일, 당장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지만 가치 있는 일, 그리고 많은 사람이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암웨이 사업을 생각할 때 떠올릴 수 있는 많은 정보들이 있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이 사업의 동력은 바로 이런 것들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함께 키워가는 모두의 소중한 꿈**

사업을 처음 전해 들었을 때 저는 대학에서 강의와 통역을, 맹정호 리더는 개인사업을 하고 있었지만, 저희가 원하는 기준을 채워줄 일은 암웨이 사업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암웨이는 적당한 수입과 스스로의 성장, 더 나아가 타인에 대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일본 본사에서 있었던 랠리 행사에 게스트스피커로 초대를 받았는데 스피치를 하는 내내 ‘이 일을 하길 정말 잘했구나’란 생각을 했습니다. 내 경험이 먼 곳의 누군가에게 작으나마 희망이 되고 그들의 삶 또한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더할 나위 없는 보람입니다. 암웨이는 이처럼 ‘원래의 나’의 모습으로 되는 일이 아니며, 성실하게 배우고 행동했을 때 얻어지는 ‘변화된 내’가 하는 일입니다. 스폰서와 팀을 통해 능력 밖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파트너분들이 행복한 순간을 많이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데 것이 목표이고, 암웨이를 접하게 되는 모든 분들이 이 사업을 통해 특별한 미래를 만나게 되실거라 믿습니다.

**QUESTIONS**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문소정 리더는 대학 강사였고, 맹정호 리더는 법인 대표였다.

**암웨이를 하는 이유**  
 원하는 형태의 삶에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잘 검증된 수단이기.

**반드시 지켜야 할 한 가지**  
 자기 존중(스스로를 귀중히 여길 때 주변도 소중히 여긴다).

Triple Diamond  
Founders Double Diamond  
Double Diamond  
Founders Executive Diamond



## Executive Diamond

Founders Diamond  
Diamond

# 안병환 박운숙

2016년 9월 1일부



## 공정과 믿음에서 가족 사업으로

### QUESTIONS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안병환 리더는 자신의  
사업을 했고 박운숙 리더는  
전업 주부였다.

**암웨이를 하는 이유**  
안정적인 미래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가지  
신뢰와 인내.**

안병환 리더는 개인 사업을 진행하던 중 서점에서 우연히 <이것이 암웨이이다>라는 책을 통해 암웨이 사업의 비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1992년 5월에 시작했던 사업초기에는 사회적인 이해도 부족했고, 경제력이나 개인적인 여러 가지 환경이 그다지 좋지는 못했지만 미래의 안정적인 수입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면 할 수 있겠다는 믿음으로 꾀꾀하게 긴 세월들을 인내하며,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암웨이의 창업이념인 '자유·가족·희망·보상'이라는 가치를 알게 되니 안병환 리더 마음에 암웨이는 평생 함께할 수 있는 회사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안병환 리더에게 암웨이 사업은 일반 사업에 비해서 리스크가 전혀 없으니 포기만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는 해볼 만한 하다고 생각하고 25년간 한결같은 마음으로 진행했습니다.

### 가치와 보상

저희 부부가 생각하는 암웨이 사업의 가치는 처음에는 경제적인 자유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파트너의 성공과 가족의 결속 하에 서로 성공의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팀워크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는 암웨이 사업을 통해서 받은 최고보상이란 단순히 경제적인 성공만이 아닌 오랜 시간 함께해온 가족과 같은 파트너들, 그리고 그들의 아들과 며느리들이 함께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비전 있는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20~30년 후의 미래에 손자 세대들이, 저희 세대가 이루어놓은 사업의 결과 위에 오로지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 개척하고 꿈을 펼쳐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 잠 못 이룰 정도로 기쁘고 설렙니다. 그러한 이유가 지금도 변함없는 마음으로 암웨이 사업에 열정적으로 임할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Triple Diamond  
Founders Double Diamond  
Double Diamond  
Founders Executive Diamond



**Executive Diamond**

Founders Diamond  
Diamond

원미션  
김현수

2016년 9월 1일부

## 자매사업에서 명가의 탄생까지

아침 6시 기상, 저녁 8시 이후 퇴근. 성실과 열심이라는 단어로 채워나갔던 13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기업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면, 가족의 인생이 그럭저럭 준비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했고, 또 그럴 줄 알았습니다. 설 틈 없이 사회생활을 하는 동안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고 교육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과감히 사표를 낸 저는 그동안 못다했던 육아, 교육, 살림살이 등을 돌보며 꿀맛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달콤했던 시간도, 갈수록 점점 불투명해져 가는 현실과 미래를 바라보는 계기가 되면서 불안한 마음이 커져갔습니다. 그 시점에 암웨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생전 처음 뵈는 스폰서님이었지만, 멀리 울산에서 한결같이 후원해주시며 제게 신뢰를 주었고, 제대로 듣게 된 암웨이 플랜은 실현 가능한 희망을 제 가슴에 심어주었습니다. 제 인생의 암웨이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암웨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배우는 인생의 진리가 많습니다. 누군가의 잠재능력을 발현시키고, 그 잠재능력과 암웨이라는 수단으로 인생을 변화해내고 그로 인해 누군가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 사업의 본질을 정말 성실하고 꾸준히 알렸습니다.

더 큰 가족, 더 가까운 가족, 더 행복한 가족  
진심은 반드시 교감되듯, 처음에 반대했던 저희 자매들 모두 암웨이 사업에 동참하는 축복 같은 일이 현실이 됐습니다. 지금은 다섯 자매가 보석 이상의 편을 달성하며 여든을 바라보는 어머니와 네살배기 조카에 이르기까지 매년 멋진 휴양지에서 암웨이 보상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감사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희에서만 그치지 않겠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진정한 자유. 삶의 이유가 되는 사랑하는 가족. 실현 가능한 가슴 설레는 희망. 함께 누릴 수 있는 보상. 이 엄청난 암웨이의 창업이념을 사명과 책임감으로 전파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남은 먼 길을 제대로 된 방향으로 함께 갈 수 있는 사랑하는 파트너들. 그리고 그들로 인해 파생된 축복의 인연들.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으로 소통하길 원합니다. 2019년 라스베이거스라는 큰 도전 앞에 있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의 대가는 그 믿음대로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확신과 시스템으로 라스베이거스로의 믿음이 반드시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 QUESTIONS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원미션 리더는 대기업 직원이었고, 김현수 리더는 개인회사를 운영했다.

**암웨이를 하는 이유**  
가문을 일으킬 수 있는 사업이니까.

**반드시 지켜야 할 한 가지 원칙**

Triple Diamond  
 Founders Double Diamond  
 Double Diamond  
 Founders Executive Diamond



## Executive Diamond

Founders Diamond  
 Diamond

# 이동훈 박주희

2016년 9월 1일부



## 더 나은 삶을 위한 작은 변화

### QUESTIONS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이동훈 리더는 대기업 엔지니어였고, 박주희 리더는 백화점 명품관 직원이었다.

**암웨이를 하는 이유**  
 더 나은 삶을 원한다면 암웨이를 해야 한다.

**반드시 지켜야 할 한 가지**  
 암웨이를 통해 이룰 수 있는 꿈과 성공을 소중히 하라.

암웨이는 불확실한 미래를 극복하는 원동력입니다. 누구에게나 먹고사는 문제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느냐가 중요하죠. 저는 대기업에서 TV 디스플레이를 제조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30대 중반에 몸이 굉장히 안 좋은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병원을 가고, 운동을 해도 도통 낫지 않았습니다. 암웨이는 언제나 삶을 더욱 윤택하게 만드는 법을 쉽게 알려줍니다. 암웨이에 오니 물과 음식 한두 가지만 바꿔도 쉽게 체질을 개선하고 몸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세상은 넓습니다. 하지만 직장인은 직장에만 갇혀 있죠. 그렇게 살다 보면 자신이 원하는 건강, 존경, 경제적 안정 등을 쉽게 얻을 수 없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암웨이가 좋았던 점은 이 안에서 정말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삶에 필요한 가치를 암웨이는 제게 알려줬고, 그제야 저는 오래 뒹뒹아온 직장을 그만둘 수 있었습니다..

### 스스로 변화해야 성공할 수 있다

‘더 나은 삶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오래전부터 아내 박주희 리더와 이 질문을 고민해왔습니다. 우리 부부는 끈끈한 파트너이지만 행동파인 그녀와 달리 저는 계획적인 사람이었기에 앤드파트너로서 부딪힌 적도 많습니다. 저희는 공동의 목표, 즉 더 나은 삶을 위해서라면 어떤 문제보다 이 일에 대한 가치를 더욱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사소한 문제는 더 이상 다툼거리가 되지 않았죠. 요즘 새롭게 암웨이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다윈이 주장한 적자생존의 핵심적 내용인 “생존경쟁에서 이기고 적합한 것만이 살아남는다”는 말입니다. 이를 암웨이에 응용해보면 내가 스스로 이 사업에 적합하도록 변화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파트너의 관점에서 사고하라는 것입니다. 매출도 중요하지만 파트너 입장에서 그들의 삶과 꿈을 이해하고 다가가야만 이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행복해지는 삶, 그것이 바로 더 나은 삶의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Triple Diamond  
 Founders Double Diamond  
 Double Diamond  
 Founders Executive Diamond



## Executive Diamond

Founders Diamond  
 Diamond

# 이호 김지연

2016년 9월 1일부



## 다이아몬드의 안정감을 나누기 위해 앞으로!

처음부터 암웨이를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2007년 9월, 저는 어떤 사업 때문에 일을 도와줄 분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인이 암웨이 사업자를 소개했습니다. 저는 그분께 일을 부탁 드리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분께서 저희에게 암웨이 사업을 제의하셨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어려서부터 꿈이 많았지만 경제적인 한계로 좌절하면서 꿈만큼 한도 많은 게 저였습니다. 저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에 저는 곧 사업에 합류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시작해보니 주변 반응은 친편일률적으로 부정적이었습니다. 1개월 정도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계속 해야 하는지 접어야 하는지 고민했습니다. 성공의 이야기를 들려준 건 암웨이 사업자였고, 반대하는 이들은 암웨이를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5년은 어떻게든 해보자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1년 6개월 후, 남편은 롤 모델이었던 선배 임원이 회사에서 갑자기 쫓겨나는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아 사업에 합류했습니다. 이호 리더는 포기하지 않는 제 모습을 보면서 마음을 정했다고 합니다.

부부사업으로, 팀 사업으로 속도에 박차를 가해서 사업이 궤도에 접어들 때까지 직장에서의 1차 수입을 유지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재정과 육아를 지원해달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때부터 인사 고과도 포기하고 무조건 정시 퇴근하기 시작했고, 미팅에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합하니 사업에 속도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시작하고 4년 7개월이 될 때 다이아몬드의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다이아몬드의 삶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을 넘어 모든 면에서 삶에 안정감을 줍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이아몬드의 라이프스타일을 빨리 보여주고, 파트너들을 다이아몬드 핀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이아몬드 핀에 도전할 때와 그 이후의 마음 자세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파트너와 통화하면서 언제나 제가 가장 멀리 가고 가장 늦게까지 남아 모범을 보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번 수석이라는 성취는 그 결과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멈출 수 없습니다. 지금의 꿈은 6명의 파트너가 3년 안에 모두 다이아몬드로 성장하는 겁니다. 지금의 성취에 멈추지 않고 그 꿈을 향해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 QUESTIONS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이호 리더는 회사원이었고, 김지연 리더는 전업주부였다.

**암웨이를 하는 이유**  
 가장 근본적인 안정을 제공하니까.

**반드시 지켜야 할 한 가지 약속과 신뢰.**



## Executive Diamond

Founders Diamond  
Diamond

### 조진욱 전혜영

2016년 9월 1일부



## 나의 가슴을 뛰게 만든 사업, 암웨이

### QUESTIONS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조진욱 리더는 악기 판매상을 했고, 전혜영 리더는 대학교 시간 강사였다.

**암웨이를 하는 이유**  
좋은 일에 대한 가치를 품고 있기 때문이다.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  
겸손. 이 사업은 누군가를 돕는 일입니다.

살면서 우리는 심장이 뛰는 일을 몇 번이나 마주할까요? 저희에게 암웨이가 그랬습니다. 처음 저희는 암웨이를 소비자의 한 사람으로 접했습니다. 당시 저는 대학 강사였고, 학교 동기의 제안으로 암웨이를 접했습니다. 사업 설명회 때, 스폰서님께서 찾아와 이 사업은 돈보다 이념과 철학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때 저는 오랜만에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 창립자 리치 디보스와 제이 벤 제이 벤 앤텔의 성공 이야기를 책으로 읽었을 때는 사실 쉽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지속하며 '자유' '가족' '희망' '보상'이라는 그들의 철학이 가슴에 와 닿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속한 그룹에 "하나님이 인간을 위대하도록 창조하셨다는 진리를 심어준다"는 사명 선언문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속일 필요도 없고, 자신의 기준에 따라 정직하게 노력한다면 누구나 위대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암웨이는 사업 이상의 감동이 있습니다.

### 눈높이는 친구처럼, 사랑은 부모처럼

사람들은 작은 실패에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실패를 시행착오로 여기면 지금의 실패가 무척 사소하게 느껴집니다. 저희 역시 큐 다이아를 수 차례 실패했을 때 무척 힘들었지만, 단 한 번도 이 일을 그만둬야겠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이 일은 꾸준히 노력만 한다면 언젠가 성공이란 보상이 돌아온다고 믿었으니까요. 힘들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는 태도는 참 중요합니다. 저희는 어려울 때 편을 성장시키기 위해 무리하기보다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암웨이 사업의 진정한 가치를 진심으로 전달하려고 노력했고, 그 결과 지금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암웨이에서 성공이란 나만의 전유물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 사업에서 성공하려면 파트너를 부하나 자식이 아니라 동반자나 친구로 대하며, 눈높이는 평등하되 사랑은 부모처럼 베풀 줄 알아야 합니다. 저희는 이 사업이 믿음, 소망, 사랑의 가치를 실천하는 데 가장 적합한 일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신념을 지키기 위해 저희는 노력하고, 또 노력할 것입니다.

Triple Diamond  
 Founders Double Diamond  
 Double Diamond  
 Founders Executive Diamond



## Executive Diamond

Founders Diamond  
 Diamond

# 홍다영 최태원

2016년 9월 1일부



## 매 순간 자라나는 행복의 크기

열 살에 어머니를 여의었고, 아버지께서 무남독녀인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그래도 아버지 크신 사랑 덕에 혼자여도 부족함 없이 자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30대 초반에 그토록 특별한 아버지께서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간병을 위해 아버지 곁을 지켜야 했기에 저희 삶은 경제적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그때 고등학교 친구가 인세 수입이라는 장점을 내세우며 암웨이 사업을 권했습니다. 예술가에게 적합한 일이 아닐 것 같았지만 인세 수입이라는 말에 가우뚱해졌습니다. 아버지의 직업이 작가였기에 저는 인세 수입에 익숙했습니다. 어떻게 기업에서 버는 소득이 인세 형태일 수 있을지 궁금해했습니다. 호기심으로 시작한 사업의 성장은 그리 빠르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맡길 곳도 없고, 집은 양평 시골에 있고, 차도 없고, 아는 이도 적은 데다, 인간관계도 미숙했습니다. 하지만 성장이 늦은 진짜 이유는 정확한 목표관념이 없었던 탓입니다. 그때까지 저희는 사업가 마인드가 부족해서 언제까지 일을 마무리한다는 구체적 목표 실현의 계획이 없었습니다.

### 구체적인 방향 설정으로 성취에 속도를

분명한 목표를 세워야 하는 필요성을 말씀해주신 분은 업라인 스폰서님입니다. 이 이야기는 성장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뉴 다이아몬드 세미나에서 받은 코칭 수업도 저희 사업을 더욱 구체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매해 스스로 목표를 잡고 끝까지 해내려고 노력하자 성장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마음의 여유는 사업의 이유까지 바꾸었습니다. 다이아몬드 핀에 도전할 때에는 스폰서님 팀에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물론 저희 성장도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파운더스 다이아몬드부터는 파트너의 성장 자체에 더욱 신경이 쓰입니다. 저희 삶이 행복한 만큼 그들도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가장 큼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을 꿈꾸지만 어떤 이는 과거의 상처에 얽매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암웨이 사업에선 성취를 통해 지나간 과거, 한때의 걸림돌을 오히려 성장의 발판으로 삼게 됩니다. 오늘이 어제보다 행복하고, 내일은 더욱 행복하리란 확신이 있기에 매 순간이 행복합니다. 이 행복을 사랑하는 파트너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 QUESTIONS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홍다영 리더는 서양화 작가였고, 최태원 리더는 조각가이자 인테리어 디자이너 겸 미술 강사였다.

**암웨이를 하는 이유**  
 또 다른 삶을 살게 해주는 도구고 기회니까.

**반드시 지켜야 할 한 가지 균형감(세상만사는 밸런스가 중요하다).**

Triple Diamond  
Founders Double Diamond  
Double Diamond  
Founders Executive Diamond  
Executive Diamond



**Founders Diamond**  
Diamond

## 강현영 김건형

2016년 9월 1일부



## 신뢰로 만들어낸 준비된 미래

### QUESTIONS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강현영 리더는  
전업주부였고, 김건형  
리더는 직장인이었다.

**암웨이를 하는 이유**  
미래를 준비하는  
사업이니까.

**반드시 지켜야 할 한 가지  
약속.**

초등학교 6학년 때 너무나 큰일을 당했습니다. 아주 건강하시던 아버지께서 40대의 젊은 나이에 갑자기 유명을 달리하신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이 세상을 등지는 것은 충분히 나이가 든 이후의 일이라고 여겼기에 충격은 더욱 컸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너무 예민하다고 말할 정도로 언제나 급작스러운 미래를 대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손아래 올케에게 암웨이 사업을 전달받았습니다. 늘 준비에 목말랐고 수단을 찾던 제게 암웨이의 연금성 수입은 곧바로 귀에 들어왔고 마음에 꽂혔습니다. 저는 평소 교육 공무원인 동서를 부러워했습니다. 20년 근무한 후에는 연금이 지급되기 때문이었는데, 암웨이의 인세 형태 자산 소득은 그보다 훨씬 든든한 벼림목이었습니다. 게다가 스폰서님은 암웨이 안에서의 성장이 어떤 것인지 몸으로 실천해 보여주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01년 3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 성취의 원동력은 약속의 준수

처음엔 주변의 반대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힘든 기억은 거의 없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성공자의 걸음을 걷는 스폰서님을 보면서 믿음을 더욱 굳게 다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분은 매일 성장했고, 라이프스타일은 점점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암웨이 비즈니스는 성공자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사업이기에 확신을 갖고 따라가면 누구나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저는 약속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기본이며, 제 사업의 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 저와 스폰서님은 전혀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낯선 사람과 구두로 나누는 이야기에 진심을 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맺은 약속을 반드시 지켜내려고 노력했습니다. 미팅 시간도 그렇지만 어떤 것을 이루어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은 스폰서님과의 연계된 관계의 비즈니스입니다. 그렇기에 도전과 성취도 물러설 수 없는 약속인 것입니다.



## 김경옥 김종완

2016년 9월 1일부



## 기분 좋은 책임감을 느끼게 만드는 암웨이

암웨이를 처음 만난 지 어느덧 9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돌아보면 암웨이를 만나기 전까지 저는 뚜렷하게 하고 싶은 일이 없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일찍 결혼해서 아이들을 키우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지만, 뭔가 알 수 없는 공허함이 늘 따라다녔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저보다 나이가 어린 파트너가 더 많지만 제가 처음 암웨이 사업을 시작하던 때만 해도 대부분 언니뻘 되는 파트너가 많았습니다. 사회 경험이 전무한 저에게 많은 파트너가 도움을 줬고 그분들과 함께 암웨이 사업을 하면서 진실에 대해 수없이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성공에 관해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이상하게도 실제로 주위에 성공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암웨이 사업이 진실이라고 느낀 것은 암웨이를 통해 성공하는 분을 많이 만나면서입니다. 그분들을 만나면서 용기를 낼 수 있었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 한 가정에 기회를 전달하는 일

암웨이는 저에게 첫 직장입니다. 흔히 직장 생활하면 어렵고 힘든 기억이 있겠지만, 저에게 암웨이는 늘 즐겁고 기분 좋은 기억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항상 사람들에게 선입견 없이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고, 제가 생각하는 바를 자신 있게 전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다이아몬드에서 다시 파운더스 다이아몬드가 되는 과정이 조금 달랐습니다. 이전까지는 목표를 향해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가는 법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와 함께하는 파트너들과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한 가정에 기회를 전달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암웨이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파트너 한 명 한 명이 정말 잘될 수 있게 응원하고, 서로를 신뢰하는 상황에서 기분 좋은 책임감도 느낍니다. 늘 많이 부족한 저를 응원해주고 믿어주는 스폰서님, 남편, 파트너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해서 말뿐이 아니라 뭐든 먼저 해내고, 그 과정 속에서 함께 성장하고 싶습니다.

### QUESTIONS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김경옥 리더는 평범한 주부였으며, 김종완 리더는 디자인회사를 운영하는 디자이너였다.

**암웨이를 하는 이유**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라는 암웨이의 가치를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고 나눠간다는 것이 너무 좋아서.

**반드시 지켜야 할 가지**  
암웨이를 처음 만났을 때의 떨림과 감사의 마음을 반드시 지켜라.

Triple Diamond  
 Founders Double Diamond  
 Double Diamond  
 Founders Executive Diamond  
 Executive Diamond



**Founders Diamond**  
 Diamond

## 김태순 박진수

2016년 9월 1일부



## 하늘을 감동시키는 노력

### QUESTIONS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김태순 리더는  
 전업주부였고, 박진수  
 리더는 지금도 의사로 겸업  
 중이다.

**암웨이를 하는 이유**  
 끊임없는 자기 개발로  
 노후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지켜야 할 한 가지**  
 사람(개인의 욕심보다  
 인간관계를 우선해야 한다).

정신과 전문의인 남편 덕에 다른 직장인보다 여유 있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노동과 인세 수입에 대한 개념이 잡히면서 남편의 수입이 영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스폰서님을 통해 50대 이후의 여유로운 삶이 어떤 것인지 보면서 저는 10년 사업의 꿈을 안고 암웨이 사업을 알아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업은 생각만큼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어떤 일이든 6개월을 매우 집중하면 인생도 바꿀 수 있다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어려서 정말 가난한 산골 마을에서 태어나 실업계 고등학교로 진학해야 했고, 18세에 돈을 벌기 위해 직장을 다녀야 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최선을 다하면, 내 노력만큼의 보상이 생길 거라 믿었던 어린 소녀의 꿈은 스펙과 외모의 벽 앞에서 모두 무너져버렸습니다. 처음으로 꿈이라는 것을 꾸게 되었고, 두려웠지만 그 꿈을 향한 도전을 해보기로 맘 먹게 되었습니다. 꿈의 또 다른 모습은 두려움이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꿈의 크기만큼 두려움도 크다는 사실을... 새로운 도전은 너무도 두려웠지만, 그렇다고 내 인생을 위한 어떤 도전도 해보지 못하고 억울함을 참으면서 살아가야 할 미래는 더 두려웠기에 그냥 도전해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 없이 꽃 피운 백만 송이 다이아몬드 하루 2시간씩 자면서 공부했습니다. 6개월간의 초집중.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대학은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된 계기였습니다. 저는 '하늘을 감동시킨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경험을 떠올리며 암웨이 사업에도 집중했고, 2년 6개월 만에 다이아몬드가 되었습니다. 38세 주부였던 나에게 찾아온 암웨이 사업은 또 다른 꿈을 꾸게 했습니다. 꿈을 이루는데 필요한 건 결정, 포기, 유보, 초집중 그리고 감사함이었습니다. 파트너와 함께 하는 일이고, 인간관계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간관계에 대한 갈등에 봉착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를 일으켜 세웠던 마음은 초심이었습니다. 처음 나 혼자 시작할 때 그 마음을 잊지 않으면 모든 상황을 감사함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 하나 없이 아낌없이 줘야 한 그룹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으면 파트너들 한 분 한 분이 눈에 들어옵니다. 마음을 다 줄 때 사업은 단단하게, 깊이 뿌리 내립니다.



김흠  
동용

2016년 9월 1일부



## 꿈 넘어 꿈, 우리 넘어 파트너

중국 교포인 저희는 여러 직업을 전전했지만 삶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니다. 남편인 동용 리더는 중국의 한국 회사에서 근무했는데, 3년 내내 불합리한 잔업으로 시간을 낭비해야 했습니다. 일을 효율적으로 하면 정시에 귀가할 수 있는데도, 상사의 눈치를 보면서 그보다 늦게 퇴근해야 했던 겁니다. 저희는 가족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직업을 가졌는데, 일에 매어 가정생활을 등한시해야 하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선배들을 보니, 이직으로도 삶은 달라질 것 같지 않았습니니다. 그래서 이만까지 고려하던 도중 암웨이를 소개받았습니다. 저희가 암웨이를 통해 이루고 싶었던 꿈은 세 가지였습니다. 먼저 꾸준한 직업이었습니다. 한 가지 일에 집중하면서 미래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둘째, 쓸 만한 중형차가 필요했습니다. 자동차는 사업에 속도를 더해줄 날개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이가 꿈을 꾸며 성장할 수 있는 집을 원했습니다. 십년 노력해서 세 가지 목표를 이루겠다는 각오로 저희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꿈을 이루어준 파트너, 파트너 꿈을 이루어줄 우리. 꿈은 목표 기간의 절반 만에 현실이 되었습니다. 과정도 힘들기는커녕 재미있었습니다. 저희는 4년의 반대 끝에 암웨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반대는 오히려 당연하게 느껴졌습니다. 반대하던 사람이 사업의 가치를 이해하고 꿈을 만들어가는 다양한 사람들의 과정들이 모두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그들 각자의 꿈을 상담하다 보면 그들 개개인의 모습이 모두 눈에 들어옵니다. 나의 꿈을 이루어준 분들의 꿈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 깊은 곳에서 책임감이 솟아오릅니다. 다른 일과 달리 암웨이 사업에선 엔드르핀이 마구 분비됩니다. 힘들고, 힘들고, 힘들기만 한 다른 업무와 달리 암웨이 사업을 할 때는 늘 흥분되고 기쁨이 충만합니다. 지금 저희 팀에는 국제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 러시아, 일본으로 사업을 넓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꿈은 꿀수록 커집니다. 꿈팡이가득한 지하를 탈출하고 싶었던 저희가 이제는 스폰서님과 전원주택 단지를 꾸미고 사는 꿈을 꿈니다. 꿈을 키우고, 꿈을 이루도록 돕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게 저희의 꿈입니다.

### QUESTIONS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김흠 리더는 명동의 멀티샵에서 일했고, 동용 리더는 조선 설계 업무를 봤다.

**암웨이를 하는 이유**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사업이니까.

**반드시 지켜야 할 한 가지**  
초심을 잃지 않고 열정으로 될 것.

Triple Diamond  
 Founders Double Diamond  
 Double Diamond  
 Founders Executive Diamond  
 Executive Diamond



**Founders Diamond**  
 Diamond

## 신승주 김희수

2016년 9월 1일부



## 암웨이로 써내려간 희망의 부활극

### QUESTIONS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신승주 리더와 김희수 리더는 함께 자영 사업을 했다.

**암웨이를 하는 이유**  
 '괜찮은 삶'을 살게 해주니까.

**반드시 지켜야 할 한 가지 책임감(인생에 대한, 파트너와의 약속에 대한, 스폰서님 앞에서의 결단에 대한, 자녀의 미래에 대한 책임감).**

직장생활이 바라는 삶과 다르다는 걸 깨닫고 부부가 같은 날 사직서를 내고 무작정 자영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연히 암웨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직장생활도 자영업도 보장해주지 못하는 미래를, 암웨이의 자산소득은 해결해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당장 능력은 없지만 긴 호흡으로 암웨이를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처음에는 배우러 다닌다는 생각이었는데, 공부하다 보니 집중하게 되고 성과도 나왔습니다. 8개월 만에 SP가, 2년에 채 되지 않아 파운더스 플래티넘이 될 만큼 시작은 순조로웠습니다. 그간의 자영 사업을 정리하고 대리점 체제로 전환한 남편의 수입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남편의 대리점 사업이 부도를 맞으면서 결혼 후 이루어놓았던 모든 게 한 번에 무너졌습니다. 집도 경매로 넘어갔고, 1~2년간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그야말로 혼돈의 시기였습니다. 한동안 닢이 완전히 나갔지만 둘째 아이를 낳은 후 정신을 차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대론 아이에게 희망을 줄 수 없을 테니까요.

내 문제를 넘어, 그들의 성장을 위해 고민했습니다. 암웨이에 집중해야 할까, 아니면 당장의 생계유지를 위해 다른 일도 해야 할까. 결론적으로 암웨이 외엔 삶을 바꿀 길은 없었습니다. 저희는 파산 사실을 숨기고 암웨이에 전념했습니다. 공연히 암웨이 하다 망했다는 오해를 사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2개월도 안 된 아이를 보육센터에 맡기고, 그간 무너져버린 암웨이 사업을 정비하러 나갔습니다. 그렇게 2005년 에메랄드 도전으로 저희의 부활극은 시작되었습니다. 2006년에는 에메랄드, 2008년에는 다이아몬드 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급하다 보니 성장이 단단하진 못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되고 나니 파트너들이 눈에 들어왔고, 내가 힘들어 한 만큼 그들도 각자의 아픔과 바람을 품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에 박혔습니다. 생계 문제가 해결되자 이제 괜찮은 삶에 대해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사업의 가치를 이해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성취는 파트너들의 성장을 위해 된 결과입니다. 스스로의 문제를 넘어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사람의 도리를 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제 멈추지 않고 파트너들의 성장을 위해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Triple Diamond  
 Founders Double Diamond  
 Double Diamond  
 Founders Executive Diamond  
 Executive Diamond



**Founders Diamond**  
 Diamond

## 이미애 민관식

2016년 9월 1일부



## 언제나 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열정적이지 못했던 저희 부부가 암웨이 사업을 시작한 것은 각자의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하고 싶은 공부가 있었고 저는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습니다. 동생에게 우유병 세제라는 디쉬드랩스를 소개받으면서 암웨이와의 인연은 시작됐습니다. 매우 만족스러웠지만 더 구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당시 해군 장교인 남편을 따라 내려간 강원도 동해에서 암웨이 사업자들을 소개받고 사업 설명도 듣게 되었습니다. 제품을 하나씩 배워가는 재미도 있었고, 또 타지에서 온 제게 가족처럼 베풀어 주신 암웨이 분들의 친절함 덕에 암웨이는 참 행복하게 다가왔습니다. 그 후 서울로 올라와 참석한 홈미팅에서는 강원도 동해와는 또 다른 열정과 성공 사례를 가까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스폰서가 주신 책을 읽고 테이프를 요약하는 시간을 갖던 어느 날 잠들었던 초등학교 아들이 깨어서는 "엄마 뭐하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더니, "아, 공부하시는구나. 계속하세요. 저는 잘게요." 라면서 태연히 다시 자러 가는 겁니다. 그때 저는 아들의 몇 마디를 통해 공부하는 엄마로 살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암웨이를 사업으로 하게 된 작은 동기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 감사하는 마음 위에 성취는 꽃 피고

대안학교를 다니던 고등학생 아들이 미국 유학을 갈 때 전날 제가 했던 말은 "네가 유학을 가는 건 엄마의 꿈 목록에 너의 유학이 있었기 때문이야. 잘하고 와라. 엄마의 꿈을 이루어줘서 고마워." 였습니다. 꿈을 꾸고 그걸 완성하고, 더 큰 꿈을 키워낸다는 것. 결국 사람답게 산다는 것 아닐까요. 저희 가족은 암웨이를 통해 그 길 위에서 서 있습니다. 꿈을 이루어 가는 엄마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좋은 엄마가 되는 거라는 걸 지금도 배워가고 있습니다. 더 아름다운 건 꿈을 공유하고, 파트너들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손잡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 일을 하는, 성공하는 부모를 아이들이 보고 자랑합니다. 성공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고 합니다. 매일매일 한 뼘의 성장을 지속해 나가는 것, 저를 믿고 지켜보는 스폰서님의 눈빛을 저버리지 않는 것, 암웨이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더 익어가는 것, 같이 하시는 분들에 대한 책임감과 신뢰에 성실함으로 답하는 것. 이번엔 성취한 이 편은 긴 세월 한결 같은 이 마음으로 자리를 지키고 세월을 견뎌 낸 보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 과정에 있구요.

### QUESTIONS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이미애 리더는  
 전업주부였고, 민관식  
 리더는 해군 장교였다.

**암웨이를 하는 이유**  
 스스로에게 감사할 수 있게  
 해주는 사업이니까.

**반드시 지켜야 할 한 가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내하기.

Triple Diamond  
Founders Double Diamond  
Double Diamond  
Founders Executive Diamond  
Executive Diamond



**Founders Diamond**  
Diamond

## 이영신 한병준

2016년 9월 1일부



## 늘어나는 사업의 이유와 행복의 크기

### QUESTIONS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영어 강사 출신의 이영신  
리더는 전업주부였고,  
한병준 리더는 외국계  
회사에서 근무했다.

**암웨이를 하는 이유**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사람을 돕는  
사람이 더 나은 삶을 산다).

**반드시 지켜야 할 가지**  
스폰서에 대한 신뢰,  
파트너에 대한 신뢰,  
회사에 대한 신뢰,  
고객에 대한 신뢰.

처음에는 지금보다 조금 더 잘살고 싶은 마음에 암웨이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업을 하는 이유와 해야 할 이유가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저 하나만을 위한 사업으로 출발했지만, 지금은 너무나 많은 사람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일로 바뀌었습니다. 남동생에게 암웨이를 소개받을 당시 저는 두 아이를 키우는 전업주부였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막연하게나마 생각했지만 스스로 경제활동에 나서겠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남편이 영원히 직장 생활을 하리라고 여기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고민하지도 않았습니니다. 그래도 미팅에서 들은 '지속적인 인세 수입'은 제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정말 가능할지 의심스러웠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믿고 싶다는 생각이 은근히 솟아올랐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제 말을 들어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제 팀이 제대로 꾸려지지 않으니 좌절해서 그만두고 싶은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둘 용기도 없었습니다.

### 돕는 삶, 더 나은 삶

꾸준히 노력하니 파운데이션에 메달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천만 점을 안정시키면서는 함께하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덕분에 사업은 점진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암웨이 사업은 종합예술입니다. 경제적인 부분을 넘어 삶의 모든 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도전없는 암웨이 사업을 하고 있을 때 스폰서님께서 다이아몬드 목표를 정해주셨고, 다이아몬드는 꿈도 꾸지 못하던 제가 용기를 얻어 도전해서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 편부터는 제가 파트너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리더는 파트너의 등을 두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목표를 가지고 뛰면서 모범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스폰서님처럼 큰 영향력을 발휘하진 못하더라도,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데 여기서 멈출 순 없습니다. 이제 더 많은 사람을 돕기 위해 더 열심히 나아가겠습니다.



Triple Diamond  
 Founders Double Diamond  
 Double Diamond  
 Founders Executive Diamond  
 Executive Diamond



**Founders Diamond**  
 Diamond

**이영실**  
**윤여근**

2016년 9월 1일부

## 빠른 길 보다는 바른 길로 꾸준히 이룬 성장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낼 즈음 경제적 고민이 생겼습니다. 아기 때는 부모의 사랑만으로도 예쁘게 자라주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경제적 도움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무렵 암웨이 사업이 다가왔습니다. 전업 주부였던 제게 사업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도시가 아닌 시골이라서 더 힘들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이 일의 어려움은 약간의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이 비즈니스를 통해 개인에게 도움 되는 부분들을 이해하도록 정보를 주어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니까요. 저 역시 남편의 반대 속에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2006년 호주 리더십 여행을 기점으로 남편은 사업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행은 자신감과 회사에 대한 확신을 줍니다. 사업의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하는 첫 번째가 여행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여행까지 소비자만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이후 3년의 여행을 놓쳤습니다. 하지만 시스템 안에서 작은 실천의 꾸준함을 통하여 2010년부터는 부모님, 아이들과 함께 가족여행을 했고 그 이후부터는 함께 참여하는 여행인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 성공은 확률이 아닌 확신이다

사람들의 반대나 더딘 성장은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보다도 더 제 마음이 힘들었던 건 아이들에게 엄마의 빈자리가 느껴질 순간순간이 생길 때가 안타깝고 마음 아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안한 마음을 다스릴 수 있었던 건 이 사업의 결과를 통해 5년 후, 10년 후 아이들이 원하는 걸 하고자 할 때 그 곁에서 큰 울타리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개개인 은 너무나 약합니다. 그러므로, 성공의 시스템 안에 들어가야만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는 일입니다. 회사와 제품, 시스템과 스폰서 그리고 스스로를 믿으며 파트너들과의 신의를 지키면서 진행하다 보면 반드시 결과가 나오는 사업입니다. 성공은 확률이 아니라 '배움'과 '끈기'에서 나오는 확신의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해 알게 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 QUESTIONS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이영실 리더는 전업주부였고, 윤여근 리더는 전에도 지금도 회사원이다.

**암웨이를 하는 이유**  
 성공의 기회를 주는 사업이므로.

**반드시 지켜야 할 한 가지**  
 신념(자기 자신을 믿는 것).

Triple Diamond  
 Founders Double Diamond  
 Double Diamond  
 Founders Executive Diamond  
 Executive Diamond



**Founders Diamond**  
 Diamond

## 임현선 한순복

2016년 9월 1일부



## 성취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꿈의 크기

### QUESTIONS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임현선 리더는  
 전업주부였고, 한순복  
 리더는 회사원이었다.

**암웨이를 하는 이유**  
 자유 · 가족 · 희망 · 보상.

**반드시 지켜야 할 한 가지**  
 신뢰와 믿음.

이른 나이에 결혼해 남편은 커피전문점을, 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한 저는 음악 학원을 운영하며 나름 괜찮은 신혼 생활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저희 부부에게 큰 시련과 함께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파산이라는 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운명과도 같이 지금의 스폰서님을 만나 암웨이 사업에 대한 정확한 플랜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없었지만 시간과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고, '수입의 속성이 매달 증가하는데다, 평생 나오며 자녀에게 상속된다'는 말씀이 믿기 어려웠지만, 제 머리 속에서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안전지대가 아닌 현실과 벼랑 끝에 서 있는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잘 살고 싶다는 소망에 지속적으로 알아봤고, 결국 암웨이 가족으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 순복으로 얻은 신앙의 기쁨

처음에는 남편이 사업에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제품이 너무 좋았고, 회사에 대한 확신이 있었으며, 무엇보다 인생의 지침이 되는 스폰서님을 만났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도 믿을 만한 사람들과 정확한 미래 예측을 보면서 마음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꿈같았던 '여유 있는 삶'이 점점 현실화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더 큰 꿈으로 끝없이 이어진다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스폰서님께 순복하다가 저희 부부는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신앙은 제 꿈의 크기를 바꿨습니다. 경제적으로 잘 살고 싶던 꿈이 이제는 나눔과 봉사를 통해 가지 있게 잘 살고 싶다는 쪽으로 커졌습니다. 내가 아닌 주변을 바라보게 되는 건 암웨이 안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루 한가지 선을 베푸는 마음으로 꿈과 희망을 나누며 더 큰 봉사와 나눔의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Triple Diamond  
 Founders Double Diamond  
 Double Diamond  
 Founders Executive Diamond  
 Executive Diamond



**Founders Diamond**  
 Diamond

**임현주**

2016년 9월 1일부

##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암웨이

저는 대학 졸업 후 NGO 단체에서 일했습니다. 다 같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보자는 마음으로 NGO 단체에 10년 넘게 몸담고 있는 동안 보람도 느꼈지만 ‘다 같이 잘 사는 세상’은 마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전업주부가 된 저는 환경에 대한 관심만은 여전했습니다. 생필품 하나를 고를 때도 환경에 해가 없는지, 우리 아이가 써도 안전한지 꼭 따져보고 물건을 샀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암웨이를 접했습니다. 암웨이란 회사에 대해 잘 몰랐지만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해주는 일종의 협동조합 형식의 판매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대학 때부터 농민과 소비자의 직거래 장터를 많이 지켜봐온 저는 좋은 물건을 싸게 이용할 수 있는 데다 회비도 없고, 오히려 포인트까지 준다는 점에 매력을 느껴 처음 6개월 동안 제품만 사용했습니다. 사업은 먼 남의 얘기처럼 생각하던 제가 암웨이 사업을 시작한 계기는 오래전부터 꿈꿔온 세상을 암웨이를 통해 만들 수 있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20대에 품은 꿈을 40대가 돼서 이뤄  
 돌이켜보면 저는 보상이 없는 일을 그저 가치만 바라보고  
 젊은 날을 바쳤습니다. 암웨이는 제가 10년 넘게 해오던  
 일과 비교하면 추구하는 바는 같은데, 현실적 보상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열심히 일한 만큼 보상이 따라오니 일하는 내내  
 전혀 힘든 줄 몰랐습니다. 게다가 학창 시절 데모를 하거나  
 정부가 법을 바꿔야 조금씩 달라지던 세상이 암웨이 사업을  
 하면서는 생활 속에서 생필품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 환경을  
 지키고 제가 꿈꾸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내 삶도 풍족해지고 함께 사업하는 파트너들의 삶도  
 윤택해지는 모습을 보고 더욱 보람을 느끼게 됐습니다.

암웨이를 만나고 제가 20대에 품은 꿈을 40대가 되어 이를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저는 나 혼자만이 아닌, 모두 함께  
 행복한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후회 없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 QUESTIONS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천주교 NGO(비정부기구)  
 활동가였다.

**암웨이를 하는 이유**  
 믿는 바를 실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한 가지**  
 희망을 지킬 것! 어떤  
 상황에서도!



## 전순임 조지훈

2016년 9월 1일부



## 온 가족이 하나 되어 이룬 기적

### QUESTIONS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전순임 리더는  
전업주부였고, 조지훈  
리더는 정부 투자 기관  
교육원의 교수였다.

**암웨이를 하는 이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사업이니까.

**반드시 지켜야 할 가지**  
사업의 기본(소비자  
네트워크).

평범한 주부로 살면서 3명의 친구로부터 암웨이 제품을 전달 받아 잘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암웨이 사업 권유에는 남에게 부담을 주며 제품을 파는 일처럼 느껴져서 2년 반 정도 거절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암웨이 세미나를 듣게 되었고 누군가에게 부담을 주는 일이 아닌 기회를 주는 일이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울하게 집에만 있던 저에게도 꿈이 생기고 이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생기면서 희망을 갖고 암웨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남편과 가족들의 반대와 주위 사람들의 거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 사업을 알기까지 시간이 걸렸기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품을 좋아하고 잘 쓰고 있었기에 제품을 알리는데 집중하고 소비자들과 꾸준한 관계를 갖고 네트워크를 늘려나가 4년 만에 다이아몬드가 되었습니다.

### 파트너와의 약속, 성장의 근원

오랜 시간 정체가 있었습니다. 네트워크가 줄어들지는 않았지만 좀처럼 핀 업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직장생활과 과로로 병을 얻어 온전히 사업에 열중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현재 조지훈 리더는 3년 8개월째 투병 중입니다. 하지만 함께 성공하자고 했던 파트너와의 약속이 책임감으로 다가와 다시 사업에 열중했습니다. 그 결과 파트너와 함께 동반성장을 하게 되어 너무나 기쁩니다. 제가 사업에 나설 때 두 아들이 아빠를 지켜주었고 이번 제 성취 역시 가족이 톡톡 뭉쳤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가정의 가장이 되었습니다. 스폰서가 처음에 “가정의 스페어 타이어를 만들어 보라”고 했던 말이 실감이 났습니다. 이번에도전을 하면서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현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장애물은 우리를 훈련 시키는 도구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Triple Diamond  
 Founders Double Diamond  
 Double Diamond  
 Founders Executive Diamond  
 Executive Diamond



**Founders Diamond**  
 Diamond

**정효심  
 이광진**

2016년 9월 1일부

## 세상에 어려운 것도 안 되는 것도 없다

암웨이를 만나기 전인 1997년 IMF 당시 생활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니다. 어차피 살아야 하는 인생이라면 암웨이를 통해 인생을 바꿔보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암웨이는 저에게 단순한 성공 이상의 또 다른 기회였습니다. 시작은 경제적 이유였지만 암웨이 사업을 하면서 제 삶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남들은 저를 두고 외형적인 성격이라고 하지만, 사실 저는 내성적인 편에 가깝습니다. 이전까지는 사람들과 섞여서 얘기한 적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암웨이를 하면서 '우리'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이 바뀌니 만나는 사람도 달라지고 삶이 통째로 변하더군요. 이제는 부족하지만 많은 분에게 영향력도 생겼고, 그로 인해 무거운 책임감도 느낍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몇 번 좌절을 맞봤습니다. 그때마다 스폰서님의 격려와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조언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좌절을, 어려움을 겪고 나서는 세상에 어려운 것도 안 되는 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를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만들어준 원동력은 바로 목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었습니니다.

### 마음, 감동, 진심, 나눔을 실천하는 모습

저는 말이 앞서거나 겉만 번드르르한 허울보다 삶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암웨이 사업을 통해 좋은 차, 좋은 음식, 좋은 집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의 가치가 변하고 생각이 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창한 것을 보여주기보다 마음, 감동, 진심, 나눔을 실천하는 모습이 가치 있는 일 아닐까요?

암웨이 사업을 하면서 전에는 미운 파트너가 있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내 마음 같지 않을까?' 하고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라는 말의 의미를 알게 됐습니다. 제가 16년 동안 딱 하나 잘한 일이 있다면 항상 같은 자리에서 제가 할 일을 한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남들이 뭐라고 해도 저는 주위를 의식하지 않고 제 할 일을 묵묵히 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저와 함께하는 파트너들이 잠시 곁을 떠났다가도 돌아보면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스폰서로 남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잘 웃고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 QUESTIONS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정효심 리더와 이광진 리더는 함께 웨딩 사업을 했다.

**암웨이를 하는 이유**  
 직장이 아니라 평생의 직업이 될 수 있는 사업이니까.

**반드시 지켜야 할 한 가지 신뢰**



## 최영숙 한만중

2016년 9월 1일부



## 삶의 목적은 달라도 최고의 수단은 하나

### QUESTIONS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최영숙 리더와  
한만중 리더는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암웨이를 하는 이유  
이 안에 희망이 있으니까.

반드시 지켜야 할 한 가지  
신뢰.

한 달에 30만 원을 벌려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월 300만 원을 넘어 3,000만 원을 목표로 뛰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규모만으로 꿈의 크기를 재단할 순 없습니다. 애초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한 결정적 계기도 창립자의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때문이었습니다. 이윤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실천한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다이아몬드 핀까지 빨리 갈 수 있었는데, 자신의 사업이라는 인식이 명확했던 게 비결 같습니다. 스폰서나 파트너와 연결된 게 이 사업의 특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사업을 스폰서 사업의 일부라고 접근하면 일이 힘들어집니다. 내 일이라는 인식이 중요합니다. 사실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핀의 성취는 좀 더 어려웠습니다. 좀 더 안정적이고 탄탄하게 다가가야 하는 핀이기에 여기까지 오면서 파트너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더욱 커져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아직 남은 20%의 꿈을 향하여

저희 연구지는 서울입니다. 하지만 사업 파트너가 광주와 대구에서도 나왔습니다. 저희가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은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 어디든 돌아다니며 파트너 지원에 힘썼습니다. 물론 몸이 고된 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이 정도로 힘들면 파트너는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들의 노고를 알기에 저희의 땀방울은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결실도 달콤합니다. 다이아몬드가 된 후 10개의 고민 가운데 8개는 이루어졌습니다. 가난한 부부가 딸을 유학 보냈고, 매년 더 많이 나눌 수 있었고, 부모님 등 가족과 여행도 즐기게 되었습니다. 꿈이 명확해서 왜 이 일을 하는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답이 나옵니다. 삶의 목적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 베이스는 암웨이 하나면 충분하다고 자신합니다. 그러니 사업의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성장에 초점을 맞추세요. 그럼 과정도 결과도 모두 행복한 사업으로 삶의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Triple Diamond  
 Founders Double Diamond  
 Double Diamond  
 Founders Executive Diamond  
 Executive Diamond



**Founders Diamond**  
 Diamond

**황명희  
 전의수**

2016년 9월 1일부

## 경제적 안정에서 정신적 성장으로

저희는 주말 부부였습니다. 저는 수원에서 직장 생활을 했고, 남편인 전의수 리더는 주말에만 부산에서 올라왔습니다. 3년을 헤어져 살다 보니 더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1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남편 직장 근처의 장유로 내려와 2년간 전업주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스폰서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랜 직장 생활 이후 주부로 보내면서 현실 점검을 많이 한 탓인지 플랜을 빨리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큰 꿈을 품은 건 아니었습니다. 10년 열심히 노력해서 월 200만 원씩 꾸준히 벌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게 전부였습니다. 사업을 잘할 자신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10년, 200만 원이 당시 제 자신감의 한계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장유에는 지인도 없었기에 1년 동안은 학습에만 주력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미팅에 나갈수록, 사업을 지속할수록 많은 성공자를 만나고, 플랜과 보상 체계를 들으면서 비전이 점점 커졌습니다.

###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함께 커가는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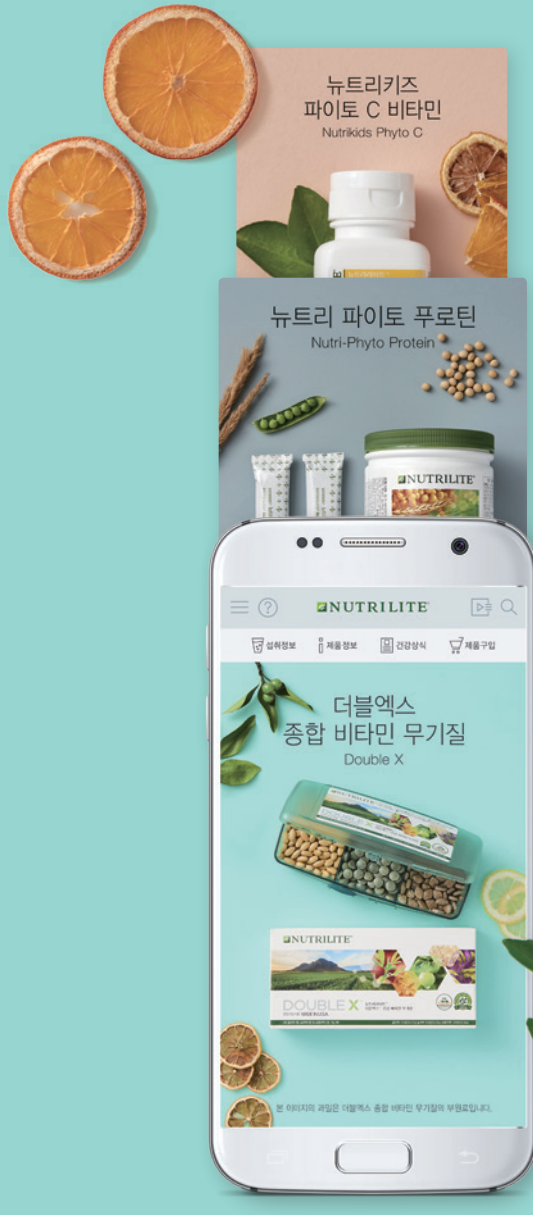
2년 6개월 후 첫 SP를 달성한 뒤 자신감이 붙었고 확신과 믿음이 생겼습니다. 처음 만 원이 조금 넘는 보너스를 받고 좋아하던 제 앞에서 암웨이를 반대하던 전의수리더가 지갑에서 만원을 꺼내 주면서 그만하라고 걱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조금씩 변화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남편도 마음을 열고 사업에 합류했습니다. 부부가 하나가 되어 함께 시스템 안에서 집중하다 보니 다이아몬드 핀을 성취했습니다. 저의 목표와 스폰서님에 대한 의리, 책임감을 다하다 보니 다이아몬드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파운더스 다이아몬드를 도전하면서 파트너들과 진정 함께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보다는 그들의 꿈과 목표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상처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각자 자신의 상처가 가장 깊고 아픈 줄 압니다. 암웨이 사업을 통해 서로가 가지고 있는 상처를 치유하고 제 스스로도 치유됩니다. 성취는 경제적 안정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도 우리를 정신적으로 성장하게 만드는 곳, 그래서 암웨이가 너무나 소중한 감사합니다.

### QUESTIONS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황명희 리더는 전업주부였고, 전의수 리더는 대기업 직원이었다.

**암웨이를 하는 이유**  
 안정적 소득과 미래 보장이 내면의 성장까지 이끈다.

**반드시 지켜야 할 한 가지**  
 신뢰, 신뢰가 깨지면 모든 게 끊어진다.



# 뉴트리라이프

디지털 카탈로그

브랜드스토리와 모든 제품의 정보를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제공합니다  
애플리케이션에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애플리케이션을 검색하여 App을 다운로드 받으세요



애플리케이션

# NEW ACHIEVEMENT





**Diamond**

## 김미자 신상경

2016년 3월 1일부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김미자 리더는 가정주부였다.



처음에 암웨이 제품을 직접 사용해보니 용기가 생겼고, 누군가에게 이야기해봐도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졌던 생각들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암웨이는 뭔가를 판매하는 일이 아니라, 누군가를 돕는 일이었고, 평범한 사람이 시스템 안에서 깨우쳐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계속 배움을 이어가니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암웨이를 알기 전에는 개인 중심의 삶을 살아왔지만, 이제는 상대를 받아들이고 제 마음의 가운데 자리를 내어줄 수 있을 만큼 마음을 키웠습니다. 암웨이 사업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시스템을 믿으면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꿈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꿈이라는 눈을 떠야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만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세상의 진리입니다. 이제 제 꿈은 파트너들이 모두 다이아몬드 핀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성취에 머무르지 않고 파트너들이 다이아몬드 핀을 달성할 때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제게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는 눈을 가져야 한다고 항상 격려해주신 스폰서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누구나 성공할 수밖에 없는 성공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격려해주신 여러 리더님들께도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 김선주 박홍일

2016년 3월 1일부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김선주 리더는 어린이 집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다.

출산 후 아이가 5개월 정도 되었을 때, 아는 교회 동생이 어떤 스폰서님을 엄청나게 자랑했던 일이 있습니다. 사실 암웨이가 궁금하지 않았지만, 스폰서님은 어떤 분인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12월 23일로 기억합니다. 늦은 저녁, 스폰서님은 저희 집에 방문했습니다. 눈빛이며 미소며 모든 게 당당함 그 자체였습니다. 사흘 뒤에 저는 스폰서님에게 해보겠다고 말했고, 암웨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스폰서님은 워낙 목표가 큰 분이었습니다. 저도 같은 목표를 가져보고 싶어졌습니다. 남편에게 사업에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했습니다. 박홍일 리더는 육아를 책임지고 도왔습니다. 저녁이면 남편이 아이를 데려왔지만 한번은 회식이 걸렸습니다. 밤 10시 반이 넘어 아이를 데려오는데, 비까지 보슬보슬 내렸습니다. 그때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반드시 해내서 보상해줄게.” 이제는 아이와 함께 여행도 하고, 부모님께 감사의 표현도 할 수 있고, 또 노후 안정에 대한 기대도 생겼습니다. 처음에 저희에게 큰 목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고의 핀이 되어 최대한 많은 사람을 돕고 싶습니다. 저희도 누군가에게 꿈과 신앙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 핀 달성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시작이니까요.

사업을 권유받고 암웨이 일을 하겠다고 나서기까진 2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2006년 2월부터 석 달 동안 모든 강의와 사업 설명회에 빠지지 않고 참석한 후 마음을 굳힌 후에는 누구보다 열심히 달렸습니다. 초반에는 스폰서님의 도움으로 승승장구해서 편업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에메랄드 핀이 손에 닿지 않는 겁니다. 스스로의 벽에 가로막혀 길을 잃은 것 같아 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다 스폰서님과 밤새워 이야기를 나눈 결과 문제는 제게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옛날의 저는 좋은 스폰서만 꿈꿨습니다. 하지만 파트너에겐 힘들어도 강단 있게 이끌어줄 리더가 필요합니다. 아이가 아파하더라도 주사가 필요한 것처럼 말이죠. 지난 해 서울로 이사간 파트너를 다시 불러 "마음 다 잡고 1년만 해보자"며 제 진심을 전달할 일이 있었습니다. 다시 최선을 다한 파트너는 지금은 플래티넘이 되어 사업을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녀는 제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친정엄마와 동생들을 모아놓고 "2016년부터 내가 엄마의 생활비를 낸다"고 선포했습니다. 다음 달에는 목사님을 찾아가 선교 사업을 돕겠다고 선언해버렸고요. 처음 시작할 때 가졌던 신중함과 다른 모습이지만 씨앗을 뚫고 싹이 나와도 본질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들과 열매를 주는 겨자나무로 성장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자 합니다.

## 박지은

2016년 3월 1일부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박지은 리더는 동화구연가로  
7년간 일했다.



Triple Diamond  
Founders Double Diamond  
Double Diamond  
Founders Executive Diamond  
Executive Diamond  
Founders Diamond



Diamond

5년 전인 2011년, 큰아이의 친구 엄마에게 암웨이를 소개받았습니다. 남편 역시 다른 경로를 통해 이 사업을 알아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함께 이 사업을 진행하고자 결심했습니다. 정원주 리더는 회사 업무가 끝난 후에는 늘 부부가 함께 미팅에 참석했습니다. 2~5년의 암웨이 플랜을 굳게 믿고, 같은 방향으로 나아갔기에 속도를 낼 수 있었습니다. 암웨이는 거대한 사업이지만 물건을 파는 영업 활동이 아닌,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는 곳입니다. 서로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윈윈 사업을 벌이는 장소가 바로 암웨이입니다. 처음 암웨이를 시작한 후 3개월, 6개월째에는 조금 지치기도 했습니다. 당장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업주부이던 저는 더욱 열심히 미팅에 참석했습니다. 그러자 어느 순간 수익 구조나 마케팅 등의 개념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먼저 극복해온 분들 중 한 분은 이 일을 팝콘 같은 사업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순간, 팝콘처럼 터지면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정말 1년 정도가 지나자 저와 같은 눈으로 암웨이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한 파트너들과 4년째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함께 암웨이 사업의 본질을 바라보는 6명의 파트너를 꼭 다이아몬드 핀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어떤 노력이 들더라도 말이죠.



강미선  
정원주

2016년 4월 1일부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강미선 리더는 전업주부였고,  
정원주 리더는 개인 사업을  
하고 있었다.

Triple Diamond  
 Founders Double Diamond  
 Double Diamond  
 Founders Executive Diamond  
 Executive Diamond  
 Founders Diamond



## Diamond

### 고희주 최승일

2016년 4월 1일부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고희주 리더는 엄마, 미술 선생님.  
 아내라는 세 가지 역할을 병행했다.  
 최승일 리더는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었다.



저희는 암웨이 사업을 1990년대 중반과 2000년, 두 번에 걸쳐 권유 받았지만 사업의 비전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당시 외국계 기업에 스카우트된 남편은 암웨이보다 엔지니어의 전문 영역에 집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10여 년 동안 미술 강의를 하면서 아이 둘을 키우고, 남편 내조까지 하는 1인 3역을 맡아야 했습니다. 부부 모두 열심히 살았지요. 그런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니다. 그때 친한 친구가 암웨이 사업을 소개했습니다. “문화센터에 나간다는 생각으로 가볍게 와봐”라고 친구는 제안했고, 최소한 허튼소리에 휘둘리지 않으리란 자신감에 승낙했습니다. 외국계 기업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남편의 수입도 충분히 높은 편이었지만, 근로소득과 인세 수입은 외형적으로 비슷해 보어도 전혀 달랐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씻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자 저희는 암웨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더욱 기쁜 건 ‘꿈을 공유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가족이 함께 꿈과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에게 스스로의 꿈을 이루라고만 하는 대신 내 꿈을 이야기하고 아이들의 꿈 찾기를 도와줄 수 있어서 기쁩니다. 남편도 “전문성을 추구하는 엔지니어는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들 위험이 있는데, 암웨이 덕에 주변을 넓게 볼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암웨이를 이해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이렇게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 정주영 손재모

2016년 4월 1일부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정주영 리더는 미용학과 교수가 되는 길을 알아보고 있었고, 손재모 리더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이었다.

1999년, 처음 암웨이를 접했습니다. 대학생 커플이던 저희는 미래가 두려웠기에 활로를 찾아 여러 가지 일을 시도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아르바이트를 하던 PC방 사장님으로부터 암웨이를 권유받았고, 3개월간 거부하다가 도서관에서 마케팅 관련 책을 접하고 사업에 도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나는 가능성을 발견했으니 당신도 한번 알아보는 게 어때?” 하고 권유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다 저도 ‘이 이야기가 진짜라면...’ 하는 마음에 점점 암웨이에 빠져들었습니다. 사업 시작 얼마 후, 스폰서가 사업을 그만두거나 사업을 같이 하던 선배들도 사업을 포기하는 등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초심으로 사업을 성장시켰습니다. 얼마 전 아들이 수학 문제 하나에 30분, 1시간씩 들어가며 답을 찾기 위해 애쓰며 열심히 공부했고, 그 결과 전교 3등이 되었습니다. 코피를 쏟을 정도로 스트레스도 받았지만, 아이는 스스로 이루어냈을 때의 성취감이 어떤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암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폰서도, 부모와 마찬가지로 응원밖에 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일을 대신해주지 못합니다. 따라서 삶과 미래를 두려워하는 대신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는 암웨이를 통해 스스로의 인생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스스로가 자신의 인생 주인이 되는 데에서 꿈은 싹틔니다.

저희 부부는 가정환경이 어려운 집에서 자랐습니다. 특히 중학생 때 아버지를 여읜 남편은 더더욱 힘들게 어린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저는 원하던 미술대학 대신 간호대학을 진학했지만, 남편은 (장학금으로) 스스로 학비를 해결해 의과대학에 갔습니다. 가난이 어떤 것인지 경험으로 뼈저리게 알고 있기에 저희는 어떻게든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남편은 의대만 졸업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고, 제게도 “나만 믿으면 된다”며 자신만만하게 청혼했습니다. 하지만 전문의 자격증은 만병통치약이 아니었습니다. 월급 의사는 매년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임시직에 불과했습니다. 저희 삶의 한 구석에는 두려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은 암웨이에서 미래에 대한 비전을 찾았고, 제게 이 사업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집 안에서만 생활하던 저는 일을 시작하는 게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암웨이의 세상으로 나오자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과거와 달리 이제 제가 주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남편도 변화하는 제 모습을 보며 기뻐했습니다. 암웨이를 만났기에 저는 김영기 리더에게 진심으로 인정받는 인생의 파트너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제 삶이 이 속에서 변했듯 꿈을 꾸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 꿈은 현실이 된다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성희 김영기

2016년 5월 1일부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김성희리더는 간호사와 시어머니를  
모시는 며느리 역할에 집중했다.  
김영기 리더는 의사로 인술을 펼치고 있다.



Triple Diamond  
Founders Double Diamond  
Double Diamond  
Founders Executive Diamond  
Executive Diamond  
Founders Diamond



**Diamond**

직장 생활의 끝이 보일 때쯤 암웨이 사업이 숙명처럼 찾아왔습니다. 당시 금융회사에 근무하고 있을 때였는데, 지인이 소개해준 분과의 만남이 새로운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된 것입니다. 그분은 진정을 담아 암웨이 사업을 권유했습니다. 미팅과 세미나에 참석한 저는 암웨이에서 비전을 발견했고, 직장 생활 이후의 삶에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암웨이 사업을 통해 시간적·경제적 자유를 얻어 가족에게 행복을 주고 싶었습니다. 암웨이 사업은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돌아보게 했습니다. 그런 성찰을 통해 나의 삶이 소중한 만큼 타인의 삶도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배우고 행동하고 마음에 새겼습니다. 암웨이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를 통해 신뢰를 쌓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분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암웨이 사업의 성공 여부가 달려 있습니다.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서로 돕는 '윈윈 사업'입니다. 성장을 멈추지 않은 사업가가 되기 위해 더욱더 노력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스폰서님과 파트너들께 무한 감사와 사랑을 드리는 사업가로 남고 싶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자유롭고, 위대하고 귀한 사람인지 아는 분들과 세상에 가치 있는 유산을 남기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를 위하여~!



## 김영목 김미숙

2016년 5월 1일부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김영목 리더는 일반 직장인 금융 관련,  
개인 사업 등 다양한 경력을 쌓았으며,  
김미숙 리더는 전업주부였다.

Triple Diamond  
 Founders Double Diamond  
 Double Diamond  
 Founders Executive Diamond  
 Executive Diamond  
 Founders Diamond



## Diamond

# 이계순 장정호

2016년 5월 1일부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이계순 리더는 12년간 영·유아 교육  
 사업에 헌신했으며, 장정호 리더는  
 암웨이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고 있다.



암웨이 이전에도 12년간 교육 사업을 해왔습니다. 스무 명 정도의 직원을 관리하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그런 경력 때문인지 암웨이를 시작한 후 일 자체는 그다지 힘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달랐습니다. 저는 과거의 경험대로 사람을 평가하고 관리하려 했습니다. 그때 장정호 리더는 “모든 일에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모습도 좋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가는 모든 것엔 사랑과 정이 바탕에 깔려야만 지속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때까지 굳어 있던 제 선입견을 깨버리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몸에 익숙한 행동은 습관이 됩니다. 제 습관 속에서 사람들은 관리의 대상이었고, 저는 상대를 대하는 마음에 진심을 담지 못했습니다. 편이 달라지면서 마음에 진심을 담아내며, 보다 세심하게 상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제게도 작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첫째, 누군가를 돕는 일하기에 디테일한 시간 관리의 기술을 닦게 되었습니다. 둘째, 내가 아닌 상대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셋째, 상대에게 기대하기보다 먼저 뛰는 솔선수범의 자세를 배웠습니다. 세상의 변화는 나 자신의 마음 경영으로 시작됩니다. 네트워크 사업뿐 아니라 인성까지 달라집니다. 저는 제대로 복제하고, 날마다 성장하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선택한 사람들의 인생에 제가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야 할 테니까요.



# 이정은 차성호

2016년 5월 1일부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이정은 리더는 육아에 전념하던 주부였으며,  
 차성호 리더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꿈을  
 이룰 수 있는 진정한 수단을 찾고 있었다.

저는 30대의 모든 순간을 암웨이 속에서 열정적으로 살았습니다.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은 “도대체 쉬는 날은 언제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제 삶을 부러워합니다. 부모님께서는 자랑스러운 딸이, 아이들에게는 미래가 준비된 부모, 존경받는 부모가 된 지금의 제가 자랑스럽습니다. 저희에게도 당연히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어릴적 아이들을 낳두고 주말 미팅장으로, 사업장으로 나가려면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다. “엄마, 아빠. 우린 언제 놀러 가?”라고 묻는 아이들 앞에서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삶은 달라졌습니다. 최선을 다해 30대를 보낸 결과입니다. 그 결과로 매년 ‘아이들과 함께 여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중입니다. 어떤 꿈도 이루기 위해선 노력이 필요하고 시간이 걸립니다. 암웨이는 꿈을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 인생에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에 희망을 심어줍니다. 그렇다고 저절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태산 같은 자부심으로 사업에 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자 리더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명목뿐인 후원자로 뒤에서 수수방관해선 안 됩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부부가 함께여야 합니다. 서로를 사랑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팀워크를 만들어나갈 때 여러분도 꿈을 이루며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이의 건강을 챙기다 우연찮게 다가온 암웨이였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미팅에 참석했다가 '노후'라는 단어를 들었는데 망치로 한 대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고민해보지 않았던 우리 부부의 노후를 그때부터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몇 번이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도 암웨이이라는 수단을 잡는 게 최선이었습니다. 암웨이를 하기로 결정하고 나니 해야 할 이유가 가득했습니다. 부부의 노후, 자녀의 미래, 건강, 경제적 안정 그리고 여행까지. 처음 남편은 반대했지만, 제가 교통사고를 당해 한 달간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서도 암웨이 보너스가 지난달처럼 입금되는 것을 보고 인세 수입과 임금의 차이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PT 세미나에 참석해 비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꿈을 이야기하고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니 더 빠르고 탄탄하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사업도 안정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너무 좋아 평생 쓰고 싶은 제품들과 더불어 암웨이는 경제적 안정도 가져다줬습니다. 게다가 아이들의 미래를 준비해주면서 가족의 행복을 담은 여행까지 보상해줍니다. 암웨이는 저희 부부의 생각과 습관, 성품을 변화시켰고 마침내 인생을 변화시켜주는 최고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암웨이 비즈니스가 저희 가슴에 심어준 행복의 씨앗을 더 많은 파트너와 나누기 위해 더 열심히 부부가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 황영진 조종환

2016년 5월 1일부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황영진 리더는 전업주부였고,  
조종환 리더는 대기업에  
재직 중이었다.



Triple Diamond  
Founders Double Diamond  
Double Diamond  
Founders Executive Diamond  
Executive Diamond  
Founders Diamond



Diamond

허상은 리더가 외국계 기업에 재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저희를 경제적으로 안정된 가족으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던 제가 딸들에게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는 길은 남편이 맘 흘려 벌어들인 돈을 악착같이 모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삶은 그리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아이들 면역력 향상에 도움될 제품을 찾았더니 스폰서님이 저희 집을 방문한 겁니다. 스폰서님은 집을 나서며, "나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혜정 씨와 함께 복을 나누고 싶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결정하고 간 미팅장에서 강의를 들으니 인생을 바꾸고 아이의 삶에 도움을 줄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남편은 아이들에게 집중하길 원했지만, 암웨이 강의를 듣고서는 가정이 바로서고, 되는 사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남편의 외조와 응원이 많은 힘이 되었고, 배움을 지속할수록 멋진 암웨이가 내 안의 자신감을 깨워주었습니다. 인격적인 자립을 통해 나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고, 부부 팀워크는 더욱 좋아졌습니다. 아이만 키우면서 대인기피증까지 앓고 있었던 평범한 주부에게 능력 밖의 암웨이는 큰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처럼 많은 분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이 기회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 강혜정 허상운

2016년 6월 1일부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강혜정 리더는 전업 주부였고,  
허상운 리더는 외국계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Triple Diamond  
 Founders Double Diamond  
 Double Diamond  
 Founders Executive Diamond  
 Executive Diamond  
 Founders Diamond



## Diamond

### 박미정 최병민

2016년 6월 1일부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박미정 리더는 출산 후 주부로  
 암웨이를 만났고, 최병민 리더는  
 건설회사에 재직 중이었다.



남편의 지방 발령으로 저희는 한동안 충청도에서 생활을 했고 그곳에서 남편이 암웨이 씨앗을 가지고 왔습니다. 6개월 동안 저녁 늦게까지 뭇가를 배우고 돌아오는 남편을 보면서 ‘아! 그냥 던지는 말이 아니구나’를 깨달았고 저도 가벼운 마음으로 암웨이를 알아보았습니다. 한동안 매달 미팅을 핑계로 서울에서 보내는 일주일의 허락된 휴가를 즐기고 있었는데, 어느 날 참석했던 성공자의 인정식 랠리를 보고 이 사업을 제대로 보게 되었고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그들이 무엇을 해냈기에 기립 박수와 존경을 받는 것일까?’가 궁금했고, 어쩌면 이 사업을 통해 나 자신을 찾을 수도 있겠다는 막연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후 사업에 집중하면서 저희에게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먼저 부부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면서 다툼이 사라졌고,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달라졌고, 아이들에게도 꿈꿀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열어주는 부모가 되었습니다. 암웨이를 시작하면서 바란 건 두 가지였습니다. 작게나마 재정적인 보상과 결혼과 함께 사라진 내 이름 석자를 찾는 인정이라는 보상이었는데, 이제는 부자를 꿈꿉니다. ‘그냥’ 부자가 아니라 ‘거룩한’ 부자가 되어 내 이름 석자에 선한 영향력이 가득하길 꿈꿉니다. 꿈이 곧 그 사람입니다. 암웨이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찾게 해주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 서병관 정두레

2016년 6월 1일부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서병관 리더는 지금도 근무 중인  
 통신사에서 일했고, 정두레 리더는  
 학습지 교사로 근무했다.

저희는 IMF 세대입니다. 대기업에 입사하면서 부모님을 봉양하고 아이들을 책임지며 우리의 노후까지 준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지만, 직장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하기엔 주어진 짐이 많았습니다. IMF로 5,000명의 직장 동료가 타의로 회사를 떠나는 모습을 보며 평생 직장의 꿈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도 깨달았습니다. 미래는 두려웠고, 현재는 답답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암웨이를 소개받아 왔습니다. 저는 반대했습니다. 남에게 아쉬운 부탁을 해야 할 것 같았고, 그것이 신앙인으로서 적절하지 않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암웨이에서 꿈과 비전을 본 아내는 저를 설득했고, 알아보는 것조차 안 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에 한 달 동안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2004년, 저희의 암웨이는 그렇게 시작되었지만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부모님도 형제들도 다 반대했고, 심지어 아이들 생일 파티에 저희 아이만 초대받지 못하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속상했지만 회사에서 쫓겨난 동료들의 기억과 노후 준비,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더 강했습니다. 아이들은 매년 리더십 여행을 함께 하면서 자존감이 더 커져갔고, 반듯하게 자라주었습니다. 10년 전 머릿속에서 꿈처럼 존재했던 비전이 이제 아이들을 통해 보입니다. 끝으로 스폰서님과 파트너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고백합니다.

외국계 정보 통신 기업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바쁘게 살아가던 남편이 어느 날 직장 동료에게 암웨이를 소개받았습니다. 암웨이에서 가능성을 발견한 남편은 함께 사업을 해보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가정에만 매어 사는 제 모습이 안타까웠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내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회사 일에만 집중했으면 하는 게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래도 예의바르게 거절하자는 생각에 사업 설명회에 참석했는데, 제 선입견과 암웨이가 많이 다르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암웨이는 둘째 출산 후 집에만 갇혀 사는 제 삶에 돌파구가 될 것 같았고,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는 배움이 기쁘고 사람을 만나서 즐거운, 김성원 리더의 표현에 따르면 주도적인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암웨이 사업에는 자본이나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시간과 에너지를 적절히 분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한 번 균형을 잃는 것만으로 재기하기 어려울 만큼 추락할 수도 있는 곳입니다. 2010년에서 2012년 사이에 남편의 사업은 커다란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그때 가족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균형을 잡아준 건 암웨이였습니다. 암웨이는 경제 문제뿐 아니라 육아, 교육, 건강 등 인생의 다양한 분야에도 균형 잡힌 해답을 줍니다. 암웨이와 더불어 난관을 극복했기에 저희의 경험을 다른 이에게 전해야 한다는 책임을 느낍니다.

## 서현주 김성원

2016년 6월 1일부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서현주 리더는 전업주부였고,  
김성원 리더는 외국계 기업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근무했다.



Triple Diamond  
Founders Double Diamond  
Double Diamond  
Founders Executive Diamond  
Executive Diamond  
Founders Diamond



Diamond

젊은 시절 저희는 입시 과외를 하다 장기적인 전망 때문에 축산물 유통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은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제역으로 인해 사업은 순식간에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천재지변에는 무기력하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러던 중 암웨이를 소개받았습니다.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선 다른 방법이 없겠다는 결론을 내리고 2011년 8월 1일, 암웨이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그렇다고 선불리 암웨이를 선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심한 순간부터 모든 의심과 걱정을 버리고 앞만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기초한 사업인 만큼 시행착오를 겪지만, 믿음 자체가 흔들리는 일은 없습니다. 믿음은 본질입니다. 믿을 것인지는 사업을 시작할지 결정하기 전에 정해야 하는 일입니다. 신념에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이것만 확실히 지킨다면 속도의 차이는 있어도 누구나 저희 정도의 성취는 이룰 것입니다. 저희는 입시 과외를 할 때 아이들의 마음을 여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함께 간 보드 캠프에서 아이들보다 더 즐겁게 놀면 됩니다. 진심과 진심은 통합니다. 진심을 담은 순수함으로 사람을 우선시하는 게 사업의 유일한 왕도입니다. 암웨이 창립자도 사람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 마음을 이어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손연식 이정민

2016년 6월 1일부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두 리더는 늘 함께였다.  
13년간의 입시 과외, 3~4년간의  
유통업에 함께 종사했다.

Triple Diamond  
 Founders Double Diamond  
 Double Diamond  
 Founders Executive Diamond  
 Executive Diamond  
 Founders Diamond



## Diamond

### 유향숙 오영민

2016년 6월 1일부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유향숙 리더는 은행에,  
 오영민 리더는  
 통신사에 근무했다.



암웨이 사업 초기에는 당장 눈으로 볼 수 있는 보상이 작은 탓에 흔들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암웨이의 가치와 보상 체계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저희도 여러 어려움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와 <영원한 자유기업인>을 읽고, 누군가를 도우면서 경제적 안정을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말에 대한 책임감, 파트너에 대한 책임감, 가족에 대한 책임감, 나 자신과의 약속에 대한 책임감을 가슴에 품고 해야 할 일을 찾았습니다. 다행히 암웨이에는 시스템이 있고, 형제 파트너도 많았기에 저희가 노력하는 만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보상 여행은 파트너들에게는 독립의 의미가, 다른 이에게는 편견을 깨고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첫 여행자인 코타키나발루에는 시부모님을 모시고 갔습니다. 암웨이 사업에 부정적이었던 시아버지께서 그곳에서 “회사 30년 다녔는데도 퇴사할 때 상패 하나 주는 게 전부였다”면서 “이왕 하려거든 열심히 해라”라고 격려해주셨습니다. 또 ‘친정엄마와 해외여행하기’가 꿈이었던 제가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 하이난의 산야로 엄마를 모시고 여행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암웨이 안에 길이 있습니다. 함께 고생한 파트너들이 모두 암웨이에서 길을 찾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 이소영 지성민

2016년 6월 1일부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이소영 리더는 전업주부였고,  
 지성민 리더는 현재 병원 재활센터  
 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2008년, 여동생을 통해 암웨이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부정적 이미지로 인해 저나 남편이나 거부감만 가득했죠. 몇 달의 시간이 지날 때쯤 동생이 두고 간 책을 남편이 우연히 읽으면서 ‘어쩌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 10년 차, 알뜰하게 살았지만 삶이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았고, 남편 역시 본인이 열심히 하는 것과 관계없이 다른 일로 병원이 한순간에 어려워 질 수 있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거부감을 내려놓고 부부가 암웨이를 알아보았습니다. 사람 관계에 두려움이 많은 저는 교육만 들었고, 그러는 사이 남편이 암웨이를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여러가지 일을 병행하고 있던 남편이 힘들어 할 때쯤 묵묵히 교육만 듣던 제게도 용기가 생겼습니다. 제가 마침내 입을 때는 순간이 오더군요. 첫 사업 설명은 강의만 들은 지 6개월 만의 일이었습니다. “나 암웨이 해요” 그렇게 시작한 암웨이가 느껴 보였지만 조금씩 열매를 맺어갔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일인 만큼 갈등도 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소한 일은 무덤덤하게 넘길 수 있는 여유도 생겼습니다. 그만큼 제 마음의 발이 커진 거지요. 암웨이 사업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마음에 담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부족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기에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아버님의 오랜 병구원을 하던 중 IMF가 터져 남편은 실직하게 되었습니다.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일을 겪게 되고 그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너무나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우리를 보게 되었고 막연한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지금보다는 나은 내일, 같은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막은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가치 있는 일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은 쉽지 않지만, 의미 있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한때 작은 아이가 많이 아파 거의 1년을 병원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갑작스런 병원생활로 많이 힘들어하던 작은아이와 혼자 할머니를 보살피며 사춘기를 보내야 했던 중학생 큰 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밝고 당당하게 성장해준 아이들이 너무 자랑스럽고 대견합니다. 다이아몬드를 진행하는 과정 동안 누구보다 엄마를 진심으로 격려하고 응원해주었고 지금은 너무나 자랑스러워합니다. 엄마를 통해 아이들이 꿈을 꾸고, 키우고, 이룰 수 있는 가능성과 희망을 볼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에 저 혼자라면 절대 해낼 수 없었을 겁니다. 언제나 스폰서님과 파트너분들이 함께 하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 드리고 사랑합니다.

## 장은석 이정선

2016년 6월 1일부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장은석 리더는 꾸준히 직장 생활을 이어가고 있고, 이정선 리더는 공무원에서 전업 암웨이 사업가로 변신했다.



Triple Diamond  
Founders Double Diamond  
Double Diamond  
Founders Executive Diamond  
Executive Diamond  
Founders Diamond



Diamond

20대 아가씨로 암웨이를 시작했지만 암웨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시작한 친구들이 중간에 포기해버리거나, 네트워크가 사라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저 역시 그만둬야 하는 건 아닌지 내심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고민들이 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고, 제 역량을 키워줬습니다. 흔들리는 제 마음을 잡아준 건 두 가지였습니다. 암웨이의 비전을 일찍 봤다는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여기에서 그만두면 자존심이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결혼 후 지난해까지 암웨이 사업을 거의 모두 제가 진행해야 했습니다. 선박 감리업무를 보는 남편의 일 특성상 해외 장기 출장이 잦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조선업은 엄청난 불황이어서 많은 분이 일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암웨이는 이제 저희 부부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지난해 발리 리더십 여행에 처음 따라왔던 남편도 큰 감동을 받았는지 요즘은 미팅장에 나오는 걸 무척 즐깁니다. 부부가 비즈니스 문제로 대화를 나누는 건 또 다른 즐거움입니다. 12년의 긴 시간이 걸렸지만 제가 다이아몬드 핀을 성취했다는 사실은 포기하지 않으면 누구나 가능하다는 증거입니다. 어린 나이에 만난 암웨이를 소중히 가꾸은 제 자신에게 감동을 느끼곤 합니다. 파트너 여러분도 이 감동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 최현주 안형태

2016년 6월 1일부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최현주 리더는 호텔리어였고, 안형태 리더는 현재 선박 감리 업무를 보고 있다.

Triple Diamond  
 Founders Double Diamond  
 Double Diamond  
 Founders Executive Diamond  
 Executive Diamond  
 Founders Diamond



## Diamond

### 강소영 이영민

2016년 7월 1일부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강소영 리더는 수제화 매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었고, 이영민 리더는  
 지금도 샐러리맨으로 근무 중이다.



아버지는 75세인 지금도 개인택시를 모십니다. 어린 시절 제 눈에 아버지의 삶은 버거워 보였고, 저는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했습니다. 다양한 일을 하다 보니 궁핍이 삶을 얼마나 힘들게 만드는지 일찍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급하다 보니 1997년 피라미드까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6개월 만에 이런 식으로 안 된다는 걸 깨닫고 나왔지만 갚아야 할 빚은 남았습니다. 생활 정보지를 뒤져보니 골프장 캐디의 인건비가 가장 높았습니다. 저는 골프장에서 일하며 종잣돈을 모아 시내에 수제화 매장을 열었습니다. 사업은 잘되었습니다. 하지만 골프장에서 일하다 생긴 비염과 아이들의 아토피는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암웨이 제품을 소개받았는데 효과가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도 과거의 아픈 경험 탓에 암웨이 사업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고, 아토피 환자들에게만 제품을 추천했습니다. 그런데 꾸준히 캐시백이 제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암웨이의 자산 소득이 지닌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수제화 사업은 규모가 커도 정작 제게 들어오는 수입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나마도 온라인 쇼핑몰이 등장하면서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산 소득을 만들어내는 암웨이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암웨이에선 희망이 차곡차곡 쌓입니다.



### 고경숙 위봉태

2016년 7월 1일부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고경숙 리더는 영어 학원 강사를  
 준비 중이었고, 위봉태 리더는  
 유통업에 종사했다.

2009년, 큰아이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추가 수입의 필요성을 느끼던 중 우연히 암웨이 플랜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도 있구나 하는 호기심과 함께 어쩌면 한번도 상상하지 못한 삶을 살 수도 있겠다는 희망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러나 시댁, 남편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방송통신대학교에서 영문학을 공부했지만, 그 과정에서도 스폰서님은 제 손을 놓지 않으셨죠. 저를 시스템으로 제대로 안내해주셨고,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2~5년이라는 시간을 영어강사일과 암웨이에 똑같이 투자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비교해봤습니다. 답은 금세 명확해지더군요. 덕분에 바로 휴학하고 사업에 집중할 수 있었고, 3개월 만에 SP를 가고, 2년 차에 가족여행도 가게 될 정도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암웨이는 사업뿐 아니라 사람의 '귀함'과 각자 다른 색깔을 지닌 '다르다'라는 부분에 대해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저를 깨우쳐주었고, 돈만 버는 일이 아닌 진짜 성공자를 만드는 일이라는 진정한 가치를 알게 했습니다. 멋진 환경 속에서 늘 깨닫고 배워나가려는 겸손함만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과정의 일부라 생각하면 누구나 즐겁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믿으세요. 내 인생에 놀라운 기적을 만나시게 될 겁니다. 모두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IMF가 터지고 평생 직장이란 개념이 흔들리면서 직장인은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은행원이던 저는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퇴직 등의 불안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암웨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유통과 무역이라는 개인 사업에 도전하기도 했습니다.

직장 생활과 자영업을 모두 경험하면서 둘 다 한계가 있다는 걸 체감했습니다. 회사는 언젠가 직장을 떠나야 합니다. 쳇바퀴 도는 듯한 생활에서 보람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자영업에는 어느 정도 이상의 자본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또 해외 사업인 경우 가족과 헤어져서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사파이어에서 에메랄드 정도의 수준을 꾸준히 유지해오던 저는 2013년에 '3년 안에 해내겠다'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결단이란 과거의 자신을 넘어서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렇기에 결단이야말로 가장 어려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자신을 믿고 결단을 내린다면 목표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신을 믿어야 합니다. 또 다이아몬드 핀으로 가기 위해선 철저하게 비즈니스에 몰입하고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늘 긍정적인 마인드로 시스템 안에서 도전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암웨이는 10년, 20년, 아니 평생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오랫동안 현역에서 삶을 경주하도록 해주는 암웨이가 있기에 우리는 진짜 비즈니스맨으로서 자신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 권오준 이경숙

2016년 7월 1일부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권오준 리더는 은행원이었고,  
이경숙 리더는 유치원 교사였다.



Triple Diamond  
Founders Double Diamond  
Double Diamond  
Founders Executive Diamond  
Executive Diamond  
Founders Diamond



Diamond

아파트의 같은 라인에 눈에 띄 정도로 예쁜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엄마 역시 세련된 분이라 평소에 호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주부였던 그녀가 바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물어보니 암웨이를 시작했다며 사업을 설명해주었습니다. 처음 2년간은 내 일이 아니라는 생각에 섰 나서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직장을 옮기면서 노후와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고민이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불안은 암웨이를 해야 하는 이유로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지인에게 제품을 조심스레 알리는 정도로 시작했는데, 사람들은 암웨이 제품을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나의 암웨이는 시작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한때 유행하는 일과 평생 유망한 일이 있는데, 암웨이는 후자였습니다. 잘살고 싶은 내면의 목소리가 강하다면 성공의 씨앗은 짝을 틉니다. 처음 먹었던 마음만 그대로 지켜낼 수 있다면 성취는 반드시 뒤따릅니다. 그럼에도 사람은 약한 존재기 때문에 주변의 목소리에 흔들립니다. 그럴 때는 앞서 간 분들의 이야기를 보고 들으며 성공자의 DNA를 주입하려고 노력합니다. 해낼 수 있다는 걸 파트너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 기쁩니다. 시스템을 믿고 함께 성공자로 변해가고 싶습니다.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이젠 누구나 되는 비즈니스니까요.



## 김두리 이상열

2016년 7월 1일부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김두리 리더는 가정주부였고,  
이상열 리더는 직장인이었다.

Triple Diamond  
 Founders Double Diamond  
 Double Diamond  
 Founders Executive Diamond  
 Executive Diamond  
 Founders Diamond



## Diamond

### 김서희 이정환

2016년 7월 1일부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김서희 리더와  
 이정환 리더는 맛벌이  
 직장인이었다.



2010년, 암웨이를 만나기 전까지 저는 언제나 안정적 수입을 찾고 있었습니다. 2008년 남편의 사업 실패를 겪은 이유도 있지만, 제 불안함의 근원은 어린 시절 기억에서 비롯합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부모님은 제가 충격받을까 봐 부모 당한 사실을 숨기셨습니다. 나중에야 이 사실을 안 저는 죄송한 마음에 하고 싶은 게 있어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부모의 재력이 아이 꿈을 접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체감했습니다. 어른이 된 후 남편이 힘든 시기를 겪을 때에도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험은 제가 세 가지 목표를 품도록 했습니다. 제 꿈은 세 가지였습니다. 먼저, 아이에게 안정적인 교육 여건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다음으로, 장녀인 제가 친정 엄마의 장남 역할을 하고 싶었습니다. 48세에 혼자자 된 후 스스로 생계를 꾸려나가시는 어머니 삶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알았는지 직장 동료가 세계 스폰서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는 암웨이에서 세 가지 목표를 이루어냈습니다. 핵심은 돈이 아니라 꿈입니다. 원하는 게 없다면 암웨이 사업을 끝까지 해낼 수 없습니다. 암웨이는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끼리 꿈과 책임감을 나누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 박성희

2016년 7월 1일부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박성희 리더는 디스플레이  
 인테리어 디자이너였다.

저는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는 디스플레이 디자이너였습니다. 인품이나 학업 성적이 모두 뛰어났던 중·고등학교 동창이 암웨이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잘못된 길이라면 친구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에 암웨이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선입견이 오해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의 선택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디스플레이 인테리어는 계절이 바뀔 때나 크리스마스 시즌처럼 정해진 시기엔 정신없이 바쁘지만 그때가 지나가면 여유가 생깁니다. 시간이 나서 홈 미팅에 참석해보니 아주 괜찮은 분들로 가득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인맥의 중요성을 알고 있던 터라 암웨이 일을 하지 않더라도 그분들과 인간적 교류는 이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7년이 흘러 친구가 다이아몬드 핀을 성취했습니다. 같은 기간 저 또한 제 사업에 최선을 다했음에도 서로의 결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수입은 괜찮았지만 삶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친구는 달랐습니다. 삶을 비교하니 답이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제게 암웨이는 안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꼭 해야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력의 작은 결실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나 혼자만의 성취와 보상이 아닌 파트너들의 성취와 보상 그리고 나눔이 되도록 함께 해내는 팀장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황도석 리더는 32년 차 배우입니다. 그에겐 기흥이란 고질병이 있었습니다. 숨이 차오르기 시작하면 10분 이내에 조치해야 했는데, 무대 위 연극배우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는 질병이었습니다. 그때 동료 배우가 그에게 암웨이 제품을 건넸고, 2~3개월 복용한 황도석 리더는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진만 해도 좋을 정도로 상당히 호전되었습니다. 그때 황도석 리더는 39세였고, 저는 35세였습니다. 저는 10년 차 직장인이었습니다. 당시 근무하던 직장의 회장님께는 캐나다 유학 중인 손자가 있었는데, 그 아이를 보면서 저희 아이의 상황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두 아이가 잡을 수 있는 기회는 전혀 달랐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주변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수록 상대적 박탈감이나 좌절감도 커지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제품의 효능을 본 황도석 리더처럼 저 역시 암웨이에서 기회와 가능성을 봤습니다. 직장에서 15년간 최선을 다해도 '내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암웨이에선 자신의 노력이 고스란히 축적됩니다. 저도 제 아이에게 기회를 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희에겐 미래도 무엇도 없었습니다. 자본이나 특별한 능력을 요구했다면 저희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배우 1호 암웨이 리더가 되겠다는 꿈만 가지고 열심히 따라 하기만 했는데 마침내 결과가 나왔습니다. 암웨이는 기회고 희망입니다.

## 백영애 황도석

2016년 7월 1일부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백영애 리더는 직장인이었고,  
황도석 리더는 그때도 지금도  
연극배우다.



Triple Diamond  
Founders Double Diamond  
Double Diamond  
Founders Executive Diamond  
Executive Diamond  
Founders Diamond



Diamond

과거에는 건축자재를 유통하는 자영업을 했습니다. 수요가 공급을 넘어서던 시기에는 사업이 잘되었지만 점점 시대의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대형 자재 마트가 들어서면서 작은 건축 자재점으로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졌고, 열심히 해서만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다른 사업을 고민해봤지만 자영업의 한계는 똑같았습니다. 그때 평생 할 수 있는 일, 자본과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은 일을 암웨이에서 만났습니다. 암웨이 사업이라고 쉬운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힘들어도 평생의 자산을 만드는 일이란 생각에 좌절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일관성이야말로 성취의 원동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사건이나 사람에 감정적으로 흔들려선 안 됩니다. 시스템이 가르쳐준 대로만 나아가면 팀워크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편이 오를수록 유대감은 더욱 끈끈해지고, 마음은 가까워집니다. 자신보다 파트너의 성공을 위해 뛰는 모습을 보면서, 서로 공감하고 복제하면서 진짜 팀워크가 완성됩니다. 그 결과, 저희는 92세 아버지께서 해외 호텔 풀장에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감격에 젖습니다. 이 일은 자신이 아닌 시스템의 능력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시스템을 믿고 파트너를 도우면 저희처럼 평범한 사람도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송명숙 박강식

2016년 7월 1일부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송명숙 리더와  
박강식 리더는 함께  
자영업을 운영했다.

Triple Diamond  
 Founders Double Diamond  
 Double Diamond  
 Founders Executive Diamond  
 Executive Diamond  
 Founders Diamond



## Diamond

## 송지안

2016년 7월 1일부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송지안 리더는 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강사였다.



2002년 중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와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때 학과 교수님의 사모님으로부터 암웨이 사업설명을 듣게 되었고, 암웨이 가치가 제 가슴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암웨이 사업이 자신의 적성에 맞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처음부터 암웨이가 저의 이상에 맞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소비자계몽운동'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相生이라는 단어가 인구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win-win을 구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암웨이 창립자인 리치 디보스의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를 읽으며 깊은 감명을 받았고, 이 책은 오랜 세월 저의 신념을 지켜주는 뿌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암웨이가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이라는 소신으로 노력했지만 다이아몬드를 성취하기까지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편업을 못하는 시간들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정말 결단했습니다. 제가 편업을 해야만 파트너들에게 길을 열어줄 수 있다는 것을 통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해내었습니다. 암웨이 사업, 결코 오래 한다고 되는 일은 아닙니다. 목표를 성취하고자 하는 결단과 결정이 관건입니다. 지금 나의 이 성공은 미완성입니다. 파트너들 모두 다이아몬드가 되는 그 날이 진정한 의미의 저의 성공입니다.



## 이현주 권오운

2016년 7월 1일부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이현주 리더는 학원 수학  
 선생님이었고, 권오운 리더는  
 건설업을 병행했다.

10년 전, 대기업에 다니던 남동생이 암웨이 사업안을 가져왔습니다. 가족들은 동생이 멀쩡한 회사를 그만두기라도 할까 봐 걱정에 빠졌고, 저는 동생을 말려야 한다는 사명을 안고 암웨이 세미나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을 찾으려고 들은 교육 내용이 너무 좋았습니다. 학원 강사이던 저는 아이들에게 목표 의식을 심어주고 동기부여를 해주는 방법을 늘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암웨이는 어른들에게 그걸 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육에 완전히 빠져버린 저는 매주 암웨이 세미나장을 찾았고, 가족들도 걱정하지 않도록 안심시켰습니다. 제가 암웨이를 선택한 궁극적 이유는 인세 소득과 상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살면서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아름다웠고, 그런 노력이 모이면서 사람들이 성장하는 모습도 정말 놀라웠습니다. 암웨이의 가치를 이해하고도 암웨이 사업을 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하기에 암웨이 세계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 분들의 이해를 돕는 게 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원석 상태의 꿈과 희망을 갈고 닦아 빛나는 다이아몬드가 될 때까지 함께하며, 즐겁고 신나는 암웨이를 멋지게 해내겠습니다.

저희는 11년간의 이민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미국에서도 파운더스 에메랄드 핀까지 6년 동안 암웨이 사업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의 사업 환경을 모두 경험해봤습니다. 한국 암웨이의 시스템은 놀랍습니다. 거점마다 AP가 자리하고 있고, 뉴트리라이트 체험 등의 행사도 많습니다. 일주일에서 보름은 기본이고, 천재지변까지 겹치면 물건 배송에 얼마나 긴 시간이 걸릴지 모르는 미국에 비해 한국의 사업 환경은 정말 좋습니다. 그렇다고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쉽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더 쉽거나 어려운 곳은 없습니다. 한계는 스스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개인 사업인 암웨이 비즈니스는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입니다. 시스템만 잘 활용하면 자신의 능력을 뛰어넘는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소유욕을 지녔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파트너를 자기 안에 가두려고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신보다 큰사람도 말이죠. 그보다는 그분들이 시스템 안에서 성장하도록 보조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러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성취를 통해 오히려 다이아몬드는 혼자 이루어낼 수 없는 핀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습니다. 저희가 보지 못하는 부분을 보고,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스폰서님과 업라인 스폰서님에게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 이희승 임성철

2016년 7월 1일부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이민자이던 이희승 리더와  
임성철 리더는 미국에서도  
암웨이 사업을 했다.



Triple Diamond  
Founders Double Diamond  
Double Diamond  
Founders Executive Diamond  
Executive Diamond  
Founders Diamond



Diamond

10년여 간의 공직생활을 뒤로 하고 쉬고 있을 즈음, 20년 만에 만난 중학교 친구로부터 암웨이 사업을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내가 할 일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별다른 관심이 없었지만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암웨이 사업을 공부하며 열심히 해나가는 친구인 스폰서님의 꾸준한 후원과 변화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덕분에 막연하게 걱정 되었던 준비되지 않은 노후에 대한 대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엿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암웨이 사업에 적응하긴 쉽지 않았습니다. 오랜 직장생활 속에 수동적으로 일을 처리하던 과거와 달리 제가 주도적으로 변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공을 위해선 스스로를 바꿀 수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보다 앞서서 다이아몬드가 된 파트너의 인증식 스피치를 준비하며 제게 스폰서 자격이 있는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도전하기로, 다이아몬드 핀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고 이렇게 이루어냈습니다. 암웨이 사업을 해나가면서 우리는 도전하고 한계를 뛰어넘으면서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 정주연 김현진

2016년 7월 1일부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정주연 리더는 공무원 생활을  
그만두고 쉬고 있었고,  
김현진 리더는 자영업을 했다.

Triple Diamond  
 Founders Double Diamond  
 Double Diamond  
 Founders Executive Diamond  
 Executive Diamond  
 Founders Diamond



## Diamond

## 지은영 류정환

2016년 7월 1일부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지은영 리더는 전업주부였고,  
 류정환 리더는  
 금융업에 종사했다.



처음 스폰서님을 만났을 때가 지금도 또렷합니다. 저는 셋째를 임신한 상태였고 4살 많은 스폰서님도 둘째를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스폰서님께서는 암웨이 사업으로 매달 200만 원의 안정적인 추가수입을 벌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호기심은 생겼지만 세 아이를 키우면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스폰서님의 지속적인 후원 덕분에 세미나에 참석하고 책과 CD를 들으면서 제 인생의 제대로 된 현실점검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수입도 10년 후가 되면 끊어지는 임시수입이라는 말을 듣고 암웨이는 선택이 아니라 꼭 해야 하는 필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0만원 별고자 시작한 이 비즈니스는 이제는 세 아이의 미래·남편의 후반전·부모님의 노후도 책임질 수 있는 우리 가정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이제 제 인생 10년 후가 더 기대됩니다. 매일매일 할 일이 있다는 것이 즐겁고 매일매일 희망과 꿈을 이야기하는 것이 행복합니다. 내가 정말 잘 먹고 잘살려고 시작한 이 비즈니스는 이제 이웃을 돌아보게 되고 파트너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꿈을 지키기 위해 매진하는 계가 되었습니다. 저와 파트너들의 소중한 꿈들을 지키고, 이루기 위해 저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저에게 암웨이가 엄청난 기회였듯이 더 많은 이에게 이 기회와 축복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 축복을 전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옥다

2016년 7월 1일부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전직 은행원이던  
 최옥다 리더는 출산 후 육아에  
 전념 중인 전업주부였다.

13년 전이었습니다. 점점 심해지는 아이의 아토피가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암웨이 제품이 좋다는 얘기를 들은 저는 목욕탕 아줌마에게 혹시 암웨이 하는 사람을 알면 소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게 암웨이와 인연을 맺은 계기였습니다. 저는 1년간 소비자로 지냈지만 사업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혼자 일하는 남편을 보면서 조금씩 불안감이 싹텄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업 설명을 듣게되었고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봤습니다. 저는 제품이 좋아서 자발적으로 암웨이 제품을 애용해왔었고,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을 3년에 1명씩만 만나면 10년 후엔 에메랄드가 될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가난과 이별하는 에메랄드 핀이 되어 저는 꿈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파트너들을 보니까 내가 다이아몬드가 되어야만 그들의 성장을 도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꾸준히 하면 소득은 늘어납니다. 더욱 중요한 건 꿈이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꿈이 작은 제가 다이아몬드가 되고 더 큰 꿈과 열정을 품고 계속 나아가고 있으니까요.

캠퍼스 커플이던 남편과 함께 전산학을 전공했습니다. 남편은 전공을 살려 금융가에 취업했습니다. 하지만 그 분야에는 잦은 구조 조정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미래가 불안해진 저는 무슨 일이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취업 대신 창업을 고민했습니다. 그때 지인이 암웨이를 전해줬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암웨이의 인세 수입이야말로 미래에 대한 정확한 대안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 책을 읽고 미팅에 참석하면서 더 많은 걸 배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놀라움은 더욱 커졌습니다. 다이아몬드 판매 도전하기로 결심하고 '진정 감사하는 마음으로 의리와 도리를 다하면 진심은 통한다'는 모토를 마음에 새기면서 저는 더욱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글을 써놓고 늘 읽고 되새깁니다. 파트너를 만날 때도 마음 자세를 밝히고 생각을 다잡습니다. 그러자 파트너를 만날 때도, 소비자를 만날 때도 계속 발전하는 저 자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절대 긍정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저는 지금도 부족한 사람이지만 성공자의 모습으로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마음속에 자신의 소중한 꿈이 있다면 현재 모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암웨이와 함께한다면 누구든 자신의 소중함을 깨닫고 성공자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토록 드높은 삶의 가치를 주변 모든 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 최영옥

2016년 7월 1일부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최영옥 리더는 어린이집을  
하러고 준비 중인  
전업주부였다.



Triple Diamond  
Founders Double Diamond  
Double Diamond  
Founders Executive Diamond  
Executive Diamond  
Founders Diamond



Diamond

전업주부 5년 차로 지루하다면 지루하고 바쁘다면 바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암웨이 회원 가입을 하고 제품이 좋아 계속 사용하다 보니 캐시백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사용 할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고 사용해야 안심하고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암웨이 관련 미팅을 나가게 되었고, 제품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제품에 대한 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변 사람들은 제가 좋아하는 만큼 암웨이에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습니다. 판매하는 사람처럼 대우 받는 것도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미팅에서 제대로 공부해야 해마다 여행도 갈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배우는데 집중했습니다. 한 사람만이라도 나와 공감하며 나처럼 암웨이 제품을 좋아하는 사람만 만들면 되겠다는 희망으로 끊임없이 공부하고 배우는데 노력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되면 되게 한다는 것이 다른 사람과의 도전이 아니라 자기와의 도전이라는 것을 알았고 점점 그런 경험이 재미있어지자, 지금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성공을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준 이 사업도 감사하고 지금까지 함께해 온 스폰서와 파트너들에게도 감사를 전합니다.



## 구은미

2016년 8월 1일부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구은미 리더는 전업주부였다.

Triple Diamond  
 Founders Double Diamond  
 Double Diamond  
 Founders Executive Diamond  
 Executive Diamond  
 Founders Diamond



## Diamond

### 권운숙 장형찬

2016년 8월 1일부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권운숙 리더는 영재교육  
 선생님이었고, 장형찬 리더는  
 개인 사업을 했다.



품질이 좋다는 이야기를 늘 들어서 암웨이 제품을 써보고 싶었습니다. 구입이 쉽지 않아서 고민하던 차에 미용실에서 원장님과 암웨이 제품을 이야기를 나누는 분을 만났습니다. 제 스폰서님이 되신 그분께선 제품 판매보다 효능 설명에 더 열심이셨습니다. 신뢰가 쌓이면서 저는 모든 생활용품을 암웨이 제품으로 브랜드 체인지 했습니다. 2년간 열심히 제품을 공부하면서 사용하는 애용자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2008년 봄, 미국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가 올 것이란 예측이 암웨이에서 나오는 걸 들었습니다. 그 해 9월 15일, 리먼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암웨이의 이야기가 사실로 증명되었습니다. 그때까지는 막연하게 느껴지던 암웨이의 여러 개념들이 시대적 트렌드에 정확히 부합한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지금은 안정적이지만, 아무리 내 배가 튼튼해도 풍량이 강하면 견디기 힘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년간의 소비자 경험으로 회사와 스폰서, 시스템과 암웨이 사람들을 향한 신뢰는 있었지만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 일은 혼자가 아니라 꿈을 공유해야 가능한 사업임을 깨닫습니다. 어느새 제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5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파트너의 꿈을 이루겠습니다. 그게 이 사업의 가치니까요.



### 김미경 배장기

2016년 8월 1일부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김미경 리더는 공무원이었고,  
 배장기 리더는 개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는 공무원으로 일했지만 제 안에는 가슴 떨리는 삶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약간의 추가소득과 가능하다면 멋진 여행이라는 선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막연한 호기심에서 제 인생의 암웨이가 시작됐습니다. 한번뿐인 인생이었기에 막연한 고민보다는, 된다는 쪽으로 선택했고 한 우물만 파기로 결정했습니다. 직장도 곧 그만두었습니다. 아가씨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결정이라기 보다 암웨이 사업은 축적되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결정은 기회가 됐고, 그 결정을 통해 저는 멋진 가정도 꾸리고 행복한 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암웨이의 가치는 돈·시간·친구·건강이 모두 따라오는 일이라는 점입니다. 그뿐 아니라 저를 비롯해 주위 사람 모두 함께 꽃을 들고 있고 그것이 아름다운 꽃밭을 만들어나가는 일이기에 더 가치 있는 것 같습니다. 혼자만이 아닌 더불어 함께 성공하는 일이기에 이 비즈니스가 다음 세대로 이어질 거라 확신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바라봐주고 이끌어주신 스폰서님, 업라인 스폰서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함께 웃고 울고 했던 그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하기에 더욱 힘들 수 있었습니다. 파트너님들 사랑합니다. 해낼 수 있게 도움주신 사랑하는 친정어머님과 내 인생의 멋진 파트너 배장기 리더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우리 국현 서현군. 우리가 가족이라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우리가 해낸 것입니다. 프리덤!!!

남편 회사의 발령으로 제주도를 떠나 낯선 서울 땅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살림을 꾸리던 중 제주도에서 애용했던 암웨이 제품을 주변 사람을 통해 다시 구입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사업의 기회가 찾아왔고 그 기회를 재빨리 잡았습니다. 처음 사업설명을 들었을 때 내가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IMF 시기였기에 몇 백만 원이 아닌 단돈 오십만 원이라도 벌 수 있다면 언제 닥칠지 모르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 미팅이 너무 재미있어서 암웨이 사업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2002년, 다시 제주도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서울의 시스템을, 아무 것도 없는 제주도에 그대로 옮겨 심는 건 황무지에서 맨손으로 자갈을 고르는 일과도 같았습니다. 시스템을 복제하는 일은 어려웠지만 시스템을 믿었기에 힘들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이 없다면 이 사업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일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늘 스폰서님과 시스템이라는 든든한 존재가 있었기에 17년간 단 한 번의 후퇴 없이 꾸준히 성장했지만 그것만으로 만족할 순 없습니다. 스폰서님들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파트너들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다이아몬드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할 수 있고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더 큰 도전과 성취를 보여주면서 당당하게 앞으로 나갈 것입니다.

## 김정임

2016년 8월 1일부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김정임 리더는 전업주부였다.



Triple Diamond  
Founders Double Diamond  
Double Diamond  
Founders Executive Diamond  
Executive Diamond  
Founders Diamond



Diamond

“마흔이 되기 전에 평생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 친한 언니는 늘 제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38세가 되자 제 마음은 초조해졌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섰지만 어떤 일에도 하기 어려운 이유가 따라붙었습니다. 매번 한계점에 가로막힌 제게 다가온 해결책이 바로 암웨이였습니다. 처음부터 암웨이 이야기는 믿기 힘들 만큼 놀라웠습니다. 겨우 종이컵 하나의 기름으로 통닭 한 마리를 모두 튀길 수 있다니! 심지어 스스로도 부자가 되기 힘든 세상에서 다른 사람까지 부자로 만들 수 있다니! 말만 들어도 너무 신나고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매사에 덩벙거리는 제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신뢰’라는 다리로 이을 수 있을까 걱정되었습니다. 그래도 제게는 주변에 기쁨의 에너지를 전달하는 재능이 있었습니다. 단점에 얽매이지 말고 내가 가진 능력으로 열심히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슬프거나 힘들어도 티 내지 않고 밝은 모습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자 사업이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제 파트너들은 저보다 뛰어납니다. 저는 그들이 모두 제 편을 추월해 더 큰 리더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내년에는 보석으로 반짝이는 파트너들이 쏟아지길 기다리며 외쳐봅니다. 인생 역전! 암웨이 짱!



## 김현정

2016년 8월 1일부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김현정 리더는 전업주부였다.

Triple Diamond  
 Founders Double Diamond  
 Double Diamond  
 Founders Executive Diamond  
 Executive Diamond  
 Founders Diamond



## Diamond

## 류지민

2016년 8월 1일부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류지민 리더는  
 현대미술(순수미술)을  
 전공하는 학생이었다.



저는 암웨이 2세 사업가입니다. 어린 시절 저희 집에는 암웨이 리더들로 가득했고, 언제나 암웨이 제품만 써야 하는 줄 알면서 자랐습니다. 가족과 여행을 보내주시니까 좋은 회사구나 싶었다가도, 암웨이에 대한 모순된 시각들 사이에서 과연 부모님께서 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지 궁금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중학생 때 유학 과정에서 만난 주변 친구들을 보면서 제 환경이 평범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돈과 시간으로부터의 자유는 아주 특별한 혜택이었습니다. 암웨이 사업을 하기 위해 만 스무 살이 되지만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개인 작업실을 꾸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누린 혜택들이 얼마나 특별한지 깨달으면서 제 꿈은 점점 커졌습니다. 나누는 삶을 꿈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공동 작업실을 운영하거나, 기부를 위한 전시회를 여는 미래를 상상하곤 합니다. 그리고 꿈을 이루기 위해 앞으로 나아갑니다. 2세로서의 믿음과 확신은 제 자신이 성장하는 데 촉진제가 되었습니다. 어떠한 보상이 기다리는지 알기에 어떤 상황에도 즐겁게 임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초조해하는 분들에게선 믿고 즐기시길 권합니다. 노력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언제나 저를 믿고 함께해온 파트너 리더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스폰서님이기도 한 부모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 백민아 하태봉

2016년 8월 1일부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백민아 리더는 전업주부였고,  
 하태봉 리더는 개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10여 년 전, 시댁에 살던 저는 돈을 벌고 싶었지만 마땅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직장에 다니기엔 시간이 없었고, 사업을 벌이기엔 리스크를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암웨이는 가장 확실한 수단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처음 목표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제가 자만만 탓도 있을 테고, 예전에는 시스템이 지금처럼 정착하지 않은 이유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지금의 성취를 이루어낼 수 있었던 건 팀워크 덕분입니다. 오랫동안 용기가 부족해 다이아몬드에도 도전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결정하면 방법은 하늘이 줍니다. 지난해, 먼저 다이아몬드가 된 파트너의 인증식을 준비하면서 저도 도전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떨어지기라도 한 것처럼 마지막 파트너가 나타났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길은 열립니다. 다이아몬드는 마음의 크기를 알려주는 상징입니다. 다이아몬드 핀에 이를 때까지 어지간한 일은 모두 겪었습니다. 때로는 시련과 역경처럼 느껴졌지만, 제가 인격을 다지고 사람 그릇을 키우기 위한 여정이었음을 깨닫습니다. 다이아몬드 핀은 평생의 인격 수업에 대한 증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언제나 최우선은 사람입니다. 평생 친구인 파트너와 서로 마음을 아껴주고 위하면서 함께 노력하면 결과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저희는 사업을 크게 보고 시작했기에 3년 반 만에 다이아몬드 편을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암웨이에서 사업을 시작한 건 아닙니다. 저는 순전히 요리만 배울 생각으로 쿨을 찾았다가 스폰서님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사업 이야기를 회피했지만, 운 좋게도 요리 명장이 많은 팀을 만나 요리에 대한 비전을 보았습니다. 아이 셋을 키우면서 내심 자영업의 한계를 느끼던 차에 인세 수입이라면 안정적인 미래가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랬듯, 구자춘 리더도 처음에는 사업에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평소 허튼 짓을 하지 않는 아내를 믿고 구자춘 리더 역시 암웨이 미팅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참석한 분들의 면면을 보고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저희는 남들보다 더 빨리 변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기에게만 전념하던 저도 여성 사업가로 변신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자 처음 바란 경제적 보상보다 훨씬 더 큰 행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데 행복해지는 삶이 펼쳐졌습니다. 아이들도 부모를 이해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면서 바르게 자랍니다. 자연스레 따라오는 경제적 수입만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암웨이는 그 이상입니다.

## 안효주 구자춘

2016년 8월 1일부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안효주 리더는 전업주부였고,  
구자춘 리더는  
태권도 관장이었다.



Triple Diamond  
Founders Double Diamond  
Double Diamond  
Founders Executive Diamond  
Executive Diamond  
Founders Diamond



Diamond

2002년, 둘째를 낳고 산후조리 중에 육아에 도움이 될 만한 강의를 있겠다 싶어 암웨이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때 사업 설명회와 제품 설명회, 마케팅 강의로 들었습니다. 괜찮게 들렸지만 소극적인 성격의 저와는 관계없는 일로 생각했습니다. 얼마 후 강사였던 저는 복직을 위해 영어 학원에 갔습니다. 육아를 병행해야 했기에 일정 시간에만 출강할길 원했지만 학원에선 매일 출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육아에 충실하면서도 50대 이후에는 인세 수입까지 올리는 게 가능하다”던 암웨이의 비전이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암웨이의 보상이 아이들 미래에 도움을 줄 수 있겠다, 게다가 길어봤자 50세 전에 수입이 끊기는 학원 일보다 암웨이가 장기적으로도 더 좋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평범하니까 50만 원 정도의 수입만 올리면 된다는 목표로 암웨이를 시작했습니다. 그 정도 금액이면 시골에서 농사지으며 여섯 자녀를 키우느라 평생 힘들게 사신 부모님께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작은 꿈으로 시작해서 그랬는지 결과가 빨리 나오지 않았지만 기본에 충실하며 스폰서와 좋은 시스템 속에서 꾸준히 진행하다 보니 저도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암웨이는 저처럼 평범한 사람도 간절한 꿈을 꾸고 행동하면 이를 수 있게 해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 양금례

2016년 8월 1일부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양금례 리더는  
영어 학원 강사였다.

Triple Diamond  
 Founders Double Diamond  
 Double Diamond  
 Founders Executive Diamond  
 Executive Diamond  
 Founders Diamond



## Diamond

### 오유진

2016년 8월 1일부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오유진 리더는 연극배우였다.



26세 때 저는 연극 무대에 서는 배우였습니다. 그런데 자꾸 살이 찌니까 주변에서 암웨이의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소개해주더군요. 제품이 맞았는지 8~9kg을 감량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4년간 소비자라면 암웨이와 인연을 이어갔습니다. 당시 저는 무대만 생각했기에 옆을 돌아볼 여력이 없었습니다. 배우만 하고 싶었지만 생활비는 따로 마련해야 할 만큼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진단지를 돌리는 일까지 가리지 않다 보니 결국 몸이 축나버렸습니다. 그러다 암웨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돈을 버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기에 사업은 그리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과거에 살펴보지 못했던 제 옆의 풍경이 눈에 들어오면서 새로운 감정이 들었습니다. 무대만 생각하느라 평생 효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암웨이 덕에 부모님을 모시고 해외여행도 하고 용돈도 드리게 되었습니다. 부모님 친구분들을 모시고 쿨에서 배운 요리를 대접한 것도 보람 있는 일이었습니다. 평생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던 제가 암웨이를 만나 '가족'을 생각하기 시작했고, 남편을 만나 가정을 꾸렸습니다. 저는 2년 후 다시 연극을 시작할 생각입니다. 꿈을 향해 한 발자국 더 나아가면서 좀 더 넓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준 스폰서님, 그리고 업라인 스폰서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 이길순 양철승

2016년 8월 1일부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이길순 리더는 옷 가게를 운영했고, 양철승 리더는 자영업 했다.

평범한 주부인 제게 2008년 암웨이라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17년간 자영업 하던 남편이 서서히 힘들어하더니 어느 날 부도가 나고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시작했던 게 옷가게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시작해보니 인터넷 몰의 등장 등 시대적인 변화에 적응이 쉽지 않았습니다. 답답하고 절망을 느끼고 있던 차, 손님으로 오셨던 스폰서님으로부터 암웨이 비전을 듣고 많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처음에 우리 부부는 선입견 때문에 사업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주고 가신 책과 CD를 통해 성공하신 분들과 경제전문가의 트렌드 진단을 읽으며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꿈이 생겼습니다. 부족하고 평범한 제게 가슴 떨리는 꿈이 생겼기에 대가 지불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매일 매일 텐코아를 통해서 행동과 습관을 바꾸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이아몬드 핀을 성취했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성공자나 리더였던 건 아닙니다. 성공자와 리더는 만들어지는 것이라 배웠습니다. 누구나 꿈을 가슴에 품고 시스템과 스폰서님 손을 잡는다면 모두 성취하리라 믿습니다. 이제 스폰서님께 받은 사랑, 파트너 한 분 한 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만들어주신 스폰서님 너무나 감사 드리고 파트너분들 사랑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대학선배부부를 통해 암웨이를 처음 접했습니다. 처음 본 홈미팅은 사업이라기보다 건강을 공부하는 지혜로운 주부들 모임 같았습니다. 그래서 큰 거부감 없이 암웨이가 다가왔습니다. 회사로 복직을 하고 나니, 직장인의 생활과 암웨이 인세소득자의 생활이 더 크게 비교가 되었습니다. 30대 초반에 사업을 했기에 어찌던 더 많이 견딜 수 밖에 없었고, 상대방을 존중해야 했었는데, 그 덕분에 자연스럽게 배려와 존중이 기본이 되는 팀이 만들어졌습니다. “꿈꾸는 것은 경험의 영역이다”라고 합니다. 그 말은 경험만큼, 아는 만큼만 꿈꿀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 부부는 사업의 과정에 보상프로그램 중에서 여행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사랑하는 두 명의 자녀에게 여행의 경험을 통해 큰 꿈을 꿀 수 있도록 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또한 부모님들께 암웨이의 멋진 여행을 선물해드린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런 계획으로 사업에 임했더니 성장과 편입이 따라왔습니다. 매년의 도전 끝에 드디어 부모님께서는 다이아몬드 자녀로, 아이들에게는 다이아몬드 부모가 되었습니다. 저의 30대는 암웨이 사업에 몰입한 시간이었습니다. 어차피 무언가에 집중하며 시간을 보내야 한다면, 평생을 준비하는 사업에 집중하는 게 올바른 답변 아닐까요?

## 이선경 황영우

2016년 8월 1일부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이선경 리더는 외국계 보험  
회사에서 근무했고, 황영우 리더는  
벤처기업을 창업해서 운영했다.



Triple Diamond  
Founders Double Diamond  
Double Diamond  
Founders Executive Diamond  
Executive Diamond  
Founders Diamond



Diamond

2001년 국가 교환학생으로 버지니아에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때 하루 종일 TV로 9·11 사건을 목격하면서 인간은 얼마나 나약하며 인생은 얼마나 허무한지 고민했습니다. 번민에 빛을 밝혀준 건 수요일의 성경 공부였습니다. 당시 저는 한 목사님께서 수요일마다 3~4시간씩 성경을 교재로 하는 영어 강습을 받았습니다. 말씀은 개인적 성공과 인생의 덧없음 사이에서 고민하던 저를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돌아와 영어 학원을 운영하던 중 제가 구역장으로 있는 교회의 지인이 암웨이 사업을 한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만류하기 위해 AP에 갔다가 젊은 분이 너무나 많이 모인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저 안에서 동고동락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처음엔 거부하려고 해봤지만 제 안에서 암웨이에 대한 생각은 계속 자라났습니다. 2년 5개월 만에 다이아몬드 편을 성취한 후 빠른 성장의 비결을 묻는 분이 많이 만납니다. 그때마다 저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답합니다. 정말로 혼자 해보려고 할 때와 새벽에 기도를 드린 후의 결과는 달랐습니다. 교회에 나가길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증명하는 데 저 자신을 바치고 싶습니다. 2019년에 반드시 FCA가 되어 신앙으로 기적을 일구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 이영호

2016년 8월 1일부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이영호 리더는 영어 전문  
학원을 운영했다.

Triple Diamond  
 Founders Double Diamond  
 Double Diamond  
 Founders Executive Diamond  
 Executive Diamond  
 Founders Diamond



## Diamond

### 이운숙 정진국

2016년 8월 1일부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이운숙 리더는 전업주부였고,  
 정진국 리더는  
 일반 회사원이었다.



어린 시절 큰 화상을 입었습니다. 신체의 67%에 3도 화상이었죠. 이를 극복하려다 보니 내성적인 성격이 조금씩 적극적이 되었고, 내 안의 연예인적인 기질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은 흉터로 인해 연예인의 꿈은 접어야 했습니다. 꿈을 접고 평범한 삶을 살다가 큰아이의 놀이 학교에서 스폰서님을 만났습니다. 스폰서님께서 제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서 연예인이 되어보라고, “네가 안된다고 했던 이유가 이 안에서는 더욱 널 빛나게 할거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의 감동으로 이 사업에 몰입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달려다 보니, 정말 암웨이 안에서 제가 연예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꿈을 이루어내는 과정은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모두 행복으로 반짝입니다. 우리 주변을 봅시다. 맛있는 점심을 만들어준 육개장 식당 사장님은 하루의 반을 오로지 식재료 손질하느라 시간을 보냅니다. 제 휴대폰을 고쳐준 서비스센터 기사님은 하루의 3분의 1 이상을 기계와 씨름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그들의 고민을 해결해주고, 그들을 더 행복하게 만들면서 하루를 보냅니다. 제 스피치를 들은 어떤 분은 눈물을 그르렁거리며 제게 사진 한 장만 같이 찍자고 말합니다. 그분께 저는 연예인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분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꼭 찬 제 삶의 행복을 많은 분께 나눠드리며 동기유발할 수 있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 임은주 김명수

2016년 8월 1일부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임은주 리더는 무역 등  
 자영업을 했고, 김명수 리더는  
 직장 생활을 했다.

저는 중국에서 태어나 큰 꿈을 품고 한국에 왔습니다. 6년간 요식업을 했지만 건강만 상했습니다. 요양차 중국에 돌아갔다가 암웨이 사업을 하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한국에서 암웨이의 흐름을 미리 알아보면 친구에게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스폰서님께 사업을 할 생각은 없지만 배우고 싶은 암웨이를 알려달라고 건방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미팅장에서 암웨이 사업의 크기를 눈으로 확인하고, “성공을 꿈꾸는 모든 이에게 기회를 준다”는 기업 이념에 빠져 여기에 모든 걸 걸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는 사람이 없었기에 지하철을 타고 돌면서 생면부지의 아줌마들에게 암웨이를 소개하며 악착같이 매달렸습니다. 그 결과 빠르게 에메랄드 판까지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현실에 안주하며 침체의 늪에 빠졌습니다. 2015년 설을 지낸 후 저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스스로를 돌아봤습니다. 암웨이 안에서 놓고 있는 제 자신이 보였습니다. 저 때문에 함께 정체된 파트너들도 떠올랐습니다. 저는 다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역경은 있습니다. 하지만 꿈은 장애물을 뛰어넘게 합니다. 불가능은 신이나 환경이 아니라 스스로 그어놓은 한계입니다. 우리가 꿈과 목표를 확실히 하면 불가능의 선을 끊고 역경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교사와 강사라는 생활반경이 상반된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교사는 방학 때와 저녁에 여유가 생기지만, 학원 일은 그 반대입니다. 가족이 얼굴을 맞대고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현실이 늘 안타까웠습니다. 2011년 8월, 저희는 가슴속에 희미하게 숨어 있던 꿈을 이룰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사업을 시작했고, 2년 반 만에 파운더스 플래티늄 핀을 성취할 정도로 순항했습니다. 그렇게 암웨이 사업을 진행하던 중 힘들게 사업하면서도 성장을 못하며 두려움에 싸여있는 파트너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해결책을 고민하던 차에 보석핀을 가려면 다른 근육을 써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때마침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건 더 큰 두려움”이라는 영화 <명량>의 대사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15년 차 교사이던 최은경 리더는 5년만 더 재직하면 교직원 연금을 수령할 수 있었지만, 교직 생활을 과감히 내던졌습니다. 그렇게 하면 2019년의 역사적 현장에 파트너들을 데려갈 수 있다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다이아몬드 핀을 성취하려면 3개월에서 6개월쯤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일은 원인이 먼저가 아닌, 결과를 정해놓고 원인을 찾아가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성취는 저희 선택이 옳았음을 확인한 경험이었습니다. 2019년에 파트너들과 라스베이거스를 밟으며 다시 한 번 그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 전명배 최은경

2016년 8월 1일부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전명배 리더는 입시 학원  
원장이었고, 최은경 리더는  
고등학교 국어 교사였다.



Triple Diamond  
Founders Double Diamond  
Double Diamond  
Founders Executive Diamond  
Executive Diamond  
Founders Diamond



Diamond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도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15년간 직장 생활을 했고, 회사와 학업을 병행하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게 원하는 방향대로 살아지지 않더군요. 삶에 회의를 느낄 때 즈음 암웨이를 소개받아 미팅장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꿈과 세상의 변화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죠. 어린 시절 제 꿈은 ‘자립’이었습니다. 지독하게 가난한 집의 1남 7녀 가운데 여섯째로 태어난 저는 무엇이든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처럼 결핍을 물려주는 삶을 살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답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암웨이 미팅장에서 결핍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가능성과 소비자의 권리를 우선하는 기업 정신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반대하고 나섰지만, 결국 제게 힘을 보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꿈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던 건 미팅의 힘 덕분입니다. 사람은 원래 부정적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한다”는 마음이 스멀스멀 솟아납니다. 하지만 암웨이 미팅에 반드시 참석하면 긍정의 나무가 서서히 뿌리내리게 됩니다. 뿌리가 깊으면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모두 암웨이 안에서 꿈의 열매를 수확할 수 있길 기원합니다.



## 전점옥

2016년 8월 1일부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전점옥 리더는  
일반 회사원이었다.

Triple Diamond  
 Founders Double Diamond  
 Double Diamond  
 Founders Executive Diamond  
 Executive Diamond  
 Founders Diamond



## Diamond

## 정명숙

2016년 8월 1일부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정명숙 리더는 전업주부였다.



13년 전, 아토피피부염이 심한 아이의 로션을 사기 위해 회원으로 가입한 후 우연히 미팅에 참석해 현실을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준비하지 못한 노후는 초라하겠다는 걱정이 들어 남편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걱정하던 남편도 암웨이 사업을 알아보니 “다행히 진실된 곳 같다. 쉽지는 않겠지만 10년 정도 해볼 생각이라면 도전하라”며 반대를 거두었습니다.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데다, 이렇다 할 사회 경험도 없었기에 저는 스스로를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면서 변화하는 제 자신을 보고 자부심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세 가지만 갖췄다면 우리는 훨씬 나은 사람으로, 전혀 다른 사업가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먼저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사업을 소개해준 분에 대한 책임감, 팀에 대한 책임감, 결과를 내겠다는 책임감, 그런 책임감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팅에 100% 참석해야 합니다. 이 일은 배워서 하는 사업인 만큼 미팅에 반드시 나가야 스스로를 다잡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폰서님께 순복해야 합니다. 이 일은 이미 해내신 분이 손을 잡고 이끌어주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가능하기도 합니다. 이 성취까지 제 손을 꼭 잡아준 스폰서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 정주연 박상수

2016년 8월 1일부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정주연 리더는 요리를 가르쳤고, 박상수 리더는 외환 딜러였다.

남편인 박상수 리더가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며 암웨이 사업을 집에 가져왔습니다. 저는 아는 것도 많지않고, 물건을 팔 자신도 없었고, 남에게 부담을 주기도 싫어서 반대했습니다. 저는 그냥 좋아하는 요리만 계속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권유를 단번에 뿌리칠 수 없어 암웨이 미팅에 나갔습니다. 그곳에서 이야기를 들은 저는 갈등했고, 결국 사업에 도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암웨이 사업을 해도 권을 수단으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건 돈보다 더 큰 가치를 발견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도 저는 돈을 벌고 싶어 했지만 그해야 하는 이유는 고민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암웨이를 만나면서 그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딸, 아들의 꿈을 꺾지 않는 엄마가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에메랄드 핀이 된 후 스폰서님께선 ‘제가 아니라 파트너들을 위해’ 다이아몬드 핀에 도전하길 권하셨습니다.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점차 그 이야기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저의 진짜 꿈은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고, 저의 도전이야말로 파트너들을 돕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의 도전은 스스로의 꿈보다 책임감에서 비롯했습니다. 하지만 제 성취를 기뻐하는 파트너들을 보며 저 역시 ‘더 큰 나’가 되어가고 있음에 흐뭇함을 느낍니다.

암웨이를 만나기 전 본업은 영어 학원 강사였습니다. 남은 시간이 아까워 오전에는 어린이집 파견 강사, 저녁과 주말에는 과외를 3개 정도 더 했습니다. 시간을 쪼개어 살았던 건 함부로 사용한 시간이 언젠가 제게 복수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사친의 손에서 자란 저는 좀 더 넓은 세상에서 배우고 싶었지만, 집안 형편 상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저를 두고 엄마는 미안했는지 함께 울었습니다. 저는 돈 때문에 아이가 꿈을 포기해야 하는 환경을 물려주기 싫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엄마, 난관을 극복하는 엄마, 길잡이가 되어주는 엄마가 되고 싶어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을 몰랐는데, 스폰서님께서 암웨이를 소개해주셨습니다. 저는 결혼 한 달 전에 암웨이를 만났고, 첫아이를 임신하고 있을 당시 SP에 도전했습니다. 둘째 아이를 가졌을 때는 에메랄드 핀에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난관도 뛰어넘는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암웨이가 곧 태고였던 셈입니다. 힘들어도 모든 순간은 지나갑니다. 다이아몬드 핀에 도전하는 1년 내내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미래의 내가 지금의 나를 본다면, 목표를 이룬 나와 성취하지 못한 나는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이야기할까? 힘들어도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 정지은 오준석

2016년 8월 1일부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정지은 리더와 오준석 리더  
모두 학원 영어 강사였다.



Triple Diamond  
Founders Double Diamond  
Double Diamond  
Founders Executive Diamond  
Executive Diamond  
Founders Diamond



Diamond

25년 전인 10세부터 암웨이를 알았습니다. 성공적으로 암웨이 사업을 하는 부모님을 보며 자라왔기 때문입니다. 저도 부모님처럼 자유로운 삶을 살길 바랐고, 재무 투자를 전공했기에 자유의 이면에는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유학 도중 암웨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지인들은 대기업에 취업하는 대신 암웨이 사업에 도전하는 저를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일을 시작한 후 저는 암웨이야말로 내 사업이라는 책임감과 확신을 갖게 되었고, 한국에 돌아와서는 아예 전업으로 나섰습니다. 처음, 결과에 조금해하기도 했지만, 책과 오디오를 들으면서 자기계발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러자 저를 믿어주는 파트너들이 생겨났습니다. 부모님께 많은 걸 배울 수도 있지만 리더십은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룹을 일궈내는 건 결국 자신의 역량입니다. 사람마다 성취하기까지 시간은 다르지만 고생의 양은 비슷합니다. 어차피 정해진 만큼의 노력이라면 한꺼번에 쏟아서 시간을 줄이자고 생각하고 4년 여 동안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이번 편업을 통해 네트워크가 아니라 정신적 가치를 상속받았다고, 누구의 아들이 아니라 다이아몬드 주용석이 되었다고 느낍니다. 이에 자부심을 느끼며 더 큰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나아가고자 합니다.



## 주용석 이지현

2016년 8월 1일부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주용석 리더는 유학생이었고,  
이지현 리더는  
유학생 겸 연구원이었다.

Triple Diamond  
 Founders Double Diamond  
 Double Diamond  
 Founders Executive Diamond  
 Executive Diamond  
 Founders Diamond



## Diamond

### 주진평 이명희

2016년 8월 1일부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주진평 리더는 중학교  
 국어 교사. 이명희 리더는  
 고등학교 영어 교사였다.



존경 받는 교사이고 싶었지만 교육민주선언에 동참했다는  
 이유로 감봉에 이어 구속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복직 이후  
 열심히 살았지만 간경화 판정을 받고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그럴 즈음에 암웨이 제품을 만났습니다. 직거래, 친환경 유기농  
 제품이라는 말에 끌려 건강보조식품과 세계류 등 암웨이  
 제품을 사용했고, 덕분에 건강도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암웨이 제품의 좋은 점을 사람들과 나눴고 그런  
 과정에서 암웨이 사업의 비전을 보았습니다. 기업과 소비자가  
 협력하고, 소비자들과 소비자들이 도우면서 공동구매 혜택을  
 키워나가는 방식이 매력적이었습니다. 사명감을 갖고 땀  
 이명희 리더는 2년 6개월 만에 에메랄드 핀을 성취했습니다.  
 3개월 후면 다이아몬드핀을 성취하는 상태에서 교사 공무원은  
 암웨이 사업을 할 수 없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교직을  
 그만두었지만, 13년 간 핀업은 못했습니다. 그러던 3년 전,  
 이명희 리더가 인생을 새롭게 펼쳐보고 싶다고 명예퇴직을  
 하면서 다이아몬드 핀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심이 해답이었습니다.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에 따라  
 행동하면 성취는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선한 영향력을 더 넓게 행사할 수 있었고, 파트너의  
 성장도 이끌 수 있었습니다. 혼자 일귀낸 성과가 아닙니다.  
 소비자 여러분과 파트너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한미해 주영찬

2016년 8월 1일부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한미해 리더는 전업주부였고  
 주영찬 리더는 해외영업  
 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일과 건강, 인간관계, 경제력, 시간적 여유 등 다섯 바퀴가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삶은 행복해집니다. 노후를 제대로  
 준비 못하면 균형 있는 삶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직장생활과 노후준비를 병행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돈  
 버는 일은 많겠지만 균형 잡힌 라이프스타일을 제공하면서  
 노후까지 준비해주는 것은 암웨이 사업뿐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늘 피곤해 하던 남편에게 사춘기로부터  
 더블엑스라는 종합비타민을 전달받았고, 암웨이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던 남편이었지만 달라지는 몸의 활력을 느끼며 변화하기  
 시작했고 사업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꿈꾸던 엄마의  
 모습은 사랑하는 아이들로부터 존경 받고, 지혜로운 엄마!  
 그리고 노후엔 세련되고 멋진 할머니가 되는 것이 목표였는데  
 이런 꿈들이 암웨이 사업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핀은 열심히 하기만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목표를 분명히 하고 매 순간을 집중할 때에 달성 가능한 핀  
 이었습니다. 다이아몬드 핀을 성취하고 나니 파트너를 보는  
 시야가 넓어지고 기쁨의 크기가 커졌습니다. 파트너와 함께  
 하는 사업인 만큼 파트너들의 성장을 도와 그들도 영롱한  
 다이아몬드의 빛으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리더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해 돕고 싶습니다. 매년 해외여행지에서 파트너들과  
 다 함께 흐드러지게 웃을 수 있는 날을 상상합니다.



저희는 성당 자매님으로부터 암웨이를 소개받았습니다 다섯 단체의 총무 등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모습을 그분들께서 좋게 보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듯, 저도 처음에는 암웨이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이미 현실점검이 되어있던 시절에 무언가를 찾던 저에게 기도 후 찾아온 일이고, 평소 신뢰하던 분의 소개인 만큼 알아보는 시간을 보낸 후 사업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어려웠던 것은 저 자신부터 고정관념에 부딪혔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일관된 행동과 진실함을 통해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자 상황들이 바뀌더군요. 지금은 21살 된 아들과 2세 사업자로 많은 시간을 같이 공유하며 같은 곳을 바라보는 사업파트너이자 친구로 암웨이 사업은 저희 가정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할 일은 함께 하고자 손잡았던 파트너에게는 사업성취를 위해 책임감을 다하고, 또 앞으로의 사업성장은 단순 상향된 목표 설정이 아닌 미션으로서 희망의 사다리가 사라져가고 있는 주변의 현실 속에서 바로 암웨이 사업이야말로 많은 이들에게 꿈과 보다 나은 삶을 제시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비즈니스라는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 강정아 김현규

2016년 9월 1일부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강정아 리더는 전업주부였고,  
김현규 리더는  
소방공무원이었다.



Triple Diamond  
Founders Double Diamond  
Double Diamond  
Founders Executive Diamond  
Executive Diamond  
Founders Diamond



Diamond

10년 차이상의 전업주부였는데 마흔을 넘기고 아이가 중학생이 되자 갑자기 미래가 두려웠습니다. 내 인생에 대한 고민도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옷 가게를 차리고 운영해보니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하지만 노후 준비는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참석한 암웨이 세미나에서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날아가버리는 노동 수입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 9년 동안 암웨이 제품의 마니아 소비자였습니다. 하지만 스폰서님이 9년 동안이나 전달했음에도 저는 암웨이 사업을 거절했습니다. 10년 넘게 주부로만 살아온 제게 사업은 무리라고 느낀 탓입니다. 잠깐의 옷가게를 운영해보고 후 마음을 돌린 저는 암웨이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암웨이가 일반 사업과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책을 읽고 CD를 들으면서 마음속 열정이 깨어나는 것을 느끼자 잠잠 시간도 아까웠습니다.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돕는 창립자의 가치와 철학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를 온몸으로 이해한 후 암웨이는 저희 삶의 제1원칙이 되었고, 9년간 알아듣지 못한 시간이 억울해서 더욱 열심히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2년 반 만에 이렇게 결실을 맺었습니다. 큰 결단을 내리면 인생의 판이 바뀝니다. 저희가 그 증거입니다.



## 김건해 최지웅

2016년 9월 1일부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김건해 리더는 전업주부였고,  
최지웅 리더는 직장을 그만두고  
자영업을 하고 있었다.

Triple Diamond  
 Founders Double Diamond  
 Double Diamond  
 Founders Executive Diamond  
 Executive Diamond  
 Founders Diamond



## Diamond

### 김들선 김상주

2016년 9월 1일부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김들선 리더는 전업주부였고,  
 김상주 리더는 회사원이었다.



저희는 암웨이가 얼마나 큰 변화와 희망을 이끌어내는지 봤습니다. 병원에서 더는 힘들다며 시어머니의 임종을 준비하라고 한 일이 있습니다. 저희는 의료진의 만류를 뿌리치고 역지로 퇴원한 후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뉴트리라이트가 큰 도움이 되었는지 시어머니께선 빠르게 호전되었고, 저희는 재작년까지 10년 동안 건강식을 챙겨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놀라운 경험을 했지만 저희의 다이아몬드 핀 성취는 쉽지 않았습니다. 에메랄드 핀까지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직장 소득과 암웨이 수입이 양쪽에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저희는 편안한 삶에 취해 목표를 잃고 방향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돌아보니 파트너들은 아직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스폰서님께서 할 수 있는데 왜 멈춰 서느냐며 도전을 종용하셨습니다. 다행히 저희는 미팅에 참석했습니다. 사람은 습관의 동물이고, 습관은 스프링이나 고무줄과 같아서 놓으면 과거의 모양으로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꾸준히 미팅에 참석해 습관을 바꿔왔고, 팀과 시스템 안에서 부족한 나를 발전시켜왔기에 이번의 성취가 가능했습니다. 이제는 파트너의 꿈도 이루기 위해 저희가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 김수연 승재용

2016년 9월 1일부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김수연 리더는 전업주부였고,  
 승재용 리더는 직장인이었다.

남편의 회사 때문에 수원에 신혼집을 꾸리고 살던 중, 암웨이 제품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까이 사시던 지인으로부터 암웨이 제품에 대해 하나씩 알아가고 있었으나, 남편의 편견 때문에 맘 편히 제품을 사용하지도, 비즈니스로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의 직장 때문에 천안으로 이사했고, 그때 저의 진정성을 남편이 알아주면서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낯선 곳에서 암웨이 사업이 시작 됐습니다. 우리 부부는 다른 일에서는 찾을 수 없었던 희망이란 것에 설레며, 지금보다 더 밝은 미래가 오리라는 확신으로 행복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다이아몬드를 성취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능력이 아닌 믿음이었습니다. 회사와 제품에 대한 믿음도 있었지만 저희 부부는 스폰서님의 말씀을 100% 믿고 따랐습니다. 다른 능력이 없기에 스폰서님 말씀 그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당신과 함께 성공하리라는 진정성 있는 우리의 손길을 많은 파트너 분들께서 잡아주셨습니다. 신뢰가 있었기에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함께 헤쳐 나갈 수 있었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야 하지만, 저희 부부를 믿고 함께한 고마운 파트너 한 명 한 명 모든 분들의 성장을 돕기 위해 이사도 미루고 있습니다. 암웨이 비즈니스는 스폰서가 파트너를 잘못되도록 인도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성공과 성취는 서로에 대한 진정성 있는 믿음에서 피어나는 꽃입니다.

해외에서 거주 하던 중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겨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지인을 통해 만난 암웨이 제품으로 기대 이상으로 건강이 호전되었고, 스폰서님이 주신 건강 관련 책에도 흥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암웨이가 점점 생활 속에 스며들었고, 가족이 쓰는 제품만큼은 캐쉬백으로 충당되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미팅장에서 사업설명을 하시는 분들의 성공스토리가 저에게 꿈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자신은 없었지만, 시스템을 믿고 따라 하기만 하면 된다는 말에 용기를 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암웨이 안에서 저도 생각과 습관이 변화 되었습니다. 이제 저의 스토리가 누군가에게 꿈을 줄 것이고, 그 누군가의 꿈이 또 다른 이에게 꿈이 되는 암웨이 사업이 너무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러기에 더 잘하고 싶고 더 많이 알리고 싶습니다. 파트너들의 꿈을 향해 진정 함께 뛰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복이러' 하셨듯이 진정 복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흘려 보내는 큰 통로가 되겠습니다. 탑 리더님께서 항상 강조 하시는 '섬기심 리더십', '빠른 길 보다는 바른 길' 붙잡고 달아가는 체자 되겠습니다. 아낌없이 섬겨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스폰서님, 믿고 함께 해주시는 파트너리더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 김정란

2016년 9월 1일부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김정란 리더는 경영학을 공부하고 있었다.



Triple Diamond  
Founders Double Diamond  
Double Diamond  
Founders Executive Diamond  
Executive Diamond  
Founders Diamond



Diamond

열정·도전·믿음. 지난 1년을 되돌아 보면 정말 긴장감 있고 스릴 있는 신나는 도전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암웨이 사업이 아니었다면 방향성 없이 그냥 열심히만 살았을 거예요. 열심히 살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암웨이 사업 안에서 진짜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기회를 보았고, 제가 성취해낸 다이아몬드라는 핀은 너무나도 많은 배움과 깨달음을 얻게 되는 특별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내 인생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말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암웨이 사업을 통해 저, 그리고 제 꿈의 가장 큰 이유인 사랑하는 가족, 한 분 한 분 너무나 소중한 제 파트너 리더님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고 성장하게 될지 너무나도 기대되고, 또 믿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날도, 저의 사랑하는 모든 파트너 리더님들의 삶의 최고의 날도 아직 오지 않았다는 설렘과 기대감이 저를 또 도전하게 만듭니다. 도전하고, 믿고, 성취해낸 저의 경험이 누군가에게겐 가능성의 확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 감사, 감사할 것뿐입니다.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저와 함께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 김주미 오재환

2016년 9월 1일부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김주미 리더는 그래픽디자이너였고,  
오재환 리더는 회사원이었다.

Triple Diamond  
 Founders Double Diamond  
 Double Diamond  
 Founders Executive Diamond  
 Executive Diamond  
 Founders Diamond



## Diamond

### 김희영 안진

2016년 9월 1일부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김희영 리더는 자기개발교육센터  
 강사였고, 안진 리더는 중고차  
 매매업 대표였다.



저희 부부는 서로 비슷한 생각과 가치관에 끌려 결혼했고,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상과 현실의 갭이 너무 크다는 것에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총각 때부터 암웨이 제품을 사용했던 신랑을 통해 결혼식 전날 암웨이 사업을 전달받았습니다. 당시 스폰서님은 자신의 꿈과 앞으로의 살고자 하는 모습을 담은 미래일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너무나 비슷한 꿈을 꾸고 있던 스폰서님의 눈빛은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그분과 저는 무엇이 다를까... 그 차이는 다름 아닌 '암웨이'라는 수단이었습니니다. 암웨이를 세일즈 정도로만 생각했던 저에게 시스템은 완벽한 성공프로그램이었습니다. 결혼 전 강사활동을 하던 성공학 센터에서 배운 것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 이름을 "안리(중국암웨이)라고 짓는 결단을 통해 아이가 5살 전에 다이아몬드가 되겠다!" 라는 각오로 암웨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약속대로 올해 우리 아이 5살 되는 해, 둘째가 3살이 된 사이, 다이아몬드가 되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되니 지금부터 진짜 사업이 시작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일, 그리고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자를 돕는 일. 이 멋진 가치가 우리 비즈니스의 근본이라는 사실에 정말 감사합니다.



### 박영실 성덕근

2016년 9월 1일부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박영실 리더와 성덕근 리더는  
 자영업을 운영했다.

많은 사람들은 암웨이 사업을 좋은 제품을 소비하거나 부업 개념으로 시작합니다. 저희 부부는 자영업(침구류 도·소매업)을 열심히 하던 중 대학 후배로부터 사업설명을 듣게 되었고, 세미나를 몇 번 들어보니 저희가 준비해야 할 일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5년 정도는 자영업과 병행하며 꾸준히 공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일을 한다고 절반씩만 노력해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이 끝난 후에는 암웨이에 전업하듯 열심히 집중했습니다. 물론 부족한 경험들은 스폰서님의 절대적인 도움과 배려를 받았습니다. 흔히 암웨이 사업은 2~5년 플랜이라고 하지만, 섬이라는 제주도의 특성과 역사적, 문화적 환경 등의 문제로 이 좋은 암웨이를 전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게다가 육지로 세미나 참석할 때는 비용도, 시간도 만만치 않은 게 현실입니다. 처음 사업을 알아보는 분들께는 큰 부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믿고 함께해 주신 파트너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늘 "할 수 있다"는 용기와 격려, 변함없는 배려를 해주신 스폰서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끝으로 평범한 저희 부부가 이 사업을 통해 어떻게 변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지 많은 분들께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번 다이아몬드 성취가 많은 리더님들에게 꿈과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인테리어 회사에서 근무했습니다. 현장 업무는 고되었고 밤샘 작업이 많았습니다. 몸이 많이 망가진 데다 임신으로 심한 입덧을 하면서 결국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암웨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직장 생활만 해온 저로서는 주부들과 소통하는 일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나만 잘하면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혼자만 열심히 해온 것도 문제였습니다. 너무 진지하게 열심히만 도전하는 제가 파트너들에게 부담을 줬을 것도 같습니다. 다행히 업라인 스폰서님께 조인을 받으면서 편안하게 다가갈 때는 편안하게, 집중할 때는 집중하면서 사업을 일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결과 다이아몬드 핀을 성취할 수 있었기에 매우 기쁩니다. 더불어 이제 첫발을 내디디는 국제 사업도 저를 설레게 만듭니다.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도 초등학교이던 아들을 캐나다로 유학 보냈습니다. 국제 사업에 대한 비전 때문이었는데, 어느새 아들은 성년이 되었고 올해 사업 코드가 나왔습니다. 조카가 사는 일본의 암웨이 비즈니스 스타일도 배워보고 싶습니다. 생계를 위해 시작한 암웨이는 이제 저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암웨이를 통해 여유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즐길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박춘호 박동룡

2016년 9월 1일부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박춘호 리더는 인테리어 회사에서 근무했고, 박동룡 리더는 회사원이었다.



Triple Diamond  
Founders Double Diamond  
Double Diamond  
Founders Executive Diamond  
Executive Diamond  
Founders Diamond



Diamond

'암웨이 사업을 한 5년과 하지 않은 5년은 삶의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가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해도, 하지 않아도 시간은 가는데 어찌면 하는 것이 희망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20세까지 산다는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저희 가정의 준비되지 않은 미래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잘할 자신은 없었지만 하지 않을 자신이 더 없어서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열심히 배워서 가르치는 일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치면서 착한 제자가 되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명함이 있을 때 명함을 준비하는 일, 경차에도 스페어 타이어가 있는데 인생의 스페어 타이어를 준비하는 일. 지금 별로 있는 수입이 언젠가는 끊어질 임시수입이고 연금 수입을 준비하는 일. 이 모든 것이 암웨이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하루 성실히 멘토의 가르침을 따라하다 보니 암웨이의 꽃인 다이아몬드를 성취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언니에게도 전해 자매 다이아몬드가 되어서 평생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고 가족들과 함께 전 세계를 여행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가문을 바꿀 수 있는 사실을 주변사람들과 더욱더 나누며 함께 성장하길 원합니다. 저희 부부의 꿈이 또 누군가의 꿈이 될 수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진정성과 사랑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



## 배은주 허동일

2016년 9월 1일부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배은주 리더는 미술 선생님이었고, 허동일 리더는 게임 개발사의 디렉터였다.

Triple Diamond  
 Founders Double Diamond  
 Double Diamond  
 Founders Executive Diamond  
 Executive Diamond  
 Founders Diamond



## Diamond

### 백화영 천재훈

2016년 9월 1일부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백화영 리더는 전업주부였고,  
 천재훈 리더는 사업가였다.



천재훈 리더는 어려서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사업체 2개를 운영할 정도로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유 없이 암웨이를 아주 싫어했습니다. 지인이 암웨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통명스럽게 대꾸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한 살 많은 형과 식사를 하던 도중 갑자기 암웨이를 해보기로 마음을 돌렸습니다. 특별한 이유나 계기도 없이 말입니다. 그래도 저희는 무엇이든 시작하면 열심히 하는 성격이라 다이아몬드 핀을 이루기까지 12시 전엔 귀가하지 않겠다고 서로와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켜가며 20개월 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천재훈 리더는 지금껏 해본 일에서 암웨이가 가장 쉬웠다고 단언합니다. 물론 거절당할 때 마음이 상하기도 하지만 스트레스의 성격이 다릅니다. 다른 일에선 돈을 벌기 위해 스트레스를 감내해야 합니다. 그와 달리 암웨이의 스트레스는 남을 도우려다가 받는 것이기에 맘 흘리는 파트너를 보면서, 소비자의 격려를 받으면서 한 번에 날릴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만나는 사람 모두에게 사업을 전했고, 부부 모두 12시 전에는 귀가하지 않았으니 5년 차만큼 노력했다고 자부합니다. 저희의 목표는 다이아몬드가 아니었기에 이번 성취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미치지 않으면 이를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최고가 될 때까지 미친 듯이 전진하겠습니다.



### 엄규현 박은영

2016년 9월 1일부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엄규현 리더는 암웨이가  
 첫 직업이고, 박은영 리더는  
 영어 강사였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희는 여러 번의 도전 끝에 다이아몬드 핀을 성취했습니다. 초등학교 친구로 시작해서 지금은 평생의 동반자가 된 박은영 리더는 결혼 전부터 스스로 암웨이 사업에 뛰어 들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이모, 형, 누나가 모두 다이아몬드 리더들이었기에 사업의 가능성을 놓고 고민하며 뒤를 돌아본 적은 없습니다. 속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반드시 된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다이아몬드 핀이 정작 손에 잘 잡히지 않았고, 올해는 반드시 해내겠다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일이 벌어졌습니다. 카운트에 들어가야 하는 3월이 가장 중요한데, 2월 말에 박은영 리더가 동네 병원의 오진 때문에 종합병원에 2주 이상 입원하게 된 것입니다. 치사율이 50%를 넘나든다고 했고, 살아나도 간을 이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은영 리더는 환자복을 입고 뛰었고, 다행히 건강도 회복되었으며, 마침내 목표도 성취했습니다. 돌이켜보면 노력과 시간만으로 부족합니다. 다이아몬드 핀은 과감한 결단과 집중이 전제될 때에만 잡을 수 있습니다. 끈기 속에 열정을 가지고, 결단하고 집중해서 파트너들은 시행착오 없이 꿈을 이루길 기원합니다.

전부터 미래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외국계 제약회사에 입사를 했고 결혼도 했습니다. 결혼과 함께 신랑과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즐거웠습니다. 돈도 벌고 아이도 직접 키우겠다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었기에 고민 끝에 보험업계로 이직했습니다. 생명보험업계에서는 역대연봉의 설계사 국제모임인 MDRT 협회가 있습니다. MDRT 회원이 되는 성과를 내게 되었고, 계속 열심히 하면 잘 살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출산을 하고 쉬는 동안 계약의 보상이 사라지는 걸 눈으로 확인하면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남편의 선배 부인과 추가수입에 대한 대화를 나누면서, 그녀에게 암웨이를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암웨이에 전혀 관심이 없었지만 친언니가 암웨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왕 소개한 김에 저도 함께 미팅에 몇 번 참석했다가 제 고민에 대한 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속적인 수입을 위해 끝없이 일해야 하는 다른 일과 달리 안정적인 네트워크를 자산으로 만드는 암웨이에선 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믿음이 생긴 만큼 최선을 다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결과를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번 도전과 성취에서 저는 배웠습니다. 이 일에서 긴 시간보다 집중하는 얼마간의 시간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 이미주 유상록

2016년 9월 1일부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이미주 리더는 외국계 기업에서  
근무했고, 유상록 리더는  
현재도 대기업에 재직 중이다.



Triple Diamond  
Founders Double Diamond  
Double Diamond  
Founders Executive Diamond  
Executive Diamond  
Founders Diamond



Diamond

〈밴드 오브 브라더스〉를 아십니까? 암웨이에도 영화나 드라마 못지않은 끈끈한 형제애가 있습니다. 저희의 경우가 그렇죠. 저희는 아주버님 내외인 권상혁, 한순영 리더의 권유로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사업 초기에 힘든 적도 많았습니다. 특히 저희는 공인중개사를 하면서 사업을 하려니 더욱 힘들었죠. 그때 상급 스폰서인 이동훈, 박주희 리더가 저희에게 해준 충고가 있습니다. 어느 한 쪽도 포기하지 말고 병행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저희는 낮에 부동산을, 저녁에는 암웨이 사업을 했죠. 시간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쓰기 시작하면서 일에 대한 집중도가 올라갔고 자연스럽게 편이 성장해나갔습니다. 현재 편은 사업 시작한지 6년 만에 달았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암웨이를 통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돈보다 존중과 배려, 사랑과 희생이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가족 사업을 하면서 가장 좋은 점은 형제애를 더욱 돈독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남편과 아주버님의 관계를 보고 제 여동생들에게도 이 사업을 추천해준 뒤, 그 동안 몰랐던 동생들의 새로운 사업가 기질을 발견하고 그들에 대한 존중과 애정이 더욱 커졌습니다. 파트너는 영원한 가족이자, 친구라 생각합니다. 우리 가족에게 더욱 큰 사랑을 심어준 암웨이에게 감사합니다.



## 이상은 권순만

2016년 9월 1일부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이상은 리더와  
권순만 리더는 둘 다  
공인중개사였다.

Triple Diamond  
 Founders Double Diamond  
 Double Diamond  
 Founders Executive Diamond  
 Executive Diamond  
 Founders Diamond



## Diamond

### 이소연 김동현

2016년 9월 1일부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이소연 리더는 프리랜서였고  
 김동현 리더는  
 대기업 직장인이었다



부모님께서 자영업 하셨기 때문에 경제적 풍요는 한순간에 뒤집힐 수 있다는 사실을 어려서부터 알았습니다. 젊어서 노후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던 차에 이웃집에서 암웨이를 소개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1%가 씨앗으로 자리 잡았고, 9개월간의 탐구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2010년, 사업에 대한 믿음은 자라났지만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팅과 CD를 통해 성공자의 DNA를 이식하면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를 임신한 5개월째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고, 3개월간 집중해서 네트워크를 키웠습니다. 김동현 리더가 해외발령이나 인도네시아로 나가있을 때도 저는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가족의 미래를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최고의 결정이었습니다. 남편의 연봉, 그 이상의 미래가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혼자하는 일이라면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먼저 해내신 스폰서님들의 멘토링과 성공 시스템이 있었기에 평범한 저희도 이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더욱이 35세 이하의 젊은 리더인 U35 다이아몬드로 성취하게 되어 영광이고 뿌듯합니다. 가족여행이라는 선물과 더불어 바라왔던 노후와 아이들의 미래를 준비하게 된 기회가 너무 감사하며, 부부가 함께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에게 꿈의 전도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이용복 서성민

2016년 9월 1일부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이용복 리더는 전업주부였고,  
 서성민 리더는 회사원이었다.

어느 영화에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이란 대사가 있습니다. 암웨이에서 10년 이상을 살아오니 대사의 의미가 새삼스럽습니다. 과거의 저는 자신감이 결여된 보통 사람이었는데, 10여 년 동안 단련되면서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해왔습니다. 처음부터 회사에 대한 믿음은 굳건했습니다. 암웨이의 비전을 봤기에 저희는 결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결과가 나오지 않는 건 제 부족함 때문이고, 언젠가는 그 부족함도 넘어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런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준 건 스폰서님이었습니다. 스폰서님의 말씀 가운데 제 머릿속에 굳게 등지를 튼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의 선택을 잘해서 인생이 변하진 않는다. 계속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하는데 쉬운 일은 아니다. 선택이 지혜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래도 해결책은 존재한다.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지혜로운 자의 옆자리를 지키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경청이란 귀를 기울이는 데서 끝나지 않고 내 생각과 이론을 내려놓고 나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서 행동으로까지 이어내는 것”이란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굳게 믿으며 늘 스폰서님의 옆자리를 지켰습니다. 지금의 성취는 그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지혜의 옆자리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순간이 즐겁고 감사합니다.



출퇴근하지 않으면서 평생 인세 형태의 수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암웨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면 할수록 저 스스로도 모르던 제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자부심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사실 꾸준히 노력해서 결과를 내본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노력해도 기대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때로는 그 일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저는 에메랄드에서 다이아몬드 편을 성취하기까지 꽤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두 명의 파트너가 스폰서인 저보다 먼저 다이아몬드 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상황을 놓고 어떤 사람은 사업의 규모가 커져서 좋겠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도 합니다. 사실 아주 복합적인 감정이 드는데, 저는 태만하거나 시샘하는 대신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더 나은 삶으로 초대할 제 자신에게도 격려를 해줬습니다. 친구이자 파트너보다 조금 늦게 다이아몬드가 되더라도 더 큰 그룹을 가진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다고, 긍정적인 미래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간은 걸려도 탄탄한 그룹이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이제는 속도에 박차를 가해서 파트너들의 귀감이 되는, 그리고 함께 성장하는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 이유경 양우식

2016년 9월 1일부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이유경 리더는 공무원이었다.



Triple Diamond  
Founders Double Diamond  
Double Diamond  
Founders Executive Diamond  
Executive Diamond  
Founders Diamond



Diamond

정희원 리더는 2002년까지 14년간 은행에서 근무했습니다. 육아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고 1년쯤 지나자 그녀는 소속감 결핍으로 우울해졌습니다. 그때 고향 친구가 5개월 정도 후원하면서 암웨이를 접했습니다. 암웨이를 통해 바라본 세상은 충격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해진 틀에 박혀 생활하던 전직 은행원에게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정관념이 있던 제게는 좀 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세미나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믿을 만한 분의 소개였기에 관련 서적 한두 권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차린 지 2년 남짓한 일식집 경영 환경이 어려워졌는데, 책 속의 이야기와 겹치는 걸 느꼈습니다. 원대한 꿈을 품고 큰돈을 들인 사업이지만 의지만으로 결과를 이끌어낼 순 없었습니다. 하지만 암웨이에선 의지와 노력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시행착오는 있었지만, 저희는 작은 성취에 만족하고 도전할 만한 상황이 오길 기다리곤 했습니다. 돌아보니 완벽한 상황이 우리를 찾아오는 일은 없습니다. 언제까지 가겠다고 결정하고 뛰면서 스스로 상황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긍정의 선택을 반복할 때 비로소 꿈은 이루어집니다.



## 이정환 정희원

2016년 9월 1일부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이정환 리더는 일식집을  
운영했고, 정희원 리더는  
전업주부였다.

Triple Diamond  
 Founders Double Diamond  
 Double Diamond  
 Founders Executive Diamond  
 Executive Diamond  
 Founders Diamond



## Diamond

### 정숙이 방한식

2016년 9월 1일부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정숙이 리더는 전업주부였고,  
 방한식 리더는  
 인테리어 사업가였다.



암웨이는 행복입니다. 누군가 저희에게 암웨이 사업을 왜 하냐고 묻는다면 “행복해지기 위해서”라고 답합니다. 처음에는 부정적인 시각이 강했지만, 암웨이의 캐시백과 인세수입 제도를 알고 나서부터 제대로 현실 점검을 하게 됐습니다. 사업을 시작하지 올해로 14년째, 저희 부부는 항상 파트너들에게 부부관계를 가장 강조합니다. 꼭 앤드파트너가 아니더라도 부부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 사업을 권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배우자가 지지해주지 않는다면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사업 초창기 저희는 스폰서와 업라인 스폰서께서 사업을 그만두면서 참 힘든 시기를 겪었습니다. 둘 다 앤드파트너였는데, 부부 갈등이 원인이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저희는 감사일지를 쓰면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매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5가지 감사한 것들을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사업하는 과정에서 희열을 느꼈고, 그때부터 파트너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암웨이 사업을 하면서 얻은 가장 큰 행복은 성공의 기준이 내가 아닌 파트너에 있다는 철학 때문입니다. 저희는 암웨이를 통해 모든 파트너들이 가정, 삶, 사회 모든 곳에서 행복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위해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 조수봉 경지수

2016년 9월 1일부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조수봉 리더는 전통 국악기를  
 제작했고, 경지수 리더는  
 치위생사였다.

과거에도 현재도 저는 전통악기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인간문화재인 작은아버지께 우리 악기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면서 성장했습니다. 국악 분야의 지명도 높은 회사에서 일해왔지만 그럴수록 한계는 자명했습니다. 제 스스로가 장인이나 명장이 되기 위해선 아주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독립해서 악기 회사를 차린다고 해도 그 사업이 안정적일지는 미지수입니다. 늘 미래를 고민하던 2009년 9월, 암웨이 사업 설명을 들었고 다음 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시스템 미팅은 저희에게 현실을 점검하도록 했고 막연하기만 하던 꿈을 현실적인 목표로 만들어줬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첫해에 PT가 되었고, 다음 해에는 브루나이 여행에 합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ATV를 타다가 경지수 리더가 얼굴이 함몰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2012년, 1개월 동안 입원해 있으면서 암웨이는 저희에게 무엇인지 깊이 고민했습니다. 브루나이 현지에서도, 우리나라로 돌아와서도 암웨이는 파운더스플래티늄 한 명을 진심으로 챙겼습니다. 파트너들은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려고 더욱 노력했습니다. 그때 온리 암웨이, ‘우리에게 이것밖에 없다’는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암웨이라는 든든한 뒷배가 생기니 마음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암웨이에 대한 믿음은 언제나 삶을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인생의 등불 같은 존재를 찾고 있다면 지금 당장 암웨이를 시작하세요. 저는 누군가 왜 암웨이를 하는지 물었을 때 “인생이 빛나기 위해”라고 답하곤 합니다. ABO가 되기 전, 저는 평범한 전업주부에 불과했습니다. 주부로서 삶은 나쁘지 않았지만, 여자로서 삶은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10여년 전, 고모가 암웨이를 제안했을 때 저는 이 사업을 통해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설계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체계적 교육에 노후 보장이 되고 꾸준히 인세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 끌렸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적잖이 힘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전업주부로 살아서 그런지 사업가 마인드를 갖기 어려웠습니다. 중간에 파트너가 떠난 적도 있고, 내가 자질이 부족하나 자괴감 든 적도 많았죠. 그럴 때마다 저는 파트너들에게 더욱 솔직하고 가깝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그들에게 제가 지닌 믿음을 전해주고자 했습니다. 암웨이는 꿈을 이뤄줍니다. 저희는 오래전부터 아들을 유학 보내려고 했는데, 암웨이 사업을 통해 그 꿈을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암웨이를 하는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여길 때마다 이 사업을 한 보람을 느낍니다. 앞으로 저희는 파트너들의 꿈에 불을 밝혀주는 멘토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차미자, 전진환 스폰서는 마음이 따뜻한 리더였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 차미자 전진환

2016년 9월 1일부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차미자 리더는 전업주부였고,  
전진환 리더는  
제조업 사장이었다.



Triple Diamond  
Founders Double Diamond  
Double Diamond  
Founders Executive Diamond  
Executive Diamond  
Founders Diamond



**Diamond**

제 인생에는 두 가지 전환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00년 1월, 아프리카 단기 선교를 떠났을 때입니다. 그때 저는 돈에 구애 받지 않고 세상에 나눔과 봉사 정신을 실천하는 간호사가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두 번째는 2009년 암웨이 사업을 접했을 때입니다. 저는 이미 10년 전부터 암웨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큰언니 한지명 리더 덕분입니다. 처음에는 큰 관심이 없었지만, 애를 낳고 암웨이 사업이 우리의 삶에 세 가지 비전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선택했습니다. 그 세 가지 비전이란, 이 일이 첫째는 타인을 돕는 일이고, 둘째는 남편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일이며, 셋째는 먼 훗날 자녀에게 기대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일이라는 것이었죠. 특히 ‘자유’ ‘가족’ ‘희망’ ‘보상’이라는 암웨이의 창립 이념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2년 만에 파운더스 플래티넘을 달았을 땐, 그 동안 이 사업을 이해하지 못했던 못한 동생을 끊임없이 설득하고 이끌어준 언니에게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니 덕분에 지금은 사명감이 생겨서 이 사업을 더욱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6자매 모두가 암웨이에 참여하며 가족 사업으로 더욱 큰 꿈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 한지명 박경흠

2016년 9월 1일부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한지명 리더는 간호사였고,  
박경흠 리더는 직장인이었다.

Triple Diamond  
 Founders Double Diamond  
 Double Diamond  
 Founders Executive Diamond  
 Executive Diamond  
 Founders Diamond



## Diamond

### 홍순영 황준규

2016년 9월 1일부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홍순영 리더는 전업주부였고,  
 황준규 리더는 대기업  
 회사원이었다.



7년 전, 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육아에 관심이 많던 저는 '아이에게 엄마가 더욱 절실한 시기는 사춘기'라는 이야기에 끌려 암웨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반대를 이겨내야 했지만 이번 성취로 제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난해에는 다이아몬드에도 도전해보라는 스폰서님의 제안이 의아했습니다. 파운더스 사파이어였던 제게는 무리가 아닌가 의구심을 품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스폰서님에 대한 믿음으로 도전을 결심했는데, 이탈리아 로마로 보상 여행을 갈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딸은 엄마를 따라서 꿈판을 만들었는데, 그 안에는 로마의 트레비분수에 가겠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딸의 꿈을 이루라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두 레그 밖에 굴러가지 않던 저였지만 미친 듯이 프로젝트를 하고 다녔습니다. 사람들은 그때 제 눈빛과 목소리의 힘이 평소와 달랐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국 꿈을 이루었습니다. 딸에게도 꿈을 꾸면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어 너무나 기쁩니다. 딸과 함께 트레비분수 앞에서 파트너들이 써준 꿈의 노트를 읽는데 눈물이 마구 쏟아졌습니다. 이제 그들의 꿈을 위해 달려려고 합니다.



### 황경윤 정동원










2016년 9월 1일부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황경윤 리더는 전업주부였고,  
 정동원 리더는 직장인이었다.

인생에서 좋은 스승이나 멘토를 만날 기회가 과연 몇 번이나 있을까요? 제게 암웨이는 스승이자 멘토였습니다. 저는 한때 현모양처가 꿈이었습니다. 독실한 신앙생활과 내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주부의 미덕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아는 선배의 제안으로 암웨이를 만나고 나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대학원 다닌다는 생각으로 2년만 배워봐라." 그땐 그 말이 왜 그렇게 마음에 와 닿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암웨이는 제 인생의 동반자가 되었고, 암웨이의 시스템을 배우며 현실 점검을 했습니다. 그동안 잘 몰랐던 사업 마인드와 리더의 자세를 배우면서 저는 제2의 도약기를 닦았습니다. 진정한 리더의 자세란 끊임없이 배우면서 성실, 겸손한 자세, 남을 도울 줄 아는 마음 그리고 분명한 삶의 목표, 변화하려는 노력을 갖는 것입니다. 저희는 파트너를 마치 내 자식처럼 사랑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도, 파트너도 성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과가 좀 늦어지면 노력해도 안 된다고 포기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겉으로 보이지 않아도 노력한 게 있다면 그 노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짝을 띄우는 중입니다. 어떤 성공도 단기간에 이룰 수는 없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에게 미래를 제시하고 내면적으로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암웨이를 만난 것은 축복입니다.

# NEW ACHIEVEMENT



 Founders Emerald _____ 132	 Sapphire _____ 142	 Platinum _____ 170
 Emerald _____ 135	 Founders Platinum _____ 146	 Gold Producer _____ 180
 Founders Sapphire _____ 140	 Ruby _____ 167	 Silver Producer _____ 181



## Founders Emerald

Emerald  
Founders Sapphire  
Sapphire  
Founders Platinum  
Ruby  
Platinum  
Gold Producer  
Silver Producer

### September

2016년 9월 1일부



김경덕 · 송희규  
경기 광주시



김경희 · 박종두  
전북 전주시



김미영  
충북 청주시



김순옥  
울산시 북구



김연옥 · 최광희  
충남 보령시



김정민 · 이원교  
대전시 유성구



김주연 · 이수정  
경기 광명시



문성완 · 김근나  
부산시 동래구



문은영 · 박기홍  
경남 진주시



박기순  
강원 춘천시



## Founders Emerald

Emerald  
 Founders Sapphire  
 Sapphire  
 Founders Platinum  
 Ruby  
 Platinum  
 Gold Producer  
 Silver Producer



서미경·안용환  
 광주시 광산구



신우진  
 대구시 북구



오윤미·김명훈  
 경기 고양시



윤금복  
 충북 청주시



이경선·정준  
 충남 보령시



이경은·민봉기  
 경남 김해시



이동용·장해정  
 대구시 북구



이인옥  
 전북 군산시



임용선  
 대구시 달서구



임은주·박세영  
 대전시 서구



임인택·정원자  
 전북 전주시



## Founders Emerald

Emerald  
Founders Sapphire  
Sapphire  
Founders Platinum  
Ruby  
Platinum  
Gold Producer  
Silver Producer



임희연

광주시 북구



전문희

경기 용인시



조윤숙

경기 용인시



주광진·이경숙

경기 남양주시



황영주·김정희

광주시 서구

2016년 9월 1일부  
도정민 경기 수원시  
박정숙 경남 김해시  
이정민·나정호 충남 서산시  
최은경 서울시 동작구

### Nietzsche

어떤 자는 실패할수록 꿈에 다가가고 또 어떤 자는  
실패할수록 꿈에서 멀어진다.





**Emerald**

Founders Sapphire  
Sapphire  
Founders Platinum  
Ruby  
Platinum  
Gold Producer  
Silver Producer

**July**

2016년 7월 1일부



강문숙 · 오학성  
경기 용인시



강미지 · 김창권  
경북 경산시



류은희 · 조용운  
전남 광양시



박돌선 · 강효준  
울산시 북구



박상임  
경기 김포시



임말분 · 김장원  
경남 창원시



조연희 · 김태승  
경남 김해시



조은경 · 이윤제  
경북 구미시



황지영 · 김국인  
부산시 해운대구

**August**

2016년 8월 1일부



김덕순 · 임경석  
평주시 남구



김선미 · 정지윤  
충북 청주시



김연숙 ·곽동학  
전북 군산시



### Emerald

Founders Sapphire

Sapphire

Founders Platinum

Ruby

Platinum

Gold Producer

Silver Producer



김은주 · 박연길

충북 청주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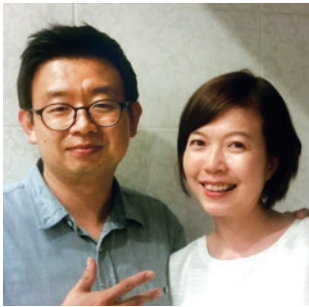
김정숙 · 현준호

대구시 북구



노현주 · 박종준

경북 영천시



박선희 · 홍대용

서울시 도봉구



박우형

서울시 동대문구



신희정 · 석기원

경기 용인시



양혜진 · 문상철

경남 창원시



우주연 · 최재훈

서울시 성북구



윤희주 · 김병현

대전시 서구



이운한

서울시 서초구



이현진 · 장기원

경기 용인시



임경애 · 이승걸

울산시 북구



### Emerald

- Founders Sapphire
- Sapphire
- Founders Platinum
- Ruby
- Platinum
- Gold Producer
- Silver Producer



조연욱 · 박영찬  
경남 진주시



한경혜 · 임성규  
대구시 북구

**September**  
2016년9월 1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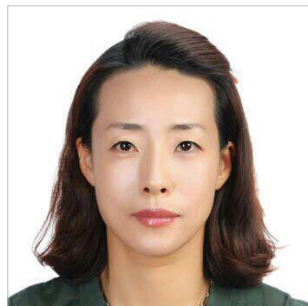
LIMEI · YINHAIGONG  
서울시 관악구



강은 · 김수영  
서울시 광진구



강필성 · 이현정  
경남 창원시



권상배 · 김용희  
경북 안동시



권숙희 · 노영기  
강원 태백시



김순자  
전북 전주시



김영미 · 김대성  
경기 용인시



김영희 · 최행규  
전남 순천시



김준수 · 황인애  
서울시 송파구



김진욱 · 여환상  
경기 화성시



### Emerald

- Founders Sapphire
- Sapphire
- Founders Platinum
- Ruby
- Platinum
- Gold Producer
- Silver Producer



류희정 · 정용대  
경기 의정부시



박은영  
충남 당진시



박은희 · 구정훈  
경북 경산시



박창희 · 황상미  
경남 창원시



박호정 · 원혜정  
경북 경산시



서현호 · 정승  
충북 청주시



안병남 · 김혜령  
인천시 남구



안정화  
부산시 동래구



양성락 · 이정희  
경북 경주시



이귀현  
경남 거제시



이막심 · 이부문  
경남 남해군



이미란 · 박정식  
부산시 남구



이선형 · 정진아  
서울시 성북구



이양순 · 김동호  
제주 제주시



### Emerald

Founders Sapphire  
Sapphire  
Founders Platinum  
Ruby  
Platinum  
Gold Producer  
Silver Producer



이지은 · 오길운  
경남 김해시



정미경 · 김장규  
대구시 수성구



주은경 · 장진영  
대구시 수성구



최규용 · 김수정  
충남 공주시



최선미 · 김성원  
인천시 연수구



최선화 · 김문수  
경기 군포시



최지록 · 김동현  
경기 고양시



현수연 · 김한목  
서울시 강서구

#### 2016년 7월 1일부

권동주 부산시 남구  
김경자 · 박정원 광주시 서구  
김정옥 · 강민정 경북 구미시  
장희선 경기 용인시  
황미애 · 유승하 경남 사천시

#### 2016년 8월 1일부

김은순 서울시 동대문구  
양정희 전남 무안군  
임은숙 · 이규상 경남 김해시

#### 2016년 9월 1일부

김선민 · 최성식 경기 용인시  
라미진 충북 청주시  
박소영 · 최복배 경남 거제시  
박영희 · 최찬식 울산시 중구  
박진숙 · 최태선 서울시 용산구  
배성숙 경남 거제시  
안혜진 · 홍지훈 서울시 영등포구  
이연화 울산시 울주군  
이은영 ·곽상일 전북 전주시  
이정희 울산시 남구

이정희 · 최종렬 광주시 북구  
임은순 광주시 광산구  
정혜진 · 서동혁 충북 청주시  
조숙향 · 장인석 경남 창원시



## Founders Sapphire

Sapphire  
Founders Platinum  
Ruby  
Platinum  
Gold Producer  
Silver Producer

### September

2016년 9월 1일부



김장영 · 이상훈  
부산시 금정구



김경하  
경남 밀양시



김도영  
서울시 서대문구



김민숙 · 최무영  
서울시 은평구



김양희 · 송창현  
대전시 대덕구



김영신  
경기 성남시



김종성 · 최소은  
서울시 강동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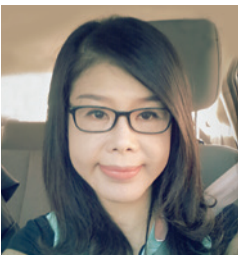
김현미  
대전시 서구



김현진 · 유용석  
경기 용인시



남상욱 · 김명애  
대구시 북구



박주은 · 박해선  
대전시 서구



서정원 · 김진연  
경남 김해시



안지현 · 이지수  
인천시 서구



유지연 · 이재열  
경기 하남시



## Founders Sapphire

Sapphire  
Founders Platinum  
Ruby  
Platinum  
Gold Producer  
Silver Producer



이미영

경기 화성시



이승은 · 김도연

대구시 달성군



이영화

울산시 중구



이은주 · 임재현

경기 화성시



정미리 · 최경오

충북 청주시



정미애

울산시 중구



정선주

경남 양산시



정진희 · 권재웅

울산시 동구



최영희 · 김재우

울산시 중구



최희정

경남 진주시



황선미

대전시 유성구

### 2016년 9월 1일부

고점숙 · 이건수 전남 무안군  
김우선 · 이재운 경남 김해시  
김정두 · 박미은 경남 창원시  
박애란 경기 의왕시  
백은주 · 이원석 서울시 강동구  
손예리 · 이을호 경북 경주시  
심경선 경기 성남시  
오승연 · 김민철 광주시 광산구  
오춘택 · 봉정옥 전북 익산시  
유희정 · 이승현 경남 창원시

이기자 · 김재기 경기 평택시  
이형호 · 허명우 서울시 강남구  
전현정 · 배형철 광주시 서구  
정미 · 안성민 경남 진주시  
정순덕 경남 창원시  
홍미진 · 홍영탁 경기 남양주시

Founders Emerald  
Emerald  
Founders Sapphire



## Sapphire

Founders Platinum  
Ruby  
Platinum  
Gold Producer  
Silver Producer

### July

2016년 7월 1일부



나성준 · 탁경화  
경기 여주시



도민숙 · 어민수  
서울시 서대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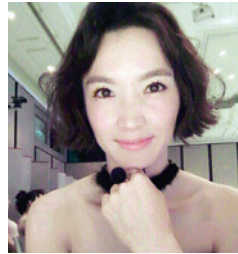
류인승 · 김주희  
충남 예산군



송치윤 · 이혜수  
대전시 유성구



양정희 · 조영식  
경북 포항시



유호정  
경남 창원시



이은진 · 임종원  
강원 원주시



김명숙  
경남 진주시



김묘정 · 노종수  
서울시 중랑구



최현주 · 강이구  
전남 순천시



한지연 · 구민영  
경기 수원시

### August

2016년 8월 1일부



김명숙  
부산시 해운대구



김묘정 · 박상인  
경남 진주시



김시현 · 임비호  
경남 창원시



**Sapphire**



김재식 · 이순영  
 부산시 영도구



김혜령 · 이근호  
 경기 부천시



방수연 · 박근영  
 충남 천안시



오지현  
 경북 구미시



유주라 · 홍현철  
 경기 수원시



유지연 · 김윤태  
 경기 수원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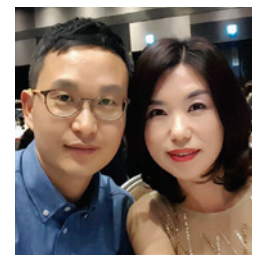
이송현 · 성갑준  
 경기 성남시



전연욱 · 김근홍  
 대전시 서구



조승주  
 경남 진주시



황진영 · 이장영  
 서울시 은평구

**September**

2016년 9월 1일부



구벽수 · 양은미  
 부산시 연제구



권정구 · 황선희  
 경북 봉화군



김경오  
 경남 양산시

Founders Emerald  
Emerald  
Founders Sapphire



## Sapphire

Founders Platinum  
Ruby  
Platinum  
Gold Producer  
Silver Producer



김보민  
경남 창원시



김수경 · 김중화  
경남 거창군



김용길 · 김정숙  
경기 시흥시



김윤희  
서울시 마포구



김진희 · 오석환  
경기 성남시



김효영 · 임동현  
인천시 남동구



라경희  
경기 광주시



명옥구 · 강형찬  
경남 사천시



모호순 · 권민화  
울산시 북구



배미은 · 김병훈  
경기 오산시



서은희 · 고혁  
인천시 서구



안주영  
경기 고양시



이경자 · 이문구  
경기 안산시



이문령  
경기 고양시



이문희 · 김영진  
경기 안산시



## Sapphire



이수진 · 김운교  
 울산시 북구



이영남 · 유동식  
 경기 성남시



이영신  
 서울시 강북구



이현화 · 이상일  
 경남 창원시



정지혜 · 장원석  
 경남 창원시



최유정 · 정용만  
 대전시 유성구

### Blake Nordstrom

리더십은 지위가 아니라 경험에서 나온다.

#### 2016년 7월 1일부

강철화 · 김진 경기 파주시  
 고연희 · 이근찬 경기 용인시  
 공건희 대전시 동구  
 김경란 경남 김해시  
 김윤경 · 허운 경기 안양시  
 김은주 · 박연길 충북 청주시  
 박서정 · 최정엽 광주시 남구  
 송미경 · 김진삼 대구시 달서구  
 양은희 · 문수일 제주 제주시

#### 윤나현 · 기호원 강원 춘천시

임유민 · 윤영옥 경기 용인시  
 조현정 · 변수환 부산시 해운대구

#### 2016년 8월 1일부

강경숙 · 백송현 경기 화성시  
 김미숙 · 송인봉 경남 김해시  
 김춘옥 · 박철현 서울시 관악구  
 조현실 대구시 남구  
 최옥자 충남 천안시

#### 2016년 9월 1일부

강경호 경기 남양주시  
 김양순 · 구민호 경남 함안군  
 소옥섭 · 김은정 경남 거창군  
 이선미 광주시 광산구  
 이성미 · 윤태근 울산시 남구  
 천희원 · 문진호 울산시 남구  
 하경희 대전시 서구

Founders Emerald  
Emerald  
Founders Sapphire  
Sapphire



## Founders Platinum

Ruby  
Platinum  
Gold Producer  
Silver Producer

September  
2016년 9월 1일부



AN LIYING  
경기 김포시



KIM ANNA  
서울시 서초구



강가예  
경기 화성시



강상희  
경남 창원시



강영자  
충남 홍성군



강은주 · 이종규  
경남 사천시



강현진 · 박문수  
충남 보령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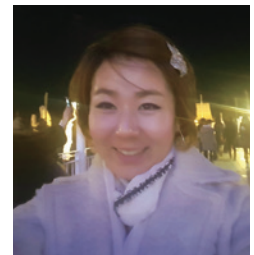
고미선 · 김홍철  
충북 청주시



곽병수 · 박혜란  
대전시 서구



고선화  
대구시 달서구



고수진  
인천시 연수구



곽미지 · 강영철  
대구시 북구



곽현옥 · 차병환  
대전시 대덕구



곽형훈 · 김차옥  
전남 순천시



구서현 · 김동우  
경남 창원시

Founders Emerald  
 Emerald  
 Founders Sapphire  
 Sapphire



**Founders Platinum**

Ruby  
 Platinum  
 Gold Producer  
 Silver Producer



구현주 · 안성일  
 인천시 서구



권갑남 · 강신홍  
 부산시 연제구



권기봉 · 이선미  
 부산시 서구



권나현 · 김동은  
 경남 진주시



권미란 · 권영우  
 대전시 동구



권성인  
 서울시 노원구



권오현  
 경기 남양주시



권혜경 · 오세호  
 경남 양산시



권혜영  
 강원 원주시



권흥신  
 서울시 강서구



김경민 · 윤덕수  
 경북 경산시



김경순 · 채병완  
 강원 동해시



김경화  
 대구시 북구



김경희  
 경기 화성시



김기란 · 이진익  
 부산시 연제구



김난희  
 경기 안양시

Founders Emerald  
Emerald  
Founders Sapphire  
Sapphire



**Founders Platinum**

Ruby  
Platinum  
Gold Producer  
Silver Producer



김덕원  
경남 김해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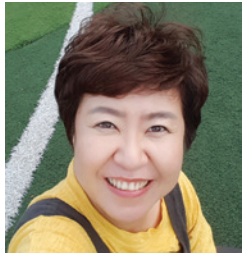
김라향  
경북 구미시



김명숙·유길중  
울산 남구



김문옥  
충북 청주시



김미선  
울산시 남구



김미선  
서울시 동대문구



김미선  
경기 오산시



김미숙·권주훈  
충남 보령시



김미영·김종배  
경남 창원시



김보정·조용준  
전북 전주시



김민숙·최규식  
경기 수원시



김민화·안병우  
서울시 송파구



김백만  
전북 전주시



김보영·이상무  
경남 김해시



김석권·임현미  
부산시 기장군



김선영  
세종특별자치시



김선주·권문오  
경남 밀양시

Founders Emerald  
Emerald  
Founders Sapphire  
Sapphire



## Founders Platinum

Ruby  
Platinum  
Gold Producer  
Silver Producer



김선희·정초신  
서울시 양천구



김성정  
전북 전주시



김세영  
경기 용인시



김소영  
경남 창원시



김수미·박웅  
경북 구미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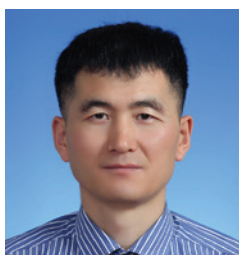
김수영·손영학  
전남 여주시



김수진·이재호  
경남 사천시



김영미·이상현  
대전시 대덕구



김영실·송명호  
경기 이천시



김영아·가정  
경기 화성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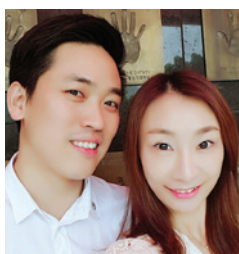
김영준·왕정민  
강원 춘천시



김예린  
울산시 동구



김외숙  
울산시 남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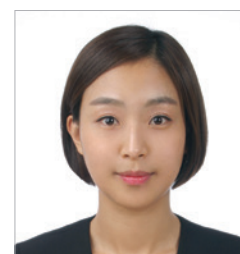
김용한·김협  
경기 안산시



김원미  
전북 익산시



김유진·오정은  
경기 성남시



김윤영·문현호  
경기 수원시

Founders Emerald  
Emerald  
Founders Sapphire  
Sapphire



## Founders Platinum

Ruby  
Platinum  
Gold Producer  
Silver Producer



김윤이·임인수  
울산시 중구



김은숙·김명호  
대구시 달서구



김은혜·이형석  
경북 포항시



김은희·안은수  
경기 수원시



김은희·오상홍  
경북 의성군



김인덕  
광주시 광산구



김재현·채지영  
울산시 중구



김정림·이영주  
경기 의정부시



김정선  
대구시 수성구



김정숙·이정호  
경기 이천시



김정은·최문성  
경기 광명시



김종길  
대구시 서구



김종배·이영미  
서울시 송파구



김주하  
전북 전주시



김주현  
인천시 남동구



김주희  
울산시 동구



김지숙·이상훈  
전북 익산시





김지현 · 김효섭  
경기 수원시



김진경 · 김종오  
경남 사천시



김진희  
서울시 송파구



김태현 · 한규린  
서울시 송파구

Founders Emerald  
Emerald  
Founders Sapphire  
Sapphire



Founders Platinum

Ruby  
Platinum  
Gold Producer  
Silver Producer



김태호 · 김희경  
경기 용인시



김하림  
대구시 수성구



김혜미 · 김형권  
강원 춘천시



김현국  
경남 양산시



김현숙 · 도한웅  
울산시 중구



김현숙 · 서재영  
경남 창원시



김현숙 · 신준규  
경남 거창군



김혜영  
대구시 북구



김혜진 · 김주우  
경북 김천시



김호남 · 최문성  
전북 전주시



김효정 · 변영진  
서울시 금천구



김희석 · 배선희  
경기 하남시

Founders Emerald  
Emerald  
Founders Sapphire  
Sapphire



## Founders Platinum

Ruby  
Platinum  
Gold Producer  
Silver Producer



김희숙 · 박상희  
인천시 남구



김희영 · 선석현  
광주시 서구



김희욱 · 김용일  
대전시 동구



남귀환  
경북 포항시



남미영 · 천인구  
울산시 북구



도기재 · 박영희  
경기 군포시



동미령  
인천시 연수구



량청호 · 김혜진  
서울시 구로구



류지혜 · 김욱  
울산시 중구



맹보문 · 류형란  
서울시 강동구



문명은 · 마병석  
전북 전주시



문소윤 · 이준형  
서울시 관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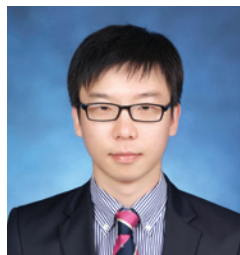
박가순 · 김용남  
울산시 울주군



박갑모  
경남 김해시



박대영 · 박혜란  
경기 광주시



박덕희  
경남 창원시



박명화 · 성진수  
서울시 노원구

Founders Emerald  
Emerald  
Founders Sapphire  
Sapphire



## Founders Platinum

Ruby  
Platinum  
Gold Producer  
Silver Producer



박미라  
울산시 울주군



박미애 · 서진원  
경기 고양시



박미애 · 김진곤  
세종특별자치시



박선정  
대전시 유성구



박선정 · 김정제  
대전시 대덕구



박세빈 · 박지호  
경남 진주시



박세진 · 박광희  
경남 창원시



박슬아  
경남 진주시



박양기 · 오경세  
경남 마산시



박영석 · 강현아  
부산시 부산진구



박용현  
경기 안산시



박원주 · 강동민  
경남 진주시



박은주  
대전시 동구



박은주 · 하남식  
서울시 강서구



박은진 · 이준호  
서울시 동작구



박은희 · 박종구  
대구시 달서구



박인수  
전북 완주군

Founders Emerald  
Emerald  
Founders Sapphire  
Sapphire



**Founders Platin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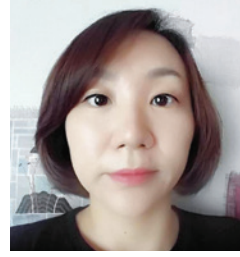
Ruby  
Platinum  
Gold Producer  
Silver Producer



**박인주 · 김한주**  
서울시 광진구



**박정욱 · 김태운**  
서울시 마포구



**박정은**  
대구시 동구



**박정훈 · 이익환**  
대전시 유성구



**박지영 · 김인중**  
광주 서구



**박지희 · 이덕재**  
충북 청주시



**박춘임 · 이희찬**  
전북 전주시



**박현국 · 정진영**  
충북 청주시



**박현정 · 이석운**  
강원 강릉시



**박혜진 · 김정훈**  
울산시 북구



**박희숙**  
대구시 북구



**방완수 · 조윤경**  
충남 공주시



**배길정**  
부산시 부산진구



**배은순 · 이재운**  
경기 파주시



**배종성 · 지선우**  
경북 포항시



**배지수**  
대전시 유성구



**배춘자 · 장순호**  
서울시 금천구

Founders Emerald  
Emerald  
Founders Sapphire  
Sapphire



## Founders Platinum

Ruby  
Platinum  
Gold Producer  
Silver Producer



배효원 · 정응재  
경기 화성시



백기정  
부산시 기장군



변중범 · 손상화  
경기 김포시



봉서현  
경기 안양시



서동일  
서울시 송파구



서명희 · 정응혁  
광주시 북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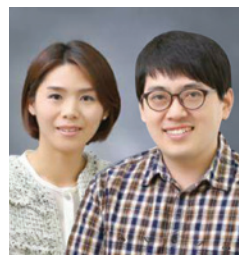
서미현 · 배진영  
경기 파주시



서영아 · 조현준  
인천시 중구



석은정 · 주정국  
경기 시흥시



석은미 · 마영진  
서울시 송파구



서은숙 · 강위웅  
경남 진주시



서호경 · 김태형  
대구시 동구



석은미 · 김치결  
서울시 광진구



석진영 · 김한일  
경북 포항시



성경화  
대전시 유성구



성부현  
서울시 은평구



성주연 · 박성득  
경기 안양시

Founders Emerald  
 Emerald  
 Founders Sapphire  
 Sapphi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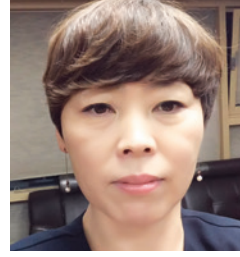


## Founders Platin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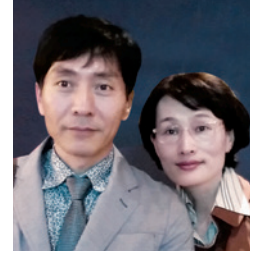
Ruby  
 Platinum  
 Gold Producer  
 Silver Producer



성지안  
 경남 창원시



성진아  
 대구시 달서구



손미숙 · 권현제  
 경북 포항시



송선미 · 이병훈  
 대전시 서구



신건석 · 이상영  
 대구시 수성구



신세영 · 박종하  
 대전시 서구



신송하 · 이해정  
 경기 용인시



신승란  
 경기 양평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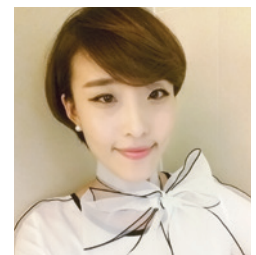
신철선 · 홍순복  
 경남 창원시



신재용 · 주효천  
 충북 청주시



심부중  
 경북 구미시



심은선  
 경북 포항시



심철훈 · 김진주  
 충북 청주시



안병현  
 대전시 중구



안우경  
 대구시 남구



안윤주 · 송정훈  
 전북 전주시

Founders Emerald  
 Emerald  
 Founders Sapphire  
 Sapphire



**Founders Platinum**

Ruby  
 Platinum  
 Gold Producer  
 Silver Producer



안희영 · 손주홍  
 경기 시흥시



양수정  
 광주시 서구



양혜란  
 대구시 동구



양희정  
 광주시 서구



염혜정 · 허석  
 서울시 성동구



오정민 · 이규민  
 경남 창원시



오정아  
 인천시 서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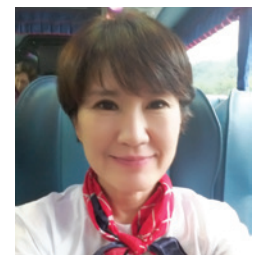
오정화 · 윤순영  
 경기 포천시



오정희 · 권순룡  
 대구시 달성군



오지은 · 양원모  
 경기 광주시



오진숙  
 경기 오산시



옥예진 · 김진원  
 부산시 동래구



원선화 · 박일안  
 광주시 광산구



유상록 · 신운학  
 서울시 서초구



유윤희  
 경기 성남시



유진영 · 문병윤  
 부산시 해운대구

Founders Emerald  
Emerald  
Founders Sapphire  
Sapphire



## Founders Platinum

Ruby  
Platinum  
Gold Producer  
Silver Producer



유향순  
서울시 동대문구



윤나영 · 오형인  
부산시 부산진구



윤미녀 · 전영록  
강원 강릉시



윤상원 · 이준성  
세종특별자치시



윤현민  
서울시 노원구



윤정희 · 김준호  
충북 청주시



윤채희 · 송화영  
대전시 중구



윤현미  
경기 용인시



이금식  
서울시 마포구



이금열 · 김경미  
경기 고양시



이지자  
강원 춘천시



이미란 · 김혜수  
부산시 북구



이민규  
대전시 유성구



이보영 · 정성욱  
경기 수원시



이봉연 · 박인걸  
경기 화성시



이시라은  
충남 보령시



이상미 · 여진수  
충남 천안시



Founders Emerald  
Emerald  
Founders Sapphire  
Sapphire



## Founders Platinum

Ruby  
Platinum  
Gold Producer  
Silver Producer



이상은 · 정옥진  
경남 밀양시



이선희 · 손호진  
인천시 남구



이선희 · 오명근  
부산시 기장군



이성신 · 박동준  
부산시 부산진구



이소영 · 남상수  
경기 수원시



이소희 · 남원경  
경기 오산시



이순옥  
경기 광명시



이승민  
전북 전주시



이승철 · 조혜림  
경남 진주시



이영순 · 박성규  
충북 청주시



이영주  
경기 화성시



이영희 · 최진우  
인천시 연수구



이완오 · 구선주  
경북 포항시



이원진  
경기 남양주시



이윤정 · 진성은  
경기 군포시



이윤주 · 주정진  
경기 성남시



이은정 · 양경훈  
전남 광양시

Founders Emerald  
Emerald  
Founders Sapphire  
Sapphire



## Founders Platinum

Ruby  
Platinum  
Gold Producer  
Silver Producer



이은주 · 정환영  
부산시 기장군



이은주 · 정형균  
전북 전주시



이은호  
경북 경주시



이정숙 · 김명곤  
경남 창원시



이정순 · 박선용  
광주시 북구



이정하 · 최훈  
경기 성남시



이제남  
충남 천안시



이종국 · 백지안  
서울시 구로구



이주해  
경북 안동시



이지예  
경기 부천시



이지운  
경기 파주시



이지은  
경기 화성시



이진희 · 정역  
울산시 북구



이혜민  
경기 용인시



이혜인 · 김진익  
서울시 강남구



이화진  
경기 시흥시



임영자 · 유병희  
전북 익산시



임지연 · 장재영  
광주시 광산구



임현희 · 조재일  
광주시 광산구



장은주 · 김영창  
서울시 은평구



장혜윤 · 김학엽  
전북 전주시



전유진 · 권일  
대구시 북구

Founders Emerald  
Emerald  
Founders Sapphire  
Sapphire



Founders Platinum

Ruby  
Platinum  
Gold Producer  
Silver Producer



임주영 · 정해웅  
경남 진주시



전희정  
충남 보령시



정경미  
경남 남해군



정다은  
대구시 달성군



정두혁 · 김민정  
경북 구미시



정미란 · 공병문  
전남 광양시



정미혜 · 오병양  
경남 김해시



정부경 · 이현수  
경북 문경시



정서진 · 박철호  
전남 여수시



정소윤 · 조성진  
경기 수원시



정수민  
서울시 은평구



정수연 · 이희철  
경남 김해시



정숙경 · 김시환  
부산시 남구

Founders Emerald  
 Emerald  
 Founders Sapphire  
 Sapphire



## Founders Platinum

Ruby  
 Platinum  
 Gold Producer  
 Silver Producer



정순연 · 권창식  
 경북 의성군



정유선 · 김정현  
 경기 안양시



정유정 · 김도훈  
 경기 군포시



정윤자 · 최창욱  
 강원 춘천시



정순경 · 최성중  
 경남 진주시



정은자  
 전남 목포시



정재훈  
 경북 영천시



정지경 · 김윤철  
 경남 김해시



정지민 · 이인희  
 경남 김해시



정호정 · 이종석  
 경기 남양주시



조순덕 · 윤명규  
 경남 사천시



조영선  
 전남 목포시



조영주 · 민경상  
 대전시 유성구



조은  
 광주시 광산구



조창익 · 윤은미  
 광주 광산구



조태수  
 서울시 강서구

Founders Emerald  
Emerald  
Founders Sapphire  
Sapphire



**Founders Platinum**

Ruby  
Platinum  
Gold Producer  
Silver Producer



조현미 · 최규하  
충남 보령시



조혜진  
경기 용인시



주란 · 노원택  
전남 여수시



주정주 · 김흥국  
경기 김포시



차나니 · 최용락  
강원 강릉시



차은실 · 최인환  
경남 진주시



채송화  
전북 익산시



천은숙 · 이훈세  
경기 수원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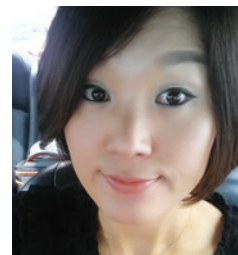
최낙미  
경기 의왕시



최미경 · 권영호  
울산시 중구



최미연  
서울시 은평구



최미정  
울산시 남구



최보영 · 이승훈  
대구시 북구



최선아 · 이영근  
경남 밀양시



최슬기 · 이영호  
부산시 해운대구



최영순 · 김태환  
울산시 울주군



최유화  
경기 수원시

Founders Emerald  
Emerald  
Founders Sapphire  
Sapphire



**Founders Platinum**

Ruby  
Platinum  
Gold Producer  
Silver Producer



최윤주 · 강신열  
경기 수원시



최은숙 · 신동섭  
대전시 동구



최은지  
서울시 성북구



최인희  
경기 수원시



최정수 · 백순선  
전북 전주시



최향매 · 정종국  
경기 시흥시



최현주 · 박상호  
경북 구미시



최혜영 · 서현덕  
경남 김해시



최효서 · 전재한  
경북 포항시



추선영 · 김보нок  
경남 통영시



탁세미나 · 이승준  
경기 이천시



태성금 · 배성렬  
충남 천안시



표혜영 · 전갑수  
부산시 북구



한경림 · 노현섭  
경남 창원시



한유진  
강원 삼척시



한은경 · 김정균  
전북 전주시

Founders Emerald  
 Emerald  
 Founders Sapphire  
 Sapphire



**Founders Platinum**

Ruby  
 Platinum  
 Gold Producer  
 Silver Producer



한운영·김성경  
 경기 용인시



한정화·조락현  
 서울시 성동구



한희선·소진욱  
 서울시 종로구



함운주  
 서울시 강남구



허영미·박정일  
 대구시 중구



허진·정용환  
 서울시 서초구



허효주·문호준  
 경북 경산시



홍기연·이재성  
 인천시 연수구



홍석영  
 경기 용인시



홍선화·강명찬  
 경기 성남시



홍수연·홍서기  
 서울시 서초구



홍일석  
 울산시 남구



황경희·김도현  
 광주시 남구



황선영·이석근  
 경북 영주시



황선정·한대수  
 경북 구미시



황성국  
 서울시 금천구

Founders Emerald

Emerald

Founders Sapphire

Sapphire



## Founders Platinum

Ruby

Platinum

Gold Producer

Silver Producer

김라희 경기 용인시  
 김명화 대구시 수성구  
 김문한·원애연 대구시 북구  
 김미원 서울시 양천구  
 김민정 경기 안양시  
 김민정·김광일 경기 안양시  
 김방숙 경남 김해시  
 김병철·박명주 부산시 부산진구  
 김석주 부산시 동래구  
 김선숙·박재일 충북 충주시  
 김선옥 서울시 관악구  
 김성은 경기 용인시  
 김세원·박혜진 서울시 강서구  
 김소영 부산시 해운대구  
 김수정·양철호 경남 고성군  
 김수정·전훈진 전북 군산시  
 김수희·김용원 충남 서산시  
 김순호·이남준 경기 안양시  
 김승숙 경남 함안군  
 김영미·원근섭 경기 시흥시  
 김영태·김연식 충북 청주시  
 김용락·조희경 대전시 서구  
 김유아·김평중 경기 수원시  
 김은지·최성호 충북 청주시  
 김은희 경기 안양시  
 김인숙·남규선 경남 창원시  
 김정금·서재성 서울시 강서구  
 김정미·차용환 부산시 기장군  
 김정미·최민규 경기 안산시  
 김정아 경남 김해시  
 김정원·권기용 대구시 달서군  
 김정자 경기 고양시  
 김주연 전남 순천시  
 김지안 부산시 사하구  
 김지현·박태훈 울산시 북구  
 김춘화·장은석 경기 수원시  
 김태균 부산시 해운대구  
 김필배·최은정 경기 구리시  
 김해영·전병석 울산시 중구  
 김현빈 경기 김포시  
 김현수 경남 김해시  
 김현정 경남 창원시  
 김현희 경기 용인시  
 김형석 서울시 강서구  
 김형순 경기 성남시  
 김형주·정부진 부산시 남구  
 김혜영 경남 양산시  
 김화신 경기 고양시  
 김희숙·김진희 울산시 남구  
 김희정·강재훈 부산 금정구  
 나성은 전남 화순군  
 나운서 전북 전주시  
 나인호 대구시 동구  
 남경희·박창운 경북 포항시  
 노윤경 경기 화성시  
 류지웅 경남 창원시  
 류현정·김동환 경기 고양시  
 문은선·김재호 전남 목포시  
 문정원 강원 춘천시  
 문현주·엄기열 서울시 노원구  
 권태상·고정화 경기 남양주시  
 김경선·유경정 경남 통영시  
 김경숙·임기업 경남 김해시  
 김경애·구희경 전북 부안군  
 김광림 경북 경주시  
 김누리·김상현 경기 김포시  
 김도연 경기 화성시

박서현·김도영 경기 남양주시  
 박영주 경남 창원군  
 박용숙·박성균 울산시 북구  
 박윤정 서울시 용산구  
 박윤주·김용수 경남 창원시  
 박유혜 광주시 북구  
 박정미·하준수 경남 창원시  
 박정호 경남 창원시  
 박정호·정경아 경기 용인시  
 박종광·이영한 부산시 기장군  
 박지영·최진원 경남 통영시  
 박지은 경남 거제시  
 박지현·김승혁 경기 성남시  
 박현신 서울시 은평구  
 박혜정 경남 창원시  
 박홍구·서영선 인천시 연수구  
 박화경·최승윤 울산시 동구  
 배미선·송양현 경남 김해시  
 배미숙 제주 제주시  
 배예진·최종철 부산시 해운대구  
 백윤미 전남 무안군  
 사공태순 대구시 서구  
 서미선 광주시 광산구  
 서미숙·김장호 서울시 동작구  
 서미희·최윤일 전남 순천시  
 서성우·이명자 울산시 중구  
 서소원·이민희 경기 부천시  
 서영수·박정아 대구시 달서군  
 서은아·박근수 경기 안양시  
 서정석·이옥영 충남 공주시  
 석병태·박은주 경북 구미시  
 석정은·김기중 대구시 달서구  
 선주연·김찬웅 광주시 서구  
 성지숙 인천시 남동구  
 손동영 경기 안양시  
 손정현·이상기 서울시 광진구  
 손진·송하성 광주시 광산구  
 송미경 전북 전주시  
 송숙진 울산시 중구  
 송인자·김영록 충북 청주시  
 송인영·김용태 인천시 중구  
 신기자 광주시 광산구  
 신미경·권혁준 경기 남양주시  
 신순하 서울시 관악구  
 신정익 부산시 동구  
 신정현 충남 천안시  
 신지혜 경북 경주시  
 심경숙·조형상 경기 화성시  
 심승희·박석 경기 성남시  
 심은미·이정민 경남 진주시  
 안경영 부산시 중구  
 안미현 광주시 광산구  
 안성재 경남 진주시  
 안현숙 서울시 광진구  
 안희정 경기 화성시  
 양경진 전북 군산시  
 양미자·신재호 광주시 광산구  
 양점국 경기 오산시  
 양지현·신휘람 경남 거제시  
 여애정·배경열 경남 김해시  
 오경자·황주선 경북 포항시  
 오연주 경남 창원시  
 오은주·김태용 경기 용인시  
 오정선·신동호 전남 목포시  
 오한희 제주 제주시  
 오혜련 서울시 동작구  
 우판호 광주시 남구

유미영·정찬호 전북 전주시  
 유수정 경기 이천시  
 유인순 경기 안산시  
 육인숙 전북 전주시  
 윤나리 경남 거제시  
 윤미화·양명곤 충북 청주시  
 윤순희 부산시 연제구  
 윤은경·노민호 전북 군산시  
 윤중환 경남 창원시  
 이경남·김이곤 대구시 달서구  
 이영민 경남 창원시  
 이금자 대전시 서구  
 이노우에유카·홍세화 서울시 성북구  
 이대숙 전북 전주시  
 이대희 충북 청주시  
 이미란 부산시 수영구  
 이민재·정영호 서울시 강남구  
 이상미·조복수 부산시 남구  
 이상수 대구시 북구  
 이선호·김명희 울산시 동구  
 이소연 서울시 용산구  
 이수지 부산시 동구  
 이신정·정훈성 경기 고양시  
 이영화·박정배 충북 청주시  
 이용자 서울시 금천구  
 이유미 서울시 영등포구  
 이윤건 대구시 달서구  
 이윤혜 경기 의왕시  
 이윤희·홍성현 서울시 강동구  
 이은주·노기성 서울시 양천구  
 이재은·이기혁 경기 용인시  
 이재은·문경용 경남 창원시  
 이점용 대전시 중구  
 이정아 부산시 북구  
 이정영 서울시 강북구  
 이정하 전남 광양시  
 이정희·김지록 경기 안양시  
 이종영 충북 청주시  
 이지민 서울시 종로구  
 이지윤·김민수 서울시 용산구  
 이지현 경남 진주시  
 이춘옥 서울시 영등포구  
 이혜자 부산시 금정구  
 이현미·박민 전남 목포시  
 이현철·채희영 경기 용인시  
 이희숙·이용기 전남 목포시  
 임난심 서울시 서초구  
 임동혁 경기 성남시  
 임상미·박은규 충북 청주시  
 임재웅·홍정민 경남 창원시  
 임종용·최양순 경기 이천시  
 임주성·단진희 경기 용인시  
 임하순·조범철 광주시 광산구  
 임효진 충남 천안시  
 임지영·김옥동 경기 용인시  
 장미화·백영훈 경기 남양주시  
 장실미·박주채 광주시 서구  
 장유선·고용우 광주시 광산구  
 장유진·이황의 서울시 성북구  
 장정운·김동영 대구시 달서구  
 장종민 부산시 수영구  
 장혜진·손민욱 경기 남양주시  
 장호선 경기 김포시  
 장호정 충남 홍성군  
 전명배·김연희 경남 창원시  
 전영민·고승안 경남 진주시  
 전은희 경남 창원시

정경숙 부산시 사하구  
 정득귀 부산시 사하구  
 정명희 광주시 서구  
 정상진·김영희 경기 용인시  
 정선 경남 김해시  
 정소연 경기 수원시  
 정연식 충북 청주시  
 정영미·정범석 경기 안양시  
 정윤정 경기 성남시  
 정은임 경기 남양주시  
 정인숙 울산시 남구  
 정민진 경남 창원시  
 정진홍·목승숙 서울시 송파구  
 정재은·고영득 부산 해운대구  
 정희정 경남 김해시  
 조순영 대구시 북구  
 조아라·김용범 대전시 서구  
 조연순·김택상 대구시 북구  
 조은수·오충환 경기 안산시  
 조은옥·신영복 부산시 기장군  
 조정아·민성환 경기 고양시  
 조태범 충북 청주시  
 조현영 경북 구미시  
 주민경 경기 용인시  
 주승정 충남 서산시  
 지옥희·박찬수 경기 부천시  
 천지는 대구시 동구  
 최미란·김동환 경기 김포시  
 최미연·서형석 경기 화성시  
 최미혜·김영철 경기 수원시  
 최선영·황현정 인천시 연수구  
 최수비 전남 광양시  
 최승자 경기 남양주시  
 최애광·이진서 대전시 유성구  
 최영숙·남시태 인천시 계양구  
 최우현 부산시 동래구  
 최유정 경기 성남시  
 최윤아·송승한 인천시 계양구  
 최정은 제주 제주시  
 최정은·류재천 경기 평택시  
 최춘일 서울시 영등포구  
 최태옥 인천시 부평구  
 표선화·박대영 경기 성남시  
 하동주·조정환 경남 진주시  
 하연주 서울시 종로구  
 한경희 전남 목포시  
 한선자 부산시 금정구  
 한수진 서울시 관악구  
 한은영·양성호 제주 제주시  
 한주희 서울시 도봉구  
 한지선·김중우 서울시 용산구  
 함윤정·정진오 경기 성남시  
 허진호·김애민 서울시 영등포구  
 허혜연·이세진 부산시 동래구  
 홍나래 대구시 달서구  
 홍명성 강원 원주시  
 홍문경·김종필 경기 안산시  
 홍미란·전수철 대구시 달서구  
 홍성희 대구시 북구  
 홍정운·김기영 대전시 서구  
 황경화 강원 동해시  
 황미란·최남용 서울시 동대문구  
 황미향·김승현 인천시 서구  
 황선영·박정덕 서울시 강서구  
 황인숙·한상호 대전시 대덕구  
 황정숙 인천시 서구

### 2016년 9월 1일부

강경림 경기 용인시  
 강명주 대전시 서구  
 강윤식 대전시 서구  
 강정숙·연구희 충북 증평군  
 강진수·장태수 경기 성남시  
 고경희 경남 김해시  
 고귀한·유현아 경기 이천시  
 고태자·박병곤 경기 용인시  
 고현숙·김용 충남 공주시  
 공현옥 광주시 북구  
 박순선·김종욱 경북 칠곡군  
 박여선·정우진 경남 양산시  
 권노윤·김진국 경기 화성시  
 권덕주 경남 밀양시  
 권민영·정명일 경북 고령군  
 권태상·고정화 경기 남양주시  
 김경선·유경정 경남 통영시  
 김경숙·임기업 경남 김해시  
 김경애·구희경 전북 부안군  
 김광림 경북 경주시  
 김누리·김상현 경기 김포시  
 김도연 경기 화성시



July  
2016년 7월 1일부



김미영 · 장병욱  
경기 화성시



김혜선 · 차승주  
전남 무안군

Founders Emerald  
Emerald  
Founders Sapphire  
Sapphire  
Founders Platinum



Ruby

Platinum  
Gold Producer  
Silver Producer



김홍빈 · 이상진  
경기 하남시



김효은 · 양병건  
전북 남원시



박현연 · 양승철  
경기 평택시



송미주  
경남 진주시



안정영 · 손태황  
경남 창원군



유현정 · 임준영  
경기 성남시



윤미경 · 정찬영  
대전시 서구



윤정분 · 김문한  
경남 사천시



이은진 · 김현표  
광주시 광산구



임은희 · 정찬관  
광주시 서구



전미경  
부산시 부산진구



최성란  
충북 청주시

Founders Emerald  
Emerald  
Founders Sapphire  
Sapphire  
Founders Platinum



## Ruby

Platinum  
Gold Producer  
Silver Producer

### August 2016년 8월 1일부



김윤해 · 이형식  
부산시 남구



유희진 · 강태인  
인천시 중구



이보순  
부산시 남구



정윤미 · 하상열  
경북 구미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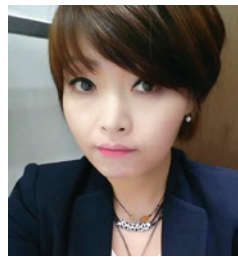


한상경 · 박병규  
경기 안양시

### September 2016년 9월 1일부



김복주  
경남 창원시



김시연  
인천시 남동구



김옥진 · 권용출  
경기 용인시



김은희 · 김대환  
서울시 마포구



김진경 · 강경우  
대구시 북구



김한의 · 정창성  
경기 수원시



김현정 · 이종민  
전북 군산시



안재분 · 이현웅  
경기 안산시



양아영 · 장은수  
광주시 서구



오정희 · 조우영  
경북 구미시

Founders Emerald  
Emerald  
Founders Sapphire  
Sapphire  
Founders Platinum



**Ruby**

Platinum  
Gold Producer  
Silver Producer

2016년 7월 1일부

김경화 경기 용인시  
김복심 · 변승환 광주시 남구  
김상원 경기 수원시  
김수연 · 김도진 경기 성남시  
김자영 인천시 강화군  
박민영 · 양기석 전남 광양시  
박은지 · 김기일 경북 청도군  
박효정 광주시 남구  
안민호 광주시 북구  
윤현영 경남 창원시  
이상현 · 김은정 울산시 중구

이양성 · 최성호 대전시 중구  
이은하 · 백태현 대구시 달서구  
이종여 · 백승일 경기 화성시  
임영옥 · 민치영 서울시 송파구  
장미금 부산시 동래구

2016년 8월 1일부

김지혜 · 장형우 대구시 수성구  
박윤경 · 조국환 광주시 서구  
위진아 · 최병식 경기 남양주  
최정옥 · 이용태 광주시 광산구

2016년 9월 1일부

강문희 · 김경수 광주시 서구  
김경희 · 이성원 경남 밀양시  
김경희 · 이승걸 대구시 북구  
김명자 · 최광성 경기 광주시  
문미라 경남 창원시  
박달선 경기 부천시  
박은미 광주시 북구  
서은성 경북 경산시  
손상희 경남 김해시  
오상화 · 박현구 서울시 강남구  
황남임 광주시 북구

Victor Hugo

아무런 계획도 없이 우발적으로 시간을 사용하게 되면,  
곧 무질서가 삶을 지배하게 된다.

Founders Emerald  
 Emerald  
 Founders Sapphire  
 Sapphire  
 Founders Platinum  
 Ruby



## Platinum

Gold Producer  
 Silver Producer

July  
 2016년 7월 1일부



강현숙  
 대전시 유성구



권영길 · 허은경  
 경북 고령군



김기숙  
 강원 동해시



김기숙 · 김윤식  
 대전시 서구



김남희 · 조해문  
 부산시 동래구



김묘자  
 충남 부여군



김미경 · 서창근  
 대구시 달성군



김선화  
 인천시 남동구



김소영  
 경남 진주시



김수경  
 경북 포항시



김연숙 · 노삼군  
 대전시 동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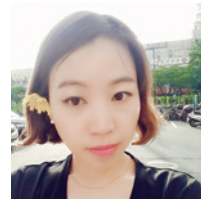
김은영  
 경기 용인시



김하연  
 서울시 강남구



김희경  
 경기 용인시



남유미  
 경남 거제시



문낙원  
 서울시 송파구



문명선  
 경남 창원시



박경운 · 권현민  
 서울시 금천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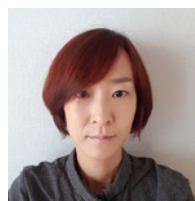
박경희  
 경남 김해시



박명선 · 하진국  
 서울시 구로구



박문희 · 김철웅  
 경기 용인시



박소정 · 신강민  
 경북 구미시



박은혜  
 경기 화성시



변영숙  
 경남 진주시



서소영 · 이정현  
 경기 하남시

Founders Emerald  
 Emerald  
 Founders Sapphire  
 Sapphire  
 Founders Platinum  
 Platinum  
 Ruby



**Platinum**

Gold Producer  
 Silver Producer



송민정  
 충북 충주시



슈게시 · 김용길  
 경기 화성시



신수임  
 울산시 중구



신진시  
 충남 당진시



안수옥  
 충남 보령시



원유연 · 박은희  
 경기 광주시



유동희  
 경남 창원군



유미화  
 서울시 관악구



유종호  
 경기 남양주시



이경애 · 정세화  
 경북 구미시



이규화  
 서울시 양천구



이기환  
 울산시 중구



이미해 · 이동호  
 대구시 서구



이서현  
 대전시 동구



이성배 · 김금순  
 전남 나주시



이수한 · 김신영  
 경남 창원시



이우용 · 배인혜  
 전북 전주시



이윤정  
 인천시 서구



이지은 · 박진용  
 전북 전주시



이춘화  
 경기 부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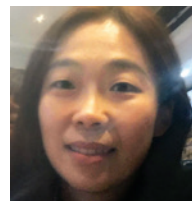
이화영  
 대구시 수성구



임수현  
 서울시 강남구



전선아 · 최종열  
 서울시 도봉구



전수정  
 충북 청주시

Founders Emerald  
 Emerald  
 Founders Sapphire  
 Sapphire  
 Founders Platinum  
 Ruby



**Platinum**

Gold Producer  
 Silver Producer



전현숙  
 경남 밀양시



조순례 · 박재만  
 경기 고양시



정예선  
 대전시 유성구



정희진  
 경기 수원시



조진희  
 대구시 남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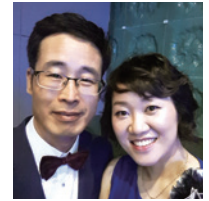
진보라  
 전남 순천시



진영주  
 전북 전주시



채진아  
 전북 정읍시



한문아 · 정석현  
 경남 김해시



한지애  
 부산시 해운대구



현승민 · 공정규  
 강원 철원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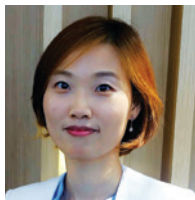
**August**  
 2016년 8월 1일부



구미영  
 대전시 유성구



기대선  
 서울시 강북구



김다경 · 서민호  
 부산시 남구



김래연  
 광주시 광산구



김미숙  
 대구시 달서구



김민지  
 서울시 동작구



김상희  
 전남 순천시



김수현  
 서울시 용산구



김영화  
 서울시 관악구



김유영  
 경기 광명시



김정은 · 오정현  
 광주시 광산구



김정훈 · 김예원  
 부산시 영도구

Founders Emerald  
Emerald  
Founders Sapphire  
Sapphire  
Founders Platinum  
Ruby



**Platinum**

Gold Producer  
Silver Producer



**김종관**  
경북 포항시



**김지운 · 김윤진**  
서울시 동대문



**김혜영**  
경기 안양시



**김해정 · 임장훈**  
경북 상주시



**김혜숙**  
충남 계룡시



**김희진**  
경기 가평군



**김희정 · 조인한**  
경기 용인시



**노진하**  
서울시 은평구



**문영숙 · 김용욱**  
경기 수원시



**문예원 · 정희창**  
경기 용인시



**민초희**  
전남 화순군



**박만엽 · 임학규**  
서울시 동작구



**박매순**  
제주 제주시



**박은숙**  
부산시 북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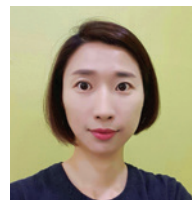
**박정완**  
경남 창원시



**박주영**  
대구시 남구



**박지나**  
제주 제주시



**박효정 · 김석필**  
전남 광양시



**방선화 · 권태호**  
광주시 북구



**백지영 · 이재천**  
대구시 북구



**변회석**  
울산시 남구



**부장훈**  
경기 파주시



**서진영**  
서울시 서초구

Founders Emerald  
 Emerald  
 Founders Sapphire  
 Sapphire  
 Founders Platinum  
 Ruby



## Platinum

Gold Producer  
 Silver Produc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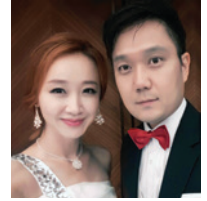
서현주  
 경기 성남시



손순영  
 경기 군포시



신성아  
 충남 천안시



신용숙 · 이상화  
 경남 창원시



신주홍  
 대구시 달서구



안진오  
 부산시 남구



오소연  
 경기 안양시



유경길 · 김복남  
 경남 진주시



유미정  
 경기 안성시



육영미  
 경기 과천시



윤보라  
 대구시 동구



이경목  
 경북 안동시



이선경  
 부산시 해운대



이선영  
 강원 동해시



이선영  
 경기 안산시



이장철 · 강경미  
 경기 부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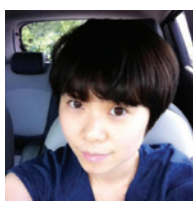
이정화  
 대전시 중구



이춘실  
 경기 포천시



이흥준 · 오오사외에이미  
 서울시 중랑구



임수경  
 경남 김해시



임자연 · 김홍근  
 경북 문경시



장영은  
 대구시 달성군



장지운  
 대전시 대덕구



장현숙  
 경기 광주시



Founders Emerald  
Emerald  
Founders Sapphire  
Sapphire  
Founders Platinum  
Ruby



**Platinum**

Gold Producer  
Silver Producer



전미숙 · 이상진  
세종특별자치시



조성래 · 배수기  
충남 천안시



조예원  
광주시 남구



최명희 · 오희근  
전북 진주시



최선희 · 마은빈  
대구시 서구



최현실  
광주시 광산구



하현주  
경남 진주시



한하순  
경기 광주시



허명애 · 피달찬  
경기 용인시



홍민아 · 이대환  
경기 하남시



황국향 · 문인석  
울산시 북구

September  
2016년 9월 1일부



강명철 · 정갑순  
경남 진주시



강미순 · 장정원  
제주 제주시



강영숙 · 차동구  
전북 익산시



강정숙 · 김동범  
서울시 마포구



강지연  
제주 제주시



강지애 · 이정민  
전남 광양시



강태희  
경기 남양주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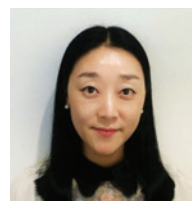
강혜진  
경북 안동시



강호현  
경기 용인시



강효석 · 하미경  
경기 화성시



국라영  
광주시 서구



권미영  
울산시 울주군

Founders Emerald  
 Emerald  
 Founders Sapphire  
 Sapphire  
 Founders Platinum  
 Ruby



## Platinum

Gold Producer  
 Silver Produc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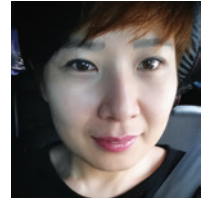
**김동길**  
 경기 수원시



**김미란**  
 경남 창원시



**김미령 · 한대진**  
 인천시 연수구



**김수진**  
 경기 사천시



**김양우**  
 서울시 마포구



**김영은**  
 서울시 노원구



**김은미**  
 서울시 서초구



**김을유**  
 서울시 동대문구



**김정실 · 이길동**  
 경남 창원시



**김지애**  
 경기 용인시



**김지연**  
 서울시 서초구



**김지혜**  
 광주시 광산구



**김진양**  
 충북 청주시



**김태진 · 김필선**  
 충북 음성군



**김현정**  
 전북 익산시



**김환순**  
 경기 의정부시



**노경아**  
 전남 순천시



**류성미**  
 경남 남해군



**문덕준 · 박정순**  
 경남 사천시



**박금주**  
 울산시 울주군



**박미선**  
 경기 남양주시



**박미선 · 배봉근**  
 경북 구미시



**박성갑 · 김희영**  
 경남 고성군



**박연선**  
 경북 상주시

Founders Emerald  
Emerald  
Founders Sapphire  
Sapphire  
Founders Platinum  
Ruby



**Platinum**

Gold Producer  
Silver Producer



**박은화**  
경기 광주시



**박지혜**  
경기 수원시



**박창균**  
경남 창원시



**배서영**  
울산시 울주군



**배승주 · 김성룡**  
대구시 달성군



**변혜진**  
충북 충주시



**서영**  
경기 화성시



**손지민**  
경기 양주시



**송은숙 · 최상현**  
충북 청주시



**신수훈 · 문영훈**  
경북 구미시



**신순자 · 정문홍**  
울산시 동구



**신예경 · 온은태**  
부산시 부산진구



**안현주**  
경북 구미시



**양승미**  
서울시 종로구



**양정윤 · 김영동**  
경기 평택시



**오은진**  
경기 고양시



**오진화**  
경기 용인시



**유주희 · 강상호**  
서울시 성동구



**유지현**  
대구시 달서구



**유흥길**  
경남 거제시



**윤현진 · 이경미**  
서울시 용산구



**이경진**  
서울시 중랑구



**이미순 · 강내형**  
부산시 남구



**이미향 · 송문영**  
울산시 울주군



**이인억 · 빈한숙**  
경남 창원시

Founders Emerald  
 Emerald  
 Founders Sapphire  
 Sapphire  
 Founders Platinum  
 Ruby



**Platinum**

Gold Producer  
 Silver Producer



**이재민 · 서지안**  
 경남 진주시



**이진희 · 김도완**  
 경남 김해시



**이현정 · 이성인**  
 광주시 광산구



**이훈염 · 김춘하**  
 경기 화성시



**임남순**  
 서울시 강서구



**장미경 · 박정호**  
 부산시 동래구



**장민혜**  
 인천시 남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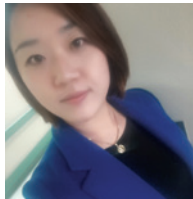
**장선영 · 황종순**  
 부산시 기장군



**장현아 · 안주호**  
 전남 보성군



**전정남 · 이현동**  
 서울시 금천구



**정유정 · 임태수**  
 부산시 금정구



**정은호 · 장혜영**  
 경기 시흥시



**정홍심**  
 서울시 성동구



**제갈수영 · 오대진**  
 경기 용인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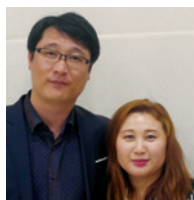
**진경숙**  
 서울시 강서구



**진미선**  
 경남 함안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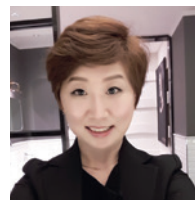
**최경애**  
 경기 성남시



**최선영 · 김영탁**  
 서울시 노원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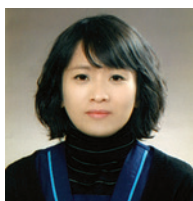
**최양희**  
 광주시 광산구



**최정현**  
 경기 남양주시



**최지영 · 성정웅**  
 부산시 금정구



**최현**  
 경기 안성시



**한상희**  
 전북 전주시



**한연호**  
 경기 김포시



**한용섭**  
 경기 고양시



**Platinum**

Gold Producer  
Silver Producer



**한은아**  
서울시 은평구



**한혜은**  
경남 거창군



**허경애 · 임희동**  
충남 금산군



**홍현주**  
경기 광주시



**황혜순**  
서울시 서초구



**김재란**  
울산시 중구

**June**

2016년 6월 1일부

**2016년 7월 1일부**

강병호 경남 진주시  
강성욱 충남 천안시  
고수진 경남 진주시  
기나시디아스케 서울시 마포구  
김미영 경남 사천시  
김민정 경남 김해시  
김복순 · 허형무 경기 오산시  
김성호 전북 고산시  
김은령 대전시 대덕구  
김은미 전남 순천시  
김정숙 경남 거제시  
김희원 · 김도연 부산시 수영구  
류지호 서울시 서초구  
민병구 대전시 서구  
민은미 인천시 연수구  
박성래 · 김성태 제주 제주시  
박성준 · 손현진 경남 밀양시  
박순호 · 김정순 경기 화성시  
박지현 광주시 광산구  
박현정 광주시 남구  
박혜순 경남 마산시  
서명교 · 김태윤 대전시 유성구  
서명수 서울시 성동구  
성정하 · 강동민 경남 김해시  
신옥순 서울시 성북구  
신희숙 · 이종열 대전시 서구  
오연실 서울시 동대문구  
우영철 · 이흥철 경기 구리시  
유연순 · 고경재 충북 청주시  
이관희 경기 여주시  
이광화 부산시 해운대구  
이사윤 · 이승주 경기 이천시  
이상계 충남 논산시  
이승학 부산시 동래구  
이정복 경남 창원시  
이준희 대구시 북구  
이지훈 울산시 동구

임미경 · 박병봉 경남 김해시  
임성범 경기 화성시  
장주석 경남 함안군  
정순임 대구시 달서구  
정예선 대전시 유성구  
정은선 경기 양평군  
조미경 경남 창원시  
조주현 인천시 중구  
주광희 · 유성일 광주시 북구  
진정희 경기 군포시  
채연숙 광주시 북구  
최은주 · 최자용 경기 안산시  
허선정 · 강상원 부산시 사하구  
홍민아 · 박순혁 울산시 남구  
홍성구 경북 칠곡군

**2016년 8월 1일부**

강경숙 · 김준 경기 화성시  
권미진 경기 안양시  
김경남 서울시 강남구  
김금자 경기 수원시  
김미정 전북 전주시  
김복자 대전시 동구  
김정화 대전시 대덕구  
김진호 서울시 강남구  
김춘영 서울시 관악구  
남상경 대구시 북구  
노숙 전북 전주시  
문정일 · 황지미 경남 창원시  
박경희 경북 포항시  
박상욱 인천시 계양구  
박소현 · 강태호 충남 서천군  
박세진 경기 수원시  
박윤경 울산시 남구  
박은영 경남 진주시  
박정미 · 이용철 광주시 서구  
박정연 서울시 노원구  
박정영 대전시 중구

배재주 · 성원운 경남 김해시  
배재학 경북 포항시  
서상완 울산시 북구  
송연희 경남 김해시  
신재성 · 배은주 경남 진주시  
안현주 경남 창원시  
양인숙 경기 군포시  
오영숙 대전시 유성구  
유은미 충북 제천시  
윤모한 광주시 서구  
윤미숙 · 정진기 대구시 북구  
이경애 경기 성남시  
이성희 서울시 동작구  
이순애 대구시 달서구  
이순이 경기 군포시  
이승환 경기 남양주  
이은주 대구시 북구  
이지민 대구시 남구  
이지영 울산시 남구  
이현정 · 최준호 울산시 남구  
장복인 경기 용인시  
장춘영 대구시 북구  
정수연 · 유한길 경기 광주시  
정연숙 충남 아산시  
정은희 경기 김포시  
정은희 경기 부천시  
정지성 경북 포항시  
정희선 전북 전주시  
조을진 서울시 서초구  
주한걸 전남 나주시  
진연 · 이용길 인천시 계양구  
최인선 울산시 남구  
최인선 대구시 중구  
탁연우 경북 영천시  
피정수 경기 수원시  
하지수 경남 창원시  
한민우 경남 창원시

한월숙 · 이명철 경남 통영시  
홍순주 · 김희순 경기 고양시  
황미란 경남 창원시  
황토목 광주시 남구

**2016년 9월 1일부**

강대홍 광주시 광산구  
강민정 경북 포항시  
강숙자 경북 안동시  
강해미 · 조길웅 전남 목포시  
고지영 제주 제주시  
국미경 광주시 북구  
권금남 경북 경산시  
김경화 · 김중우 부산시 금정구  
김구배 경기 시흥시  
김나영 경남 김해시  
김나현 경기 파주시  
김덕준 인천시 부평구  
김무경 경기 군포시  
김미경 충북 청주시  
김미주 충북 청주시  
김미진 경남 김해시  
김민자 경기 성남시  
김서연 충남 천안시  
김숙자 경기 안양시  
김아람 경기 고양시  
김영삼 충남 당진시  
김영춘 경기 안양시  
김정석 대구시 중구  
김지선 울산시 남구  
김하나 광주시 북구  
김현아 전북 익산시  
김현정 · 김병완 경남 김해시  
김혜정 · 이강우 경남 밀양시  
남옥순 서울시 용산구  
문명숙 부산시 사상구  
문주연 광주시 광산구  
박계향 대구시 달서구

박광민 · 신은경 전남 광양시  
박보라 경남 진주시  
박성연 · 임영근 서울시 서초구  
박윤주 · 양인식 경기 수원시  
박정은 부산시 금정구  
박정현 충북 청주시  
백기정 경기 수원시  
서용중 서울시 송파구  
서은주 경북 칠곡군  
성숙영 제주 제주시  
송정숙 · 양승도 경남 창원시  
신원경 경기 고양시  
신정임 경남 창원시  
안순희 인천시 부평구  
양원채 경기 고양시  
어근수 · 홍경숙 서울시 중구  
오윤희 부산시 북구  
옥미선 · 안종태 경남 창원시  
유진영 서울시 성북구  
유찬식 인천시 계양구  
윤경진 울산시 울주군  
윤은아 · 이준석 경기 의왕시  
이명순 충북 괴산군  
이명희 · 진영연 대구시 달성군  
이미성 대전시 대덕구  
이상배 부산시 동래구  
이시현 경기 광주시  
이인석 강원 정선군  
이재순 대구시 중구  
이주는 서울시 마포구  
이지선 제주 제주시  
이혜란 광주시 광산구  
이훈희 충북 청주시  
장미영 · 김은중 서울시 중랑구  
전지혜 서울시 용산구  
정병돈 · 정지영 전북 익산시  
정수연 · 신윤창 경기 용인시  
정영주 대구시 서구

정지원 · 이동진 경남 창원시  
정혜숙 광주시 북구  
조란수 서울시 구로구  
조순옥 경기 용인시  
주동식 · 안지민 대구시 동구  
주희숙 · 차치범 경남 양산시  
진화연 · 이정섭 경남 진주시  
차현숙 경기 고양시  
천송기 경북 안동시  
최부락 경기 용인시  
최선남 강원 강릉시  
최은경 서울시 서대문구  
한상영 경기 안산시  
한승 경남 사천시  
허은미 · 김재성 서울시 동작구  
홍종철 경기 화성시  
황연경 경남 거제시  
황철호 · 최명옥 인천시 서구

**2016년 6월 1일부**

강은정 · 김주립 충남 천안시  
김영숙 · 이인출 강원 동해시

Founders Emerald  
Emerald  
Founders Sapphire  
Sapphire  
Founders Platinum  
Ruby  
Platinum



## Gold Producer

Silver Producer

### July

강금순  
강민구  
강인애 · 박철형  
강치원 · 송명희  
고은아  
공정식  
곽지은  
권금숙 · 손기열  
권다현  
권영강  
김경민  
김두영  
김미경  
김미순  
김미애 · 백승철  
김민체  
김선희 · 박연준  
김소희  
김수진  
김순일  
김승표  
김염  
김영란  
김영미  
김영심  
김영옥  
김용환  
김은남  
김은아  
김은영 · 정재철  
김은희  
김정미  
김정순 · 안신영  
김정희  
김종명  
김중완  
김진만 · 이미성  
김진억  
김창민

김태연 · 박재석  
김태은  
김해동 · 최미혜  
김현아  
김현정  
김혜정  
김혜정  
나수영  
나영광  
노혜정 · 김광대  
류성용 · 최미경  
박보경  
박분화  
박연식  
박주영  
박주현  
박필준  
박해은  
박현민  
방성화  
배문선  
배석자  
배영란  
배혜정 · 백필선  
백미란  
서용선  
서정훈  
서종록  
성경연  
손순애  
송명희  
송보배  
송정민  
신아름  
안옥희  
양미정 · 유재민  
어윤정  
오경순  
오승훈  
오현숙  
윤신숙  
이경남  
이상호  
이수자  
이승미 · 조재성  
이신옥  
이옥희  
이유진  
이윤조  
이재경  
이점숙  
이정모  
이정윤

이종택  
이지현  
이혜란  
임삼희  
임은선  
임은영  
임임순  
임현영  
전수남  
전은경  
정경선 · 이동준  
정민영  
정윤숙  
정지영 · 이동준  
정희정  
조기정  
조숙경  
조영주 · 황종원  
지영선 · 김현호  
진민정  
차릉 · 김주희  
차서희 · 정성용  
채선우  
최나리 · 정태승  
최인자  
최준기  
최해란 · 이승용  
최혜련  
표지연  
하영학  
한승연  
한효주  
홍경숙  
홍경아  
황선옥

### August

강동길  
강한림  
곽진용  
권지영 · 김준호  
김경아  
김경화  
김나라  
김남선 · 김은미  
김남수  
김미화  
김상희  
김선주 · 허재영  
김세훈  
김연주  
김용화  
김월란

김은자  
김재숙  
김정미  
김현아  
김호정  
김해정  
김화수  
나선심  
나형준  
남동화  
마민주  
마정미  
민지애 · 염석봉  
박도혜정  
박상숙  
박선하  
박순애  
박연순  
박영규  
박영웅  
박주영  
박지수  
백정화  
서미경  
서미혜  
서윤영  
서은진  
성민경  
송주영  
승환  
안미진 · 황윤성  
양광희  
우해원  
유덕상  
육소연  
윤미정  
윤여옥  
윤오숙  
윤호민  
이경미 · 김춘근  
이경민 · 정재윤  
이동국  
이미현 · 문병원  
이선영  
이시우  
이영희  
이재훈  
이지윤  
이희영 · 김효웅  
장상호  
정규민  
정용덕

정태희  
조남규  
주경희  
주성호  
주지은  
진윤정  
차국남  
최경진  
최대우  
최현주  
하경희  
한경순 · 박건희  
한송월

### September

고점숙  
곽재인 · 편은주  
곽현미  
권기순  
권영순  
권용성  
김건하 · 김동혁  
김미선  
김미숙 · 박종필  
김방실  
김성곤  
김성범  
김순정  
김은희  
김지영  
김지혜  
김진아 · 김요섭  
김현정  
김현화  
나연지  
문성용  
문정주  
박건나  
박미영  
박세정  
박용재  
박현진 · 박시현  
박희선  
박희정  
백희정 · 성종현  
손현숙  
송금희  
송미경  
송영란  
송현진  
신국봉  
신미경  
신민희

신상희  
심은영 · 홍욱  
양정숙  
오정혁 · 윤효선  
유민호  
유종미  
유혜영 · 최연호  
윤지희  
이경희  
이미연 · 김경민  
이승민  
이영미  
이은주 · 전우하  
이정미  
이효정 · 서현호  
임분선  
장미 · 김기범  
정리영  
정명선  
정수진  
정연  
정영화  
조선국  
조용일  
조은아  
조재신  
천성미  
천유미 · 노병화  
최문자  
최윤정  
최지유  
최춘희 · 권창범  
하홍렬  
홍유진 · 김유신  
홍현숙

### June

김진혁  
전금주

### April

이거라


July
XU XIAOHUA
강금자
강남희
강민
강상무
강상미
강순화
강애경
강연솔
강주영 · 김광남
강지현
강형석 · 최은경
강효경
강희정
고동희
고점숙
고혜영 · 김택곤
곽승호
곽재인 · 편은주
구남용
권순원
권정희
김건홍
김경숙
김계숙 · 김대광
김나희
김대림
김말연
김명자
김문수
김미라
김미진
김민식
김민재
김상대
김새봄
김선림
김선영
김선영
김성범
김소애
김소윤
김수옥 · 성기철
김숙희 · 김경룡
김순남
김순옥
김순정
김영곤
김영미
김영애 · 김명호
김원성
김원희 · 최승희

김유미
김유연
김은숙
김은예 · 김준만
김은자
김은지
김정인
김중희 · 임관영
김주영
김주일
김주하
김주희 · 신동석
김철호
김해숙
김현옥
김현정
김현정
김현주
김현주
김현중
김혜경
김해숙
김혜진
김호숙
김효선 · 최용현
김효진
김희영
남경아
남미정
남순혜
노진선
라미정
류상준
류정화
문연두
민은경
박경란
박금주
박노준
박명하
박미나
박미영
박상현
박소정
박신실
박연수 · 김국형
박영배
박원민 · 김희경
박은미 · 권명기
박은애
박은정
박은하

박익환
박재영
박주영
박주현
배경옥
배은귀
백승원
변경애
변지혜 · 이영일
서상운
서영숙
서옥희
서은정
서재인 · 하등은
석지선 · 신대우
성정란 · 박원배
손선희
손현숙
송경아
송미경
송상미
송윤희
신국봉
신민희
신상희
신순덕
신옥자
신정숙
신진환
신현송
신현진 · 길기원
신희정
심중희
심지영 · 김대원
심형자
안문수
안미경
안성식
안승화
안제경
안효주
양영숙
양윤실
양은영
양정숙
여성순
여기면
염춘녀
오세미
오정혁 · 윤효선
유수영
유순복
유지숙

유지윤
유혜원
윤기찬
윤정애
윤정은
윤정희
윤지희
윤현정 · 김현기
윤혜순 · 한남섭
윤호민
윤희정
은양숙 · 남기환
이경숙
이경하
이경희
이귀선 · 진경태
이금진
이도분
이미순
이미연
이미화
이복희
이상금
이상민
이석원
이선아
이선영
이선화 · 주진태
이선희
이세라 · 전병철
이소연
이수영
이수진
이숙경
이순이
이순이
이영은
이옥란
이우찬
이유리
이유미
이윤희
이은미
이은유
이은희
이정민 · 이상열
이정혜
이정호
이정희
이지현
이지혜
이진호
이차선

이청익 · 고숙희
이현숙
이혜화
이화정
이효정
이효진
이희정 · 박대제
임경숙
임계숙
임미정
임부택
임분선
임은희
임혜옥
임희숙
장문정
장상애
장수민
장순향
장인순
장주현
전동진
전인숙
정리영
정명선
정명숙
정명철
정명희
정원경
정유상
정은숙
정은주
정정옥
정현주
정현철
조명자
조선국
조성희
조이라
조양례
조용일
조원정 · 김철호
조은아
조인규
조현아
주현순
지윤미
지정옥
차희정 · 최규식
채효숙
최민자
최미희 · 김수철
최민아

Founders Emerald
Emerald
Founders Sapphire
Sapphire
Founders Platinum
Ruby
Platinum
Gold Producer

Silver Producer
최선자
최영민
최영숙
최윤영
최윤정
최은령
최정민
최정은
최진하
최춘희
최향란
탁지연
하수연
하승엽
하효정
한경숙
한미경
한상찬
한순희
한은경
하은순
홍미애
홍성아
홍현규
홍현숙
황미정
황성진
황정례
황정미
황지현
August
가춘
강대성
강민정
강은정
강정량
고영우
고은영

Founders Emerald  
Emerald  
Founders Sapphire  
Sapphire  
Founders Platinum  
Platinum  
Ruby  
Platinum  
Gold Producer



## Silver Producer

권은경  
김경민  
김경화  
김남현  
김도환  
김명실 · 김철  
김민성  
김병식  
김셋별  
김선미  
김성미  
김수경  
김숙영  
김은선  
김정수  
김정원  
김정희  
김정희  
김혜경  
김혜영  
남동수  
남혁준  
문선희  
문소영 · 정헌배  
박경란

박경자  
박선경  
박성자  
박영남 · 공일근  
박희순  
방지영  
배정희  
백운향  
변희주  
서만숙  
설영란 · 김형구  
성현정  
손은숙  
손지연  
송미숙  
신보연  
신재실  
신정현 · 박홍진  
신정화  
신지희  
안권일  
안선희  
양동준  
양정자  
우윤선 · 조성용  
우혜미  
유미  
유성선  
유정아  
윤성희  
윤이나  
윤지현  
이경은  
이금순  
이미옥  
이상민  
이선영  
이용희  
이은실

이정명  
이정숙  
이혜진  
이효영  
임미영 · 차민기  
임지은  
임현주  
임효원  
장민희  
장영준  
장인숙  
전승만  
전애리  
전춘희  
정다운  
정선경  
정신영  
정지혜  
정혜미  
조수업  
조요셉 · 안희  
조주태  
조혜진 · 이세민  
최길림  
최문영  
최연환  
최윤정 · 석재웅  
최태연  
최혜연  
한은숙  
한이리나  
허연자  
홍재영  
황선아 · 김용준

### September

강민정  
강연미  
강유선

강현숙  
구다영  
권자은  
권혜연 · 윤여빈  
길일근  
김대호  
김동주 · 황금옥  
김선옥  
김소진  
김수라  
김순희  
김언녕  
김언미  
김옥순 · 김경호  
김은주  
김점자  
김정은  
김정이  
김정자  
김주희  
김진주  
김호정  
김희순  
나경옥  
남연우  
박근영  
박민주  
박성희  
박윤희 · 박영재  
박정현  
박종성  
박주영  
배지현  
선훈석  
성면규  
손옥란  
송민정 · 조찬형  
송소현  
신선아

심광면  
안재희  
양지혜  
양춘매  
여갑용  
오진아  
유미진  
윤정아  
은자경  
이경수  
이광선  
이근배  
이대훈  
이민아  
이봉순  
이상은  
이수희 · 이옥돌  
이승미  
이아름 · 노영석  
이연길 · 김수정  
이영희  
이용식  
이윤기  
이은미  
이정임  
이주영  
이지연  
이지영  
이진영  
이천매  
이현정  
임성순  
임정미  
장금란  
장명희  
정경희  
정순남 · 김상구  
정윤주  
조경희

조근연  
조문주  
조현정  
진소화  
최승원 · 이기석  
최은선  
최일봉  
최정화  
한아람  
현두레  
현석중  
홍성희 · 이영철  
홍영기 · 박동수  
홍지연 · 주갑준  
황성운

### June

김효경  
양진영  
윤미숙

### May

김정은  
이병훈 · 황정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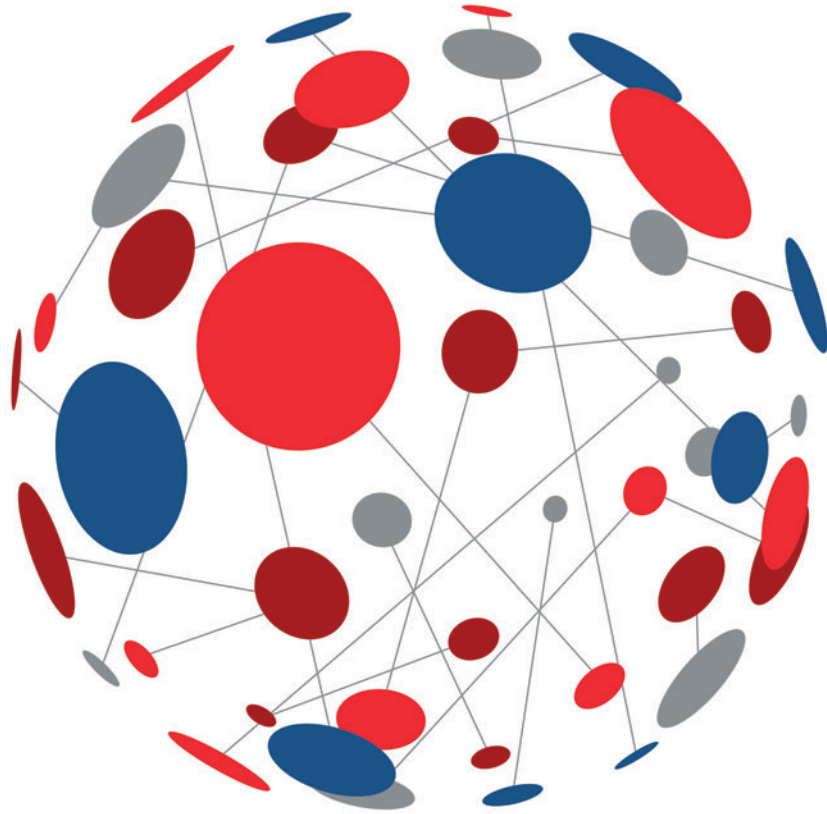
### April

김미순

## Andrew Carnegie

사실 나는 철강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다만 직원들이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왔을 뿐입니다.





# studio**ABO**

ABO의 성공이 만들어 지는 공간

**Amway**

studioABO  
LIVE



# ABO의 성공이 만들어지는 공간

studioABO는 ABO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Amway와 ABO가 함께 만들어가는 통합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AP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studioABO Live와 스마트 기기를 통해 각종 교육 콘텐츠를 만날 수 있는 studioABO Mobile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Amway**

studioABO  
MOBILE



studioABO

## studioABO LIVE

PLATINUM 성취에 도전하는 15% 이상의 리더들을 위한 **studioABO LIVE**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스킬과 노하우를 만나보세요

## studioABO MOBILE

비즈니스 성장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언제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 studioABO Mobile**이 2017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studioABO 소개영상



# RULES OF CONDUCT

## 적법한 제품 및 사업 전달 관련 안내

암웨이 사업은 제품과 사업 기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만큼, 올바른 정보 전달의 중요성은 그 가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크며, 특히 인터넷이나 디지털 매체 등을 이용한 사업 활동은 매체의 전파력을 고려하여 보다 신중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특히 카카오톡과 같은 SNS를 비롯한 개인 블로그, 인터넷 카페, 유튜브 및 유사 매체에 암웨이 제품과 사업 전반에 대하여 검증되지 않은 허위, 과장성 내용을 작성하거나, 타인이 작성한 게시물을 퍼오기 등의 방식으로 게재한 경우에도 그 내용을 접하는 사람에게 잘못된 인식이나 오해를 줄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암웨이 제품이나 사업 기회를 전달하실 때에는 반드시 한국암웨이가 ABN 및 각종 소식지 등을 통해 제공하는 공식적인 정보만을 전달해 주시고,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하시어 더욱 건전하고 장기적인 사업 성장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 허용되지 않는 광고 내용 및 행위 (예시)

- 암웨이 제품이 질병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표현 (체험 사례 포함)
- 타사 제품과의 비교 및 비방
- 관련 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 기능성 광고
- 의료 기관이나 의약품, 수돗물 등의 안전성을 폄하하는 내용
- 암웨이 관련 게시물의 전체 공개, 검색어 및 해시태그(#) 등을 이용한 검색 기능 부여
- 검증되지 않은 글의 재배포(퍼오기, 복사하기 등)

허위, 과장광고는 암웨이 윤리강령 및 행동지침 위반에 따른 조치는 물론, 법규 위반에 따른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 및 법규를 숙지 및 준수하시어 적법하고 건강한 사업 성장을 이루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뉴트리라이트 X 이용대 꾸준함은 타고난 재능도 이긴다

저는 화려한 플레이를 하는 선수가 아닙니다  
 별다른 주특기도 없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에겐 꾸준함이라는 무기가 있으니까요  
 연습생일 때나 국가대표일 때나  
 제가 하는 건 늘 똑같습니다  
 긴장을 놓지 않고 훈련하는 것,  
 그리고 매일 뉴트리라이트 더블엑스와  
 뉴트리 파이토 푸로틴으로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죠



## 이용대선수의 MUST HAVE ITEM

147지비타민과 97지무기질 20여가지 식물농축물부원료를 담은 뉴트리라이트 더블엑스  
 대두, 밀, 완두콩 등에 들어있는 식물성 단백질질을 담은 뉴트리 파이토 푸로틴

암웨이 미술관은 양질의 전시와 음악회 등으로 지역사회 시민들의 문화 생활을 돕고, 예술로 여가를 제공하는 암웨이만의 공간입니다



# 그 회사, 예술 하는 회사도 아니면서 미술관을 열었다면서요?

네, 암웨이는 어쩌면 작은 공간일지도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술을 더 가까이 했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  
우리의 공간을 시민과 나누는 **암웨이 미술관**을 운영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활짝 열고 나누면  
좋은 생활은 더 좋아진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생활을 바꿉니다  
좋은생활 주식회사

Amway

ACHIEVE Vol. 19 2016년 12월 발행 통권 제19호 / 등록번호 강남.바.00116 / 발행처 한국암웨이(주) / VPS 번호: 7593 / ABO 가격: 5,000원 / Non-PV 제품

ACHIEVE



276213K